

국립국어원 2014-01-5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555-01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 책임자

원 미 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4-01-5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555-01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 책임자

원 미 진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연구 책임자: 원미진(연세대학교)

연구 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원미진

공동 연구원 강현화, 유현경, 윤재학, 장소원, 조태린

현지공동연구원 김지은, 이현규, 장석배, 차지현, Mary Shin Kim

연구 보조원 강병현, 남신혜, 유소영, 윤종원, 이시재, 최소현
나원경, 박호은, 어지혜, 황지나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본 연구는 재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가진다. 첫째, 재미 동포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 및 능력, 한국어 사용 환경과 그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모어로서의 한국어가 어떻게 변화, 발전, 전승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구체적인 변이 형태를 조사한다. 둘째, 조사 자료를 지역, 나이, 이주 세대, 거주 기간, 성별, 학력 및 직업 등 다양한 사회적 변인에 따라 분석하여 언어 사용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고 이들 변인들의 영향을 밝힌다. 셋째, 재외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라는 장기적인 과제 달성을 위해 재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타 지역과 비교하여 동포 간의 공통성과 특수성을 밝힌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재외 동포들 간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재미 동포의 이주 역사와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뉴욕,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시카고, 그리고 하와이의 호놀룰루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분석에는 조사 참가자의 지역, 성별, 연령, 이주 세대, 거주 기간, 직업, 학력 및 최종 학력 취득 국가를 변인으로 삼았다.

먼저 각 항목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태도 및 정체성 항목을 분석한 결과, 언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언어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재미 동포들은 한국어보다 영어 능력의 필요성을 약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 재중 동포나 독립국가 연합 동포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에 대한 정체성에 있어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 동포에 비해 높았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느낌이 영어와 미국 문화에 대한 느낌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언어 능력을 분석한 결과, 세대별, 직업별, 학력별로 차이가 있었다. 세대 별로 보면 1세대는 모든 영역에 있어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반면에 2세대의 경우는 반대로 영어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1.5세대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다만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만 영어 능력이 한국어 능력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과 학력 별로 보면,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고학력자의 영어 능력이 비교적 높았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자영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영어 능력이 비교적 낮았다.

셋째, 언어 사용 환경을 분석한 결과, 재미 동포들은 직업적으로는 영어 사용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사교적 모임에 있어서는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종교적 장면에서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화 상대자를 중심으로 보면, 가정에서는 80% 가까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는 여전히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는 95%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의 위상 변화와 함께 한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며 한국어를 아는 것이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자녀들의 성공에도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2세대나 1.5세대들 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의향을 드러냈으며 전문적인 수준까지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응답을 한 응답자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변인별로 분석한 종합해 보면, 재미 동포들의 언어 사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세대 변인이었는데 이것은 재미 동포들의 경우는 재중 동포나 독립 국가 연합 동포와는 달리 1세대, 1.5세대, 2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여전히 1세대 이민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 변인은 모든 항목에 있어서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직업이나 학력 변인은 항목에 따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보다는 연령별, 세대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층 인터뷰 및 현지 매체 자료 조사를 통한 변이 형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미 동포 사회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의 변이 형태는 현재 한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일종의 비개신형으로 볼 수 있는 옛말 및 방언의 형태가 일부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이 형태는 영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한국어와 영어의 혼종어, 한국식 영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영어의 차용어가 나타났다. 또한 1.5세대나 2세대가 사용하는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중간 언어의 양상도 일부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재미 동포 사회에서의 한국어는 아직까지 주된 언어이며 자생적으로 변화하기도 하는 생명력을 가진 언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2세대들의 경우에도 한국어에 대한 정체성이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재미 동포 사회에서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재미 동포를 위한 언어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재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의 목표 또는 철학이

다중적, 다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현지 실정에 맞는 한국어 교재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가정 학습용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한국어 교육의 제도 교육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대학들이 한국어학과 또는 한국학과를 개설하고 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재미 동포, 사회적 변인, 언어 사용 실태, 언어 태도, 언어 정체성, 언어 능력, 언어 사용 환경, 한국어 교육, 변인 형태, 언어 정책, 한국어, 영어

<Abstract>

A Survey on Language Use of Korean Americans in the US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language use patterns of Korean Americans with the specific objectives as follows. First, it is to comprehend how Korean language has been variated, developed and transcended in Korean American society and to present some variant samples by analyzing their language attitude, proficiency, environments and use patterns concerning Korean language as their first language. Second, it is to identify the validity and the relevancy of variables affecting the language use patterns by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by social variables such as region, age, immigrant generation, residency period, gender,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 Third, it is to identify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by comparing with other regions in order to accomplish the long-term plan titled the research on the language use patterns of the overseas Koreans. Ultimately,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in making policies to facilitate and reinforce the communication among overseas Koreans.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relevant data is collected using the methodology of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Considering the immigration history and the major residential locations of Korean Americans, five main spots which are New York, Los Angeles, Atlanta, Chicago and Hawaii and their surrounding areas were selected to conduct this research project. Basic demographic data such as residential locations, gender, age, immigrant generations, occupation, education level and the country of the last education received were taken as the key variables for the analysis.

The result of analysis by topics are as follows.

Firstly, the analysis of the topic related to language attitude and identity revealed that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erception on the necessity of the language proficiency and the perception on the language identity. Korean Americans perceive the necessity of English proficiency is slightly stronger than the necessity of Korean proficiency. This result reflects that Korean Americans generally put more importance on the language of their residential country and it is not different from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on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the CIS. However, the percentage of Koreans who perceive

Korean language as their mother tongue is higher in the US, comparing to China and the CIS. In addition to that, Korean Americans show more positive perception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an English and American culture.

Secondly, the analysis of language proficiency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variables which are immigrant generation, occupation and education level. Based on the analysis by the immigrant generation variable, the first-generation immigrants show high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 in all areas, whereas the second-generation immigrants show the opposite results. For the 1.5th generation immigra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ir Korean and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however their English ability excels their Korean ability in professional subject areas. Based on the analysis by the occupation and the education level variables, highly educated participants who are either professionals or office workers show higher English proficiency than those who are self-employed or in service industry and those who did not receive education in the US.

Thirdly, the analysis of language use environments reveals that Korean Americans use English more frequently in their occupational situation, however they use Korean more often in socializing events, particularly religious activities. When the conversation counterparts are considered, nearly 80% of Korean Americans use Korean at home, particularly to senior members of the family.

Fourthly, the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Korean Americans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veal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of all, 95% of participants affirmatively responded about teaching Korean language to their children. This result implies positive changes in their perception about Korea and the importance of Korean language and also reflects the trend that more Korean Americans realize Korean proficiency is essential for family communication and successful career for their children. Accordingly, a number of participants from the second or the 1.5th generation immigrants whose Korean proficiency are relatively weak showed their interest in learning Korean and many of them responded that they would want to learn Korean even up to an advanced level.

The analysis by different variables concluded as follows. The variable of the immigrant generation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to the language use of Korean Americans due to the uniqueness of Korean American society where different generations are still residing closely and where there is still active inflow

of first-generation immigrants from Korea to the US. This phenomenon is unlike other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the CIS. Meanwhile, the residential location variable does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hroughout all the items. Besides, the variables of the occupation and the education level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for certain items, whereas the residential time variable shows less significant influence than the age variable and the immigrant generation variable.

The variants of Korean language were identified through in-depth interview and research on local media materials as follows. Some of the variants were old expressions or dialects that were not renewed and therefore rarely used in Korea nowadays. However, most of the variants are influenced by English vocabularies that include hybrids of Korean and English, Korean style English and loanword from English that are seldom used in Korea. Besides, a number of inter-language expressions were also detected from the 1.5th and the second-generation immigrant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disclosed that Korean language is still a primary and self-evolving language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e second-generation immigrants still keep their language identity as Koreans regardless of their limited Korean proficiency and this fact creates positive outlook about the future of Korean language in the Korean American society.

Last but not least,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project will also bring the following suggestions about the language policy for overseas Koreans. First, the goals or the principl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for Korean Americans should be set in multi-dimensional ways. Second, the expertise of Korean language teacher need to be enhanced. Therefore, there should be considerations in policies on expanding training opportunities, supporting Korean language teaching certificate courses, reinforcing teacher's qualification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 of Korean Language Schools teachers. Third, Korean materials should be localized and developed by the need of Korean-American in the US. Fourth, Korean language education materials for home learners need to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Fifth, Korean language education needs to be further expanded in public education curriculum in the US. Therefore, Korean governments should consider assisting universities in the US to set up departments of Korean Language or Korean Studies so as to raise qualified Korean language teachers.

Key words : Korean Americans, social variables, language use patterns, language attitude, language identity, language proficiency, language use environments, Korean language education, language variants, language policy, Korean language, English

차 례

I. 연구 개요	1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필요성	2
3. 연구의 의의	3
제2장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5
1. 연구의 배경	5
1.1 이주 역사 및 세대별 분포 특성	6
1.2 지역별 한인 거주 분포의 특성	10
1.3 기타 사회적 변인에 따른 분포 특성	12
2. 언어 실태 조사 관련 선행연구	16
2.1 설문 조사를 위한 선행연구의 검토	16
2.1.1 언어 사용 태도	16
2.1.2 네 가지 언어 기능 능력	23
2.1.3 언어 사용 환경 및 언어 선택	26
2.1.4 언어 습득과 한국어 교육	29
2.2 한국어 변이 형태 및 중간언어 조사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37
제3장 연구의 절차 및 방법	47
1. 연구의 범위	47
2. 조사의 절차 및 고려 사항	50
3. 조사 대상 선정 방법	51
II. 언어 실태 조사 결과 분석	54

제1장 조사 지역과 조사 대상자	54
1. 조사 지역	54
2. 조사 대상자의 기초 정보와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55
2.1 기본 정보	55
2.2 조사 대상자의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64
제2장 언어에 대한 태도 및 인식	69
1. 언어 능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69
2. 한국어에 대한 태도	78
3. 모국어에 대한 인식	84
4. 언어의 사용 양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	90
4.1 더 잘하는 언어	90
4.2 평소 더 많이 사용하는 언어	96
4.3 가족 간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	102
4.4 듣기에 편한 언어	108
4.5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114
4.6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한국어와 영어 종합 비교	119
5.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	120
5.1 더 많이 사용될 언어	120
5.2 한국어의 미래의 모습	125
6.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느낌	131
7. 한국적 성향 및 미국적 성향	137
제3장 네 가지 언어 기능 능력	139
1. 한국어와 영어 능력 비교 분석	139
2. 세대별 언어 능력 분석	144
3. 변인별 언어 능력 분석	151
제4장 언어 사용 환경 및 언어 선택	157
1. 재미 동포들의 언어 사용 환경	157

1.1 직업적 교류에 대한 변인별 분석	159
1.2 사교적 교류에 대한 변인별 분석	167
1.3 종교적 교류에 대한 변인별 분석	175
2. 한국 방문 경험 및 횟수와 체류 기간	183
3. 한국 방송 시청 시간 및 즐겨보는 프로그램	184
4. 가족 간 언어 사용	193
4.1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193
4.2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201
5. 대화 대상과 상황별 언어 사용	209
5.1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209
5.2 특수한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217
제5장 언어 습득과 한국어 교육	225
1.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225
1.1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필요성 인식	225
1.2 자녀를 한국어 학교에 보내는 이유	227
2.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229
2.1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경험 여부	229
2.2 한국어 학습 장소	229
2.3 한국어 사용 기간	230
2.4 한국어 학습 이유	230
2.5 한국어 학습 시 어려움	231
2.6 한국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	232
2.7 한국어 수업에 보충이 필요한 점	233
2.8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이유	233
2.9 한국어 학습 의향	234
2.10 한국어 학습 희망 이유	235
2.11 한국어 학습 희망 성취 수준	236
제6장 재미 동포의 한국어 변이 형태 자료의 구축	237

1. 비개신형	238
2. 혼종어	241
3. 외국어	246
3.1 원형 외국어	247
3.2 변형 외국어	261
4. 중간언어	262
 제7장 재미 동포의 언어 실태와 이중 언어 정책 제언	267
1. 재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요약	267
2. 재미 동포를 위한 이중 언어 정책 제언	269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274
 참고문헌	277
<부록 1> 국문 설문지	290
<부록 2> 영문 설문지	308
<부록 3> 설문지 문항 비교	328

표 차 례

<표 1> 재미동포 현황 총계	5
<표 2> 재미 동포의 이주 세대별 특성	9
<표 3> 세대별 한국계 인구의 분포	9
<표 4> 미국 주별 한인 인구 분포 상황	11
<표 5> 한국계 미국인 수와 한인 밀집 지역 상위 10곳의 성장률	12
<표 6> 한국계 미국인의 직업별 특성 (25-64세)	13
<표 7> 순 한국계 미국인의 교육 수준 (25-64세)	13
<표 8> 기혼 한국계 미국인의 세대별 및 성별 인종 간 결혼 비율 (2006-2008년)	15
<표 9> 언어 태도 관련 설문 항목	23
<표 10> 언어 능력 관련 설문 항목	24
<표 11> 언어 사용 환경 및 선택 관련 설문 항목	28
<표 12> 미국 정규 학교의 한국어 반 개설 현황	34
<표 13> 전세계 한글학교 지역/국가별 현황 (2012년 통계)	35
<표 14> 공관별 한글학교 수, 교원 수, 학생 수 (2012년 기준)	35
<표 15> 미국 내 한글학교 현황	36
<표 16> 언어 습득과 한국어 교육 관련 설문 항목	37
<표 17> 조사 영역별 질문지 구성 내용	47
<표 18> 이주 세대별 변인의 고려사항	48
<표 19> 지역별 변인의 고려사항	49
<표 20> 인구학적, 사회학적 변인의 고려사항	49
<표 21> 한국어 변종 조사 내용 및 방법	50
<표 22> 지역별, 세대별 최소 조사대상자 수	52
<표 23> 조사 지역 별 조사 지점 및 대상자 수	55
<표 24> 연령대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	55
<표 25>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	56
<표 26> 출생지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	56
<표 27> 조사 대상자의 어머니의 출생국	57
<표 28> 조사 대상자의 아버지의 출생국	57
<표 29> 배우자 민족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	58

<표 30> 조사 대상자의 국적별 분포	58
<표 31> 조사 대상자의 이주 시 연령별 분포	59
<표 32> 조사 대상자의 이주 세대별 분포	59
<표 33> 거주 기간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	60
<표 34> 조사 대상자의 직업별 분포	61
<표 35>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별 분포	62
<표 36>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 국가	62
<표 37>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 국가	63
<표 38>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출생지	64
<표 39>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국적 상태	64
<표 40>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이주 세대	65
<표 41>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거주 기간	65
<표 42>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이주연도	66
<표 43>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직업	66
<표 44>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최종학력	67
<표 45>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최종학력 나라	67
<표 46> 조사 대상자의 성별 배우자 민족	68
<표 47> 언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69
<표 48> 언어 능력의 필요성 성별 분석	70
<표 49> 언어 능력의 필요성 연령별 분석	71
<표 50> 언어능력의 필요성 이주 세대별 분석	72
<표 51> 언어능력의 필요성 이주 세대별 분석(1세대)	73
<표 52> 언어능력의 필요성 이주 세대별 분석(2세대)	73
<표 53> 언어능력의 필요성 이주 세대별 분석(3세대)	73
<표 54> 언어능력의 필요성 거주 기간별 분석	73
<표 55> 언어능력의 필요성 직업별 분석	75
<표 56> 언어능력의 필요성 학력별 분석	76
<표 57> 언어능력의 필요성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77
<표 58> 한국어 사용 당위성에 대한 인식	78
<표 59> 한국어 사용 당위성 성별 분석	78

<표 60> 한국어 사용 당위성 연령별 분석	79
<표 61> 한국어 사용 당위성 이주 세대별 분석	80
<표 62> 한국어 사용 당위성 거주 기간별 분석	80
<표 63> 한국어 사용 당위성 직업별 분석	81
<표 64> 한국어 사용의 당위성 학력별 분석	82
<표 65> 한국어 사용의 당위성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82
<표 66> 모국어에 대한 인식	84
<표 67> 모국어 인식 성별 분석	84
<표 68> 모국어 인식 연령별 분석	85
<표 69> 모국어 인식 이주 세대별 분석	86
<표 70> 모국어 인식 거주 기간별 분석	87
<표 71> 모국어 인식 직업별 분석	87
<표 72> 모국어 인식 학력별 분석	88
<표 73> 모국어 인식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88
<표 74> 더 잘하는 언어 분석	90
<표 75> 더 잘하는 언어 성별 분석	90
<표 76> 더 잘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91
<표 77> 더 잘하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92
<표 78> 더 잘하는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93
<표 79> 더 잘하는 언어 직업별 분석	93
<표 80> 더 잘하는 언어 학력별 분석	94
<표 81> 더 잘하는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94
<표 82> 평소 많이 쓰는 언어 분석	96
<표 83>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성별 분석	96
<표 84>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연령별 분석	97
<표 85>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98
<표 86> 평소 많이 쓰는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98
<표 87>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직업별 분석	99
<표 88> 평소 많이 쓰는 언어 학력별 분석	100
<표 89>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00

<표 90> 가족 간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 분석	102
<표 91>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성별 분석	102
<표 92>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연령별 분석	103
<표 93>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104
<표 94>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104
<표 95>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직업별 분석	105
<표 96>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학력별 분석	106
<표 97>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07
<표 98> 듣기 편한 언어 분석	108
<표 99> 듣기 편한 언어 성별 분석	108
<표 100> 듣기 편한 언어 연령별 분석	108
<표 101> 듣기 편한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109
<표 102> 듣기 편한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110
<표 103> 듣기 편한 언어 직업별 분석	111
<표 104> 듣기 편한 언어 학력별 분석	112
<표 105> 듣기 편한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12
<표 106>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분석	114
<표 107>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성별 분석	114
<표 108>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115
<표 109>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116
<표 110>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116
<표 111>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직업별 분석	117
<표 112>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학력별 분석	118
<표 113>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18
<표 114> 언어 인식 및 태도에 관한 한국어와 영어 종합 비교	119
<표 115> 한인 사회에서 더 많이 사용될 언어 분석	120
<표 116>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성별 분석	120
<표 117>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연령별 분석	121
<표 118>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122
<표 119> 더 많이 사용될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122

<표 120>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직업별 분석	123
<표 121> 더 많이 사용될 언어 학력별 분석	123
<표 122>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24
<표 123>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	125
<표 124> 한국어의 미래 성별 분석	125
<표 125> 한국어의 미래 연령별 분석	126
<표 126> 한국어의 미래 이주 세대별 분석	127
<표 127> 한국어의 미래 거주 기간별 분석	127
<표 128> 한국어의 미래에 직업별 분석	128
<표 129> 한국어의 미래 학력별 분석	128
<표 130> 한국어의 미래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29
<표 131>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느낌 분석	131
<표 132> 한국어와 영어의 느낌 성별 분석	132
<표 133> 한국어와 영어의 느낌 연령별 분석	132
<표 134> 한국어와 영어의 느낌 이주 세대별 분석	133
<표 135> 한국어와 영어의 느낌 거주 기간별 분석	134
<표 136> 한국어와 영어의 느낌 직업별 분석	135
<표 137> 한국어와 영어의 느낌 학력별 분석	135
<표 138> 한국어와 영어의 느낌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36
<표 139> 한국적 성향 및 미국적 성향에 대한 분석	137
<표 140> 말하기 능력 분석	139
<표 141> 듣기 능력 분석	140
<표 142> 읽기 능력 분석	141
<표 143> 쓰기 능력 분석	142
<표 144> 언어의 네 기능 분석	142
<표 145> 언어 능력 이주 세대별 분석	144
<표 146> 말하기 능력에 대한 1세대 분석	145
<표 147> 언어 능력 이주 세대별 분석	145
<표 148> 읽기 능력에 대한 1세대 분석	145
<표 149> 쓰기 능력에 대한 1세대 분석	146

<표 150> 말하기 능력에 대한 1.5세대 분석	147
<표 151> 듣기 능력에 대한 1.5세대 분석	147
<표 152> 읽기 능력에 대한 1.5세대 분석	148
<표 153> 쓰기 능력에 대한 1.5세대 분석	148
<표 154> 말하기 능력에 대한 2세대 분석	149
<표 155> 쓰기 능력에 대한 1.5세대 분석	149
<표 156> 읽기 능력에 대한 2세대 분석	149
<표 157> 쓰기 능력에 대한 2세대 분석	150
<표 158> 언어 능력 성별 분석	151
<표 159> 언어 능력 연령별 분석	152
<표 160> 언어 능력 거주 기간별 분석	153
<표 161> 언어 능력 직업별 분석	154
<표 162> 언어 능력 학력별 분석	155
<표 163> 언어 능력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56
<표 164> 직업적 교류 분석	157
<표 165> 사교적 교류 분석	158
<표 166> 종교적 교류 분석	158
<표 167> 직업적 교류 성별 분석	160
<표 168> 직업적 교류 연령별 분석	160
<표 169> 직업적 교류 이주 세대별 분석	161
<표 170> 직업적 교류 거주 기간별 분석	162
<표 171> 직업적 교류 직업별 분석	163
<표 172> 직업적 교류 학력별 분석	164
<표 173> 직업적 교류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65
<표 174> 사교적 교류 성별 분석	168
<표 175> 사교적 교류 연령별 분석	168
<표 176> 사교적 교류 이주 세대별 분석	169
<표 177> 사교적 교류 거주 기간별 분석	170
<표 178> 사교적 교류 직업별 분석	171
<표 179> 사교적 교류 학력별 분석	172

<표 180> 사교적 교류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73
<표 181> 종교적 교류 성별 분석	176
<표 182> 종교적 교류 연령별 분석	176
<표 183> 종교적 교류 이주 세대별 분석	177
<표 184> 종교적 교류 거주 기간별 분석	178
<표 185> 종교적 교류 직업별 분석	179
<표 186> 종교적 교류 학력별 분석	180
<표 187> 종교적 교류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81
<표 188> 한국 방문 경험 분석	183
<표 189> 최근 5년간 방문 횟수 분석	183
<표 190> 한국 방송 시청 기간 분석	185
<표 191> 즐겨보는 프로그램 분석	185
<표 192> 즐겨보는 프로그램 성별 분석	186
<표 193> 즐겨보는 프로그램 연령별 분석	186
<표 194> 즐겨보는 프로그램 이주 세대별 분석	188
<표 195> 즐겨보는 프로그램 거주 기간별 분석	189
<표 196> 즐겨보는 프로그램 직업별 분석	189
<표 197> 즐겨보는 프로그램 학력별 분석	190
<표 198> 즐겨보는 프로그램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91
<표 199> 가족에게 쓰는 말 분석	193
<표 200> 가족에게 쓰는 말 성별 분석	194
<표 201> 가족에게 쓰는 말 연령별 분석	195
<표 202> 가족에게 쓰는 말 이주 세대별 분석	196
<표 203> 가족에게 쓰는 말 거주 기간별 분석	197
<표 204> 가족에게 쓰는 말 직업별 분석	198
<표 205> 가족에게 쓰는 말 학력별 분석	199
<표 206> 가족에게 쓰는 말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200
<표 207>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분석	201
<표 208>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성별 분석	201
<표 209>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연령별 분석	202

<표 210>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이주 세대별 분석	203
<표 211>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거주 기간별 분석	204
<표 212>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직업별 분석	206
<표 213>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학력별 분석	207
<표 214>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208
<표 215>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분석	209
<표 216>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성별 분석	210
<표 217>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연령별 분석	211
<표 218>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이주 세대별 분석	212
<표 219>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거주 기간별 분석	213
<표 220>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직업별 분석	214
<표 221>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학력별 분석	215
<표 222>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216
<표 223> 특수한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분석	217
<표 224> 특수한 상황 성별 분석	217
<표 225> 특수한 상황 연령별 분석	218
<표 226> 특수한 상황 이주 세대별 분석	219
<표 227> 특수한 상황 거주 기간별 분석	220
<표 228> 특수한 상황 직업별 분석	222
<표 229> 특수한 상황 학력별 분석	223
<표 230> 특수한 상황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224
<표 231> 자녀들의 한국어 학교 출석 여부 분석	226
<표 232> 한국어 학교에 보내는 이유 분석	227
<표 233> 한국어 학교에 보내는 이유 이주 세대별 분석	228
<표 234> 설문 언어 사용 빈도 분석	229
<표 235> 한국어를 배운 기관 분석	230
<표 236> 한국어 사용 기간 분석	230
<표 237> 한국어 학습 이유 분석	231
<표 238> 한국어 학습 시 어려움 분석	232
<표 239> 한국어 수업 만족도 분석	232

<표 240> 한국어 수업에 보충해야 할 점 분석	233
<표 241>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이유 분석	234
<표 242> 한국어 학습 의향 분석	234
<표 243> 한국어 학습 의향 연령별 분석	235
<표 244> 한국어 학습 희망 이유 분석	235
<표 245> 한국어 학습 희망 성취 수준 분석	236
<표 246> 인터뷰 자료에 나타난 비개신형 및 방언 변이 형태	238
<표 247> 비개신형 및 방언 변이 형태 중 고빈도어	241
<표 248> 인터뷰 자료에 나타난 혼종어 변이 형태 목록	241
<표 249> 매체 자료에 나타난 혼종어 변이 형태 목록	245
<표 250> 혼종어 변이 형태 중 고빈도어	246
<표 251> 인터뷰 자료에 나타난 외국어 변이 형태 목록	247
<표 252> 매체 자료에 출현한 외국어 변이 형태 목록	258
<표 253> 매체 자료와 인터뷰 자료에 중복 출현한 외국어 변이 형태	260
<표 254> 외국어 변이 형태 중 고빈도어	261
<표 255> 매체 자료에 나타난 변형 외국어 변이 형태	262
<표 256> 인터뷰 자료에 나타난 변형 외국어 변이 형태	262

그 립 차 례

<그림 1> 연령대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	55
<그림 2>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	56
<그림 3> 출생지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	56
<그림 4> 배우자 민족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	58
<그림 5> 조사 대상자의 국적별 분포	58
<그림 6> 조사 대상자의 이주 세대별 분포	60
<그림 7> 거주 기간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	60
<그림 8> 조사 대상자의 직업별 분포	61
<그림 9>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별 분포	62
<그림 10>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 국가	62
<그림 11>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 국가	63
<그림 12> 언어 능력 필요성 인식 비교	69
<그림 13> 언어 능력의 필요성 연령별 분석	71
<그림 14> 언어능력의 필요성 이주 세대별 분석	72
<그림 15> 언어능력의 필요성 거주 기간별 분석	74
<그림 16> 언어능력의 필요성 직업별 분석	75
<그림 17> 언어능력의 필요성 학력별 분석	76
<그림 18> 언어능력의 필요성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76
<그림 19> 한국어 사용 당위성에 대한 인식	78
<그림 20> 한국어 사용 당위성 성별 분석	78
<그림 21> 한국어 사용 당위성 연령별 분석	79
<그림 22> 한국어 사용 당위성 이주 세대별 분석	80
<그림 23> 한국어 사용 당위성 거주 기간별 분석	80
<그림 24> 한국어 사용 당위성 직업별 분석	81
<그림 25> 한국어 사용의 당위성 학력별 분석	82
<그림 26> 한국어 사용의 당위성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82
<그림 27> 모국어에 대한 인식	84
<그림 28> 모국어 인식 성별 분석	84

<그림 29> 모국어 인식 연령별 분석	85
<그림 30> 모국어 인식 이주 세대별 분석	86
<그림 31> 모국어 인식 거주 기간별 분석	87
<그림 32> 모국어 인식 직업별 분석	87
<그림 33> 모국어 인식 학력별 분석	88
<그림 34> 모국어 인식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88
<그림 35> 더 잘하는 언어 분석	90
<그림 36> 더 잘하는 언어 성별 분석	90
<그림 37> 더 잘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91
<그림 38> 더 잘하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92
<그림 39> 더 잘하는 언어 거주기간별 분석	93
<그림 40> 더 잘하는 언어 직업별 분석	93
<그림 41> 더 잘하는 언어 학력별 분석	94
<그림 42> 더 잘하는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95
<그림 43> 평소 많이 쓰는 언어 분석	96
<그림 44>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성별 분석	96
<그림 45>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연령별 분석	97
<그림 46>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98
<그림 47> 평소 많이 쓰는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98
<그림 48>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직업별 분석	99
<그림 49> 평소 많이 쓰는 언어 학력별 분석	100
<그림 50>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00
<그림 51> 가족 간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 분석	102
<그림 52>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성별 분석	103
<그림 53>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연령별 분석	103
<그림 54>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104
<그림 55>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105
<그림 56>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직업별 분석	106
<그림 57>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학력별 분석	106
<그림 58>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07

<그림 59> 듣기 편한 언어 분석	108
<그림 60> 듣기 편한 언어 성별 분석	108
<그림 61> 듣기 편한 언어 연령별 분석	109
<그림 62> 듣기 편한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110
<그림 63> 듣기 편한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110
<그림 64> 듣기 편한 언어 직업별 분석	111
<그림 65> 듣기 편한 언어 학력별 분석	112
<그림 66> 듣기 편한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12
<그림 67>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분석	114
<그림 68>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성별 분석	114
<그림 69>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115
<그림 70>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116
<그림 71>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거주기간별 분석	116
<그림 72>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직업별 분석	117
<그림 73>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학력별 분석	118
<그림 74>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18
<그림 75> 한인 사회에서 더 많이 사용될 언어 분석	120
<그림 76>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성별 분석	120
<그림 77>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연령별 분석	121
<그림 78>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122
<그림 79> 더 많이 사용될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122
<그림 80>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직업별 분석	123
<그림 81> 더 많이 사용될 언어 학력별 분석	123
<그림 82>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24
<그림 83>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	125
<그림 84>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느낌 분석	131
<그림 85> 말하기 능력 분석	140
<그림 86> 듣기 능력 분석	140
<그림 87> 읽기 능력 분석	141
<그림 88> 쓰기 능력 분석	142

<그림 89> 언어의 네 기능 분석	143
<그림 90> 언어 능력 이주 세대별 분석	144
<그림 91> 언어 능력 성별 분석	151
<그림 92> 언어 능력 연령별 분석	152
<그림 93> 언어 능력 거주 기간별 분석	153
<그림 94> 언어 능력 직업별 분석	154
<그림 95> 언어 능력 학력별 분석	155
<그림 96> 언어 능력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56
<그림 97> 직업적 교류 분석	157
<그림 98> 사교적 교류 분석	158
<그림 99> 종교적 교류 분석	158
<그림 100> 직업적 교류 성별 분석	160
<그림 101> 직업적 교류 연령별 분석	161
<그림 102> 직업적 교류 이주 세대별 분석	162
<그림 103> 직업적 교류 거주 기간별 분석	163
<그림 104> 직업적 교류 직업별 분석	164
<그림 105> 직업적 교류 학력별 분석	165
<그림 106> 직업적 교류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66
<그림 107> 사교적 교류 성별 분석	168
<그림 108> 사교적 교류 연령별 분석	169
<그림 109> 사교적 교류 이주 세대별 분석	170
<그림 110> 사교적 교류에 거주 기간별 분석	170
<그림 111> 사교적 교류 직업별 분석	171
<그림 112> 사교적 교류 학력별 분석	173
<그림 113> 사교적 교류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73
<그림 114> 종교적 교류 성별 분석	176
<그림 115> 종교적 교류 연령별 분석	177
<그림 116> 종교적 교류 이주 세대별 분석	178
<그림 117> 종교적 교류 거주 기간별 분석	178
<그림 118> 종교적 교류 직업별 분석	180

<그림 119> 종교적 교류 학력별 분석	181
<그림 120> 종교적 교류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82
<그림 121> 한국 방문 경험 분석	183
<그림 122> 최근 5년간 방문 횟수 분석	183
<그림 123> 한국 방송 시청 기간 분석	185
<그림 124> 즐겨보는 프로그램 분석	185
<그림 125> 즐겨보는 프로그램 성별 분석	186
<그림 126> 즐겨보는 프로그램 연령별 분석	187
<그림 127> 즐겨보는 프로그램 이주 세대별 분석	188
<그림 128> 즐겨보는 프로그램 거주 기간별 분석	189
<그림 129> 즐겨보는 프로그램 직업별 분석	190
<그림 130> 즐겨보는 프로그램 학력별 분석	190
<그림 131> 즐겨보는 프로그램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91
<그림 132> 가족에게 쓰는 말 분석	193
<그림 133> 가족에게 쓰는 말 성별 분석	194
<그림 134> 가족에게 쓰는 말 연령별 분석	195
<그림 135> 가족에게 쓰는 말 이주 세대별 분석	196
<그림 136> 가족에게 쓰는 말 거주 기간별 분석	197
<그림 137> 가족에게 쓰는 말 직업별 분석	198
<그림 138> 가족에게 쓰는 말 학력별 분석	199
<그림 139> 가족에게 쓰는 말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200
<그림 140>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분석	201
<그림 141>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성별 분석	201
<그림 142>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연령별 분석	202
<그림 143>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이주 세대별 분석	204
<그림 144>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거주 기간별 분석	205
<그림 145>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직업별 분석	206
<그림 146>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학력별 분석	207
<그림 147>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208
<그림 148>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분석	209

<그림 149>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성별 분석	210
<그림 150>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연령별 분석	211
<그림 151>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이주 세대별 분석	212
<그림 152>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거주 기간별 분석	213
<그림 153>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직업별 분석	214
<그림 154>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학력별 분석	215
<그림 155>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216
<그림 156> 특수한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분석	217
<그림 157> 특수한 상황 성별 분석	217
<그림 158> 특수한 상황 연령별 분석	218
<그림 159> 특수한 상황 이주 세대별 분석	219
<그림 160> 특수한 상황 거주 기간별 분석	220
<그림 161> 특수한 상황 직업별 분석	222
<그림 162> 특수한 상황 학력별 분석	223
<그림 163> 특수한 상황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224
<그림 164> 자녀들의 한국어 학교 출석 여부 분석	226
<그림 165> 한국어 학교에 보내는 이유 분석	227
<그림 166> 한국어 학교에 보내는 이유 이주 세대별 분석	228
<그림 167> 설문 언어 사용 빈도 분석	229
<그림 168> 한국어를 배운 기관 분석	230
<그림 169> 한국어 사용 기간 분석	230
<그림 170> 한국어 학습 이유 분석	231
<그림 171> 한국어 학습 시 어려움 분석	232
<그림 172> 한국어 수업 만족도 분석	233
<그림 173> 한국어 수업에 보충해야 할 점 분석	233
<그림 174>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이유 분석	234
<그림 175> 한국어 학습 의향 분석	234
<그림 176> 한국어 학습 의향 연령별 분석	235
<그림 177> 한국어 학습 희망 이유 분석	236
<그림 178> 한국어 학습 희망 성취 수준 분석	236

I. 연구 개요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 동포의 수는 2013년 12월 현재 약 7,010,000명에 달한다. 재외 동포들이 모여, 또는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사용 환경에 놓여 있는 화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한국어 보급 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중에 재미 동포의 수는 2,091,432명으로¹⁾ 이는 재외 동포 전체의 약 30%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어에 대한 태도 및 사용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재외 동포의 언어 실태 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재미 동포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 및 한국어 사용 환경과 그 사용 양상을 파악하여 모어로서의 한국어가 어떻게 변화, 발전, 전승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재미 동포 사회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의 변이 형태를 조사하여 기초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재미 동포 사회에서의 한국어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조사 자료를 재미 동포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나이, 이주 세대, 거주 기간, 성별, 학력, 및 직업 등 다양한 사회적 변인에 따라 분석하여 구체적인 언어 사용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고 이들 변인들이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결과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재미 동포들의 언어 실태 조사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재중 동포와 재 독립국가연합 동포 연구 조사와 연관성 아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재외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라는 장기적인 과제 달성을 위해 다른 지역 동포와

1) 재미 동포의 수는 2013년 외교부의 재외동포현황에 따른 숫자이다. 재외동포재단의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도 7,010,000명으로 되어 있다.

의 공통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재외 동포들 간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하여,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이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시대에 소통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1900년대 초에 하와이 이민이 시작된 이래 재미 동포들의 이민은 197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연 30,000명 가량의 한인들이 이민을 가기 시작했다. 1950년의 한인 인구가 10,000명에 불과한데 비해 1970년에 69,150명, 1980년에는 357,393명, 1990년에는 789,849명으로 증가하였다.²⁾ 2000년의 미국 인구센서스 통계에 의하면 1,076,872명으로 1990년에 비해 35% 정도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706,822명으로 증가하였다.³⁾ 미국은 한인의 이민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10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재외 동포들이 사는 지역인 반면에 재중 동포나 재일 동포에 비해 가장 최근까지도 이민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1970년대 중반까지의 이민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화이트 칼라 직종에서 근무하다가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경우가 많았다. 즉, 대도시, 고학력, 전문직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197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부터는 노동직, 근로직, 기술직의 이민자들이 서서히 증가해서 직업적,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한 이민자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1960~70년대 이주한 이민 1세대들의 자녀들이 출생하고, 80년대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가족 단위로 이민을 온 가정들의 자녀들이 한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면서 미국 한인 사회는 양적 증가와 함께 다양한 세대 구성을 갖게 되었다. 1990년대에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잠시 줄어들던 미국 이민은 2000년 이후 교육 이민이

2) 1970년대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한 이민과 2세들의 출생으로 인해 재미한인 인구는 1950년의 10,000명에서 1970년의 69,150명, 1980년의 357,393명, 그리고 1990년에는 798,849명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인구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한인 인구는 1,076,872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90년에 비교해서 35% 증가한 것이다. 1백만 명이 넘는 한인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281,422,000명의 0.38%를 차지한다.(윤병석, 2003)

3) 이 숫자는 미연방인구센서스 자료의 숫자이며 재외동포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미 동포의 숫자와는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늘어나면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한인들은 밀집 지역(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점과 지역 교회가 친교, 정보 교환, 한국어와 문화 교육 등 전반적인 생활의 중심으로서 기능한다는 점,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⁴⁾ 그리고 자녀 교육열이 매우 높아 2세대의 전문직 진출이 높다는 점 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한인의 거주지 분포 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모이는 미국의 서부 해안 도시들과 동부의 몇 개 대도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⁵⁾ 그러므로 미국 내 전 지역에 거주하게 된 2백만 이상의 한인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에 한인들의 언어 의식이나 실태에 대한 조사와 그 실태의 배경이 되는 요인을 규명하는 일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연구의 의의

재미 동포에 대한 연구는 이민 역사에 대한 연구나 재미 한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재미 교포 2세들의 한국어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국가 기관의 지원으로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실시된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미 동포의 한국어 사용 양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련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 및 영어 능력, 한국어 및 영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의 관계를 포함한 한국어 사용 양상을 성별, 나이, 세대, 직업 및 학력과의 관련 양상을 분석하고, 각 변인들 간의 분석을 통해 언어 사용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을 찾아내는 것은 한국어 교육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4) 한인들은 높은 학력과 중산층 배경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특징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미국 노동 시장에서 이민자로서의 불이익을 경험한 후에 신분 상승과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한인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윤인진, 2002)

5)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인 인구의 44%가 서부, 23%가 동북부, 12%가 중서부, 그리고 21%가 남부에 거주하고 있다.(윤인진, 2002)

둘째, 그간 재중 동포나 재일 동포의 변종 한국어 조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데에 비해 재미 동포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변이 형태 조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본 연구는 재미 동포 사회에서 쓰이는 ‘한국어의 변이 형태’를 미국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에서 한국어가 영어와 혼합적 발달을 보이는 가운데 나타난 언어 현상으로 보고 재미 동포 사회에서 사용하는 어휘 및 문법 형태들이 영어의 영향으로 새로운 형태를 보이거나 혼종어를 생성한 것,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것, 영어에서 차용된 것을 포괄하여 조사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자료로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재미 동포 2세대의 한국어 습득 및 사용의 문제는 2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미 동포 전체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 및 사용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재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미 동포 사업은 장기적인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사업의 3차년도 사업이므로 이전의 1, 2차년도 사업인 중국 및 독립 국가 연합 조사 사업과의 비교가 가능하며, 이들 사업 수행 결과들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재외 동포 언어 사용 실태의 국가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체 재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양상을 파악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정체성 및 한국어 습득 및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의 배경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인의 숫자는 2013년 현재 2,091,432명이다. 이들의 연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재미 동포의 수는 재외 동포 가운데 가장 많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생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재미 동포의 특성을 반영한 언어 사용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단위 : 명)

<표 1> 재미동포 현황 총계

연도별	2013	2011	2009	2007	2005	2003
전 체	2,091,432	2,176,998	2,102,283	2,016,911	2,087,496	2,157,498

(출처 :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재미 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재중 동포, 독립국가연합 동포 연구와의 연계선상에서 재미 동포들의 언어생활 양상을 밝혀 한국어 사용의 공통성 안에서 변별성을 밝히는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미 동포는 그 이주 역사나 이주 배경이 다른 선행 연구 지역에 비해 다양하다. 이주 시기와 이주할 때의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위치에 있어서도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부터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까지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초 연구⁶⁾에서 제시한 지역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는 미국 내 거주 지역 간의 인구 이동, 재미 동포 2세의 증가를 고려하여 조사 지역 및 조사 대상을 재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초 연구에서 제시된 변인 이외에도 미국 내의 언어 사용 환경이 다르게 작용되는 변인을 파악하여 연령, 직업, 성, 학력 변인 이외에 이들의 이주 세대, 미국 거주 기간, 최종 학력의 미국 내 졸업 여부 등을 추가 변인으로 고려하여 파악해 보도록 하였다.

6) 기초 연구에서는 조사 지역을 로스앤젤레스, 뉴욕, 텍사스 3개 지역으로 잡았고, 조사 인원도 550명으로 잡았다.

1.1 이주 역사 및 세대별 분포 특성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 1905년 일제에 의해 이민이 금지되기 전까지 한인 이민은 대부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 이민으로 정착했다.⁷⁾ 이것이 재미 한인의 1세대의 시작이었다. 이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근면히 일해 자금을 모았고, 이들 중 일부는 사탕수수 농장을 떠나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본토로 진출하기도 했다. 재미 동포의 이주 시기 구분은 크게 세계 2차 대전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보는 흐름과 제1, 2, 3기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흐름이 있다. 2차 대전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미국 이민이 불가능한 시기와 가능한 시기로 구분한 미국의 이민 정책을 기준으로 한 분류인 반면, 좀 더 자세히 나눈 분류 방법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지만 1924년 동양인 이민 금지법이 시행되기까지를 제1기, 1924년부터 미국 이민법이 개정된 1965년까지를 제2기로 보고 그 이후 이민이 자유로워진 1965년 이후를 제3기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이다.⁸⁾ 1965년 이후도 1985년을 기점으로 미국 이주의 숫자가 줄어들고, 1990년 이후부터 그 성격이 달라지면서 이 시기를 따로 떼어 보는 견해도 있다.⁹⁾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내에서는 인종과 민족, 성, 종교, 언어에 대한 기존의 차별에 대해 저항하는 민권 운동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고, 그 결과로 1964년 인권법이 제정되었다. 이런 개방과 자유화의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1965년 기존의 이민법을 크게 개정하고 소수 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많은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는데, 이들 중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많았다. 그 밖에도 유학생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학생

7) 1902년 12월 121명이 제물포항을 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1905년 후반 이민이 금지될 때까지 약 7,200여 명의 한인이 노동이민으로 하와이에 도착했다. 초기 이민자들의 상당수는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 이유는 이민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이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 교인들을 대상으로 구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하와이 노동 이민은 학생, 선비, 군인, 머슴, 역부 및 건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되었다.(윤병석, 2003) 본 연구의 하와이 현지 조사에 의하면 하와이의 한인들은 1903년을 한국인이 하와이에 도착한 첫 해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02년 12월에 출발하여 1903년 초에 도착한 것이 첫 이주 역사라고 할 수 있겠다.

8) 구춘서, 이진, 김일수, 허원무, 김광정 등 다수의 연구자들이 한인의 미국 이주시기를 3시기로 구분한다.

9) 1990년대 이후의 이민을 교육형 이민이라는 특징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 (김선정, 2009)

비자로 미국에 들어간 후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졸업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정착했다. 또한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민한 여성들을 포함한 제3시기 이민자들은 완화된 이민 정책 하에서 한국의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하기 시작하면서 1970~80년대 한인 이민자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했다.¹⁰⁾ 특히 한국 전쟁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은 중에 전쟁 고아의 입양¹¹⁾과 주한 미군과 결혼한 한인 여성의 이민자들은¹²⁾ 다른 한인들과 달리 한인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고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다.

하와이의 경우는 앞에서 제시한 미국 이민의 첫 역사가 1903년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한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1세대 동포들이 한인 타운을 형성한 시기에 이미 1.5세나 2세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70년대 현재 하와이 이민 1세대들이 대거 이민을 시작했을 때 첫 이민 온 한인들의 자손은 한인 3세가 되어 있었다. 현재 하와이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인 3세와 3세의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숫자가 미국 내 한인의 전체에 비해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고, 하와이 한인 3세를 인터뷰 했지만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의 한인 3세대는 설문 조사에도 변이 형태 구축 자료에도 포함되지 못하였다.¹³⁾

10)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은 1970년 초부터 본 궤도에 올라서 연 30,000명 가량의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한인 이민의 정점을 이룬 1985년과 1987년 사이에는 연 35,000명의 한인들이 이민을 가서 멕시코와 필리핀 다음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간 3대 이민국이 되었다.(윤병석, 2003)

11) 1954년 전쟁고아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입양이 시작되었다. 해외입양은 2002년 말 현재 2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약 10만 명이 미국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양의 수는 전체 재미한인(200만 명)의 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윤병석, 2003)

12) 1950년부터 1964년까지 6,000명가량의 여성들이 미군의 배우자로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미군의 부인으로 이민 간 한인 여성들의 수는 10만 명에 달한다.(윤병석,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군들과 결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해 보려고 노력하여 80명 이상의 설문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비한국계 배우자와 결혼한 이들의 설문지의 비교 집단으로 비한국계 여성과 결혼한 설문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변인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최종보고회에서도 이들을 하나의 변인으로 놓고 분석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는 의견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비한국계 배우자 변인은 분석하지 않았다.

13) 특히 미국의 경우엔 구이민 세대와 신이민 세대로 구분을 하여 1965년 이전에 이주한 사람을 구이민 세대 그 이후를 신이민 세대로 분류하는데 1965년 전에 이주한 집단의 수가 많지 않고, 하와이의 경우에만 1900년대 초에 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재미 동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3세는 많이 없는 실정이어서 본 연구에는 하와이의 3세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그러므로 하와이의 경우를 제외하면 재미 동포들의 이주 역사에 있어 1965년 이전에 이주할 수 있었던 한인이 미군 부인이나 입양아, 유학생이었다고 볼 수 있고,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이주한 재미 동포들은 주로 전문가들로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각 주의 주립대학과 병원에 취직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병원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965년 이전에 유학 간 유학생들도 이민법의 개정으로 인해 미국에 정착해 살게 되면서 이들 전문가 집단이 미국 중소도시의 한인 사회 성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⁴⁾ 196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한인들은 대도시에서 한인 타운이 생겨나도록 활발히 활동하였고 한인회와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이민 사회의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 문화를 지키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해 왔다. 그리고 80년대를 전후하여 이민 온 이민자들은 언어 문제로 인해 전문직보다는 한인 사회의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들이 이민 1세대와 이민 1.5세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¹⁵⁾

이민 1세대라 함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인이 돼서 이민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들은 한국인이라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난 뒤에 미국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고 한국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반면 1.5세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기 이전에 미국에 이민을 온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한국에서의 성장 경험과 미국에서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구사하는 이중 언어 능력과 미국 문화에 익숙한 이중문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1세대와 다를 뿐 아니라 미

만 설문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의 3세대를 모을 수는 없었다. 또한 3세대 집단을 모아서 설문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와이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양적 조사에서는 3세대 대상자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14) 김선정 (2009)에서는 미국 이주 시기의 특성을 이렇게 기술하였다.

15) 제외동포 대상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기초 연구에서는 세대별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1세대: 피조사자가 한국 지역에서 출생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이주하여 해당 국외 조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5세대: 피조사자가 한국 지역에서 출생하여, 미성년일 때 부모를 따라서 이주하여 국외 조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세대: 피조사자가 국외 조사 지역 출신으로, 부모님이 1세인 사람으로서 해당 조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3세대: 피조사자 및 부모 중 한 쪽 또는 양쪽 모두 해당 조사 지역 출신이면서 조부모가 1세인 사람

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2세대와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편, 2세대는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이었고, 어린 시기부터 미국의 사회 문화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미국인으로서의 국민 정체성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 세대별 특징이 다르므로 이들의 특성을 변인으로 반영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표 2> 재미 동포의 이주 세대별 특성

세대별 변인	이주 시기	특성
1세대	성인이 되어서 이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한국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강함
1.5세대	미성년일 때 이주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 구사, 이중 문화적 특성
2세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7세 이전 이주 ¹⁶⁾	미국 사회 문화 속에서 성장, 한국어 능력 부족

한편, 재미 동포의 세대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세대별 인구 조사를 살펴보면 <표 3>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18세 미만이 약 20%, 18~64세의 청년 및 중장년층이 70%,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약 9%를 차지한다.

<표 3> 세대별 한국계 인구의 분포

세대	남자		여자		전체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18세 미만	152,051	24.2	133,190	17.3	285,241	20.4
18-64세	423,761	67.5	563,690	73.0	987,451	70.6
65세 이상	51,778	8.3	75,173	9.7	126,951	9.1
합계	627,590	100.0	772,053	100.0	1,399,643	100.0

(출처 : U.S. Census Bureau, 2006-2010 American Community Survey)

16) 미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에 대부분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배우기 전에 영어부터 배웠기 때문에 2세대와 언어적인 문제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이전에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2세대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이에 따른 재미 동포 분류를 보면 미국 이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18세 이하의 한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가 많고, 65세 이상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민 간 1세대라는 점을 알 수 있으나 18세에서 64세까지의 분포에는 이민 세대별로 1세대와 1.5세대, 그리고 2세대가 섞여 있다. 미국 인구 조사 센서스에 나타난 자료는 미국 시민권이 있거나 미국 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미 동포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그러므로 재외 동포 재단이 파악하고 있는 200만 명 이상의 한인들의 정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재미 동포를 미국 시민권이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일정 기간을 거주한 재미 동포들로 연구 대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국 내 10년 이상 거주자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고 단기 체류자나 유학생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변인으로 파악하도록 하였고, 또한 연령에 따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을 변인으로 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1.2 지역별 한인 거주 분포의 특성

2010년의 재미 동포의 인구 분포를 2000년과 비교하여 보면 <표 4>와 같다. 각 주별로 살펴보면 미국 전역에 걸쳐 재미 동포의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재미 동포의 거주가 많은 10개의 주를 비교하여 봤을 때 원래부터 재미 동포 인구가 많던 서쪽의 캘리포니아 지역과 뉴욕,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동북쪽 지역의 재미 동포 인구는 조금씩 증가한 데 반해 남부의 텍사스와 조지아 주의 재미 동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표를 바탕으로 보면 재미 동포의 지역별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남쪽 지방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조사 대상 선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 미국 주별 한인 인구 분포 상황

	주	2010년	2000년	증감율 (%)		주	2010년	2000 년	증감율 (%)
1	캘리포니아	451,892	345,882	30.65%	27	위스콘신	7,919	6,800	16.46%
2	뉴욕	140,994	119,846	17.65%	28	오클라호마	5,949	5,074	17.24%
3	뉴저지	93,679	65,349	43.35%	29	아이오와	5,537	5,063	9.36%
4	버지니아	70,577	45,279	55.87%	30	유타	5,379	3,473	54.88%
5	텍사스	67,750	45,571	48.67%	31	캔사스	5,234	4,529	15.57%
6	워싱턴	62,374	43,880	42.15%	32	캔터키	4,917	3,818	28.78%
7	일리노이	61,469	51,453	19.47%	33	사우스 캐롤 라이나	4,876	3,665	33.04%
8	조지아	52,431	28,745	82.40%	34	알래스카	4,684	4,573	2.43%
9	메릴랜드	48,592	39,155	24.10%	35	루이지아나	3,367	2,876	17.07%
10	펜실베이니 아	40,505	31,612	28.13%	36	네브라스카	2,678	2,423	10.52%
11	플로리다	26,205	19,139	36.92%	37	델라웨어	2,540	1,991	27.57%
12	하와이	24,203	23,537	2.83%	38	뉴멕시코	2,423	1,791	35.29%
13	미시간	24,186	20,866	15.91%	39	워싱턴DC	2,290	1,095	109.13%
14	메사추세츠	24,110	17,369	38.81%	40	아칸소	2,269	1,500	51.27%
15	콜로라도	20,433	15,395	32.72%	41	뉴햄프샤	2,175	1,800	20.83%
16	노스캐롤라 이나	19,221	12,600	52.55%	42	로드아일랜드	2,138	1,560	37.05%
17	오하이오	15,281	13,376	14.24%	43	아이다호	1,670	1,250	33.60%
18	오레곤	15,212	12,387	22.81%	44	미시시피	1,537	1,334	15.22%
19	애리조나	15,022	9,123	64.66%	45	메인	1,144	875	30.74%
20	미네소타	14,982	12,584	19.06%	46	웨스트 버지 니아	1,039	857	21.24%
21	네바다	13,896	7,554	83.96%	47	버몬트	889	669	32.88%
22	인디애나	10,322	7,502	37.59%	48	몬타나	837	833	0.48%
23	테네시	9,818	7,395	32.77%	49	사우스 다코 다	834	584	42.81%
24	코네티컷	9,619	7,064	36.17%	50	노스 다코다	609	411	48.18%
25	미주리	9,249	6,767	36.68%	51	와이오밍	508	412	23.30%
26	앨라바마	8,320	4,177	99.19%		합계	1,423,784	1,076,872	32.21%

(출처 : 미 연방 센서스국 '2010 인구조사')

거주 인구로 보아 재미 동포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10대 도시의 인구 및 이들의 성장률 분포를 보면 <표 5>와 같다. 상위 10개 도시에 살고 있는 재미 동포의 수는 1990년에는 65%가량이었으나 2010년에는 57%로 감소하였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25% 정도의 재미 동포가 몰려 살던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그 비중이 줄어 전체의 19%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내 대도시가 동쪽과 서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재미 동포의 거주 역시 동쪽과 서쪽에 집중되어 있다. 동쪽의 뉴욕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디씨, 필라델피아 지역을 합하면 20%가 넘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쪽의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3개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인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재미 동포의 밀집 지역 10곳 중에 5곳이 동쪽과 서쪽의 대도시들이고, 그밖에는 북쪽의 시카고와 남쪽의 애틀랜타와 댈러스가 재미 동포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들 동, 서, 남, 북의 네 개의 지역을 거점 지역으로 선정하여 이 대도시의 한인 타운에 거주하는 재미 동포뿐만 아니라 주위의 중소 도시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조사 방법을 선택하였다. 하와이의 경우 특정 대도시의 인구가 많지 않으나 본토와 이민의 역사가 다르고 주 전체로 봤을 때 한인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하와이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5> 한국계 미국인 수와 한인 밀집 지역 상위 10곳의 성장률

Metropolitan Area	1990		2000*		2010*	
	N	%	N	%	N	%
Los Angeles CMSA	194,437	24.3	272,498	22.2	324,586	19.0
New York CMSA	118,096	14.8	179,344	14.6	221,705	13.0
Washington D.C. CMSA	39,850	5.0	80,592	6.6	90,157	5.3
Seattle CMSA	23,901	3.0	49,139	4.0	64,771	3.8
Chicago CMSA	36,952	4.6	49,972	4.1	61,229	3.6
San Francisco CMSA	42,277	5.3	65,218	5.3	50,867	3.0
Atlanta CMSA	10,120	1.3	24,232	2.0	48,788	2.9
Honolulu CMSA	22,646	2.8	36,069	2.9	41,689	2.4
Philadelphia CMSA	24,568	3.1	31,820	2.6	40,292	2.4
Dallas CMSA	11,041	1.4	20,140	1.6	33,593	2.0
상위 10곳 광역지역권	523,888	65.6	809,024	65.9	977,677	57.3
미국 전체	798,849	100.0	1,076,872	100.0	1,706,822	100.0

(출처 : 미 연방 센서스국 '1990, 2000, 2010 인구조사')

1.3 기타 사회적 변인에 따른 분포 특성

재미 동포의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난다. 1세대에 비해 1.5세대, 2세대의 공공 부문 직장의 비율이 올라갔고, 관리직이나 전문직의

비율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자영업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인구 조사에 응한 한인들의 통계라는 점에 있어서 조사에서 빠진 재미동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 내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직업별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쓰게 한 뒤에 직업별 변인 파악을 위해 귀납적으로 직업분류를 다시 시도하여 직업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였다.¹⁷⁾

<표 6> 한국계 미국인의 직업별 특성 (25-64세)

	자영업 비율 (%)	공공 부문 직장 비율 (%)	관리직/전문직/기술자 비율 (%)
1세대	28.4	7.7	42.3
1.5세대	12.3	12.3	57.9
2세대	8.9	12.8	61.2

(출처: U.S. Census Bureau, The 2007-2011 American Community Surveys)

다음으로 재미 동포들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이들의 교육 수준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미국 내의 모든 이민자 집단의 학력(고졸 68.3%, 대졸 27.4%)에 비해서 현저히 높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학력을 모두 조사한 결과(고졸 88.6%, 대졸 28.2%)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¹⁸⁾ 그러므로 재미 동포들의 조사 자료에 있어 학력 변인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학을 다닌 것과 다니지 않은 것, 특히 대학을 미국에서 다닌 것과 한국에서 다닌 것은 차이가 있는 변인으로 나타날 것이라 판단되었으므로 최종 학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공교육 여부를 변인으로 넣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17) 기초 연구 및 선행 연구에서는 직업 분류표의 특정 직업군을 번호로 제시하고 번호로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이 분류 기준표의 특정 번호는 미국 내의 재미 동포의 직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많아서 구체적인 직업을 쓰도록 설문지를 변경하였다.

18) 한국 내의 학력 자료는 2010년 한국의 인구 조사 자료를, 미국 내의 이민자나 미국인에 대한 통계 자료는 2007-2011 American Community Surveys를 바탕으로 하였다.

<표 7> 순 한국계 미국인의 교육 수준 (25-64세)

구분	전 체		남		여	
	고등학교	대학	고등학교	대학	고등학교	대학
한국인 1세대	92.8	55.9	96.1	62.0	90.7	46.6
한국인 1.5세대	98.3	65.3	98.5	64.1	98.1	66.1
한국인 2세대	98.3	70.5	97.8	68.6	98.7	72.3

(출처: 2007-2011 American Community Surveys)

마지막으로 재미 동포들의 국제결혼 비율은 세대별로 뚜렷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언어 사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 간의 언어 사용 문제에 있어 배우자의 언어는 언어 사용 실태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국제결혼에 따른 변인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1세대의 국제결혼 비율이 14.5% 임에 비해 1.5세대는 52%, 2세대의 경우는 61%에 달해 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조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배우자의 국적을 조사하여 민족 내의 결혼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결혼 양상이 언어 사용 실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¹⁹⁾

19)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미국 내의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하면서 체감한 비율과는 차이가 있었다. 1.5세대나 2세대의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2세대의 경우에 기혼인 대상자를 많이 만나지 못했고, 1.5세대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비한국계인 경우에 한국 커뮤니티와 교류가 많지 않아서 설문 대상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비한국계 배우자와 결혼한 설문 대상자를 100여명밖에 조사하지 못했고, 이들 중에 대부분이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 비한국계 배우자 변인은 분석할 수 없었다.

<표 8> 기혼 한국계 미국인의 세대별 및 성별 인종 간 결혼 비율 (2006-2008년)

Marital Pattern	First Generation Korean			1.5 Generation Korean			Native-Born Korean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In-marriage	(85.5)	(96.8)	(76.5)	(47.4)	(62.9)	(35.3)	(38.8)	(45.1)	(33.2)
First generation Korean Spouse	80.1	92.0	70.6	27.0	38.5	18.0	10.0	14.3	6.1
1.5 generation Korean spouse	4.4	4.0	4.7	16.4	19.4	14.0	6.6	6.8	6.4
Native-born Korean Spouse	1.0	.8	1.2	4.1	5.0	3.3	22.2	24.0	20.6
Intermarriage	(14.5)	(3.2)	(23.5)	(52.6)	(37.1)	(64.7)	(61.2)	(54.9)	(66.8)
Non-Hispanic white Spouse	10.7	1.3	18.2	38.3	23.4	50.0	38.9	32.5	44.6
Other racial minority Spouse	1.8	.5	2.8	6.2	5.9	6.4	12.2	11.2	13.1
Other Asian spouse	2.0	1.4	2.5	8.0	7.8	8.2	10.1	11.1	9.1

(출처 : 2006-2008 American Community Surveys from IPUMS (Ruggles et al. 2008c))

2. 언어 실태 조사 관련 선행 연구

2.1 설문 조사를 위한 선행 연구의 검토

본 연구는 선행 재중동포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 동포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언어 사용 태도, 언어 능력, 언어 사용 환경 및 언어 선택, 언어 습득 및 한국어 교육 관련 내용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들 각 영역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뒤, 그를 바탕으로 도출된 설문 문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1.1 언어 사용 태도

1) 선행 연구 검토

언어 태도란 자신의 언어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언어에 대해 갖는 감정(Crystal, 1992)으로 언어가 주는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심리적 상태이다. 이러한 언어 태도는 좁게는 언어 자체에 대한 태도와 넓게는 언어 사용자에 대한 태도(이익섭, 2000:289), 언어 관리 및 계획 등 언어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한다. 언어 태도와 관련된 또 하나의 개념으로는 언어 이데올로기가 있다. 언어 이데올로기에 대해 Silverstein(1979:173)에서는 ‘주어진 언어의 구조와 사용에 대해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언어에 대한 화자의 분명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고 Rumsey(199:346)에서는 ‘언어의 본질에 대해 화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식적 가치관’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언어 태도와 언어 이데올로기는 동질적 속성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Baker(1992:14)에서는 언어 태도와 언어 이데올로기 사이의 차이는 그들의 학문적인 뿌리에 있음을 밝히면서 언어 태도는 사회심리학과 관련된 개념인 반면 언어 이데올로기는 사회학과 인류학의 영역에 그 기원을 둔다고 하였다.

한편, 언어 행동의 범주에 언어 태도의 결과들이 관여한다고 보고 언어 태도라는 용어 대신에 언어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민현식(2002)이 있다. 민현식(2002:79)은 언어 태도와 언어 의식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태도의 바탕에 있는 언어 의식이란 면을 부각시키고자 언어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원진숙(2014:117) 역시 언어 태도와 유사한 개념 중 하나로 언어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에 대해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태도나 가치관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박경래(2002), 박주형(2010)은 언어 의식은 언어에 대하여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나타내는 내적 사고 작용을 가리킨다는 점, 즉 심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언어 태도는 이러한 심리가 행동으로 드러나 구체적인 반응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언어 태도, 언어 이데올로기, 언어 의식 등의 용어가 때로는 궤를 같이 하면서, 때로는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언어 실태 조사 연구인 재중 동포 대상 연구 및 독립국가연합 동포 대상 연구를 따라 언어 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언어 태도는 접근 방법에 따라 사회언어학적 범주로서의 언어 태도와 언어 교육학적 범주로서의 언어 태도로도 구분할 수 있다. 사회언어학에서는 언어 태도를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으로 보며, 그것이 언어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언어 태도는 언어의 사회적 역할을 밝혀주는 도구로써 한 집단의 성원임을 드러내 주는 징표이고, 언어가 어떤 구실을 하는가를 이해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한다. 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언어 충성도를 높여 해당 언어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태도는 모국어의 사용을 약화시켜서 언어 교체(전환), 나아가 언어 소멸로까지 이끌 수 있다(Woolard, 1998; Kroskrity, 2000; Irvine & Gal, 2000). 반면에 언어 교육학적 범주로서의 언어 태도는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언어 태도가 그 학습의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즉 학습 성취도와 관련되어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두 가지 관점 모두 목적에 있어서는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정책과 언어 교육에서의 활용을 궁극적 목적으로 조사 연구되고 있어 하나로 통일된 연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언어 태도를 통하여서 이중 언어 사용 환경에 속해 있는 재외 동포들의 한국어 보존 문제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어 사용 및 한국어 교육과도

연관된다.

그러므로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언어에 대한 다양한 의식과 태도를 통해 언어 태도 변화를 관찰하고, 언어 태도 변화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언어 태도의 변화에 따른 언어 변화를 예측하여 언어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된 언어 정책을 시행하여 긍정적인 언어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언어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어 태도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임영철, 2013). 주로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언어 의식 변화에 따라 한국어가 해당 국가에서 갖는 지위를 예측해 보거나, 나아가 재외 동포에게 한국어 사용을 장려·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박경래, 2002; 지동은, 2009; 박주형, 2010; 오성애, 2011 등), 일본(강정희, 2002; 임영철 외, 2011; 임영철, 2013 등), 독립국가(명드미뜨리, 1991; 임채완, 1999; 권휘영·발레리 한병률, 2001; 윤인진, 2003; 김경근, 2004; 김류바, 2009; 조윤희, 2001 등),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각 나라 별로 재외 동포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방법으로 모국어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정체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로서 국립국어원의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먼저 2011년에 실시된 기초 연구²⁰⁾에서는 재일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에 대한 언어 태도, 한국어의 전승 의식,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동포에 대한 언어 지향 의식, 차세대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밖에도 재일 동포의 특수성에 따라 통명(일본식 성) 사용 의식과 자기 정체성의 상관성 분석 및 스포츠 응원팀, 차세대 결혼관 등을 통해 한국어 지향 의식과 실제 한국어 사용과의 연관성을 구이민 세대와 신이민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뒤를 이은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²¹⁾의 경우에는 언어 의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는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북한말 등 다양한 언

20) 임영철 외(2011),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이하 ‘기초 연구’로 지칭하기로 한다.

21) 박경래 외(2012),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이하 ‘재중 동포 연구’로 지칭하기로 한다.

어 사용이 혼재되어 있는 재중 동포 사회에서 모국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언어 능력에 대한 의식과 태도, 언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언어 학습에 대한 인식과 태도(학습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선말과 한족말에 대한 태도, 모어로 인식하는 언어, 조선말의 장래, 한국말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느낌, 한국말을 이해하는 데 불편한 점, 제일 잘하는 말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 상황에 따라 제일 많이 쓰는 말과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은 말 등 18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는 조선말과 한국말에 대한 태도 및 이해도에 대해 빈도 분석을 하고, 권역과 성별, 권역과 연령과의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년층에서는 조선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년층에서는 한족말을 잘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조선말의 장래는 노년층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 미래의 재중 동포들의 한국어 사용에 대해 예측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통하여 중국 동포 사회에서 조선말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의 모국어 보존과 사용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사였다.

조윤희(2001)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언어생활과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살피기 위해 모국어로 여기는 언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의지, 세대별 한국어 학습에 대한 태도, 한국어의 후대 전승의지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태도에서 개념과 실제 사이의 부조화가 나타났다. 특히 2세대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 세대의 연령층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조건을 변화시킬 가능성과 필요성을 갖지 않아 정신적, 심리적으로는 한국어 지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은 기울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이와는 반대로 3, 4세대 젊은이들은 한국어에 대한 태도에서 정신적 측면만이 아니라 한국어 수업 참여와 같은 실질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습득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재외 동포들의 언어 태도에 관한 연구는 이중 언어 사회 속에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보존하려는 태도와 목표어인 해당 국가의 언어로의 전환 태도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언어 선택에 관여하는 내적 요인인 한국어와 해당 국가의 언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언어 태도는 모국어에 대한 태도,

자신의 언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언어에 대한 선호도, 언어 지향 의식, 전승 의지, 언어 사회에 대한 전망 등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 세대별, 지역, 조직별 변인 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재외 동포들은 한국어의 일상적 사용에 대하여 매우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한국어가 언어적 위기 내지 정체성 상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모국어에 대한 정체성 및 언어 선택에 대한 태도와 보존 현황이 기대 이하로 조사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언어 정책을 재수립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임영철 외, 2011; 박경래 외, 2012; 김호정, 2007 등). 나아가 언어생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개별 언어에 대한 태도 및 관련된 문화적 정체성이 일상의 언어 사용과 한국어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사회적 변인(거주 국가, 이주 세대, 이주 시기, 이주 이유,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른 한국어 사용 환경과 한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한편, 재미 동포를 대상으로 한 언어 태도 관련 연구는 언어를 통한 정체성 형성 측면(조혜영, 2000; 윤인진, 2002; 김경근, 2005; 안한나, 2008 등)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실태 조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를 통해 이뤄졌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후자인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상억(1983)에서는 해외 교포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효율적 방안 연구 중, 학부모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태도가 결국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한국어 교육 태도에 대한 의식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문 조사 실시 없이, 다만 학부모의 인식 부족 문제를 비판하며 자녀들의 주체성, 민족자긍심의 고취를 위해서 부모의 올바른 인식과 자녀의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의욕을 유발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손호민(2001) 역시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하면서 부모의 역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이영태(1997) 설문 결과를 인용하여 초·중등학생 응답자 70.9%가 부모의 결정에 의하여 한글학교에 다니며 대다수 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는 부모 권유와 결정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배우는데 있어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

그러나 실제로는 1970년대까지 2세들이 미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어 교육은 등한시함으로써 한국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과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가족 간의 대화 단절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최낙복(2008)은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의식을 조사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 소극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의식을 보면 2세들의 한국말과 한글 교육에 대하여 1980년대 이전의 소극적 또는 무관심한 태도에서 벗어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기 시작하여 2000년대부터는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996년부터 한국어가 SATⅡ에 포함되어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고, 한인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인들의 2세대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식은 소극형, 즉 한국말의 사용과 학습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정적인 태도에서 점차 적극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Lee & Kim(2008)은 교포 자녀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 한국어 학습자로서 가지는 언어 태도 및 자아 존중감(self-efficacy)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교포 학생들은 한국어가 미국의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그다지 유용한 언어가 아니며 외국어 가운데 지위도 낮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김광해(2002)의 설문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1.5세대와 2세대들의 언어가 상당 부분 영어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당위성 의식에 대해서는 가르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LA 지역의 학생과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에 대한 느낌, 이미지 또한 조사하였는데, 한국어를 들을 때의 느낌을 긍정적, 부정적 느낌으로 나누어 질문한 후, 이는 언어에 대한 인상이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관습, 매너에서 전이된 하나의 인상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정아현(2010)은 자녀의 한국인 정체성을 위한 자녀교육 실태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미국 이름인지, 한국 이름인지를 알아 보고, 그 중 가정에서 어떤 이름을 부르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한국

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이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을 둘 다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에서는 한국 이름을 부른다는 응답(55.2%)이 높았다. 또한 대부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자긍심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그에 따른 노력으로는 의사소통(29.4%), 한국 이름 자주 부르기(19.4%),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기, 한글을 읽고 쓰게 하기, 방문 순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어머니가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54.7%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모두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2) 설문 문항 구성

위에서 살펴본 언어 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고 또한 기초 연구 및 재중 동포 연구, 그리고 독립국가연합 동포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미국 상황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언어 태도와 관련된 질문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에는 없었지만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으로는 Jin Sook Lee(2010)를 참고하여 정체성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적·미국적 성향 스케일 항목을 추가하였고, 한국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묻는 질문으로는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하여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을 리커트 스케일로 표시하여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선정된 언어 태도 관련 설문 항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언어 태도 관련 설문 항목

항목	세부 질문
언어 능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B0. 재미 동포는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B1. 재미 동포는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어 보존, 당위성에 대한 태도	B2. 당신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끼리는 한국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모국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B3. 당신의 모국어(제일 처음 배운 언어)는 무엇입니까?
한국어 사용	B4-(1). 어느 언어를 더 잘합니까?

양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	B4-(2).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B4-(3). 가족 간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B4-(4). 듣기에 편한 언어는 무엇입니까? B4-(5).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언어의 미래(장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	B4-(6). 앞으로 이 지역의 한인 사회에서 어떤 언어가 더 많이 쓰일 거 라고 생각합니까? B5. 재미 동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합니까?
한국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B6. 한국어를 영어와 비교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긍정적인 느낌 과 부정적인 느낌을 각각 하나씩 골라 주십시오. (B6-1, B6-2)
자기 정체성	B7. 정체성 파악 B7-1. 한국적 성향, B7-2. 미국적 성향

2.1.2 네 가지 언어 기능 능력

1)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의 측정을 위하여서는 언어 능력을 구성하는 각 언어 기능에 대한 고려와 언어 능력의 단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언어 능력은 어휘, 문법, 발음 등의 언어 영역별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도 있고 의사소통을 위한 네 가지 언어 기능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때 네 가지 언어 기능은 말하기, 듣기 등의 구어 사용 기능과 읽기, 쓰기 등의 문어 사용 기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별로 언어 능력을 나누어서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언어 기능별 언어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언어 지식에 대한 측정이 아니라 언어 사용에 초점을 둔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네 가지 언어 기능별 언어 능력 측정을 위해서는 먼저 각 언어 기능별로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묻는 문항을 두었다. 이때 선택지는 ‘못한다’부터 ‘잘한다’까지의 5점 리커드 척도로 대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2011년에 실시된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와 다르게 구성된 것인데, 기초 연구에서

는 능력 정도를 묻는 4가지 선택지인 ‘못한다, 조금 한다, 잘 못한다, 전혀 못한다’와 판단 보류를 위한 선택지인 ‘모르겠다’의 다섯 가지로 선택지를 구성한 바 있다. 본 설문에서는 분석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모르겠다’ 선택지를 제거하고 능력을 묻는 것으로 선택지를 일원화하여 5점 등간격 척도로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2012년에 수행된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취한 방식과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으로는 한국어 능력을 묻는 문항과 영어 능력을 묻는 문항을 두었다.

다음으로는 각 언어 기능 별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언어 숙달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언어 능력의 단계를 구분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기초 연구의 설문지 구성 방식을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등급별 평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은 초급(1급, 2급), 중급(3급, 4급), 고급(5급, 6급)으로 분류되는데 기초 연구에서는 초급은 1급과 2급을 구분하였으며 중급과 고급의 경우 각각을 3급과 4급, 5급과 6급으로 세분화하지는 않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선택지를 ‘초급(1급), 초급(2급), 중급, 고급’과 같이 모두 네 단계의 숙달도로 나누어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그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으로 인해 이 구분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2) 설문 문항 구성

본 설문에서도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언어 기능별 언어 능력 측정을 위해서 각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능별로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묻는 문항을 두었다. 이때 선택지는 ‘못한다’부터 ‘잘한다’까지의 5점 리커드 척도로 대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언어 능력과 관련된 설문 항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언어 능력 관련 설문 항목

언어		언어 기능	해당 문항
전 반 적	한국어 능력	말하기	C0. 당신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듣기	C1. 당신은 한국어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 부 적	영어 능력	읽기	C2. 당신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쓰기	C3. 당신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말하기	C4. 당신은 영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듣기	C5. 당신은 영어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읽기	C6. 당신은 영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쓰기	C7. 당신은 영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한국어 능력	말하기	C0-(1)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C0-(2)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대화할 수 있다. C0-(3)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C0-(4)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듣기	C1-(1) 인사말이나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C1-(2) 광고나 일기 예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실용적 담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C1-(3) TV에서 하는 보도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C1-(4)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이나 토론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읽기	C2-(1)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C2-(2) 편지나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C2-(3) 잡지나 신문 기사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C2-(4) 전문 분야의 서적이거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쓰기	C3-(1)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등을 쓸 수 있다. C3-(2) 간단한 편지나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C3-(3) 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C3-(4)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영어 능력	말하기	C4-(1)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C4-(2)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대화할 수 있다. C4-(3)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C4-(4)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듣기	C5-(1) 인사말이나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C5-(2) 광고나 일기 예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C5-(3) TV 에서 하는 보도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C5-(4)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이나 토론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읽기	C6-(1)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C6-(2) 편지나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C6-(3) 잡지나 신문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C6-(4) 전문 분야의 서적이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쓰기	C7-(1)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등을 쓸 수 있다. C7-(2) 간단한 편지나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C7-(3) 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C7-(4)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2.1.3 언어 사용 환경 및 언어 선택

1) 선행 연구 검토

한 언어 공동체에서 언어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소멸되어 다른 언어로 교체되느냐에 있어서는 해당 언어에 대한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태도와 함께 언어의 세대 간 전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Fishman(1991)에서는 이러한 언어의 세대 간 전승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대 간의 모국어 전승이 없이는 언어 유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단언한 바 있다. 또한 Filipovic(2001:51~63)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의사소통이 언어 보존에 있어 직접적인 요인이 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다양한 언어권 출신의 이민자가 존재하는 미국 사회에서는 이민자 가정 내의 모어 전승에 대한 관찰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는데, 일례로 Garcia, Dania Lopez(2008)에서는 미국 내 쿠바계 이민자 가족에 대한 3대에 걸친 연구 결과로 세대가 거듭할수록 모어 손실 및 영어로의 대체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어떤 언어 사용 환경에서 어떤 언어가 선택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정 내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과 궤를 같이 하여 재미 동포 언어 사용 환경에 따른 선행 연구에서도 우선 가정 내에서 어떤 언어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우선 윤인진·채정민(2007)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미 동포 가정에서는 1세

대의 94.2%, 1.5세대의 58.9%, 2세대의 69.1%가 주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들 중에 1세대의 61.4%는 영어가 미숙하고 1.5세대와 2세대는 15~23%가 영어에 미숙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²²⁾ 김광해(2002)에서는 LA지역의 언어 사용 환경 조사 결과, 90%가 넘는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절반이 부모님은 한국어, 응답자 본인은 영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한국인 1.5세나 2세대들의 상당수는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1.5세대와 2세대는 평균적으로 10세 전후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왔고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한인 2세들에게 영어는 이미 모어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70년대까지는 한국인 부모들은 2세들의 미국 사회 정착에 대한 걱정과 함께 미국 사회에서 한국어의 필요성보다 2세들의 영어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더 강했다. 더군다나 부모들은 경제 활동을 위해 직장에 나가면서 자녀들은 영어 사용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학교에 진학하면서 한국어 사용보다 영어 사용이 자리 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낙복(2005)과 이은희(2006)에서는 워싱턴 대학의 동포 학생의 성장 환경을 세 유형으로 분류하며 한국인이 많은 곳, 한국인이 조금 있는 곳, 한국인이 거의 없는 곳으로 분류했다. 각 유형의 응답자 비율은 31.3%, 35.9%, 32.8%의 비율로 비슷했지만, 이 중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정도에 대해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는 1.5%에 그쳤으며, 가장 많은 답변은 부모와는 한국어를 쓰고 형제, 자매와는 영어를 사용한다는 답변이었다. 집에서도 주로 영어를 사용하거나 한국어를 거의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1.6%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은 주로 1.5세대, 2세대인 한국인 자녀들은 1세대인 부모에게 한국어로, 반대로 부모는 한국어로 사용한다고 하며 조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윗세대에게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형제자매 간에도 사용 양상에는 차이가 났는데 1.5세대나 2세대인 첫째 자녀의 한국어 사용 양상이 많은 반면에 둘째 이후의 자녀는 부모님과도 한국어로 소통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은 형제, 자매끼리의 소통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였다.

가정 내에서의 언어 사용 환경과 함께 가정 외에서의 사용 환경 또한 중요

22) ‘임영철(2012) 재외 한국인의 거주 형성사 및 언어생활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에서 재인용.

하다. 한인타운의 방문 빈도나, 거주 정도에 따라 한국어 사용 환경의 차이가 생겨날 것이다. 또한 미국 동포들의 주요 모임은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별 한국어 사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나아가 1999년도 KBS와 한림대의 공동 조사 연구에서 미국 동포 245명을 설문한 결과, 모국의 소식을 접하는 주요 매체로 현지 발행 한국계 신문 30%, 현지 한국어 방송 24.2%, 이웃 한인 모임 12.2%, 인터넷 신문 방송 10.8%, 위성을 통한 한국어 방송 8.4%, 거주국 신문 7.4%, 거주국 방송 7.0%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KBS Worldnet’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은 미국의 한인 이민자들의 수에 비례하여 한국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임혜선, 2005). 한국 방송은 한국의 말과 문화를 노출시키는 도구로서 재미 동포의 한국어 사용 환경에 중요한 영향일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미 동포의 한국 방송 시청과 관련한 조사도 실행하였다.

2) 설문 문항 구성

위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중 동포 연구에서 제시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하되 이를 재미 동포 언어 사용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직장에서의 언어 사용 환경 및 언어 선택을 알아보고자 한국어를 사용하는지 묻는 문항을 새로 추가하였고, 다양한 언어 사용 장면을 제시하고자 Mirela Cherciov(2012)에서 질문한 한인 사교 모임 참석 여부와 사교 모임에서 사용하는 언어 선택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언어 사용 상황 및 언어 선택에 대한 설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언어 사용 환경 및 선택 관련 설문 항목

항목	세부 질문
언어 사용 환경	D0. 당신은 다음의 상황에서 주로 어떤 사람과 교류합니까? D0-(1). 직업적으로 일을 할 때 D0-(2). 사교적으로 교류할 때 D0-(3). 종교적으로 교류할 때
한국 방문 경험	D1.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D1-1. 최근 5년간 한국 방문 경험 횟수와 체류 기간

한국 방송 시청	D2. 하루 중 한국 방송 시청 시간은 대략 몇 시간 정도입니까? D2-1. 시청하는 한국 방송 프로그램 중 가장 즐겨 보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가족 간 언어 선택	D3. 당신이 가족들에게 말할 때, 한국어와 영어 중에서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D4. 가족들이 당신에게 말할 때, 한국어와 영어 중에서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상황 별 언어 선택 (공식적/비공식적)	D5-(1) 한인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를 할 때 D5-(2) 비공식적 자리에서 다른 한인과 사교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D5-(3) 미국인과 한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 D5-(4) 미국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인과 일상 이야기를 할 때 D5-(5) 종교가 있다면, 종교 활동을 할 때
상황 별 언어 선택 (특수 상황)	D6-(1)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D6-(2)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D6-(3) 화가 났을 때나 한국인과 말싸움을 할 때 D6-(4)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2.1.4 언어 습득과 한국어 교육

1) 선행 연구 검토

미국 사회 안에서 이민자 집단의 언어 습득과 모국어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의 교육 제도, 특히 이중 언어 교육 제도의 변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미국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의 변천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사회의 언어 문제는 크게 영어 공용화론과 이중 언어 교육법이라는 두 가지 줄기로 구분된다. 영어 공용화론 지지자들은, 첫째 이미 영어가 미국의 유일한 공식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둘째 소수 언어로 행정,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셋째 영어 이외에 많은 언어들이 혼재할 경우 미국인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중 언어 교육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미국의 인권법에 기초해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을 포함해 언어적 약자인 소수 민족의 아이들이 부족한 영어 능력으로 인해 교육과 진학,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19세기 미국에는 영어권 및 북서부 유럽 출신 이민자가 많았는데, 이런 인구학적 공통성 때문에 미국 사회는 언어 정책에 비교적 관용적이었고, 많은 학교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었다. 오영인(2012)에 따르면, 실제로 19세기 중·후반까지 다수의 개별 주에서 실시된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영어가 아닌 이민자들의 모국어를 사용하거나 영어와 모국어가 함께 활용되는 이중 언어 교육이 실시되었다. 특히 미국 문화나 언어에 수용적 태도를 보였던 유럽인들, 그 중 독일인에게 미국인들도 학교 교육이나 공공장소에서 독일어를 유지하고 사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²³⁾

그러던 중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 내에서 적성국 언어의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고, 이런 조치들이 기타 소수 민족에게 영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동화주의 정책의 발단이 되었다.²⁴⁾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는데, 미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어 이외의 타 언어들의 사용을 억압하고 앵글로 색슨 중심의 미국 문화를 형성하는, 이른바 용광로(melting pot) 정책이 지배적이었다(박준언, 2004).²⁵⁾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영어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당시 교육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당시 미국 사회에 동화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적, 문화적 적응은 학생의 책임일 뿐, 교사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모경환, 2013).

그러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를 맞이해 군사·경제·외교적 측면에서 외국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60년에 들어 기존의 거의 모든 인종차별 제도들에 저항하는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이 미 전

23) 그 예로 위스콘신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해서 학교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며, 1850년대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미국의 여러 주들은 공립학교에서 독일어와 기타 언어들로도 수업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오영인, 2012)

24) 1910년대까지 15개 주 이상이 미국화(Americanization)를 주장하며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20년대까지 무려 23개 주에서 영어 문맹테스트의 통과를 유권자의 기본조건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소수언어 이민자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였다.(오영인, 2012)

25) 영어 공용화 정책을 학문적으로 합리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Hakuta(1986, 24-33)는 이중언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20세기 전반부의 연구들을 크게 유전적(선천적) 언어결손 연구와 경험적 언어결손 연구로 구분했는데, 전자의 연구들은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각종 지능검사에서 영어 사용자들에 비해 열등한 결과를 보이는 현상을 우생학적 관점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미국 내 소수민족들의 선천적 열등성 때문이라고 해석했고, 후자의 연구들은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두 언어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언어 사용상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혼란이 궁극적으로 지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오영인, 2012)

역을 휩쓸었고, 미국은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등을 실시하면서, 불공평한 언어 통제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68년 미 의회는 이중언어교육법(the Bilingual Education Act of 1968)을 통과시켰다. 이중 언어 교육법은 영어를 모르거나 영어 능력이 부족한 이민 학생들이 언어 장벽 없이 학교 교육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몇몇 교과 과정을 ‘일정기간’²⁶⁾ 동안 영어가 아닌 이민자의 모국어로 교육하도록 연방 정부가 일선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연방 차원에서 통과되고 실시된 최초의 언어 교육 정책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 및 개별 주 교육청에 대한 제재 조항의 부재라는 한계로 인해 일선 학교 차원에서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오영인, 2012).

이에 이민자들은 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고²⁷⁾ 라우 판결 이후 평등교육기회법의 영향 하에 1974년 이중언어교육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안은 1968년 이중언어교육법의 모호성을 극복하고 법안을 구체화시켰으며 기존의 ‘저소득층 자녀’ 조항을 삭제하여 이중언어교육의 대상을 모든 소수 언어 사용 학생들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오영인, 2012).

그러나 1980년 들어서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신보수주의 열풍이 일었고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교육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80년 이후 미국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은 연방 차원의 예산 책정을 통한 일괄적 지원보다는 지역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지역의 교육 예산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으며 현재 미국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은 담보 상태에 머물러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오영인, 2012).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1980년대부터 특히 아시아계 소수 민족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의 직업 활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충분히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26) 이때의 ‘일정기간’이란 이민 학생들이 영어를 습득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시행됨을 의미한다. 즉, 영어가 아닌 소수자의 언어로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표면적인 목표를 내세운 이중언어 교육법의 본래 의도는 궁극으로 이민자들이 모국어를 버리고 영어만을 학교교육의 주 언어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었으며 결국 이는 20세기 전환기부터 지속되어왔던 기존의 강제 미국화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오영인, 2012)

27) 그 대표적인 판례는 1974년 동부 뉴욕 시의 아스피라 법원합의판결(Aspira v. Board of Education of New York City)과 같은 해 서부 샌프란시스코의 라우 판결(Lau v. Nichols), 그리고 1981년 중부 텍사스의 카스테나다 판결(Castaneda v. Pickard)이 있다.

일었다.²⁸⁾ 이런 비판적인 정서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영어를 미국의 유일한 공식적 언어로 명시화하려는 영어 전용 주의 운동(English Only Movement)²⁹⁾이 일어났고, 그 결과 1980년에 걸쳐 28개의 주(州)들이 영어를 공식어로 지정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런 강력한 동화주의 분위기 속에서 1968년에 제정되었던 이중언어교육법(Bilingual Education Act)은 34년의 효력을 마치고 소멸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중언어교육법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중 언어를 권장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영어 공용화론에 반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효되어 언어를 기반으로 한 차별대우를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했으며, 2002년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낙오아동방지법(NCLA : No Child Left Behind)에서는 ‘언어 습득, 영어 향상, 그리고 학업성취법(English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Enhanc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ct)’이라는 용어가 ‘이중 언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대체하면서도 그 기본 정신은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의 변천사는 재미 동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실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중언어교육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학교 교수 현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70~80년대에 학교를 다닌 재미 동포들과 이중 언어 교육이 중시되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1990년대 이후에 학교에 다닌 재미 동포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언어의 유지 및 확산, 그리고 언어 교육에는 공적 제도 및 법의 변천뿐 아니라 해당 언어 및 언어 공동체에 대한 성원들의 태도 및 인식, 언어 사용 집단의 경제력이나 국력 및 위상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소수어

28) 1981년 3월 3일자 뉴욕 타임즈지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을 비판한 기사가 실렸다. “It is absolutely wrong and against American concept to have a bilingual education program that is now openly, admittedly dedicated to preserving their native language and never getting them adequate in English so that can go out into the job market.”

29) English Only Movement를 주도하는 대표적 단체로는, 1983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었던 일본계 S. I. Hayakawa가 설립한 민간단체 US English가 있다. US English는 미국 전역에 걸쳐 17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2003년 현재),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기 위해 헌법 개정과 각종 다중언어 진흥 관련 법률들을 폐기,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제한, 이민 규제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 하나였던 카탈루냐어가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원인을 분석한 연구인 조혜진(2009)에서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위상과 스페인의 다문화적 언어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중요한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한국어 교육의 위상 역시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달라져 왔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한류 열풍에서 보이는 것처럼 높아진 한국 문화의 위상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재미 동포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까지 언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손호민(1991)에서는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크게 ‘교포 후세 교육, 성인 교육, 정규 대학 교육’의 세 부류로 나누었다. 교포 후세 교육은 주말한글학교³⁰⁾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정규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미국의 30여 개 종합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한국어 프로그램을 말한다. 계속해서 손호민(1999)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내 한인 인구의 급증, 한국 국력 신장, 한국 정부 기관의 한국학과 한국어의 세계화 정책에 힘입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해지고, SATⅡ의 과목으로 한국어가 1997년부터 채택됨으로써 여러 대학에서 학문적 목적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결과적으로 1975년에 7개에 불과하던 한인 사회 학교가 1999년에 약 850개로 증가하였으며, 10개 대학의 과목이 110개 이상으로 증가되었음을 제시하였다.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조사(김경령, 2008, 이광규, 2008)를 통해 91개 대학에서 한국학 내지 한국어 강좌 개설이 이루어졌고, 이들 91개 학교에는 하와이 대학교, UCLA, 하버드 대학교 등과 같이 아시아학에 조예가 깊고 한국학 연구가 오래된 학교로부터 최근 2, 3년 전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열(2010)에서는 미국 언어회(MLA:Modern Language Association)에서 실시한 미국 내 외국어 강좌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하여 2006년 가을 학기에 미국 내 2,851개 대학 중 87개 대학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한국어 강좌에 등록된 학생 수는 전체 외국어 강좌 등록생의 0.5%이며, 2002년 5,211명에서 2006년 7,145명으로 37% 이상 늘어난 점을 보고하였다. 이들

30) 혹은 ‘한인 사회 학교’ 또는 ‘한국 학교’라고도 불린다.

수강생의 성격을 파악해 보면 고급 한국어 수준으로 올라 갈수록 비한국계 (non-heritage) 학습자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아 한국어 수강생들은 거의 한국계 학생임을 알 수 있다.

박채형(2011)은 미국의 한글학교·한국학교·한국교육원의 한국어교육 역사를 고찰하였는데 특히 1980년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재미 동포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은 현재에도 한글학교와 미국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반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한국어진흥재단이 2006년 9월에 발표한 통계의 의하면,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한 미국의 학교는 68개교인데 캘리포니아주에는 43개교, 뉴욕주에는 13개교, 일리노이주에는 3개교, 뉴저지주에는 2개교, 버지니아주, 미시간주, 메릴랜드주, 코네티카주에는 각각 1개교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한국어 교육을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정규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양분한다면, 전자는 종교 단체 등 비영리 한인 단체를 중심으로 재외 동포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이고 후자는 미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외국어 중의 하나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이다. 정규 교육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비해 규모가 작고 미국의 교육 제도 체계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 한인 사회의 발전과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정규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반 개설 현황을 2011년과 2013년의 자료만 비교하여 보아도 그 증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2> 미국 정규 학교의 한국어 반 개설 현황

지역	학교 수 (2011)	학교 수 (2013)	지역	학교 수 (2011)	학교 수 (2013)
캘리포니아	47	50	샌프란시스코	0	3
뉴욕	11	22	조지아	3	2
텍사스	0	12	하와이	1	2
버지니아	1	9	일리노이	1	2
매릴랜드	1	5	코네티컷	1	1
미시간	1	4	콜로라도	0	1
워싱턴	2	3	네바다	0	1
아리조나	4	3	오하이오	0	1
뉴저지	2	3	합계	75	124

(출처: 한국어 진흥 재단)

미국 내 한글학교는 비록 비정규 교육이나 미국 내 한국어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그 수가 많다. 미국의 한글학교 현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 세계 한글학교의 약 절반 정도를 미국의 한글학교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은 전 세계 한글학교의 국가별 현황이고, <표 14>는 미국 내 공관별 한글학교의 수와 교원 및 학생 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 13> 전세계 한글학교 지역/국가별 현황 (2012년 통계)

지역(국가수)	한글학교 수
아주(25)	349
중남미(20)	88
구주(28)	110
CIS(10)	238
아중동(35)	46
캐나다	107
미국	987
합계(118)	1,925

<표 14> 공관별 한글학교 수, 교원 수, 학생 수 (2012년 기준)

공관명(12개소)	교육원 설치	학교 수	교원 수	학생 수
주미국 (대)	O	81	838	4,271
주뉴욕 (총)	O	171	1,956	10,560
주로스앤젤레스 (총)	O	199	1,848	13,143
주보스턴(총)		25	241	1,167
주샌프란시스코 (총)	O	79	786	4,817
주시애틀(총)		66	562	3,145
주시카고(총)	O	138	1,150	5,402
주애틀랜타(총)		111	1,021	4,761
주앵커리지(출)		6	41	176
주휴스턴(총)	O	78	799	3,586
주호놀룰루(총)		31	195	840
주하와이(출)		2	28	445
합계	6개소	987	9,465	52,313
전 세계 총계	38개소	1,925	15,481	106,989

위의 표로 파악하여 보건대 미국 내의 한글학교는 천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은 오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외 동포 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 내 한글학교 현황을 초, 중, 고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5> 미국 내 한글학교 현황

공관 대사관:(대) 영사관:(총) 대표부:(표) 출장소:(출) 사무소:(사) 분 관:(분)	학 교 수	교 원 수	학생수										
			합계	유		초		중		고		성인	
				일 시	영 주	일 시	영 주	일 시	영 주	일 시	영 주	일 시	영 주
12개 공관	981	9,282	50,904	1,086	11,184	1,881	22,025	575	7,554	297	4,152	95	2,055
주미국(대)	82	812	3,957	61	983	139	1,786	33	561	10	301	-	83
주뉴욕(총)	169	1,867	9,617	149	2,296	416	4,240	105	1,395	39	613	35	329
주로스앤젤레스(총)	220	2,011	12,935	61	2,693	82	6,434	108	2,096	55	1,233	20	153
주보스턴(총)	24	253	1,202	78	273	56	320	22	192	50	118	22	71
주샌프란시스코(총)	80	799	4,894	141	1,116	224	1,939	47	741	20	403	3	260
주시애틀(총)	63	534	3,049	33	654	81	1,343	21	491	18	258	-	150
주시카고(총)	132	1,077	5,434	272	1,115	407	2,162	89	610	38	310	7	424
주애틀랜타(총)	101	935	4,654	109	895	236	1,712	97	782	32	536	5	250
주앵커리지(출)	7	33	203	-	41	1	90	1	24	-	26	2	18
주휴스턴(총)	73	761	3,699	172	889	222	1,511	40	446	21	228	1	169
주호놀룰루(총)	28	177	820	-	172	-	291	-	146	-	81	-	130
주하와이(출)	2	23	440	10	57	17	197	12	70	14	45	-	18

2) 설문 문항 구성

위와 같은 미국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미 동포들의 언어 습득 문제와 한국어 교육에 관한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16> 언어 습득과 한국어 교육 관련 설문 항목

항목	세부질문
한국어 전승 의식	E0. 만일 당신의 자녀(또는 손자나 손녀)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보내시겠습니까? E0-1. 자녀(또는 손자나 손녀)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0-2. 자녀(또는 손자나 손녀)를 한국어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어 학습 경험	E1. 미국에서 공식적으로(학교, 학원 등)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E3-1. 한국어는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E3-2. 한국어를 배워서 사용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국어 학습 이유	E3-3. 한국어를 배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E4-1.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어 학습 시의 어려운 점 및 만족도	E3-4. 한국어를 배울 때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E3-5. 한국어 수업이나 강의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한국어 수업의 보완점	E3-6. 한국어 수업에서 가장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식 및 태도	E5-1. 앞으로 한국어를 배울 생각이 있습니까? E5-2. 한국어를 배울 생각이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E5-3. 한국어를 배운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고 싶습니까? E5-4. 한국어를 배울 생각이 없다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상의 설문 문항을 선행 연구로 진행한 재중 동포와 독립 국가 연합 연구와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설문 문항이 위의 두 연구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부록3>으로 제시하였다.

2.2 한국어 변이 형태 및 중간언어 조사 관련 선행 연구의 검토

1)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언어 접변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재외 동포들 사회에서는 표준적인 한국어와 다른 형태의 한국어가 일부 사용될 것이라고 가정하

었다. 선행 재중 동포 및 독립국가연합 동포 대상 연구와 같이 선행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는 이처럼 재외 동포 사회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에 대해 ‘변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재미 동포 사회에서 사용되는, 표준적인 한국어와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어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른바 한국어 변이 형태의 범위³¹⁾를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변종은 일반적으로 ‘방언’, ‘사투리’, 또는 ‘지역어’ 등으로 불린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방언’이란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를 나타내고 ‘사투리’는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이는 표준어가 아닌 말을 나타낸다. 한편 이태영(2006:392)에 따르면 ‘지역어’란 한국어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음운, 통사, 화용현상 등을 공유하면서 지역의 고유한 방언적 특징들이 첨가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방언’, ‘사투리’, ‘지역어’ 등의 용어는 지리적인 개념을 가장 주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재미 동포 사회에서 사용되는 변종 한국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공간적이며 지리적인 개념 뿐 아니라 시간적인 변화의 반영 여부에 따른 속성을 밝히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길재(2000)에서는 공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언어 변이의 유형을 시간적 차원에서 구분하면서, 그 중 하나로서 ‘언어 개신이 언어 변화에 반영되지 않고 이전 시기의 공시적인 변이 상태로 잔존하고 있는 변이’를 설정하였다. 재미 동포 사회에서 통용되는 한국어에는 그 언어의 사용자들이 모국인 한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살아온 이주자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언어적 개신이 반영되지 않고 화석화되어 남아 있는 언어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Auer(2013)에서는 언어와 지리 공간을 함께 다루는 기존 연구의 패러다임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³²⁾ 먼저 방언학(dialectology) 혹은 방언지리학(dialect geography)은 전통적으로 하나의 언어나 어족에 속하는 다양한 방언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여 지도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둘째, 지역적 언어유형학(areal linguistics, areal typology)은 다양한 언어들 간에 내재

31) 재미 동포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 형태의 모습을 변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변이 형태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간보고회 자문 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하여 최종보고서에서는 변종이라는 말 대신에 변이 형태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32) ‘강경원(2014), 남한의 방언지역 구분, 문화역사지리 26-1, pp. 34-49’에서 재인용.

하는 질서를 탐구하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둘 이상의 언어가 교류하면서 수렴 지역을 형성하여 하나의 언어 계통을 이룬 것인 ‘언어연합’의 개념으로 지역적 언어 유형을 밝히는 분야이다. 셋째, 소수 집단의 언어 지역과 정치적 지위에 관해 연구하는 사회언어학의 분야는 주로 소수민의 언어 집단, 그들의 언어 권리, 공용어 사용 지역과의 관계 등을 다룬다.

재미 동포의 한국어 변종과 관련해서 직접 조사를 시도한 주요 논문으로 왕한석(1998)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초기 이주 한인의 언어 접변에 대해 조사하고자 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존댓말 사용 방식이 상대적으로 평등 지향적이고 수평적인 사회 문화 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를 조사하고자 했다. 한국 문화의 특징적인 사회 언어적 체계(sociolinguistic system)가 미국 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에 의해 어떠한 적응적 변화를 겪었는지를 발견하려고 했지만 시간과 조사대상자의 제약으로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2세대 및 비교적 초기에 이주한 한인 1세대들의 언어 생활상의 개략적인 특성만 정리하는데 그쳤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 2세대들의 언어생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부모들의 모어인 한국어를 영어와 함께 구사하는 두 언어 사용자가 되지 못하고 거의 영어만을 사용함으로써, 미국 사회로 이주한 다른 이민 집단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언어 교체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었다. 조사 당시 한인 2세대(및 3세대)들은 거의 영어만을 사용하였고 미국 사회의 주류 문화 속에 거의 동화되어버린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비해 대체로 1950년대 이전에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1세대들은 그들의 언어 행동에서 나름대로 흥미로운 언어적 접변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그들의 언어 변화에서 2인칭 대명사 you의 광범한 사용, 성 앞에 Mr.와 Mrs.를 붙여 상대방을 일반적으로 호칭 및 지칭하는 방식, 그리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성인을 이름으로 호칭하는 방식 등의 현상을 찾아냈다.

한편, 재미동포의 한국어 변종 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보다는 한국어 학습자 중 재미동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간언어에 대한 연구가 양적인 면에서 우세하였다. 모국어와 제2 언어의 중간 혼합 형태의 언어를 중간언어(Interlanguage)라고 하며(Selinker, L. 1972), 중간언어의 특징은 제2언어를 습득하는 학습자의 오류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간 언어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의 모국어가 한국어 학습에 있어 특정한 방해를 일으키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안 방법을 찾는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재미 동포를 대상으로 하거나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간언어 연구는 작문에 나타난 조사나 어미, 어휘 등 특정한 문법 요소나 어휘를 가지고 오류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재미 동포는 가정에서 한국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듣기와 말하기에는 익숙한 경우가 많으나 한국어를 문법적 접근을 통해 습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거나 읽기에는 상당히 약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동은(2007)은 재미 동포의 경우, 일반 외국인 학습자들의 언어 습득 단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그 특징으로는 글말보다 입말 환경에 훨씬 접근성이 강하다는 것, 억양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이 나빠도 상당히 유창한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 한국어 형태와 문법에 대한 제한적인 인식과 습득은 빈번한 부호전환으로 인하여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렇듯 한국적 배경을 가진 재미 동포들은 일반적인 외국인 학습자와 달리 음성 언어로 주로 습득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국어 음절과 형태 인식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철자 오류에 중점을 둔 작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특히 조사 오류에 대한 연구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김정숙·남기춘(2002)의 연구에서는 초급과 중급의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가’와 ‘-은/는’ 조사 사용 오류를 분석한 결과, 초급에서 중급으로 갈수록 누락 오류는 줄어들고 대치 오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조인정(2006)에서는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주격과 목적격 조사 대치 오류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대치의 원인을 네 가지 경우로 분석하였는데, ‘있다/없다’ 동사일 경우에, 영어 타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심리 형용사와 ‘필요하다’에서 주격과 목적격 조사 대치 오류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동사와 피동사, ‘되다’와 ‘아니다’가 사용될 때, 주격과 목적격 조사의 대치 오류가 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장미경(2009) 역시 조사 오류를 분석하였으나 작문 자료가 아닌 학습자들의 발표 및 인터뷰 수행에서 나타난 구어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 오류를 분석하여 철자 오류를 대신하는 발음 오류를 볼 수 있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연구 대상이 한국어 교육을 하려는 전문가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로서 이들에게는 거의 조사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오류가 거의 없는 집단에 속하는 재미 동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정 정도의 초등교육을 받은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와 초등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5세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어 입력에 노출된 경우로 이 학습자들은 한국어 조사 사용에 있어 이미 상당한 습득 단계를 거쳤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 외에 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아주 어린 시기에 미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어 화자 수준의 조사 사용 양상을 보인 학습자들의 성장 배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한국어 사용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이 재미 동포 학습자들은 조사 오류가 거의 없다는 공통점 외에도 발음이나 억양 면에서도 거의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다만 고급 수준에서 요구하는 한자어나 연어 등 고급 어휘의 사용에서만 모국어 화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조사 오류가 많은 학습자는 성장배경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학력 수준이 높고 가정에서 주로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여 외국인 학습자와 비슷한 빈도로 오류를 발생하기도 하였다.

김영주(2006)는 영어권 고급학습자의 동사 오류를 분석하였는데 시상의 오류와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그리고 올림 표현의 오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제 선택의 오류는 시제 부사와 동사 어미 사용의 선택 제약에서 부사에 맞는 적절한 동사 사용이 부족해서 생기는 오류가 있었으며, 시제 이동의 오류로 문맥 내 시제가 통일되지 않고 이동되는 오류가 있었다. 상의 오류로는 진행상, 완료상, 예정상의 대치 오류가 나타났으며, 연결어미에서는 부적절한 연결어미 선택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전성어미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형사형 어미의 대치 오류가 있었으며, 종결어미는 형태 오류 및 문장 혹은 문맥 내에서의 일관성을 위한 상호 제약에 기인한 오류가 있었다.

김보경(2012)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음운 차이를 연구하였다. 구어적 발음의 영향, 형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어두 자음, 모음, 받침에서 대치, 첨가, 누락 오류를 보였고, 그 예로 매개모음 ‘아/어’ 첨가, {-ㄴ/은/는}에서 이형태 사용 오류, 매개모음 ‘아’와 ‘어’의 혼동, 매개모음 ‘아/어’의 생략 등이 있었다. 또한 활용 오류에서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전성어미 활용에서 나타나는 오류

를 분류하여 그 양상을 살폈다. 서술어의 철자 오류 분석 결과로는 유사 발음 이형태 어휘 사용 오류, 연철 오류, 음절화 오류, 받침 누락 오류,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오류 등의 순으로 유형별 빈도가 나타났다.

어휘의 중간 언어 및 오류의 양상을 살펴본 연구로는 왕혜숙(1995), 홍은진(2004), 이정희(2013) 등이 있다. 왕혜숙(1995)에 따르면 재미 동포 학습자들은 가정이나 주위에서 한국말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여 기본어휘는 알고 있는 상태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작문에서의 어휘 오류를 분석한 결과 모국어의 어휘와 교체하여 사용하는 어휘교체 오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유사 의미 오류, 낱말 배치와 확대 적용 오류, 번역 오류, 축약/반복, 유사 형태, 조어 및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유사 의미 오류, 유사 형태에 의한 오류, 낱말 배치나 관용어에 의한 오류, 확대 적용에 의한 오류 등은 목표 언어 자체에 오류 발생 원인이 있어 언어내적 오류로 분류하였고, 어휘 교체에 의한 오류, 번역에 의한 오류 등은 모국어의 간섭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언어 간 오류로 분류하였다. 이 중 교포의 경우, 언어 간 오류의 비중이 51%로 높아 학습단계별 기준으로 고급 학습자일수록 나타나는 오류 원인의 비중과 같다고 하였다. 재미 동포 학습자들처럼 초기 단계를 지나 개념을 표현하는 추상명사를 학습하게 되는 중고급의 학습자인 경우 품사별 오류는 동사와 형용사보다 명사의 오류가 많았으며, 주로 모르는 단어를 바꾸어 말하거나 돌려서 말하기로 성공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어휘 교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정희(2013)에서는 계승어로서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는 재미 동포 미취학 아동들의 한국어 수용·표현 어휘 발달 수준을 진단하고,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다루었다. 연구 대상 아동들은 일반 한국 아동에 비해 수용 어휘 능력에서 평균 1년 정도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현 어휘 능력에서는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재미 동포 아동의 경우 수용과 표현 어휘 능력 사이에도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를 통해 아동의 연령과 성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 환경과 아동의 한국어 사용 비율이 정적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미국 거주 기간과 연령이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재미 동포 만 4, 5세 아동들의 경우에는 어휘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한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중 언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전체적인 어휘의 총량이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 더 클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L1과 L2 중 더 우세한 언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동은(2007)은 재미 동포 중 청소년(13~18세)을 대상으로 작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오류를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한국어 숙달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급의 오류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오류의 유형으로는 자모음의 첨가, 생략, 대치, 음절화가 있었으며, 오류의 원인은 문법 미습득, 어휘 미습득, 발음, 과잉교정 등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재미 동포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오류는 영어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구어의 영향이 크다고 하며, 음운적 의식에서 형태적 의식으로의 전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오류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영선(2012)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 1.5세대를 대상으로 음운 규칙의 손실을 파악하였는데,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읽도록 한 뒤, 피험자들이 생산한 오류를 찾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어의 음절 구조나 음절 배열 조건 등에 따른 간접 현상뿐만 아니라 한국어 음운 규칙의 손실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오류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한 피험자들은 이러한 규칙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화 과정에서 첨가 규칙과 자음 말소 규칙 그리고 양음절화 규칙이라는 중간 규칙을 선택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조인정(2005)은 재미 동포 3명을 포함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 9명의 작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어에서의 부정성 주어 사용이 한국어 학습 시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됨을 밝히고 부정성 주어와 관련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숙(2009)은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 발생을 한국어와 영어와의 대조 분석에 초점을 두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와 영어의 대조 분석을 주로 기술하고 있으나 대조 분석을 통해 어떤 오류들이 발생되는지 예측이 가능하고, 오류의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재미 동포와 영어권 학습자의 중간 언어 오류 분석 연구들은 주로 조사, 어휘에 치중하여 연구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지엽적 오류 연구만을 다루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학습자 말뭉치를 사용해서 특정 오류의

빈도수를 얻어내는 데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엽적인 오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형태, 통사, 의미, 담화적 차원에서의 중간 언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이 많은데, 실제 발화를 통해 나타나는 구어 오류도 파악해야 한다. 구어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맥에 맞는 어휘의 선택 문제, 발음이나 억양 문제 등의 오류 연구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한국어 변이 형태 및 중간언어 특성 조사

재중 동포 연구의 경우에는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북한말 등 다양한 언어 사용이 혼재되어 있는 재중 동포 사회에서 다섯 가지 유형의 한국어 변종 자료를 조사했다. 분류를 살펴보면, 모국어 원 방언 간의 변종, 중국·북한·남한 각각의 언어 간섭에 따른 변종과 재중 동포 언어의 자체 변종으로 나뉜다. 세대별로 어휘, 음운, 형태적 변종의 특징과 각각의 다른 말의 영향 속에서 변화된 변종을 조사했다. 질문지는 28개 항목의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졌고, 표준어형을 기본으로 변종의 종류와 설명 등을 기술하는 자료 축적 모델도 제시하고 있다. 음운은 음운 체계를, 어휘는 어휘의 형태와 의미를, 문법은 문법 형태소의 변이형과 통사적 특징을 고려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음운과 문법 형태 조사 부분은 정밀 전사의 미흡함 등의 이유로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미 동포 사회에서 쓰이는 ‘한국어 변이 형태’는 미국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에서 한국어가 영어와 혼합적 발달을 보이는 가운데 나타난 언어 현상으로 보고,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한국어의 변이 형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는 언어가 포함된다.

첫째, 지리적·공간적으로는 ‘언어 섬’³³⁾으로서 존재하는, 미국 내 재미 동포 사회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이다. 둘째, 관계하는 언어로는 한국어와 영어가 교류하면서 표준적이며 전통적인 한국어나 영어로부터 달라졌거나 양 언어의 혼

33) ‘언어 섬’이란 넓은 언어 영역 안에 고립하여 존재하는 언어 집단의 한 유형을 바다 가운데의 섬에 비유한 말이다. 동일한 언어 가운데 소수 방언이 혼입된 경우에는 ‘방언의 섬’이라 불리며 언어지리학에서는 독립된 언어 체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음운·문법·어휘나 개개인의 언어 현상에 대해서도 이 술어를 사용한다.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사)

합 또는 혼재가 나타나는 언어이다. 셋째, 언어 사용자인 재미 동포의 이주로 인한 모국과의 줄어들거나 단절된 교류에 의해 한국에서의 표준 한국어의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남은 화석으로서의 한국어이다. 비개신어라는 용어는 ‘전³⁴⁾’과 같이 한국어의 옛말에서 온 단어로 한국 사회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재미 동포 사회에서는 잘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말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사용이 완전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중간 언어 형태 혹은 오류 형태를 포괄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변이 형태 및 중간 언어 자료 구축은 현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지 조사를 통해 언어 사용의 대표성을 띤 재미 동포 1세대, 1.5세대, 2세대를 선별하여 인터뷰를 한 뒤에 이를 전사하였고, 현지 방문을 통해 수집한 현지 신문 매체³⁵⁾에 사용된 어휘와 표현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재미 동포의 한국어의 변이 형태를 앞에서 제시한 큰 틀에서 파악하여 한국어의 변이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를 검토하고, 특히 한인 2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중간 언어 및 오류 양상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기초 연구(2011)”에서는 심층 면접 시간으로 최대 1시간 이내에 모든 조사를 완료했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한국어 능력을 다양하게 기술하고 사용 언어 선택의 양상도 살펴볼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비격식적인 언어사용 양상 파악을 위해서는 동포 간의 담화 자료에 나타나는 사용 형태를 분석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실제 제일 동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조사의 오류, 호칭어 등을 조사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지역 심층 면접 대상자로 50명을 예정했으며 실제로 60명의 인터뷰 자료를 전사하였다. 어휘 및 통사적 변종 조사를 위해 질문지의 내용은 미국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일상생활 및 직장 생활 그리고 호칭어 및 개념어휘를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고안하였다. 우선적으로 응답자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듣기 위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질문은 대상자에 따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수 있는 주제로 선택하여 쉽게 이야

34) 한국에서 예전에 돈을 세는 단위였던 ‘전’은 미국 돈을 세는 단위인 ‘센트’를 지칭하는 말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본 연구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35) 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기사는 한국에서 쓴 기사가 그대로 실리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미국 내의 한인들의 언어 생활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현지 신문에 실린 광고 및 몇몇의 기사에서는 미국 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은 직업 어휘 및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정 표현을 찾을 수 있었다.

기를 끌어내도록 하였다.

모든 심층 면접 대상자에게 확인하는 필수적인 질문에는 첫째, 집안에 대한 묘사를 가능하게 하는 질문을 통해 집안의 구조 및 물건을 부르는 일상적인 어휘 사용을 확인하였다. 둘째, 친척에 대한 호칭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호칭어나 친족어가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쇼핑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돈을 세는 단위 및 영어 고유 명사 사용을 할 때 한국어의 사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넷째, 직업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직업과 관련한 어휘의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이외에 대상자가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언서 사용 양상에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때때로 면접 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한국어 능력이 낮아서 한국어로 대화가 쉽지 않게 진행될 경우에 그림 묘사하기 과제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준비하였으나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들이 그림 과제 없이 면접을 수행할 수 있었다.

제3장 연구의 절차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2010년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 동포 언어’에 대한 국제 학술회의에서 제기된 언어 실태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재중 동포 및 재 독립국가연합 동포에 이어 이 연구는 재미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미 동포 조사를 위한 설문지 및 변이 형태 조사를 위한 타당한 방법을 마련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 연구와 비교 분석하여 재미 동포의 특수성을 반영한 언어 사용 환경 및 태도, 재미 동포의 언어 능력과 관련된 중간언어 발달 단계 및 변이 형태 조사, 한국어교육 관련 실제 조사 및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다.

둘째, 언어 사용 실태 파악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양적 조사, 즉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하되 재미 동포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선행 연구인 중국과 독립국가연합에서 수행된 조사와의 차이를 밝히고 예비 조사를 통해 설문지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조사 영역은 언어 태도 및 인식, 언어 사용 능력, 언어 사용 환경, 언어 습득 및 한국어교육 관련 내용으로 아래 표와 같다.

<표 17> 조사 영역별 설문지 구성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언어 태도 및 언어 인식	한국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영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언어 사용 능력	한국어 능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어 능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사용 환경	가족 간 언어 사용 양상
	대화 상황별 언어 사용 양상
언어 습득 및 한국어교육	한국어 학습 경험 및 이유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셋째, 재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변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인구학적 변인 및 사회적 변인을 바탕으로 표본을 선정하였고, 조사 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의 전문적인 연구 인력의 경험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진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① **이주 역사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재미 동포의 세대의 세대별 특성에 따른 언어 실태 조사 실시** : 재외 동포들의 정착 과정이 나라마다 특수한 역사적, 사회·정치적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재미 동포들의 특수성을 파악한 세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포 사회에서 각 세대가 드러내는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 사용 양상을 조사함으로써 한국어의 세대별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세대별 변인 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인을 고려하였다.

<표 18> 이주 세대별 변인의 고려사항

구분	선정 내용 및 고려사항
이주 역사를 고려한 세대별 변인	1세대, 1.5세대, 2세대
이주 시기를 고려한 세대별 변인	1970년대 이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거주 기간을 고려한 세대별 변인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
나이에 따른 세대별 변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세대별 이주 이유에 따른 변인	직업별 변인과 함께 교차분석

②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조사 대상 선정** : 재미 동포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미국의 대도시 전 지역에 걸쳐 거주하면서 한인 사회를 형성하고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 도시 및 작은 마을에까지 산발적으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의 한인 타운이 형성되고 이주 역사가 다른 각 도시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거주 도시를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표 19> 지역별 변인의 고려사항

구분	선정 내용
거주 지역	미국 내 각 방위별(동쪽, 서쪽, 남쪽, 북쪽 및 하와이)의 각 방위별 한인 거주자가 많은 5도시(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및 하와이)를 거점 도시로 선정

③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조사 대상 선정** : 전체 모집단인 재미 동포 전체의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한 타당한 표본의 설정을 위해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성별, 학력별, 직업별, 그리고 배우자 요인을 고려하여 이들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표 20> 인구학적, 사회학적 변인의 고려사항

구분	선정 내용 및 고려사항
성별	남, 녀
학력	초, 중, 고, 대학교 미국 내 교육 경험 유무 미국 내 교육 초, 중, 고, 대학교
직업	한인의 이주 목적 및 현재 종사하는 직업을 바탕으로 직업을 분류하여 직업 변인을 설정.
배우자의 국적	미국 내 국제결혼 비율의 증가에 따른 변인

넷째, 설문 조사 연구를 통해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양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질적 연구 조사를 통해 한국어 변이 형태의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면 대 면 심층 면접을 구두로 실시하여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 환경에서 사용되는 언어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구두 면접의 형식은 반구조적인 면접 방식을 취하였다. 즉 연구 대상이 가장 관심 있을 만한 주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유도하되, 변종 조사의 유형을 고려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어휘나 기타 통사적 요소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수행한 인터뷰를 통해 녹음된 면접 자료를 전사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변

중 및 중간 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표 21> 한국어 변종 조사 내용 및 방법

영역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어휘	한국 내에서의 쓰임과 달라진 어휘 조사	조사 설문지 및 면접 녹음 분석
	영어 간섭에 따른 혼종어 및 차용어 조사	조사 설문지 및 면접 녹음 분석
중간언어형태	비문법적 요소의 사용이나 영어와 한국어의 코드 스위칭 양상 조사	심층 면접 녹음 자료 분석

다섯째, 기존에 수행된 재중 동포 및 독립 국가 연합 동포의 언어 실태 조사를 비롯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공통적인 조사 방법으로 진행된 설문 문항의 분석을 제외 동포라는 테두리 안에서 재미 동포 언어 사용 양상의 특수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의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2. 조사의 절차 및 고려 사항

재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먼저 조사 방법으로는 대규모 표본을 중심으로 한 설문 조사와 설문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별 사례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는 연구 방법을 채택되었기 때문에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 방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재미 동포들에 대한 기존의 설문 연구는 설문 협조가 용이한 한인회, 한인 교회, 한글학교, 기타 한인 단체 등에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편의 표본에 의존해서 해당 기관에서 조사해 주거나 우편물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런 표본 추출 방법은 연구의 외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표본의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 기관

이 아닌 다양한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여, 조사 연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한계 상 인구 비율에 근거한 무작위 할당의 표본 선정은 불가능하지만, 접촉하기 쉬운 인구 집단뿐만 아니라 설문에서 배제된 인구 집단을 판단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변인별 최소한의 표본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에 수행된 재외 한인들에 대한 설문 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표준화된 척도가 없다 보니 자신의 편의를 위한 설문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선행 연구의 신뢰도와 연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가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된 중국과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재미 동포의 사용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서 사용된 선행 연구들의 설문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공통점 및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여 지역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재미 동포의 특성을 밝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미국 내 대규모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설문 조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설문의 목적과 조사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교육한 뒤에 조사원을 파견하도록 하였다. 심층 면접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국내 공동 연구원 및 보조 연구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 수집 면접을 진행하였고, 녹음된 자료를 국내에서 전사하였다.

3. 조사 대상 선정 방법

연구의 범위에서 제시한 각 변인을 고려하기 위해 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것이 진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재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이기 때문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의 추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언어 사용은 지역에 따라 특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미 동포가 많은 지역에 따라 인구 비례로 표본을 산출하게 되면 재미 동포가 많은 지역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미 동포의 거주가 많은 4대 지역을 중심³⁶⁾으로 하와이를 포함시켜 지역별로 같은 수의 설문 조사

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 중소 도시의 재미 동포들을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중소 도시의 재미 동포까지 표본에 포함시켰다.

둘째, 미국 대륙의 특성 상 대도시가 서쪽과 동쪽에 몰려 있어 가장 한인이 많은 도시를 선정할 경우 동쪽과 서쪽의 도시만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슷한 특성을 가진 비슷한 지역 대신에 북쪽과 남쪽의 도시를 넣는 것이 전반적인 재미 동포의 언어 사용 양상을 파악하는 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서쪽의 로스앤젤레스, 동쪽의 뉴욕, 그리고 북쪽의 시카고, 남쪽의 애틀랜타를 4개의 거점 도시로 선정하며 하와이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거점 도시와 그 주위의 중소 도시 모두를 포함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각 도시의 언어 사용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대, 직업, 성, 학력 변인의 고려를 위해 적어도 최소 810³⁷⁾명의 표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각 권역별로 4개의 거점 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180명, 그리고 하와이는 전체 인구수를 고려하여 90명을 조사 대상 인원수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언어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 대상자와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50명의 추가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조사 진행 과정에서 변인을 맞추다보니 실제 설문지는 1050장 이상 수거하였고, 최종 조사에는 1048명을 포함시켰다.

36) 기초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우 뉴욕, 로스앤젤레스, 텍사스 세 개의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구이민 세대와 신이민 세대를 포함한 500명을 조사 대상수로 제시하고 있지만, 연구 대상 지역의 인구수가 변화하였고, 연구 조사 방법 상의 표본의 타당성을 위해 선정 대상 지역과 수를 설정하였다.

37) 설문 조사의 제안서에서 목표로 한 최소한의 설문 인원이었다. 최종 조사를 마치고 보니 각 변인별로 필요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조사가 잘못된 몇 장을 제거하고 최종 1048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인터뷰 조사도 하와이의 인터뷰까지 포함하여 최종 60명을 조사하였다.

<표 22> 지역별, 세대별 최소 조사대상자 수

조사 방법	세대별 조사대상자	4개 지역 및 하와이	표본 수
설문지 면접 조사	1세	지역별 60명씩 4개 지역 +하와이 15명	270
	1.5세	지역별 60명씩 4개 지역 +하와이 30명	270
	2세	지역별 60명씩 4개 지역 +하와이30명	270
심층 면접 조사	각 세대의 변인을 대표할 수 있는 면접 대상자		50
합계			810

넷째, 각각 세대별 표본을 성별, 직업별, 나이별로 배분이 잘 되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표본 추출 방법은 전체적인 한인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고, 그 이외에 다양한 변인들이 언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려한 의도적 표본 추출 방법이다. 재미 동포의 비율에 따른 표본을 추출하였을 경우에는 원하는 모든 변인이 추출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설문 조사의 경우에 한인의 비율에 따른 표본 조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의도적 표본을 목표로 삼아 언어 사용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고려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II. 언어 실태 조사 결과 분석

제1장 조사 지역과 조사 대상자

1. 조사 지역

조사 지역은 미국 내의 다섯 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각각의 근처에 사는 중소 도시를 포함했다. 미국 남부에 위치한 애틀랜타는 1996년 올림픽 개최 이후 한인들이 대거 이동하여 신흥 한인 밀집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고, 북부의 시카고는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비교적 초기에 정착한 한인들과 한인 유학생들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뉴욕은 다양한 직업 배경의 한인들이 대규모 한인 타운을 형성하고 살고 있는 지역이며, LA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한국과 가장 가깝다는 특징이 있다. 하와이는 초기 이민사가 시작된 지역이라는 역사적 특수성과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이다.

설문 조사는 각 거점 도시의 한인 타운, 한인 교회 및 지역 내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변인의 균형을 고려하여 근무지 및 지방 중소 도시의 방문 조사도 병행했다. 설문 조사는 기본적인 인구 속성학적 분포를 고려하여 진행하였으나 지역 사정에 따라 모든 변인이 고르게 분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여 1차 조사 후에 1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부족했던 변인의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찾아서 설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변인의 설문지 개수를 맞추다 보니 연구 설문지는 지역별로 50장 내외로 추가 수집해야 했기 때문에 총 1050여장 이상의 설문지가 수집이 되었고, 이 중에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설문지는 1048장으로 확정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심층 인터뷰는 50명을 예상했으나 지역별로 한두 명 추가 인터뷰가 실시되어 최종 60명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23> 조사 지역 별 조사 지점 및 대상자 수

조사 지역	1차 조사 (6월 3주~7월 2주)	2차 조사 (8월 1주~9월 2주)	합계
애틀란타	116	126	242
시카고	110	112	222
뉴욕	116	125	241
LA	102	137	239
하와이	49	55	104
합계	493	555	1048

2. 조사 대상자의 기초 정보와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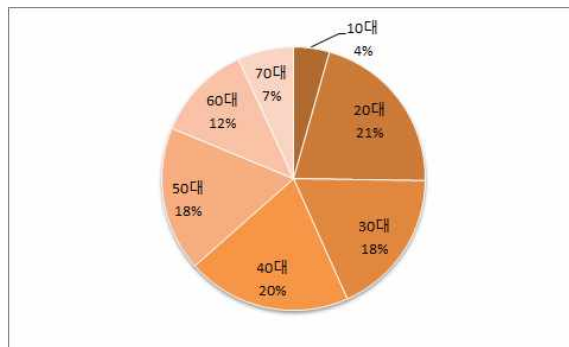
2.1 기본 정보

○ 연령

연령별로 10대 후반의 참가자부터 70대까지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하였다. 70세 이후의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거주 인구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설문 응답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많은 수를 포함시킬 수 없었다. 10대의 경우는 18세 이상의 성인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 외에 20~50대까지는 비슷한 분포가 되도록 하였다. 60대와 70대를 합해서 다른 세대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도록 설문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표 24> 연령대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

연령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0대	46	4.4
	20대	218	20.8
	30대	189	18
	40대	211	20.1
	50대	186	17.7
	60대	124	11.8
	70대	72	6.9
	합계	1046	99.8
결측	결측값	2	0.2
합계	1048	100	



<그림 1> 연령대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

○ 성별

성별 분포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1차 조사에서 여성이 좀 더 많이 수집이 되어 2차 조사에서는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남성 설문 대상자를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설문 대상자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게 형성되었다.

<표 25>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남성	465	44.4	44.5
	여성	580	55.3	55.5
	합계	1045	99.7	100
결측	결측값	3	0.3	
합계		10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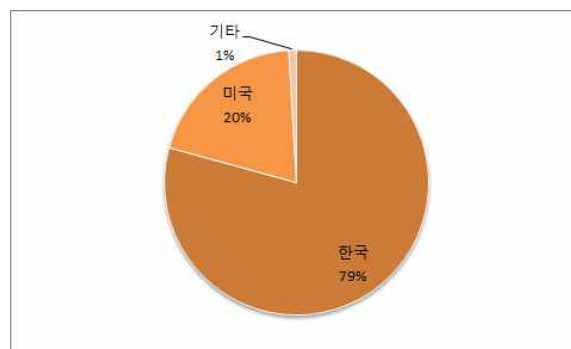
<그림 2>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

○ 출생지

재미 동포의 경우에 아직까지 1세대와 1.5세대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생한 조사 대상자가 전체의 약 79%가 되었다. 이는 재중 동포나 독립국가연합 동포와는 다른 재미 동포의 이주 역사를 반영한 현상이다.

<표 26> 출생지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

출생국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한국	829	79.1	79.3
	미국	207	19.8	19.8
	기타	10	1	1
	합계	1046	99.8	100
결측	결측값	2	0.2	
합계		1048	100	



<그림 3> 출생지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

○ 부모님의 출생국

재미 동포의 경우는 아직까지 1세대와 1.5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출생국이 한국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북한에 부모님이 계신 경우가 5% 정도 포함이 되었고 기타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가 약간 포함되어 있다.

<표 28> 조사 대상자의 아버지의 출생국

아버지의 출생국	빈도	퍼센트
한국	981	93.6
북한	35	3.3
미국	17	1.6
일본	5	0.5
중국	2	0.2
독일	1	0.1
우즈베키스탄	1	0.1
인도네시아	1	0.1
결측값	5	0.5
합계	1048	100

<표 27> 조사 대상자의 어머니의 출생국

어머니의 출생국	빈도	퍼센트
한국	1008	0.2
북한	23	2.2
일본	3	0.3
중국	3	0.3
미국	2	96.2
결측값	9	0.9
합계	10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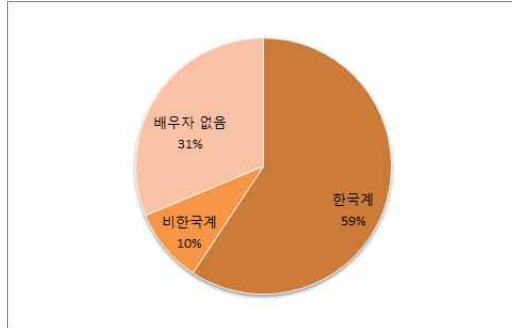
○ 배우자의 민족

배우자의 민족별로 볼 때 한국계 배우자를 둔 조사 대상자가 대부분이었고, 비한국계 배우자를 둔 설문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특히 한인 남성 중에 비한국계 배우자와 결혼한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는 비한국계 여성과 결혼한 한인 남성이 반대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비한국계일 경우에 언어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비한국계 배우자를 가진 분을 최대한 찾아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1/7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설문자의 1/3 정도는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였다.³⁸⁾

38) 비한국계 배우자를 둔 경우에 언어 태도나 언어 능력에 있어 다른 집단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비한국계 배우자를 둔 경우가 여성에 몰려 있었고, 특수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서 비한국계 배우자 여부를 변인으로 둔 분석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배우자의 국적이나 민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학력도 변인이 될 가능성을 포함시켜 추후 연구에서 배우자 변인을 세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29> 배우자 민족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

배우자의 민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한국계	605	57.7	59.3
	비한국계	96	9.2	9.4
	배우자 없음	319	30.4	31.3
	합계	1020	97.3	100
결측	결측값	28	2.7	
합계		10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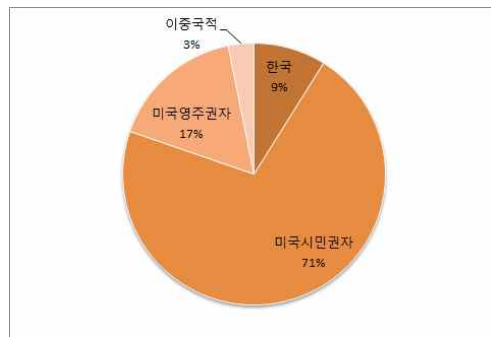
<그림 4> 배우자 민족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

○ 국적

조사에 참여한 재미 동포들의 국적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미국 영주권만 취득하고 사는 경우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었다.³⁹⁾ 이들도 재외 동포의 통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여 미국 거주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면 재미 동포에 포함시켜서 진행하였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사는 한인들이었고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한국과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응답자도 3%에 이르렀다.

<표 30> 조사 대상자의 국적별 분포

국적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한국	93	8.9	8.9
	미국시민권자	747	71.3	71.4
	미국영주권자	173	16.5	16.5
	이중국적	33	3.1	3.2
	합계	1046	99.8	100
결측	결측값	2	0.2	
합계		1048	100	



<그림 5> 조사 대상자의 국적별 분포

39)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만 미국 국적이 아닌 합법적인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국적은 한국이지만 재외 동포와 다름없이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닐 수 있다. 원칙적으로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대상자를 확보하면서 거주 기간을 물어보고 설문 대상자를 정하였고, 이들의 국적은 설문 조사가 끝난 뒤에 알 수 있었다.

○ 이주 나이 및 세대

설문 대상자의 세대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 대상자를 1세대, 1.5세대, 2세대로 나누어 보았는데, 1세대는 20세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말한다. 1.5세대는 초, 중, 고등학교 때에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되며 2세대의 경우는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에 거의 2세대와 다름없는 언어생활을 하고 있어서 2세대로 간주하기로 하였다.⁴⁰⁾ 미국 전역에 걸쳐 3세대가 존재하는 곳은 현재로서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설문지에서 3세대 조사는 할 수 없었다. 세대별로 비슷한 숫자의 설문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과 미국에 오래 거주한 설문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이 충돌하였기 때문에 30년, 40년 이상 거주한 분들의 일정 숫자를 확보하다 보니 1세대 설문 응답자의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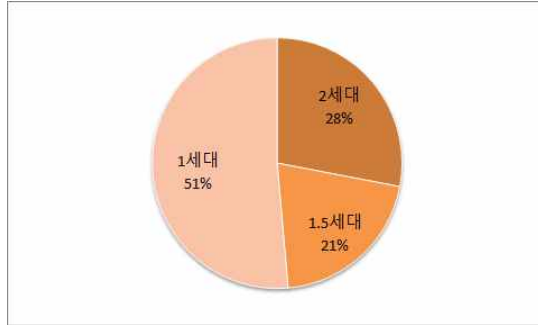
<표 31> 조사 대상자의 이주 시 연령별 분포

이주 시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미국태생	198	18.9	19.1
	7세전이주	92	8.8	8.9
	13세전이주	104	9.9	10
	16세전이주	55	5.2	5.3
	19세전이주	54	5.2	5.2
	20-29세이주	300	28.6	29
	30-39세이주	157	15	15.2
	40세이상이주	76	7.3	7.3
	합계	1036	98.9	100
결측	결측값	12	1.1	
합계		1048	100	

40) 이러한 세대 구분은 선행 연구에서도 정해 놓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주 나이가 언어 사용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7세 이전에 이주한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2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중간보고회에서 자문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표 32> 조사 대상자의 이주 세대별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2세대	290	27.7	28.0
	1.5세대	213	20.3	20.6
	1세대	533	50.9	51.4
	합계	1036	98.9	100.0
결측	결측값	12	1.1	
합계		10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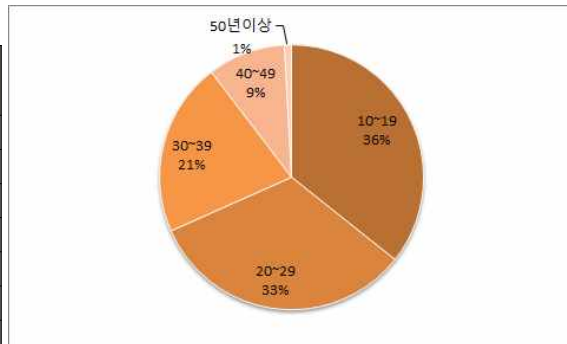
<그림 6> 조사 대상자의 이주 세대별 분포

○ 미국 거주 기간

미국 거주 기간은 20년을 전후한 설문 대상자들의 수가 많아서 2차 조사에서 거주 기간이 오래된 30년 이상의 설문 대상자를 찾아서 설문을 하였다. 40년 이상 거주하려면 70년대 초반에 이주를 한 분들이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70대 이상이어서 설문에 응답하시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40년 이상 거주하신 분을 많이 만나기가 어려워 전체 설문의 20% 정도의 응답자를 구할 수 있었다.

<표 33> 거주 기간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

거주 기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0-19	371	35.4	35.7
	20-29	340	32.4	32.7
	30-39	221	21.1	21.3
	40-49	99	9.4	9.5
	50년이상	9	.9	.9
	합계	1040	99.2	100.0
결측	결측값	8	.8	
합계		1048	100.0	



<그림 7> 거주 기간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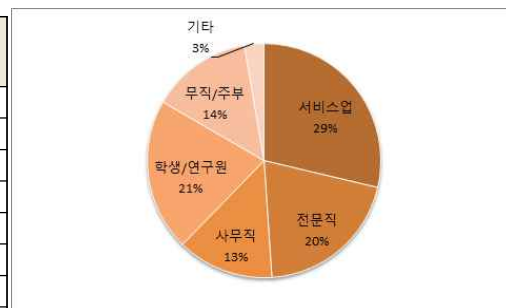
○ 직업

재미 동포들은 한인 사회인 도시에 모여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영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⁴¹⁾ 전문직 종사자에는 의사, 간호사, 변호사 등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의 경우를 포함시켰다.⁴²⁾ 사무직의 경우에는 공무원부터 사무 직원까지 포함되었고⁴³⁾ 미국에 사는 재미 동포의 특성 상 2세대의 경우에 아직까지 대학생인 경우가 많아서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직업군에 대한 분류는 구체적인 직업을 적은 것을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미국 내 한인들의 직업 양상을 파악하여 분류하였다.⁴⁴⁾

<표 34> 조사 대상자의 직업별 분포

직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자영/서비스업	296	28.2	28.7
	전문직	209	19.9	20.3
	사무직	138	13.2	13.4
	학생/연구원	217	20.7	21
	무직(주부포함)	144	13.7	14
	기타	28	2.7	2.7
합계		1032	98.5	100
결측	결측값	16	1.5	
합계		1048	100	



<그림 8> 조사 대상자의 직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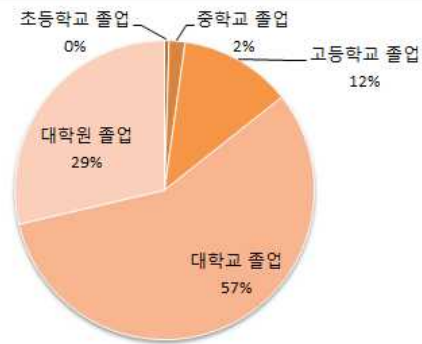
- 41) 자영업 및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직업군은 본인이 구체적인 직업란에 자영업, 판매업, 세일즈업, self-employee, business owner 등이라고 작성한 응답자들이 주를 이루며 구체적인 자영업의 종류를 제시한 세탁소, 네일아트, realtor 등과 같은 직업을 자영/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 42) 전문직 종사자에 여자의 수가 많이 있는 것은 간호사와 교사를 전문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교사라는 직업에 표시를 한 응답자의 경우에 미국의 교사 자격증을 가졌는가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자격증을 가졌는가라는 기준에 맞지 않을 수가 있지만 설문지를 통해서 이들이 공립학교의 교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 43) 사무직의 분류에 있어 미국 기업인지 한국 기업인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입력이 되지 않아서 차이를 두지 못한 점이 아쉽다. 다만 구체적인 직업을 작성할 때 대부분의 응답자가 회사원, 은행원과 같은 직업을 제시한 사람들을 사무직으로 분류하였는데 미국의 현지 실정 상 미국계 기업일 것으로 예측은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직업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 44) 직업 분류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에서 한국 및 미국의 직업 분류표에 따라 미국 실정에 맞게 나누어 보기로 결정하였다. 처음에 10가지 이상의 직업군으로 코딩을 했었으나 구체적인 직업명이 상당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직업 분류표에 따르면 한인들이 종사하지 않는 직업이 상당히 많았다. 또한 직업을 다양하게 보여줄 경우에 직업 변인으로 본 연구의 설문 항목을 분석하는 것이 샘플수의 문제로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범주의 직업 6가지로 묶어서 미국 내 한인의 직업을 재설정하였다.

○ 학력 및 학교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재미 동포들의 최종 학력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 사람들의 높은 교육열이 반영된 탓이기도 하지만 이민 역사에 있어 고학력 전문직이 이주를 시작하였고, 최근에도 여전히 교육 이민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선행 미국 인구센서스에서 한인들의 학력이 다른 인종 집단에 비해 높은 것처럼 연구에 참여한 한인들의 경우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대학과 대학원 졸업을 합하면 전체의 인구조사에서 이루어졌던 것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표36>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 조사 대상자의 60% 가까이는 최종 학력을 미국에서 마친 것으로 볼 때 미국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마친 재미 동포들의 숫자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35>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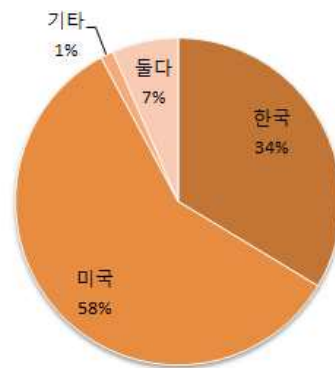
최종 학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초등학교 졸업	5	0.5	0.5
	중학교 졸업	18	1.7	1.7
	고등학교 졸업	126	12	12.1
	대학교 졸업	593	56.6	57
	대학원 졸업	298	28.4	28.7
	합계	1040	99.2	100
결측	결측값	8	0.8	
합계		1048	100	



<그림 9>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별 분포

<표 36>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 국가

최종 학력 국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한국	349	33.3	33.6
	미국	608	58	58.5
	기타	14	1.3	1.3
	둘다	69	6.6	6.6
	합계	1040	99.2	100
결측	결측값	8	0.8	
합계		10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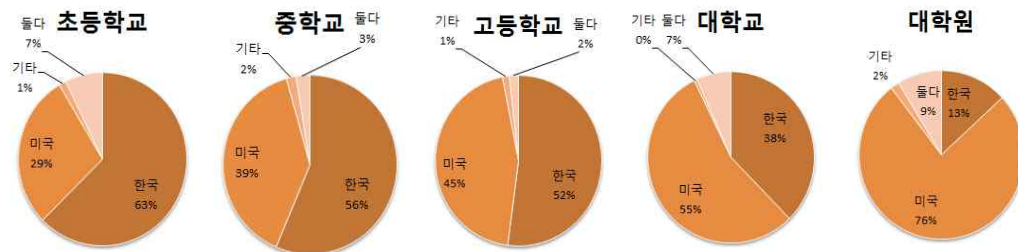


<그림 10>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 국가

이들 대상자들이 학교를 다닌 국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으로 나누어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7>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 국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한국	608	58	62.6	552	52.7	56.4	514	49	52.1	333	31.8	37.7	39	3.7	13.1
	미국	280	26.7	28.8	384	36.6	39.2	442	42.2	44.8	487	46.5	55.1	227	21.7	76.2
	기타	14	1.3	1.4	18	1.7	1.8	13	1.2	1.3	5	0.5	0.6	5	0.5	1.7
	둘다	70	6.7	7.2	25	2.4	2.6	18	1.7	1.8	59	5.6	6.7	26	2.5	8.7
	합계	972	92.7	100	979	93.4	100	987	94.2	100	884	84.4	100	298	28.4	100
결측	결측값	76	7.3		69	6.6		61	5.8		164	15.6		750	71.6	
	합계	1048	100		1048	100		1048	100		1048	100		1048	100	



<그림 11>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 국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초등학교가 72.2%였고, 중학교 65.9%, 고등학교 61.9%, 대학교 45.5%, 대학원 15.2%으로, 상급 학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남녀의 성별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성별 비율인 44:56의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학력이 모두 높은 집단이어서 학력 수준에 따른 변인보다는 최종 학교를 미국에서 마쳤는지

한국에서 마쳤는지가 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보여 학력별 변인에 있어서 최종 학력 국가를 고려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2.2 조사 대상자의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조사 설문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정보를 간단하게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 연령별 출생지

<표 38>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출생지

		출 생 지 코 딩			전 체
		한 국	미 국	기 타	
나 이	10대	12	34	0	46
		26.1%	73.9%	0.0%	100.0%
	20대	98	118	2	218
		45.0%	54.1%	0.9%	100.0%
	30대	148	39	2	189
		78.3%	20.6%	1.1%	100.0%
	40대	198	12	1	211
		93.8%	5.7%	0.5%	100.0%
	50대	184	1	1	186
		98.9%	0.5%	0.5%	100.0%
	60대	123	0	1	124
		99.2%	0.0%	0.8%	100.0%
	70대	64	3	3	70
		91.4%	4.3%	4.3%	100.0%
전 체		827	207	10	1044
		79.2%	19.8%	1.0%	100.0%

○ 연령별 국적

<표 39>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국적 상태

		국적				전체
		한국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	이중국적	
나이	10대	1	31	6	7	45
		2.2%	68.9%	13.3%	15.6%	100.0%
	20대	22	149	35	12	218
		10.1%	68.3%	16.1%	5.5%	100.0%
	30대	24	122	37	5	188
		12.8%	64.9%	19.7%	2.7%	100.0%
	40대	26	133	47	5	211
		12.3%	63.0%	22.3%	2.4%	100.0%
	50대	14	136	33	3	186
		7.5%	73.1%	17.7%	1.6%	100.0%
	60대	5	108	10	1	124
		4.0%	87.1%	8.1%	0.8%	100.0%
	70대	1	66	5	0	72
		1.4%	91.7%	6.9%	0.0%	100.0%
전체		93	745	173	33	1044
		8.9%	71.4%	16.6%	3.2%	100.0%

○ 연령별 이주 세대

<표 40>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이주 세대

		세대코딩			전 체
		2세대	1.5세대	1세대	
나이	10대	42	2	0	44
		95.50%	4.50%	0.00%	100.00%
	20대	144	70	1	215
		67.00%	32.60%	0.50%	100.00%
	30대	64	58	66	188
		34.00%	30.90%	35.10%	100.00%
	40대	38	52	120	210
		18.10%	24.80%	57.10%	100.00%
	50대	1	30	155	186
		0.50%	16.10%	83.30%	100.00%
	60대	0	1	119	120
		0.00%	0.80%	99.20%	100.00%
70대	1	0	71	72	
	1.40%	0.00%	98.60%	100.00%	
전 체		290	213	532	1035
		28.00%	20.60%	51.40%	100.00%

○ 연령별 거주 기간

<표 41>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거주 기간

		거주 기간					전 체
		10-19	20-29	30-39	40-49	50년이 상	
나이	10대	45	0	0	0	0	45
		100.00%	0.00%	0.00%	0.00%	0.00%	100.00%
	20대	101	114	0	0	0	215
		47.00%	53.00%	0.00%	0.00%	0.00%	100.00%
	30대	89	45	53	0	0	187
		47.60%	24.10%	28.30%	0.00%	0.00%	100.00%
	40대	84	65	36	25	0	210
		40.00%	31.00%	17.10%	11.90%	0.00%	100.00%
	50대	35	75	55	19	1	185
		18.90%	40.50%	29.70%	10.30%	0.50%	100.00%
	60대	14	25	54	31	0	124
		11.30%	20.20%	43.50%	25.00%	0.00%	100.00%
	70대	3	15	22	24	8	72
		4.20%	20.80%	30.60%	33.30%	11.10%	100.00%
전 체		371	339	220	99	9	1038
		35.70%	32.70%	21.20%	9.50%	0.90%	100.00%

○ 연령별 이주연도

<표 42>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이주연도

		이주 년도				전 체
		1970년이 전	1970-79년	1980-89년	1990년이후	
나이	10대	0	0	0	13	13
		0.00%	0.00%	0.00%	100.00%	100.00%
	20대	0	0	0	99	99
		0.00%	0.00%	0.00%	100.00%	100.00%
	30대	0	5	35	108	148
		0.00%	3.40%	23.60%	73.00%	100.00%
	40대	1	31	43	124	199
		0.50%	15.60%	21.60%	62.30%	100.00%
	50대	2	33	87	63	185
		1.10%	17.80%	47.00%	34.10%	100.00%
	60대	4	49	53	18	124
		3.20%	39.50%	42.70%	14.50%	100.00%
70대	10	34	17	11	72	
	13.90%	47.20%	23.60%	15.30%	100.00%	
전 체		17	152	235	436	840
		2.00%	18.10%	28.00%	51.90%	100.00%

○ 연령별 직업

<표 43>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직업

		직업						전 체
		서비스 업	전문직	사무직	학생/ 연구원	무직(주 부포함)	기타	
나이	10대	1	0	1	43	0	0	45
		2.20%	0.00%	2.20%	95.60%	0.00%	0.00%	100.00%
	20대	19	23	26	146	2	2	218
		8.70%	10.60%	11.90%	67.00%	0.90%	0.90%	100.00%
	30대	38	54	38	17	32	4	183
		20.80%	29.50%	20.80%	9.30%	17.50%	2.20%	100.00%
	40대	50	71	38	9	37	4	209
		23.90%	34.00%	18.20%	4.30%	17.70%	1.90%	100.00%
	50대	85	32	23	2	31	12	185
		45.90%	17.30%	12.40%	1.10%	16.80%	6.50%	100.00%
	60대	67	20	6	0	23	4	120
		55.80%	16.70%	5.00%	0.00%	19.20%	3.30%	100.00%
	70대	36	9	6	0	17	2	70
		51.40%	12.90%	8.60%	0.00%	24.30%	2.90%	100.00%
전 체		296	209	138	217	142	28	1030
		28.70%	20.30%	13.40%	21.10%	13.80%	2.70%	100.00%

○ 연령별 학력 및 학교

<표 44>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최종학력

		학력					전 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나이	10대	0	7	21	18	0	46
		0.00%	15.20%	45.70%	39.10%	0.00%	100.00%
	20대	0	0	5	179	34	218
		0.00%	0.00%	2.30%	82.10%	15.60%	100.00%
	30대	0	0	3	108	76	187
		0.00%	0.00%	1.60%	57.80%	40.60%	100.00%
	40대	0	0	8	97	104	209
		0.00%	0.00%	3.80%	46.40%	49.80%	100.00%
	50대	1	3	37	96	49	186
		0.50%	1.60%	19.90%	51.60%	26.30%	100.00%
	60대	3	3	29	64	21	120
		2.50%	2.50%	24.20%	53.30%	17.50%	100.00%
	70대	1	5	21	32	13	72
		1.40%	6.90%	29.20%	44.40%	18.10%	100.00%
전 체		5	18	124	594	297	1038
		0.50%	1.70%	11.90%	57.20%	28.60%	100.00%

<표 45>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최종학력 나라

		최종학력나라				전 체
		한국	미 국	기 타	둘 다	
나이	10대	0	46	0	0	46
		0.00%	100.00%	0.00%	0.00%	100.00%
	20대	1	209	4	4	218
		0.50%	95.90%	1.80%	1.80%	100.00%
	30대	27	147	2	11	187
		14.40%	78.60%	1.10%	5.90%	100.00%
	40대	53	134	1	21	209
		25.40%	64.10%	0.50%	10.00%	100.00%
	50대	112	53	3	18	186
		60.20%	28.50%	1.60%	9.70%	100.00%
	60대	95	15	0	10	120
		79.20%	12.50%	0.00%	8.30%	100.00%
	70대	59	4	4	5	72
		81.90%	5.60%	5.60%	6.90%	100.00%
전 체		347	608	14	69	1038
		33.40%	58.60%	1.30%	6.60%	100.00%

○ 성별 배우자의 민족

<표 46> 조사 대상자의 성별 배우자 민족

		배우자			전체
		한국계	비 한국계	해당없음	
성별	남성	283	11	164	458
		61.80%	2.40%	35.80%	100.00%
	여성	320	85	155	560
		57.10%	15.20%	27.70%	100.00%
전체		603	96	319	1018
		59.20%	9.40%	31.30%	100.00%

제2장 언어에 대한 태도 및 인식

1. 언어 능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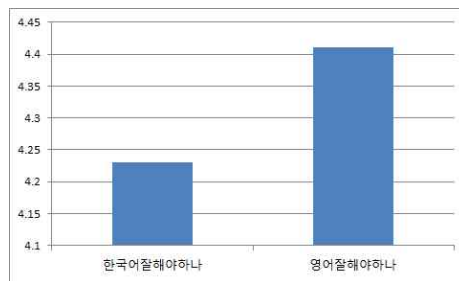
○ 기본 분석

‘재미 동포는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과 ‘재미 동포는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의 응답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와 같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이 두 응답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영어에 대한 응답 점수가 한국어에 대한 응답 점수보다 높았으며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재미 동포들은 한국어 능력 필요성보다 영어 능력의 필요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표 47> 언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평균	N	표준 편차	t	유의확 률(p값)
한국어잘해야하나	4.23	1041	.847	-6.284	.000**
영어잘해야하나	4.41	1041	.756		

**p<.01



<그림 12> 언어 능력 필요성 인식 비교

○ 성별 분석

언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영어 능력의 필요성을 더 인식

45)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는 기술통계 값만 제시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분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론 통계 분석을 추가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21을 사용하였고, 통계 분석 방법으로는 독립표본t 검정, 대응표본t검정, F검정, 그리고 카이제곱 검정이 사용되었다. 선행 연구 기술 방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였으나 최종 자문회의에서 추론통계 값을 제시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결정하여 통계값을 제시하였다.

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대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8> 언어 능력의 필요성 성별 분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한국어 잘해야하나	남성	463	4.22	.869	-.348	.728
	여성	576	4.24	.832		
영어 잘해야하나	남성	464	4.42	.763	.433	.665
	여성	579	4.40	.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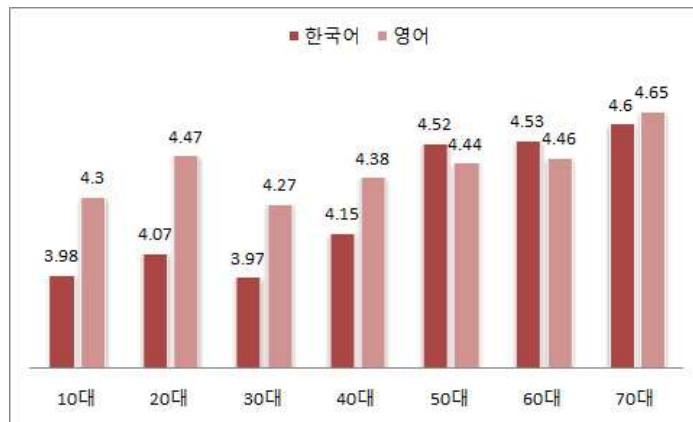
○ 연령별 분석

한국어 사용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한국어의 경우에 F값이 14.728 ($p = .000$), 영어의 경우에는 F값이 2.815 ($p = .010$)으로 연령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을 실시해 보니 한국어의 경우에는 10대, 20대, 30대, 40대의 연령 집단은 인식에 있어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50대, 60대, 70대 집단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영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점수에 있어서는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70대의 경우 30대와 다른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각 집단의 인식 점수는 통계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49> 언어 능력의 필요성 연령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사후검정
한국어 잘해야하나	10대(a)	46	3.98	.745	14.728/ .000**	a,b,c,d>,e,f
	20대(b)	217	4.07	.748		
	30대(c)	189	3.97	.899		
	40대(d)	211	4.15	.937		
	50대(e)	184	4.52	.739		
	60대(f)	123	4.53	.761		
	70대(g)	70	4.60	.710		
	합계	1040	4.23	.847		
영어 잘해야하나	10대(a)	46	4.30	.756	2.815/ .010*	g>c
	20대(b)	218	4.47	.693		
	30대(c)	189	4.27	.816		
	40대(d)	210	4.38	.756		
	50대(e)	186	4.44	.791		
	60대(f)	124	4.46	.769		
	70대(g)	71	4.65	.588		
	합계	1044	4.41	.757		

*p<.05, **p <.01



<그림 13> 언어 능력의 필요성 연령별 분석

연령에 따른 언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어 능력보다 영어 능력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40대까지의 재미동포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필요성의 점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보다 영어 능력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50대부터는 한국어 능력에 대한 필요성의 점수가 영어 능력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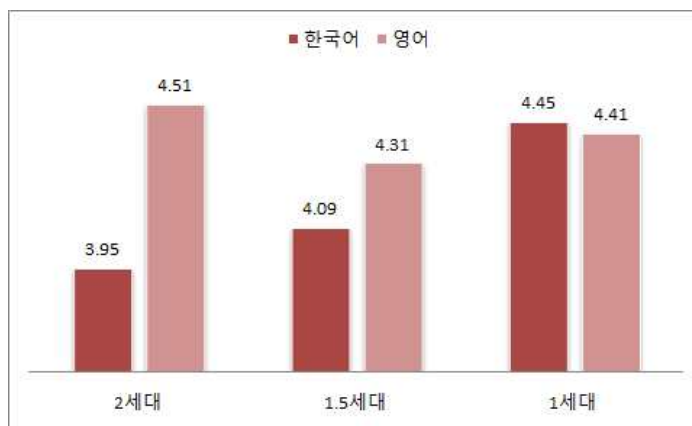
○ 이주 세대별 분석

한국어의 사용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이주 세대별로 비교한 결과, 1세대에 비해 1.5세대, 2세대로 내려갈수록 한국어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영어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2세대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세대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 검정을 보면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에 있어 1세대는 1.5세대나 2세대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며, 1.5세대와 2세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영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1세대와 1.5세대 간에는 차이가 나지 않고, 2세대와 차이가 난다.

<표 50> 언어능력의 필요성 이주 세대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 확률	사후검정
한국어 잘해야하나	2세대 (a)	290	3.95	.794	40.179/ .000**	c>a,b
	1.5세대(b)	211	4.09	.871		
	1세대(c)	529	4.45	.806		
	합계	1030	4.24	.847		
영어 잘해야하나	2세대(a)	289	4.51	.698	4.331/ .013*	a>b
	1.5세대(b)	213	4.31	.756		
	1세대(c)	532	4.41	.782		
	합계	1034	4.42	.757		

*p<.05, **p <. 01



<그림 14> 언어능력의 필요성 이주 세대별 분석

또한 각 세대별로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과 영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 언어능력의 필요성 이주 세대별 분석(1세대)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한국어잘해야하나	4.45	529	.806	1.106	.269
영어잘해야하나	4.41	529	.783		

<표 51> 언어능력의 필요성 이주 세대별 분석(1.5세대)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한국어잘해야하나	4.09	212	.871	-3.509	.001**
영어잘해야하나	4.32	212	.754		

**p<.01

<표 53> 언어능력의 필요성 이주 세대별 분석(2세대)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한국어잘해야하나	3.95	282	.790	-11.040	.000**
영어잘해야하나	4.50	282	.702		

**p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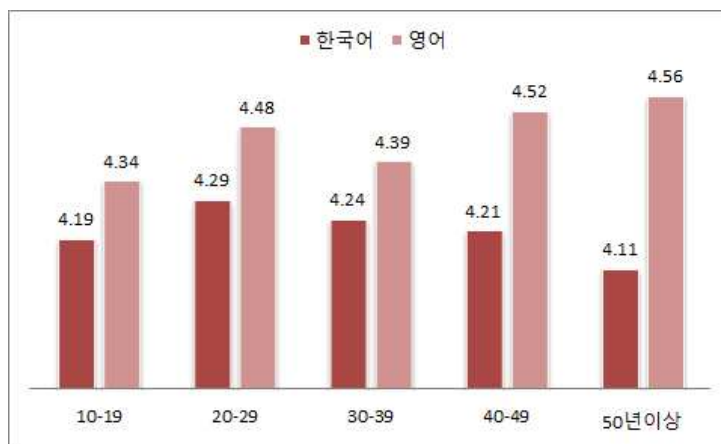
이주 세대를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면 1세대의 경우는 한국어 능력이 영어 능력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반면에, 1.5세대와 2세대는 두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세대는 한국어 능력에 비해 영어 능력의 필요성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거주 기간별 분석

한국어의 사용 능력의 필요성이나 영어 사용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거주 기간별로 비교한 결과, 거주 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각 집단 안에서 두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점수를 비교해 보면 <그림 15>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거주 기간에서 한국어 능력보다는 영어 능력이 필요성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4> 언어능력의 필요성 거주 기간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한국어 잘해야하나	10-19	369	4.19	.838	.626	.644
	20-29	340	4.29	.819		
	30-39	218	4.24	.901		
	40-49	98	4.21	.876		
	50년이상	9	4.11	.928		
	합계	1034	4.23	.849		
영어 잘해야하나	10-19	371	4.34	.781	2.168	.071
	20-29	340	4.48	.693		
	30-39	220	4.39	.823		
	40-49	98	4.52	.692		
	50년이상	9	4.56	.882		
	합계	1038	4.42	.757		



<그림 15> 언어능력의 필요성 거주 기간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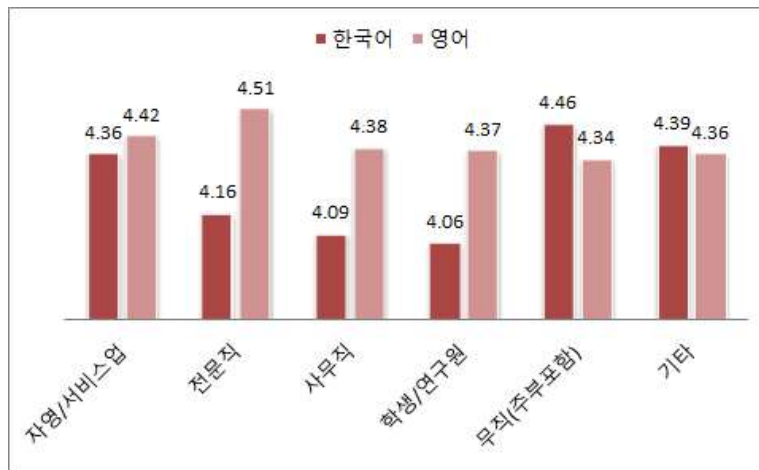
○ 직업별 분석

직업별로 보았을 때 한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 자영업 및 서비스업은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한국어 사용 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집단 간에 영어 사용 능력에 대한 인식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별로 보았을 때 모든 직업군이 영어 능력의 중요성을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무직이나 주부의 경우에만 영어 능력보다 한국어 능력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5> 언어능력의 필요성 직업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한국어 잘해야하나	자영/서비스업 (a)	295	4.36	.899	6.695 /.000**	a,e>b,c,d
	전문직(b)	207	4.16	.829		
	사무직(c)	138	4.09	.862		
	학생/연구원(d)	216	4.06	.776		
	무직(주부포함)(e)	142	4.46	.778		
	기타(e)	28	4.39	.786		
	합계	1026	4.23	.847		
영어 잘해야하나	자영/서비스업(a)	296	4.42	.786	2.213 /.301	
	전문직(b)	208	4.51	.681		
	사무직(c)	138	4.38	.803		
	학생/연구원(d)	217	4.37	.754		
	무직(주부포함)(e)	143	4.34	.779		
	기타	28	4.36	.678		
	합계	1030	4.41	.758		

** p <.01



<그림 16> 언어능력의 필요성 직업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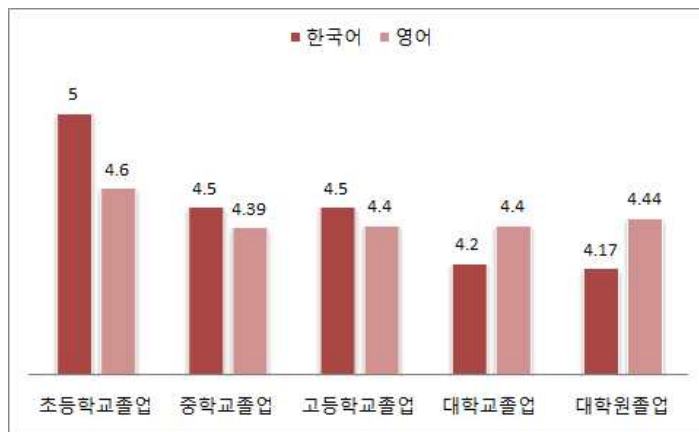
○ 학력 및 학교별 분석

학력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 고졸 집단과 대학교 이상 집단에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학력이 높은 집단이 한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인식 점수가 낮았다. 영어 사용 능력에 대한 인식은 학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두 능력에 대한 차이에 있어서도 고졸 이하는 한국어를,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 집단은 영어 능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6> 언어능력의 필요성 학력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한국어 잘해야하나	초등학교졸업(a)	4	5.00	.000	5.065 /.000**	c>d,e
	중학교졸업(b)	18	4.50	.707		
	고등학교졸업(c)	125	4.50	.725		
	대학교졸업(d)	593	4.20	.829		
	대학원졸업(e)	294	4.17	.912		
	합계	1034	4.23	.846		
영어 잘해야하나	초등학교졸업(a)	5	4.60	.894	.218 /.928	
	중학교졸업(b)	18	4.39	.608		
	고등학교졸업(c)	126	4.40	.760		
	대학교졸업(d)	593	4.40	.747		
	대학원졸업(e)	296	4.44	.783		
	합계	1038	4.41	.757		

** p <.01



<그림 17> 언어능력의 필요성 학력별 분석

최종 학력을 미국에서 마쳤는가에 따른 것을 변인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사용 능력의 필요성에 있어 한국에서 최종 학교를 마친 경우와 미국에서 마친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지만 (t값:8.729 p=.000) 영어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57> 언어능력의 필요성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최종학력국가		한국어 잘해야 하나	영어 잘해야 하나
한국	평균	4.52	4.4
	N	347	349
미국	평균	4.06	4.42
	N	606	607
기타	평균	4	4.43
	N	13	14
둘다	평균	4.35	4.43
	N	68	68
합계	평균	4.23	4.41
	N	1034	1038



<그림 18> 언어능력의 필요성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 언어 능력의 인식과 태도 요약

재미 동포들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의 필요성을 비교 분석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영어 능력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우선 나이 변인에 있어 40대 이하의 세대는 50대 이상의 세대와는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며, 이것은 세대와도 연관이 있어, 1세대는 1.5세대나 2세대와 다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세대는 한국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1.5세대와 2세대는 영어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거주 기간과는 큰 상관이 없이 전 거주 기간 변인에 걸쳐 영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직업에 따라서도 무직인 경우에 한국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는 영어 능력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과 대졸의 경우에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서 학교를 마친 사람은 영어 능력을 한국에서 학교를 마친 사람은 한국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재미 동포들은 세대가 지날수록 한국어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영어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직업적으로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할수록 영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한국어에 대한 태도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끼리는 한국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한국어 사용 당위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본 분석

<표 58> 한국어 사용 당위성에 대한 인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그렇다	325	31	31.1
	그런 편이다	270	25.8	25.9
	보통이다	331	31.6	31.7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5	10	10.1
	그렇지 않다	13	1.2	1.2
	합계	1044	99.6	100
결측	결측값	4	0.4	
합계		1048	100	



<그림 19> 한국어 사용 당위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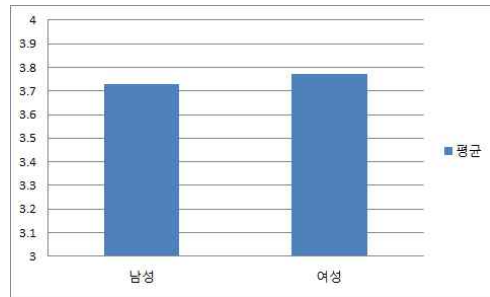
한국인끼리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답항에 체크를 하였고 그렇다 5점,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보았을 때 평균값은 3.76점(표준편차 1.04)이었다. 이를 변인에 따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성별 분석

한국어 사용의 당위성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59> 한국어 사용 당위성 성별 분석

성별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남성	3.73	464	1.014	.558	.577
여성	3.77	577	1.065		
합계	3.76	1041	1.043		



<그림 20> 한국어 사용 당위성 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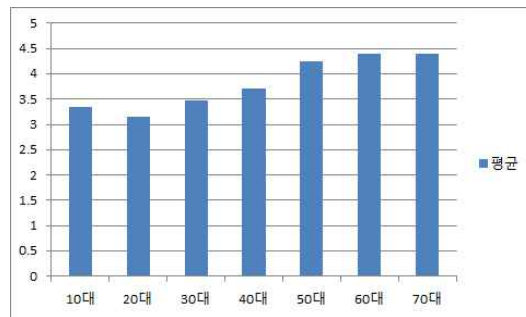
○ 연령별 분석

한국어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연령이 낮아질수록 꼭 한국인들끼리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통계적으로 50대 이상의 집단과 40대 이하의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젊은 세대에서는 꼭 한국인 사이에서 한국어를 써야 한다는 점에 있어 나이 든 세대와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0> 한국어 사용 당위성 연령별 분석

나이	평균	N	표준편차	F/ 유의확 률	사후검 정
10대(a)	3.35	46	.822	43.116 e,f,g>a, b,c,d /.000**	
20대(b)	3.16	218	.902		
30대(c)	3.47	189	.965		
40대(d)	3.70	210	1.040		
50대(e)	4.25	185	.912		
60대(f)	4.39	124	.853		
70대(g)	4.39	70	.873		
합계	3.75	1042	1.041		

**p < .01



<그림 21> 한국어 사용 당위성 연령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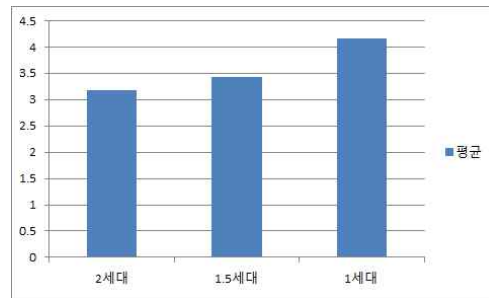
○ 이주 세대별 분석

한국어의 사용 당위성에 대한 태도를 이주 세대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세대의 경우는 한국어 사용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1.5세대와 2세대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약해지고 있고, 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 이로 보아 이주 세대별로 당위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표 61> 한국어 사용 당위성 이주 세대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2세대(a)	290	3.18	.825	135.072 /.000**	c>b>a
1.5세대(b)	213	3.43	1.014		
1세대(c)	529	4.22	.939		
합계	1032	3.76	1.038		

**p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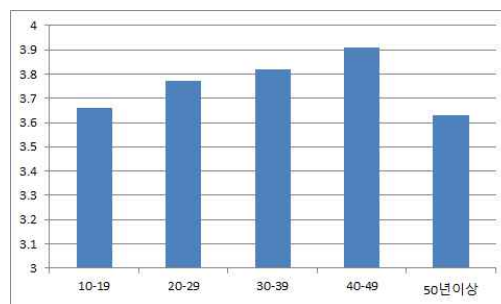
<그림 22> 한국어 사용 당위성 이주 세대별 분석

○ 거주 기간별 분석

한국인들 간의 한국어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위성에 대한 평균값이 올라가고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다. 거주 기간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2세대의 경우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표 62> 한국어 사용 당위성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 기간	평균	N	표준편차	F	유의확률
10-19	3.66	370	1.055	1.604	.171
20-29	3.77	340	1.024		
30-39	3.82	219	1.041		
40-49	3.91	99	1.041		
50년이상	3.63	8	1.188		
합계	3.75	1036	1.043		



<그림 23> 한국어 사용 당위성 거주 기간별 분석

추가 분석을 위해 1세대 중에서 거주 기간에 따라 인식 양상이 달라지는지를 보니 1세대 안에서는 20년 미만 거주한 집단과 40년 이상 거주한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30년, 40년 미만인 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특이한 점은 40년 이상 거주한 집단의 평균값이 4.53으로 가장 높다는 것으로 20년 미만 거주한 집단의 평균 4.03과 차이가 나는데 이를 해석하면 재미 동포 1세대들은 거주 기간이 길어도 한국어 사용에 대해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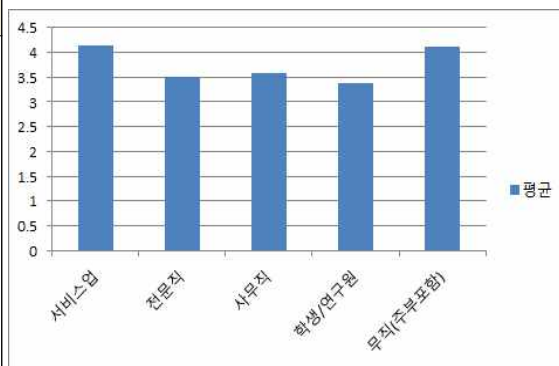
○ 직업별 분석

직업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인 사회 안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서비스 직업의 경우에는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반면에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 및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직인 경우에는 한국인끼리 꼭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명되었다.

<표 63> 한국어 사용 당위성 직업별 분석

직업	평균	N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자영/서비스업(a)	4.13	296	.985	22.614 /.000**	a,e> b,c,d
전문직(b)	3.50	208	1.031		
사무직(c)	3.57	137	1.020		
학생/연구원(d)	3.37	217	.919		
무직					
(주부포함)(e)	4.12	142	1.021		
기타(f)	3.89	28	.994		
합계	3.76	1028	1.042		

**p <.01



<그림 24> 한국어 사용 당위성 직업별 분석

○ 학력 및 학교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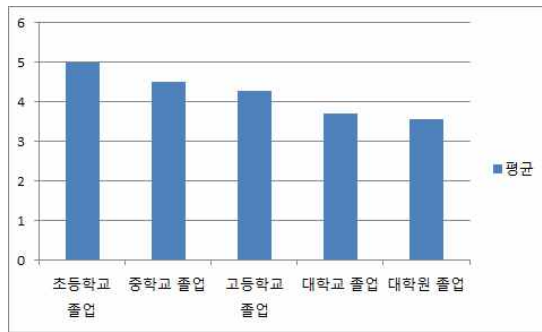
한국어 사용의 당위성에 대한 분석에 있어 학력이 낮을수록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사용의 당위성에 대한 인

식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고졸 이하의 집단과 대졸 이상의 집단이 인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점은 최종 학위를 미국에서 마친 집단과 아닌 집단에 있어서도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

<표 64> 한국어 사용의 당위성 학력별 분석

학력	평균	N	표준 편차	F/유의 확률	사후 검정
초등학교 (a)	5.00	4	.000	15.140 /.000**	b,c>d .e
중학교 (b)	4.50	18	.857		
고등학교 (c)	4.28	126	.873		
대학교 (d)	3.70	593	1.032		
대학원 (e)	3.57	295	1.047		
합계	3.75	1036	1.042		

**p <.01



<그림 25> 한국어 사용의 당위성 학력별 분석

<표 65> 한국어 사용의 당위성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최종학력국가	평균	N	표준편차
한국	4.38	347	.826
미국	3.41	607	.989
기타	3.21	14	.699
둘다	3.74	68	1.045
합계	3.75	1036	1.042



<그림 26> 한국어 사용의 당위성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 한국어 사용의 당위성에 대한 요약

재미 동포들의 한국어 사용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 역시 한국어 사용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평균값 이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연령별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점수가 올라가고 있고,

이주 세대에 따라 1.5세대나 2세대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에 따라 한국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는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는 점수가 높았고, 전문직 고학력으로 당위성에 대한 인식 점수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사는 재미 동포들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력에 따른 차이와, 특히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영어 능력이 높아질수록 한국어를 꼭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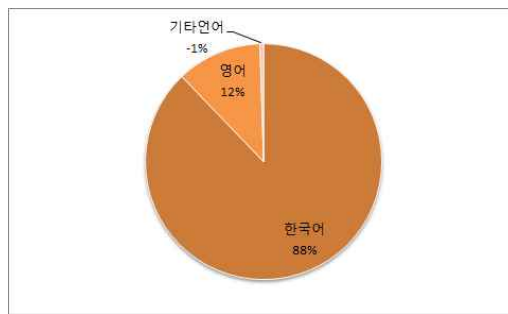
3. 모국어에 대한 인식

○ 기본 분석

‘당신의 모국어(제일 처음 배운 언어)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한국어를 모국어라고 하였다. 이는 이 연구 설문 응답자 가운데 2세대의 상당수가 처음 배운 언어가 한국어이며, 모국어를 한국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66> 모국어에 대한 인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한국어	912	87	87.8
	영어	122	11.6	11.7
	기타언어	5	0.5	0.5
	합계	1039	99.1	100
결측	결측값	9	0.9	
합계		10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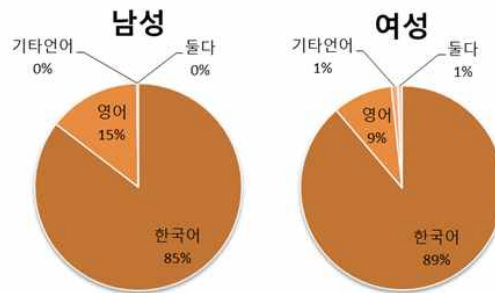
<그림 27> 모국어에 대한 인식

○ 성별 분석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의 86%가 한국어가 모국어라고 답했고 여성의 89%가 한국어가 모국어라고 답해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표 67> 모국어 인식 성별 분석

		모국어				전체
		한국어	영어	기타언어	둘다	
성별	남	397	67	0	1	465
	성	85.4%	14.4%	0.0%	0.2%	100.0%
	여	512	55	6	4	577
성	성	88.7%	9.5%	1.0%	0.7%	100.0%
	전체	909	122	6	5	1042
	전체	87.2%	11.7%	0.6%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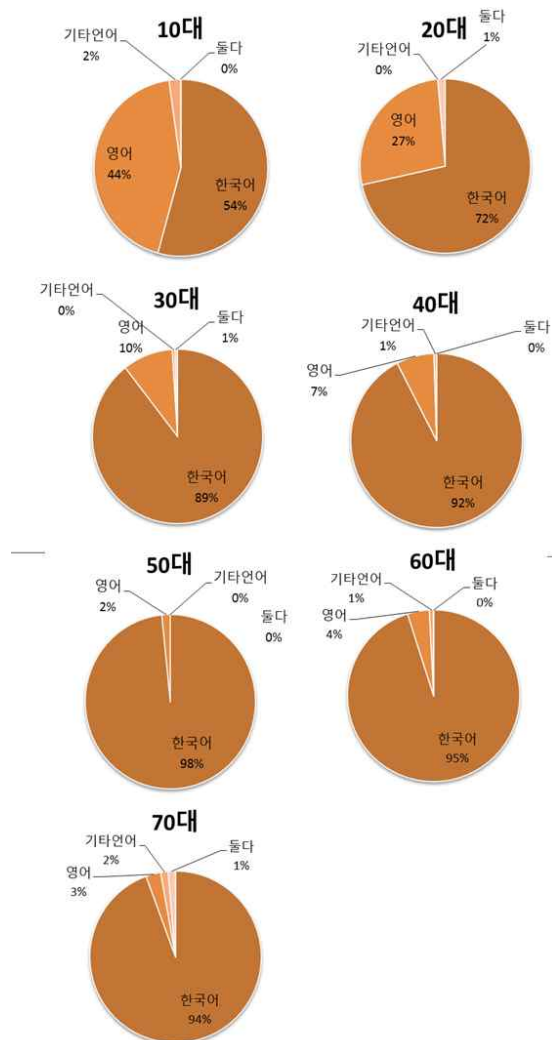
<그림 28> 모국어 인식 성별 분석

○ 연령별 분석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한국어가 모국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젊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높은 연령층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 10대는 54%만이 모국어가 한국어라고 응답하였고 20대에서는 73%가 모국어가 한국어라고 응답하였다. 30대 이상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모국어가 한국어라고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이었다. 10대의 경우, 언어 능력이 영어가 훨씬 우수한 경우가 대부분임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68> 모국어 인식 연령별 분석

		모국어				전체
		한국어	영어	기타 언어	둘다	
나 이	10대	25	20	1	0	46
		54.3%	43.5%	2.2%	0.0%	100.0%
	20대	156	59	0	3	218
		71.6%	27.1%	0.0%	1.4%	100.0%
	30대	169	18	1	1	189
		89.4%	9.5%	0.5%	0.5%	100.0%
	40대	195	15	1	0	211
		92.4%	7.1%	0.5%	0.0%	100.0%
	50대	183	3	0	0	186
		98.4%	1.6%	0.0%	0.0%	100.0%
	60대	116	5	1	0	122
		95.1%	4.1%	0.8%	0.0%	100.0%
	70대	67	2	1	1	71
		94.4%	2.8%	1.4%	1.4%	100.0%
전체		911	122	5	5	1043
		87.3%	11.7%	0.5%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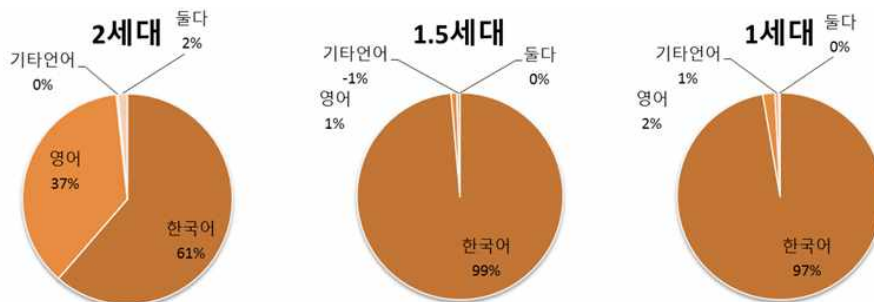
<그림 29> 모국어 인식 연령별 분석

○ 이주 세대별 분석

이주 세대에 따라 모국어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세대와 1.5세대의 경우에는 98% 가량의 압도적인 비율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2세대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2% 정도로 떨어졌다. 연령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2세대의 경우에 한국어 능력보다 영어 능력이 우수함에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반 이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69> 모국어 인식 이주 세대별 분석

		모국어				전체
		한국어	영어	기타언어	둘다	
세대코딩	2세대	178	107	1	4	290
		61.4%	36.9%	0.3%	1.4%	100.0%
	1.5세대	210	2	1	0	213
		98.6%	0.9%	0.5%	0.0%	100.0%
	1세대	516	10	3	1	530
		97.4%	1.9%	0.6%	0.2%	100.0%
전체		904	119	5	5	1033
		87.5%	11.5%	0.5%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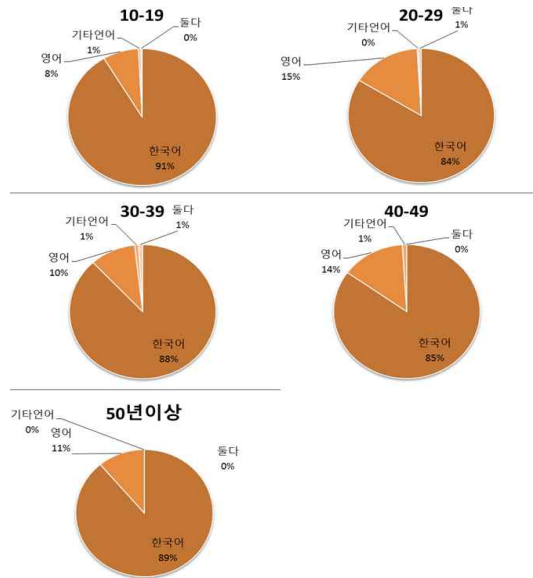
<그림 30> 모국어 인식 이주 세대별 분석

○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 기간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는 집단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70> 모국어 인식 거주 기간별 분석

		모국어				전체
		한국어	영어	기타 언어	둘다	
거주 기간 코딩	10-19	339	29	2	1	371
		91.4%	7.8%	0.5%	0.3%	100.0%
	20-29	285	52	1	2	340
		83.8%	15.3%	0.3%	0.6%	100.0%
	30-39	192	22	2	2	218
		88.1%	10.1%	0.9%	0.9%	100.0%
	40-49	84	14	1	0	99
		84.8%	14.1%	1.0%	0.0%	100.0%
	50년 이상	8	1	0	0	9
		88.9%	11.1%	0.0%	0.0%	100.0%
전체		908	118	6	5	1037
		87.6%	11.4%	0.6%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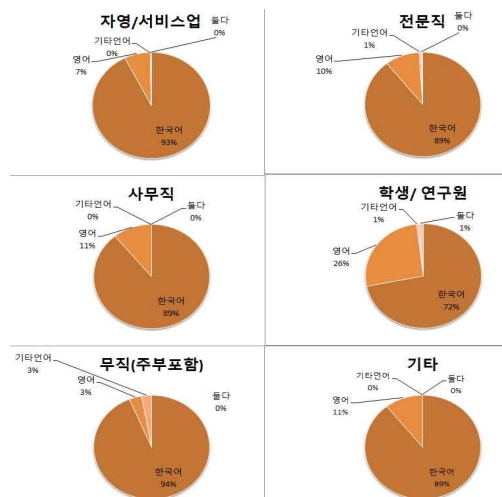
○ 직업별 분석

<그림 31> 모국어 인식 거주 기간별 분석

모국어에 대한 인식을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어가 모국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및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90%를 전후하는 비율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의 경우에 현재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2세대가 많은 집단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중의 30% 정도는 영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1> 모국어 인식 직업별 분석

		모국어				전체
		한국어	영어	기타 언어	둘다	
직업	자영/서비스업	272	21	0	1	294
		92.5%	7.1%	0.0%	0.3%	100.0%
	전문직	187	20	1	1	209
		89.5%	9.6%	0.5%	0.5%	100.0%
	사무직	123	15	0	0	138
		89.1%	10.9%	0.0%	0.0%	100.0%
	학생/연구원	156	57	1	3	217
		71.9%	26.3%	0.5%	1.4%	100.0%
	무직(주부포함)	134	5	4	0	143
		93.7%	3.5%	2.8%	0.0%	100.0%
	기타	25	3	0	0	28
		89.3%	10.7%	0.0%	0.0%	100.0%
전체		897	121	6	5	1029
		87.2%	11.8%	0.6%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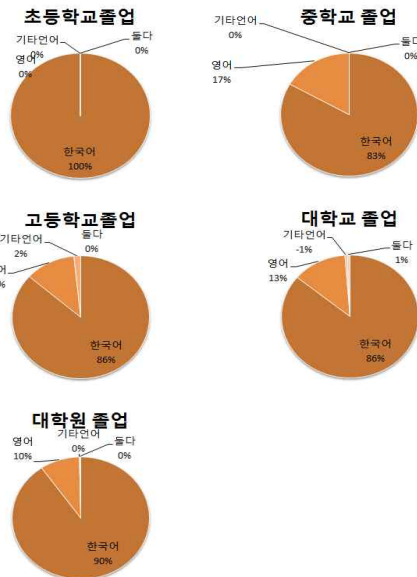
<그림 32> 모국어 인식 직업별 분석

○ 학력 및 학교별 분석

응답자 모두가 학력별로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샘플 수가 작아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응답자의 최종 학교 교육을 한국에서 받은 경우 96%가 모국어를 한국어로 응답한 반면 미국인 경우에는 82%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어 그 비중에 차이가 있었다.

<표 72> 모국어 인식 학력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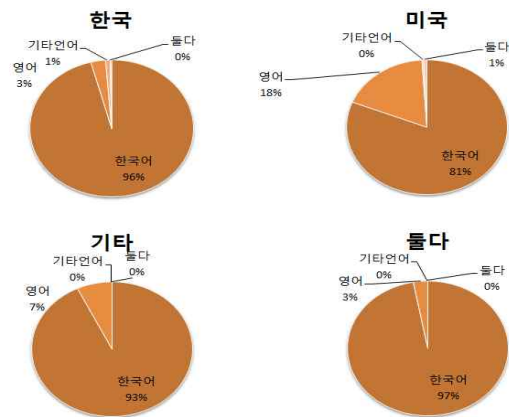
		모국어				전체
		한국어	영어	기타 언어	둘다	
학력	초등학교	4	0	0	0	4
	졸업	100.0%	0.0%	0.0%	0.0%	100.0%
	중학교	15	3	0	0	18
	졸업	83.3%	16.7%	0.0%	0.0%	100.0%
	고등학교	109	15	2	0	126
	졸업	86.5%	11.9%	1.6%	0.0%	100.0%
	대학교	509	76	3	4	592
	졸업	86.0%	12.8%	0.5%	0.7%	100.0%
전체	대학원	268	28	0	1	297
	졸업	90.2%	9.4%	0.0%	0.3%	100.0%
		905	122	5	5	1037
		87.3%	11.8%	0.5%	0.5%	100.0%



<그림 33> 모국어 인식 학력별 분석

<표 73> 모국어 인식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모국어				전체
		한국어	영어	기타 언어	둘다	
최종 학력 나라	한국	333	10	3	1	347
		96.0%	2.9%	0.9%	0.3%	100.0%
	미국	493	109	2	4	608
		81.1%	17.9%	0.3%	0.7%	100.0%
	기타	13	1	0	0	14
전체	둘다	66	2	0	0	68
		97.1%	2.9%	0.0%	0.0%	100.0%
		905	122	5	5	1037
		87.3%	11.8%	0.5%	0.5%	100.0%



<그림 34> 모국어 인식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 모국어 인식에 대한 요약

재미 동포들은 전체적으로 90% 가까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1.5세대의 경우 한국어 사용 능력의 필요성이나 한국어 사용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에서 보여 줬던 1세대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국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고, 2세대의 경우에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50-60%에 달한 점은 이들의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볼 때 모국어에 대한 정체성은 언어 능력의 필요성이나 사용의 당위성에 보다는 한국어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언어의 사용 양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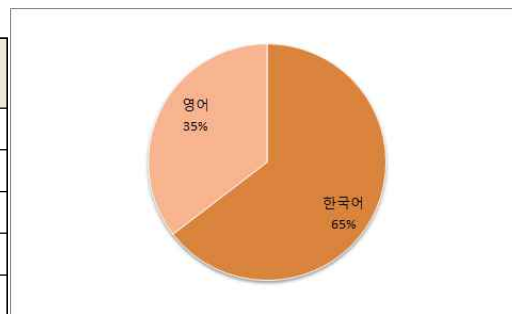
4.1 더 잘하는 언어

○ 기본 분석

‘어느 언어를 더 잘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는 한국어를 더 잘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영어를 더 잘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74> 더 잘하는 언어 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한국어	657	62.7	64.6
	영어	360	34.4	35.4
	합계	1017	97	100
결측	결측값	31	3	
합계		10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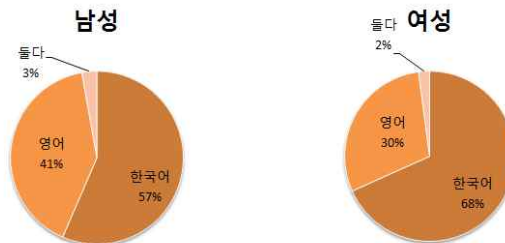
<그림 35> 더 잘하는 언어 분석

○ 성별 분석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남성의 58%가, 여성의 70%가 한국어를 더 잘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75> 더 잘하는 언어 성별 분석

		더 잘하는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성 별	남	262	189	13	464
	성	56.5%	40.7%	2.8%	100.0%
	여	393	170	12	575
	성	68.3%	29.6%	2.1%	100.0%
전체		655	359	25	1039
		63.0%	34.6%	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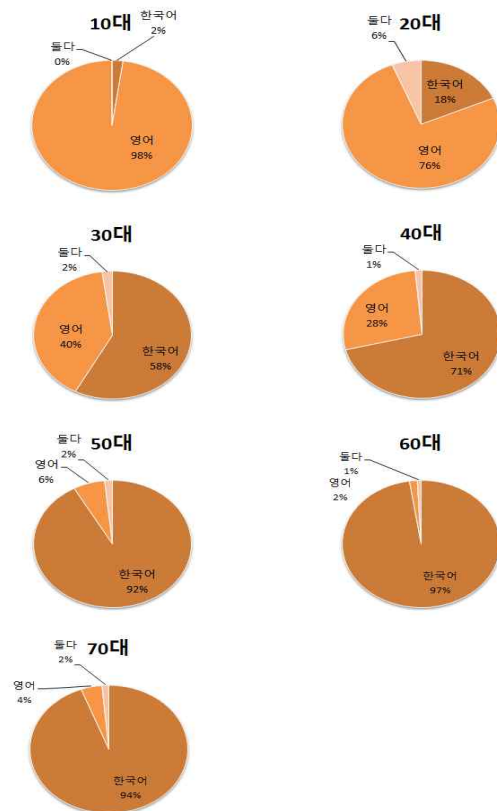
<그림 36> 더 잘하는 언어 성별 분석

○ 연령별 분석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국어를 더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10대와 20대에서는 영어를 잘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20대의 20%, 10대의 2%만이 한국어를 더 잘하는 경우였다.

<표 76> 더 잘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더 잘하는 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나 이	10대	1	45	0	46
		2.2%	97.8%	0.0%	100.0%
	20대	40	165	13	218
		18.3%	75.7%	6.0%	100.0%
	30대	108	75	4	187
		57.8%	40.1%	2.1%	100.0%
	40대	150	58	3	211
		71.1%	27.5%	1.4%	100.0%
	50대	170	12	3	185
		91.9%	6.5%	1.6%	100.0%
전 체	60대	120	2	1	123
		97.6%	1.6%	.8%	100.0%
	70대	66	3	1	70
		94.3%	4.3%	1.4%	100.0%
		655	360	25	1040
		63.0%	34.6%	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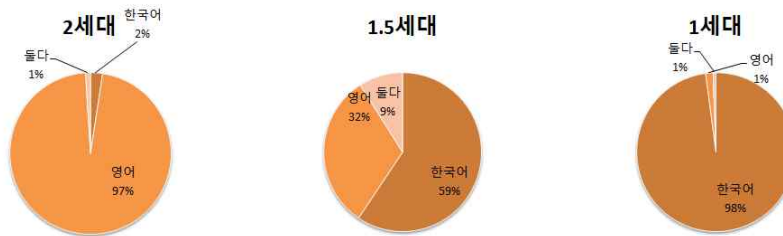
<그림 37> 더 잘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 이주 세대별 분석

이주 세대별로 1세대는 한국어를 잘하고 2세대는 영어를 더 잘하는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데 1.5세대의 경우는 한국어를 더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영어를 더 잘한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배가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77> 더 잘하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더 잘하는 언어			전 체
		한국어	영어	둘 다	
세대코딩	2세대	7	280	3	290
		2.4%	96.6%	1.0%	100.0%
	1.5세대	126	67	19	212
		59.4%	31.6%	9.0%	100.0%
	1세대	517	8	3	528
		97.9%	1.5%	.6%	100.0%
전 체		650	355	25	1030
		63.1%	34.5%	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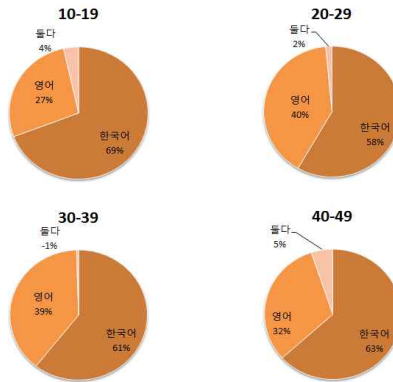
<그림 38> 더 잘하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 기간 별로 분석한 결과 20년 이하로 거주한 경우에는 한국어를 더 잘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2% 정도였고, 다른 집단의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큰 차이 없이 60% 내외로 한국어를 더 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거주 기간과 큰 상관없이 재미 동포들은 한국어 능력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8> 더 잘하는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더 잘하는 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거주기간	10-19	256	101	13	370
		69.2%	27.3%	3.5%	100.0%
	20-29	197	136	5	338
		58.3%	40.2%	1.5%	100.0%
	30-39	133	85	1	219
		60.7%	38.8%	.5%	100.0%
코딩	40-49	62	31	5	98
		63.3%	31.6%	5.1%	100.0%
	50년 이상	4	4	1	9
		44.4%	44.4%	11.1%	100.0%
전체		652	357	25	1034
		63.1%	34.5%	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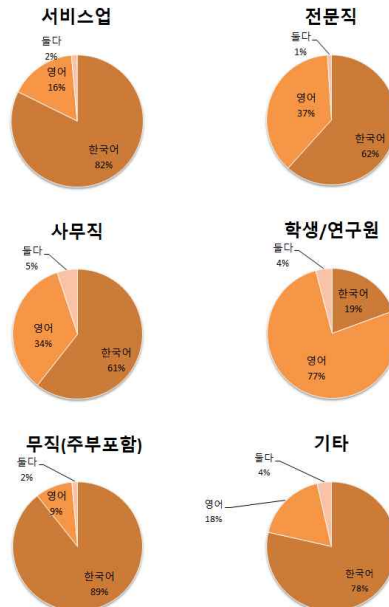
<그림 39> 더 잘하는 언어 거주기간별 분석

○ 직업별 분석

직업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학생 및 연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단에서 한국어를 영어보다 더 잘한다고 응답하였다. 학생 및 연구원 집단의 경우 영어를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0%에 달했다. 이 결과는 현재 1.5세나 2세대들이 학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79> 더 잘하는 언어 직업별 분석

		더 잘하는 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직업	서비스업	243	48	4	295
		82.4%	16.3%	1.4%	100.0%
	전문직	129	78	2	209
		61.7%	37.3%	1.0%	100.0%
	사무직	83	47	7	137
		60.6%	34.3%	5.1%	100.0%
	학생/연구원	42	166	9	217
		19.4%	76.5%	4.1%	100.0%
	무직(주부포함)	125	13	2	140
		89.3%	9.3%	1.4%	100.0%
	기타	22	5	1	28
		78.6%	17.9%	3.6%	100.0%
전체		644	357	25	1026
		62.8%	34.8%	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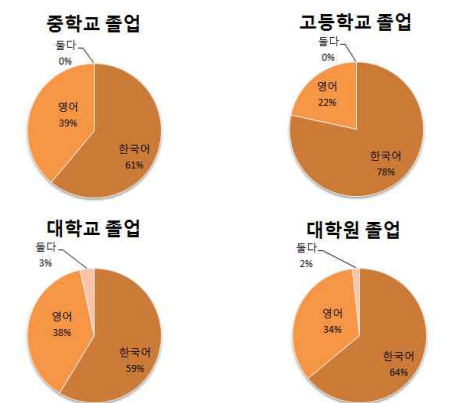
<그림 40> 더 잘하는 언어 직업별 분석

○ 학력 및 학교별 분석

학력 별로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80% 정도가 한국어를 더 잘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대졸 이상의 집단은 60% 정도가 한국어를 더 잘한다고 응답한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최종 학위를 미국에서 받은 경우는 60% 정도가 영어를 더 잘한다고 응답하였고, 한국에서 마친 경우는 대부분이 한국어를 더 잘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학력이 낮고 한국에서 학교를 마친 경우에는 미국에 오래 거주하였어도 한국어 능력이 훨씬 우수하며, 미국에서 학력을 마친 경우에도 40% 정도는 한국어 능력이 더 좋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0> 더 잘하는 언어 학력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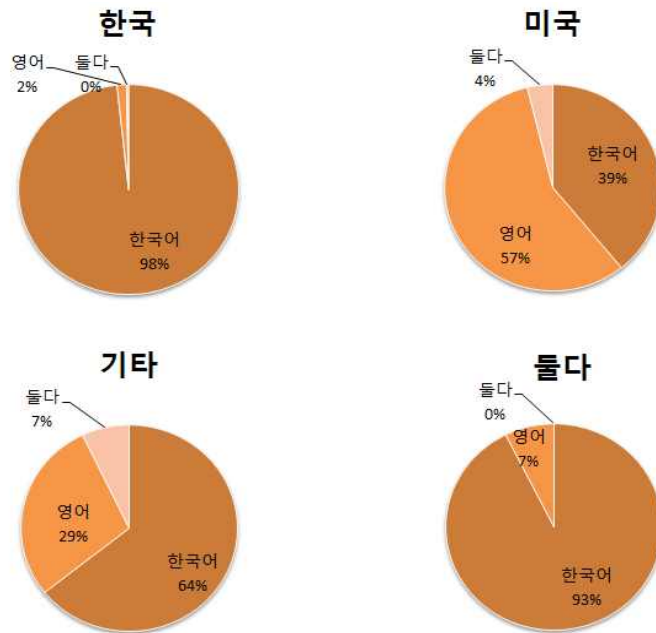
		더 잘하는 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학 력	초등학교 졸업	3	0	0	3
		100.0%	0.0%	0.0%	100.0%
	중학교 졸업	11	7	0	18
		61.1%	38.9%	0.0%	100.0%
	고등학교 졸업	98	27	0	125
		78.4%	21.6%	0.0%	100.0%
	대학교 졸업	347	224	20	591
		58.7%	37.9%	3.4%	100.0%
	대학원 졸업	190	102	5	297
		64.0%	34.3%	1.7%	100.0%
전체		649	360	25	1034
		62.8%	34.8%	2.4%	100.0%



<그림 41> 더 잘하는 언어 학력별 분석

<표 81> 더 잘하는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더 잘하는 언어			전 체
		한국어	영어	둘다	
최 종 학 력 나 라	한국	340	5	1	346
		98.3%	1.4%	.3%	100.0%
	미국	237	346	23	606
		39.1%	57.1%	3.8%	100.0%
	기타	9	4	1	14
		64.3%	28.6%	7.1%	100.0%
	둘다	63	5	0	68
		92.6%	7.4%	0.0%	100.0%
전 체		649	360	25	1034
		62.8%	34.8%	2.4%	100.0%



<그림 42> 더 잘하는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 더 잘하는 언어 분석 요약

재미 동포들은 더 잘하는 언어에 대한 자가 인식에 있어 전체적으로 65% 정도가 한국어를 꼽았다. 연령에 따라 10대, 20대인 경우와 2세대의 경우에는 영어를 더 잘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고 30대 이상이면 1.5세대, 2세대인 경우는 한국어를 더 잘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도 학생을 제외한 전 직업에서 거주 기간에 큰 상관없이 한국어를 더 잘하는 언어로 꼽고 있으며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영어를 더 잘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60%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는 상당수의 재미 동포들이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했음에도 한국어를 더 잘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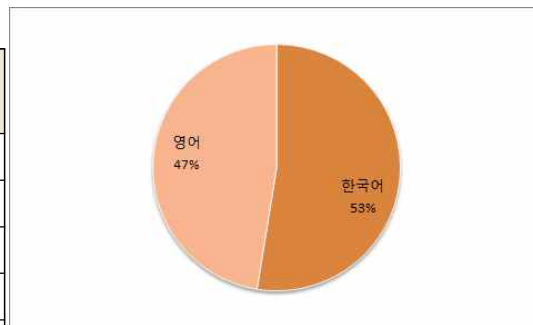
4.2 평소 더 많이 사용하는 언어

○ 기본 분석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한 결과 50% 이상의 한인이 미국에 살면서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영어의 사용도 47%로 나타나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표 82> 평소 많이 쓰는 언어 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한국어	519	49.5	52.5
	영어	468	44.7	47.4
	합계	988	94.3	100
결측	결측값	60	5.7	
합계		10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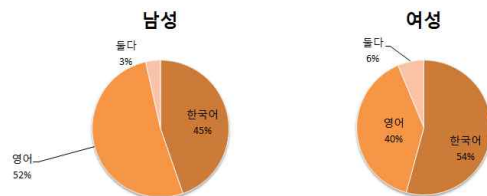
<그림 43> 평소 많이 쓰는 언어 분석

○ 성별 분석

성별로 볼 때 여성들은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남성들은 영어를 약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3>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성별 분석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성별	남성	206	239	16	461
		44.7%	51.8%	3.5%	100.0%
	여성	312	227	36	575
		54.3%	39.5%	6.3%	100.0%
전체		518	466	52	1036
		50.0%	45.0%	5.0%	100.0%



<그림 44>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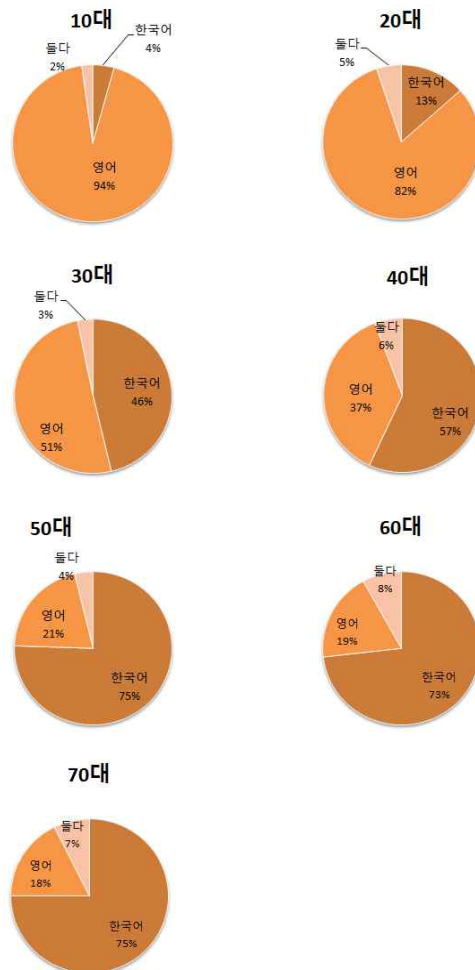
○ 연령별 분석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30대에서 두 언어의 사용이 비슷하고 그 아래로 내려

가면 영어의 사용이, 위로 올라가면 한국어의 사용이 급속도로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10대와 20대에서는 영어의 사용이 압도적이었다.

<표 84>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연령별 분석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나이	10대	2	43	1	46
		4.3%	93.5%	2.2%	100.0%
	20대	29	177	11	217
		13.4%	81.6%	5.1%	100.0%
	30대	87	95	6	188
		46.3%	50.5%	3.2%	100.0%
	40대	120	79	12	211
		56.9%	37.4%	5.7%	100.0%
	50대	139	38	7	184
		75.5%	20.7%	3.8%	100.0%
전체	60대	90	23	10	123
		73.2%	18.7%	8.1%	100.0%
	70대	51	12	5	68
		75.0%	17.6%	7.4%	100.0%
		518	467	52	1037
		50.0%	45.0%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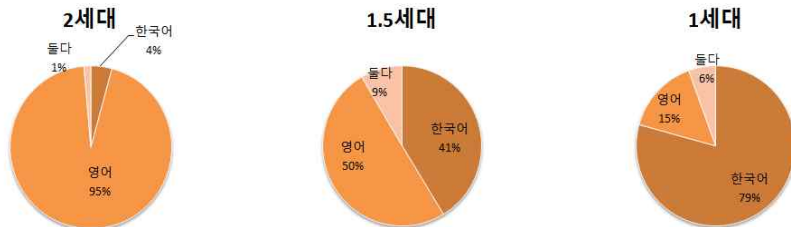
○ 이주 세대별 분석

<그림 45>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연령별 분석

이주 세대별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데 1세대의 경우에는 80% 정도가 평소에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1.5세대에서 한국어 사용은 40% 정도로 줄어들고 영어 사용이 50% 정도로 늘어나며, 2세대로 가면 95%가 평소에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재미 동포들이 일상생활에서 세대별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현격하게 다를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가 의사소통이 부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85>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전 체
		한국어	영어	둘 다	
세대코딩	2세대	12	273	4	289
		4.2%	94.5%	1.4%	100.0%
	1.5세대	88	107	18	213
		41.3%	50.2%	8.5%	100.0%
	1세대	416	80	29	525
		79.2%	15.2%	5.5%	100.0%
전 체		516	460	51	1027
		50.2%	44.8%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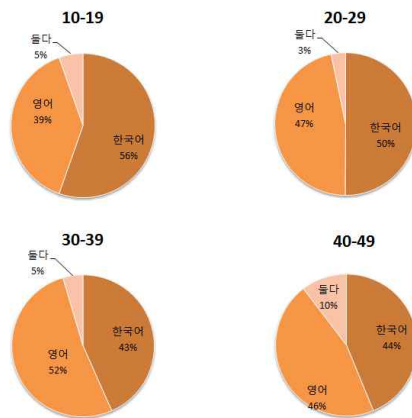
<그림 46>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 기간에 따라 볼 때는 30년을 기점으로 해서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30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 한국어의 사용이 많고, 30년 이상부터는 약간 영어의 사용이 많다고 조사되었다.

<표 86> 평소 많이 쓰는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거주 기간 코딩	10-19	205	145	20	370
		55.4%	39.2%	5.4%	100.0%
	20-29	169	157	11	337
		50.1%	46.6%	3.3%	100.0%
	30-39	95	114	10	219
		43.4%	52.1%	4.6%	100.0%
	40-49	42	44	10	96
		43.8%	45.8%	10.4%	100.0%
	50년 이상	3	5	1	9
		33.3%	55.6%	11.1%	100.0%
전체		514	465	52	1031
		49.9%	45.1%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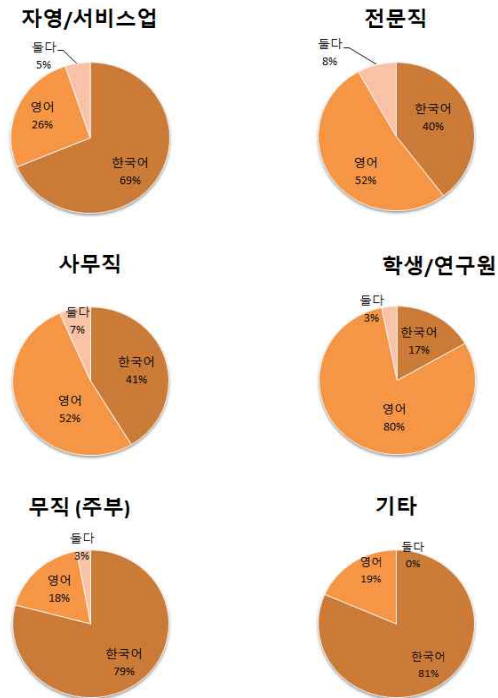
<그림 47> 평소 많이 쓰는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 직업별 분석

직업에 따라 분석해 볼 때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의 사용이 많았지만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영어의 사용이 많았고, 특히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7>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직업별 분석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직업	자영/서비스업	202	77	15	294
		68.7%	26.2%	5.1%	100.0%
	전문직	83	109	17	209
		39.7%	52.2%	8.1%	100.0%
	사무직	57	72	9	138
		41.3%	52.2%	6.5%	100.0%
	학생/연구원	36	173	7	216
전체	무직(주부)	110	25	4	139
		79.1%	18.0%	2.9%	100.0%
	기타	22	5	0	27
		81.5%	18.5%	0.0%	100.0%
		510	461	52	1023
		49.9%	45.1%	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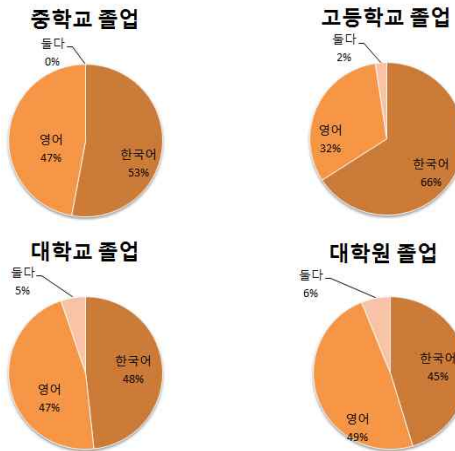
<그림 48>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직업별 분석

○ 학교 및 학력별 분석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이상으로 가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한국어보다 영어의 사용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 학력에서 영어 사용의 비중이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10대 2세대의 응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최종 학교를 마친 국가를 변인으로 하여 비교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최종 학교를 졸업한 곳이 한국인지 미국인지에 따라서 한국어를 더 사용하는지 영어를 더 사용하는지가 달라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표 88> 평소 많이 쓰는 언어 학력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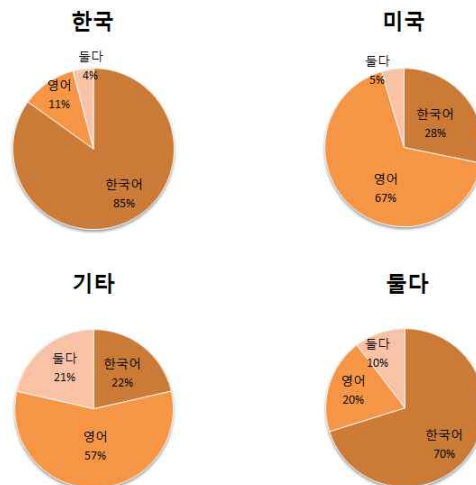
		평소많이쓰는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학 력	초등학교	3	0	0	3
	졸업	100.0%	0.0%	0.0%	100.0%
	중학교	9	8	0	17
	졸업	52.9%	47.1%	0.0%	100.0%
	고등학교	81	39	3	123
	졸업	65.9%	31.7%	2.4%	100.0%
	대학교	286	275	31	592
	졸업	48.3%	46.5%	5.2%	100.0%
	대학원	134	144	18	296
전체	졸업	45.3%	48.6%	6.1%	100.0%
	전체	513	466	52	1031
		49.8%	45.2%	5.0%	100.0%



<그림 49> 평소 많이 쓰는 언어 학력별 분석

<표 89>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평소많이쓰는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최 종 학 력 나 라	한국	292	38	14	344
		84.9%	11.0%	4.1%	100.0%
	미국	171	407	28	606
		28.2%	67.2%	4.6%	100.0%
	기타	3	8	3	14
		21.4%	57.1%	21.4%	100.0%
	둘다	47	13	7	67
전체		70.1%	19.4%	10.4%	100.0%
	전체	513	466	52	1031
		49.8%	45.2%	5.0%	100.0%



<그림 50>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 평소 많이 사용하는 언어 분석 요약

재미 동포들은 평소에 한국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어와 영어를 거의 비슷하게 쓰는 환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집단과 40대 이상의 집단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대

별로는 2세대의 대부분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더 잘하는 언어가 한국어라고 응답했던 1.5세대의 경우에도 평소에는 영어를 더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에 따라 자영업을 포함한 서비스업과 무직인 경우만 한국어 사용 비율이 더 높았고, 나머지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한인들의 직업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미 동포 사회는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 50% 정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가족 간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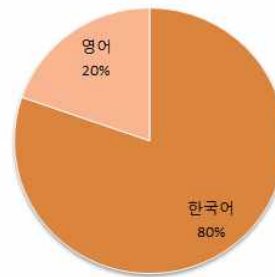
재미 동포 사회에서 평소에 한국어와 영어의 사용 비율에 있어 평소에 사용하는 비율이 비슷한 정도였고 약간 한국어의 사용이 높았다면 구체적으로 가족 간에 사용 양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 분석

재미 동포들은 가족 간에 76% 정도는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평소 사회적 언어에서는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재미 동포의 경우에도 가족 간 대화에서는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표 90> 가족 간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
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한국어	797	76	80.3
	영어	196	18.7	19.7
	합계	993	94.8	100
결측	결측값	55	5.2	
합계		1048	100	



<그림 51> 가족 간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
분석

○ 성별 분석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한국어를 많이 쓰지만 특히 남성이 더 높은 비중으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평소 많이 쓰는 언어에서는 한국어를 쓰는 비중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던 것과 반대로 직장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던 남성도 가족들과는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경우에 비한국계 배우자와 결혼한 여성이 많아서 이 경우에는 가족들과도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표 91>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성별 분석

		가족대화시 많이 쓰는 언어			전 체
		한국어	영어	둘다	
성 별	남	383	63	18	464
	성	82.5%	13.6%	3.9%	100.0%
	여	412	132	29	573
	성	71.9%	23.0%	5.1%	100.0%
전 체		795	195	47	1037
		76.7%	18.8%	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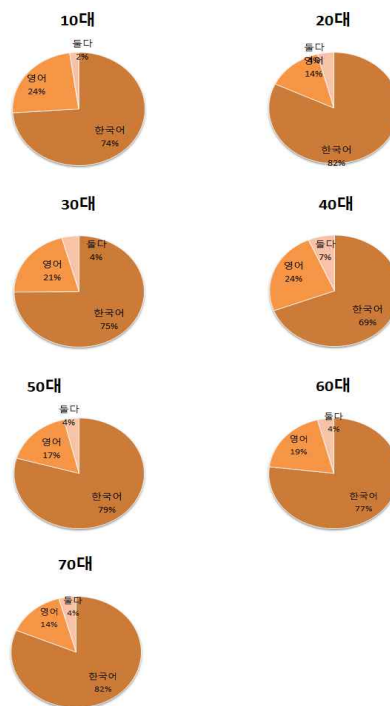
<그림 52>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성별 분석

○ 연령별 분석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젊은 층인 10대와 20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80% 내외로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연령별 분석

		가족대화시 많이 쓰는 언어			전 체
		한국어	영어	둘다	
나 이	10대	34 73.9%	11 23.9%	1 2.2%	46 100.0%
	20대	179 82.1%	30 13.8%	9 4.1%	218 100.0%
	30대	140 74.9%	39 20.9%	8 4.3%	187 100.0%
	40대	146 69.2%	51 24.2%	14 6.6%	211 100.0%
	50대	147 79.5%	31 16.8%	7 3.8%	185 100.0%
	60대	93 76.9%	23 19.0%	5 4.1%	121 100.0%
	70대	57 81.4%	10 14.3%	3 4.3%	70 100.0%
	전 체	796 76.7%	195 18.8%	47 4.5%	10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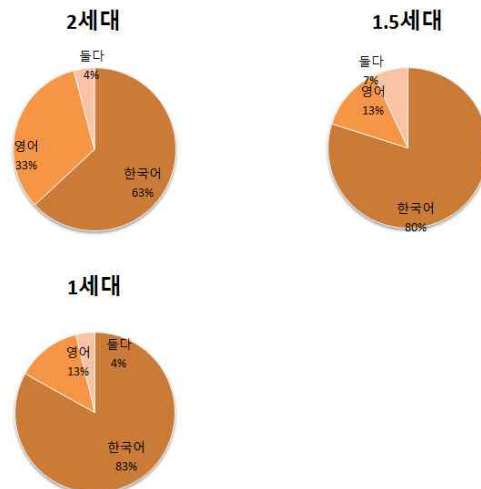
<그림 53>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연령별 분석

○ 이주 세대별 분석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세대에서 한국어 사용 비중이 영어 사용 비중보다 높았다. 그런데 1.5세대는 1세대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2세대의 경우 영어 사용 비중이 33%로 1세대나 1.5세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결과를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응답 결과와 비교해 보면, 1.5세대는 평소에 쓰는 언어는 2세대 쪽에 가까운 반면 가족 간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는 1세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2세대의 경우에도 평소에는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한 응답이 5% 정도였지만 가족 간에는 63%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점에 있어 2세대의 한국어가 가족 간의 대화에서 여전히 중요한 언어임을 알게 해 준다.

<표 93>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가족대화시 많이 쓰는 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세대 코 딩	2세 대	183	95	12	290
		63.1%	32.8%	4.1%	100.0%
	1.5 세대	170	28	15	213
		79.8%	13.1%	7.0%	100.0%
	1세 대	436	69	20	525
		83.0%	13.1%	3.8%	100.0%
전체		789	192	47	1028
		76.8%	18.7%	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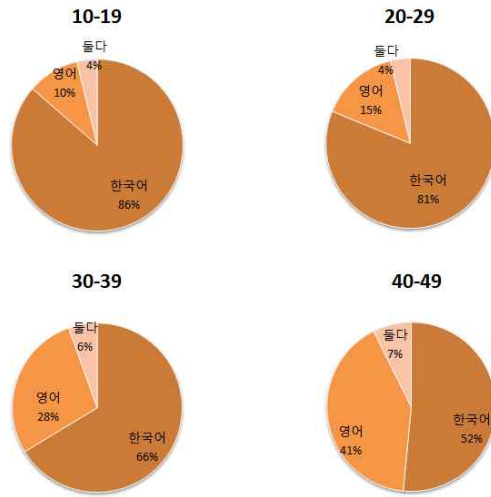
<그림 54>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 기간별로 분석해 보면,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영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94>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가족대화시많이쓰는언어			전 체
		한국 어	영어	둘다	
거 주 기 간 코 딩	10-19	319 86.4%	36 9.8%	14 3.8%	369 100.0%
	20-29	275 81.1%	51 15.0%	13 3.8%	339 100.0%
	30-39	146 66.4%	62 28.2%	12 5.5%	220 100.0%
	40-49	49 51.6%	39 41.1%	7 7.4%	95 100.0%
	50년 이상	3 33.3%	5 55.6%	1 11.1%	9 100.0%
	전 체	792 76.7%	193 18.7%	47 4.6%	10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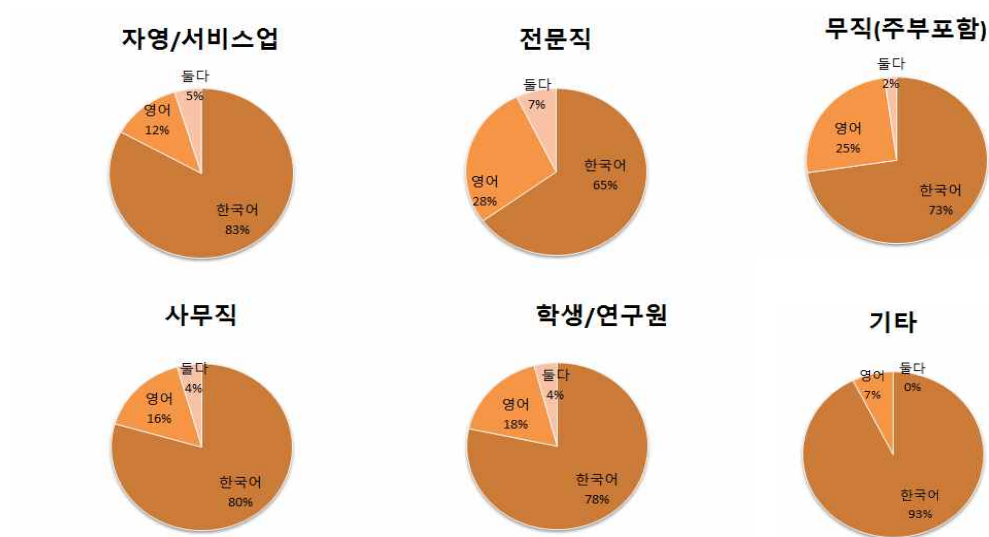
<그림 55>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 직업별 분석

직업별로 분석해 보면, 평소 많이 쓰는 언어에 대한 응답과 달리 전문직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주부의 경우에 영어 사용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비한국계와 결혼한 여성들의 표본이 많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집단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95>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직업별 분석

		가족대화시 많이 쓰는 언어			전 체
		한국어	영어	둘 다	
직업	자영/서비스업	245	36	14	295
		83.1%	12.2%	4.7%	100.0%
	전문 직	136	58	15	209
		65.1%	27.8%	7.2%	100.0%
	사무 직	109	22	6	137
		79.6%	16.1%	4.4%	100.0%
	학생/연구원	170	38	9	217
		78.3%	17.5%	4.1%	100.0%
	무직(주부포함)	101	35	3	139
		72.7%	25.2%	2.2%	100.0%
기타	25	2	0	27	
	92.6%	7.4%	0.0%	100.0%	
전 체		786	191	47	1024
		76.8%	18.7%	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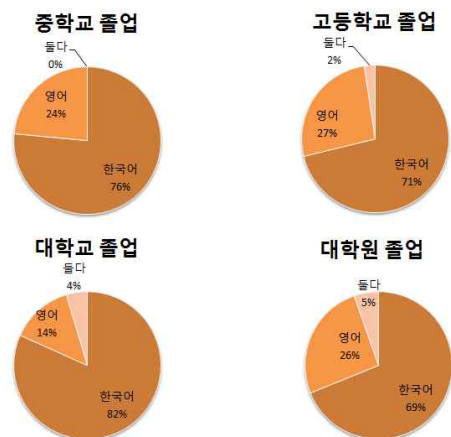
<그림 56>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직업별 분석

○ 학교 및 학력별 분석

가족 간 사용하는 언어를 학력 및 학교별로 분석한 결과 학력 수준의 증가에 따른 특별한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고 최종 학교가 한국인 경우보다 최종 학교가 미국인 경우 영어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6>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학력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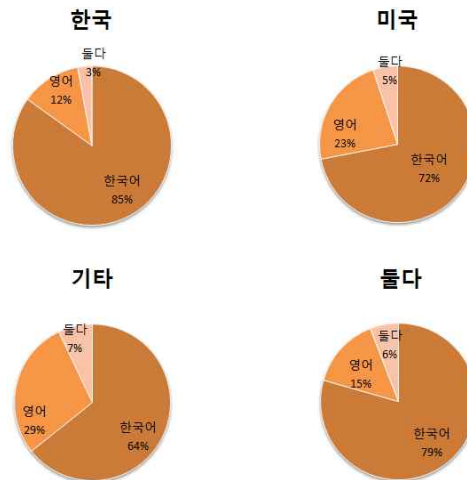
		가족대화시 많이 쓰는 언어			전 체
		한국어	영어	둘다	
학 력	초등학교 졸업	2	1	0	3
	중학교 졸업	13	4	0	17
	고등학교 졸업	89	33	3	125
	대학교 졸업	483	81	27	591
	대학원 졸업	204	76	16	296
	전 체	791	195	46	1032
		76.6%	18.9%	4.5%	100.0%



<그림 57>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학력별 분석

<표 97>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가족대화시많이쓰는언어			전 체
		한국어	영어	둘다	
최 종 학 력 나 라	한	292	42	10	344
	국	84.9%	12.2%	2.9%	100.0%
	미	436	139	31	606
	국	71.9%	22.9%	5.1%	100.0%
	기	9	4	1	14
	타	64.3%	28.6%	7.1%	100.0%
	둘	54	10	4	68
	다	79.4%	14.7%	5.9%	100.0%
전 체		791	195	46	1032
		76.6%	18.9%	4.5%	100.0%



<그림 58>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 가족 간에 사용하는 언어 분석 요약

재미 동포들은 평소에는 52% 정도로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가족 간에는 80% 이상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연령이 어리고 2세대인 경우에 조금 더 영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변인별로 영어보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에 있어 아직까지 재미 동포 사회에서는 변인에 상관없이 가족 간에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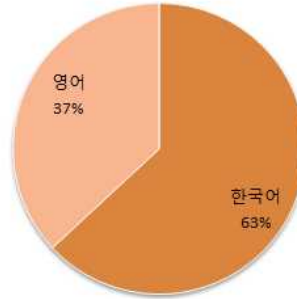
4.4 듣기에 편한 언어

듣기에 편한 언어를 분석한 결과는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 기본 분석

<표 98> 듣기 편한 언어 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한국어	609	58.1	63.1
	영어	356	34	36.9
	합계	965	92.1	100
결측	결측값	83	7.9	
합계		1048	100	



<그림 59> 듣기 편한 언어 분석

○ 성별 분석

듣기 편한 언어가 영어라고 대답한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표 99> 듣기 편한 언어 성별 분석

		듣기편한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성별	남	247	187	28	462
	성	53.5%	40.5%	6.1%	100.0%
	여	360	168	44	572
	성	62.9%	29.4%	7.7%	100.0%
전체		607	355	72	1034
		58.7%	34.3%	7.0%	100.0%



<그림 60> 듣기 편한 언어 성별 분석

○ 연령별 분석

듣기 편한 언어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국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보였다.

<표 100> 듣기 편한 언어 연령별 분석

		듣기편한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나 이	10대	1	43	2	46
		2.2%	93.5%	4.3%	100.0%
	20대	42	149	26	217
		19.4%	68.7%	12.0%	100.0%
	30대	95	80	13	188
		50.5%	42.6%	6.9%	100.0%
	40대	141	57	13	211
		66.8%	27.0%	6.2%	100.0%
	50대	165	15	5	185
		89.2%	8.1%	2.7%	100.0%
	60대	106	4	10	120
		88.3%	3.3%	8.3%	100.0%
	70대	57	8	3	68
		83.8%	11.8%	4.4%	100.0%
전체		607	356	72	1035
		58.6%	34.4%	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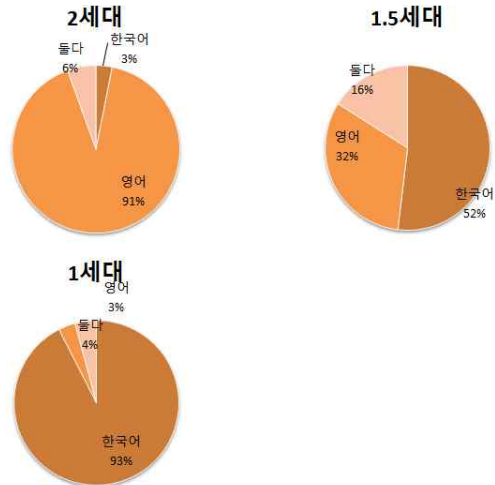
<그림 61> 듣기 편한 언어 연령별 분석

○ 이주 세대별 분석

세대 별로 분석해 보면, 1세대는 대부분이 한국어를, 2세대는 대부분이 영어를 듣기 편하다고 응답하여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1.5세대는 62%가 한국어를 더 듣기 편한 언어로 꼽았다.

<표 101> 듣기 편한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듣기편한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서 대 국 당	2세대	9	265	16	290
	세대	3.1%	91.4%	5.5%	100.0%
	1.5세대	110	68	34	212
	세대	51.9%	32.1%	16.0%	100.0%
1세대	세대	484	17	22	523
	세대	92.5%	3.3%	4.2%	100.0%
전체		603	350	72	1025
		58.8%	34.1%	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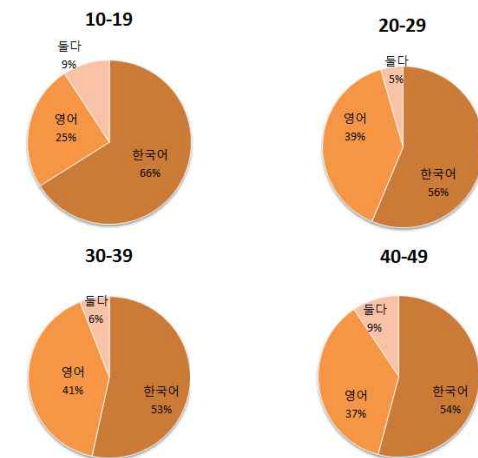
○ 거주 기간별 분석

<그림 62> 듣기 편한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거주 기간별 결과를 보면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영어가 한국어보다 듣기 편하다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102> 듣기 편한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듣기편한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거 주 기 간 코 딩	10-19	244	91	34	369
		66.1%	24.7%	9.2%	100.0%
	20-29	190	132	15	337
		56.4%	39.2%	4.5%	100.0%
	30-39	117	89	13	219
		53.4%	40.6%	5.9%	100.0%
	40-49	52	35	9	96
		54.2%	36.5%	9.4%	100.0%
50년 이상	세대	1	6	1	8
	세대	12.5%	75.0%	12.5%	100.0%
전체		604	353	72	1029
		58.7%	34.3%	7.0%	100.0%



<그림 63> 듣기 편한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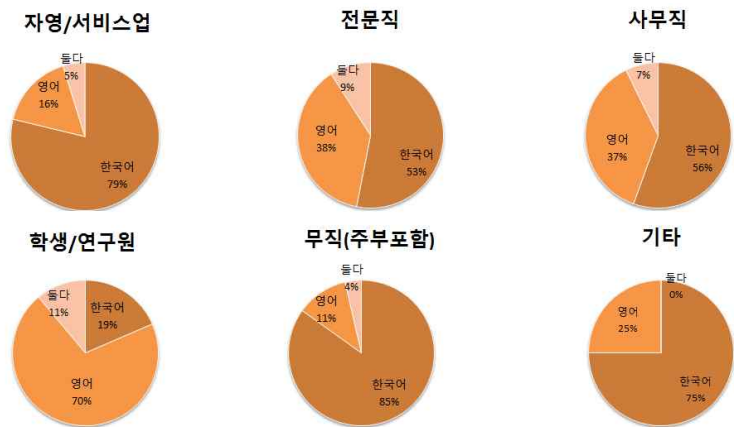
○ 직업별 분석

직업별로 분석해 보면 영어가 듣기 편하다는 응답은 전문직, 사무직, 학생 및 연구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학생 및 연구원 집단은

70%가 듣기 편한 언어로 영어를 꼽아서 유일하게 영어의 비중이 한국어의 비중보다 높았다. 이는 현재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103> 듣기 편한 언어 직업별 분석

		듣기편한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직업	자영/서비스업	231	48	14	293
		78.8%	16.4%	4.8%	100.0%
	전문직	111	79	19	209
		53.1%	37.8%	9.1%	100.0%
	사무직	76	51	10	137
		55.5%	37.2%	7.3%	100.0%
	학생/연구원	40	152	24	216
		18.5%	70.4%	11.1%	100.0%
	무직/주부	118	16	5	139
		84.9%	11.5%	3.6%	100.0%
기타	21	7	0	28	
	75.0%	25.0%	0.0%	100.0%	
전체		597	353	72	1022
		58.4%	34.5%	7.0%	100.0%



<그림 64> 듣기 편한 언어 직업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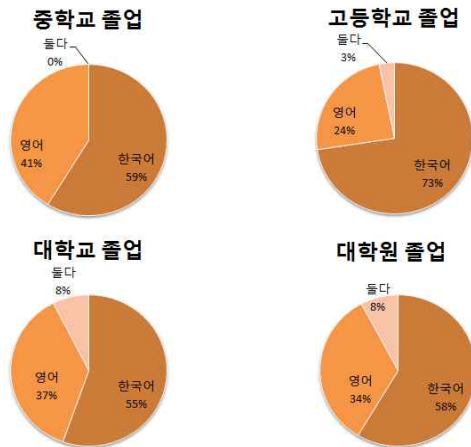
○ 학교 및 학력별 분석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올라갈수록 한국어의 비중이 줄어들고 영어가 듣기

편하다는 비율이 올라가지만 모든 집단에서 한국어를 더 듣기 편한 언어로 꼽았다. 반면에 최종 학교를 한국에서 마친 경우 대부분 한국어를, 미국에서 마친 경우 과반수가 영어를 듣기 편한 언어로 꼽았다.

<표 104> 듣기 편한 언어 학력별 분석

		듣기편한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학 력	초등 졸업	2	0	1	3
		66.7%	0.0%	33.3%	100.0%
	중학 졸업	10	7	0	17
		58.8%	41.2%	0.0%	100.0%
	고교 졸업	90	30	4	124
		72.6%	24.2%	3.2%	100.0%
	대학교 졸업	327	219	44	590
전체		602	355	72	1029
		58.5%	34.5%	7.0%	100.0%



<그림 65> 듣기 편한 언어 학력별 분석

<표 105> 듣기 편한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듣기편한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최 종 학 력 나 라	한 국	325	11	7	343
		94.8%	3.2%	2.0%	100.0%
	미 국	213	334	58	605
		35.2%	55.2%	9.6%	100.0%
	기 타	6	5	3	14
		42.9%	35.7%	21.4%	100.0%
전체	둘 다	58	5	4	67
		86.6%	7.5%	6.0%	100.0%
		602	355	72	1029
		58.5%	34.5%	7.0%	100.0%



<그림 66> 듣기 편한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 듣기에 편한 언어 분석 요약

듣기에 편한 언어에 대한 응답은 더 잘 하는 언어에 대한 응답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4.5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 기본 분석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의 경우에는 한국어에 비해 영어가 훨씬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평소의 언어 사용 환경이나 언어 사용 능력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결과여서 주목된다.

<표 106>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한국어	300	28.6	29.1	29.1
	영어	577	55.1	55.9	85.0
	둘다	155	14.8	15.0	100.0
	합계	1032	98.5	100.0	
결측	결측값	16	1.5		
	합계	1048	100.0		



<그림 67>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분석

○ 성별 분석

성별 분석에 있어서도 남성이나 여성 모두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07>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성별
분석

		잘해야하는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성 별	남	144	265	54	463
	성	31.1%	57.2%	11.7%	100.0%
	여	155	310	101	566
	성	27.4%	54.8%	17.8%	100.0%
전체		299	575	155	1029
		29.1%	55.9%	15.1%	100.0%



<그림 68>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성별
분석

○ 연령별 분석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영어를 잘해야 하는 언어로 꼽았다. 10대의 경우만 반대로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한국어보다 영어 사용 및 능력이 높은 것을 상기할 때 10대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못하는 언어를 잘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08>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잘해야하는언어			전 체
		한국어	영어	둘다	
나 이	10 대	24 52.2%	21 45.7%	1 2.2%	46 100.0%
	20 대	55 25.3%	139 64.1%	23 10.6%	217 100.0%
	30 대	52 28.1%	108 58.4%	25 13.5%	185 100.0%
	40 대	55 26.2%	112 53.3%	43 20.5%	210 100.0%
	50 대	54 29.3%	95 51.6%	35 19.0%	184 100.0%
	60 대	38 31.9%	62 52.1%	19 16.0%	119 100.0%
	70 대	22 31.9%	38 55.1%	9 13.0%	69 100.0%
	전 체	300 29.1%	575 55.8%	155 15.0%	1030 100.0%



<그림 69>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 이주 세대별 분석

이주 세대별로 분석해 보면 전 세대에서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세대 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표 109>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잘해야하는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세대 코 딩	2	87	188	13	288
	세대	30.2%	65.3%	4.5%	100.0%
	1.5	56	109	46	211
	세대	26.5%	51.7%	21.8%	100.0%
	1	154	273	95	522
	세대	29.5%	52.3%	18.2%	100.0%
전체		297	570	154	1021
		29.1%	55.8%	1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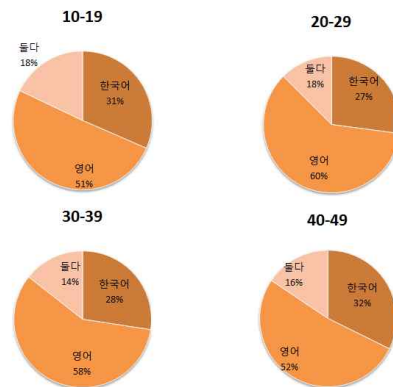
<그림 70>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영어를 잘해야 하는 언어로 꼽은 비중은 거주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나 40년 이상인 경우가 거의 비슷했고, 20년부터 40년 미만인 집단이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표 110>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잘해야하는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거주기간코딩	10-19	116	186	66	368
		31.5%	50.5%	17.9%	100.0%
	20-29	91	203	42	336
		27.1%	60.4%	12.5%	100.0%
	30-39	59	125	31	215
		27.4%	58.1%	14.4%	100.0%
	40-49	31	50	15	96
		32.3%	52.1%	15.6%	100.0%
	50년 이상	1	7	1	9
		11.1%	77.8%	11.1%	100.0%
전체		298	571	155	1024
		29.1%	55.8%	15.1%	100.0%



<그림 71>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거주기간별 분석

○ 직업별 분석

직업별 분석에서는 모든 직업에서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사무직이나 학생 및 연구원들처럼 영어를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 수록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11>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직업별 분석

		잘해야하는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직업	서비스업	95	156	42	293
		32.4%	53.2%	14.3%	100.0%
	전문직	53	106	48	207
		25.6%	51.2%	23.2%	100.0%
	사무직	30	85	21	136
		22.1%	62.5%	15.4%	100.0%
	학생/연구원	65	132	18	215
		30.2%	61.4%	8.4%	100.0%
	무직(주부포함)	41	75	21	137
		29.9%	54.7%	15.3%	100.0%
	기타	11	16	1	28
		39.3%	57.1%	3.6%	100.0%
전체		295	570	151	1016
		29.0%	56.1%	14.9%	100.0%

서비스업



전문직



사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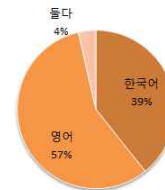
학생/연구원



무직(주부포함)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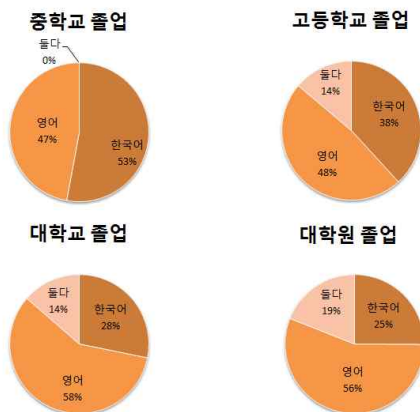
<그림 72>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직업별 분석

○ 학교 및 학력별 분석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영어 능력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종 학교별로 비교해 보면 변인에 상관없이 영어를 잘해야 하는 언어로 꼽았다.

<표 112>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학력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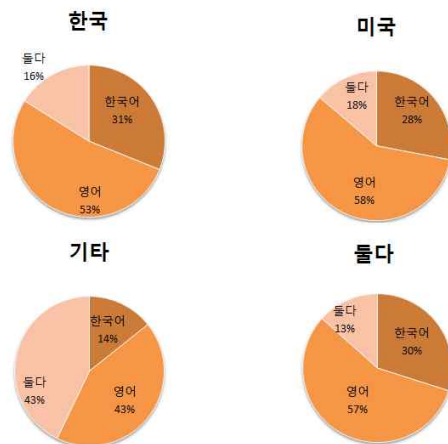
		잘해야하는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학 력	초등학교 졸업	1	1	0	2
		50.0%	50.0%	0.0%	100.0%
	중학교 졸업	9	8	0	17
		52.9%	47.1%	0.0%	100.0%
	고등학교 졸업	47	59	17	123
		38.2%	48.0%	13.8%	100.0%
	대학교 졸업	166	342	80	588
		28.2%	58.2%	13.6%	100.0%
전체	대학원 졸업	74	165	56	295
		25.1%	55.9%	19.0%	100.0%
		297	575	153	1025
		29.0%	56.1%	14.9%	100.0%



<그림 73>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학력별 분석

<표 113>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잘해야하는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최 종 학 력 나 라	한국	106	180	55	341
		31.1%	52.8%	16.1%	100.0%
	미국	169	351	83	603
		28.0%	58.2%	13.8%	100.0%
	기타	2	6	6	14
		14.3%	42.9%	42.9%	100.0%
	둘다	20	38	9	67
		29.9%	56.7%	13.4%	100.0%
전체		297	575	153	1025
		29.0%	56.1%	14.9%	100.0%



<그림 74>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 잘해야 하는 언어 분석 요약

재미 동포 사회에서는 더 잘해야 하는 언어가 영어라는 인식이 70%에 이른다. 이는 영어를 잘해야 미국에서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전 연령별, 전 세대별, 전 직업별로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영어를 더 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학력별로도 최종 학력 수료 국가와 상관없이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4.6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한국어와 영어 종합 비교

<표 114> 언어 인식 및 태도에 관한 한국어와 영어 종합 비교

질문	한국어		영어	
	수	비율	수	비율
(1) 더 잘하는 언어	657	65%	360	35%
(2)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	519	53%	468	47%
(3) 가족 간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	797	80%	196	20%
(4) 듣기에 편한 언어	609	63%	356	37%
(5)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300	34%	577	66%

이제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위의 표와 같다. 더 잘하는 언어, 가족 간 사용하는 언어, 듣기 편한 언어 등 세 항목에 있어서는 한국어가 영어보다 우세하였다.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으나 한국어가 약간 높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 간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한국어의 비중이 80%로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항목에서는 영어가 우세하였다. 이는 현재 재미 동포 사회에서는 여전히 1세대들의 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한국어가 우세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5.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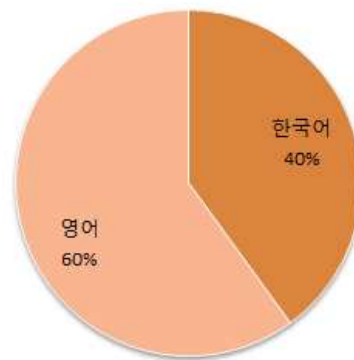
5.1 더 많이 사용될 언어

○ 기본 분석

‘앞으로 이 지역의 한인 사회에서 어떤 언어가 더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영어가 더 많이 사용될 거라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한국어가 60%라고 응답한 것과 반대가 되는 결과이며,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의 비율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115> 한인 사회에서 더 많이 사용될 언어 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한국어	394	37.6	40
	영어	591	56.4	60
	합계	985	94	100
결측	결측값	63	6	
합계		10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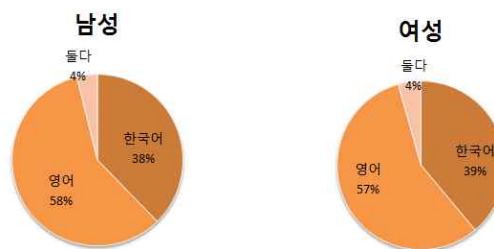
<그림 75> 한인 사회에서 더 많이 사용될 언어 분석

○ 성별 분석

성별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 116>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성별 분석

		더 많이 쓰일 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성별	남	173	268	18	459
	성	37.7%	58.4%	3.9%	100.0%
	여	220	321	25	566
	성	38.9%	56.7%	4.4%	100.0%
전체		393	589	43	1026
		38.3%	57.4%	4.2%	100.0%



<그림 76>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성별 분석

○ 연령별 분석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지만 10대는 70% 정도 다른 집단은 60% 내외로 영어의 사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표 117>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연령별 분석

		더 많이 쓰일 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나 이	10대	15	31	0	46
		32.6%	67.4%	0.0%	100.0%
	20대	78	128	7	213
		36.6%	60.1%	3.3%	100.0%
	30대	76	102	10	188
		40.4%	54.3%	5.3%	100.0%
	40대	75	118	14	207
		36.2%	57.0%	6.8%	100.0%
	50대	78	99	6	183
		42.6%	54.1%	3.3%	100.0%
	60대	46	72	3	121
		38.0%	59.5%	2.5%	100.0%
	70대	25	41	3	69
		36.2%	59.4%	4.3%	100.0%
전체		393	591	43	1027
		38.3%	57.5%	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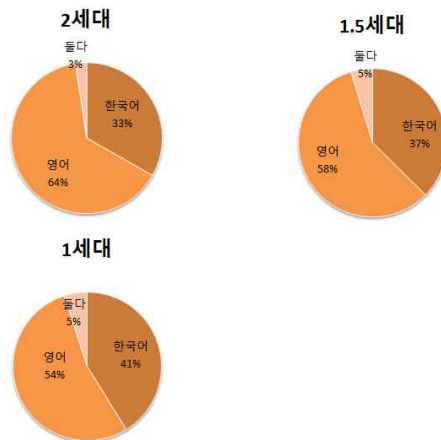
<그림 77>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연령별 분석

○ 이주 세대별 분석

이주 세대별로 분석해 보면, 1세대에서 2세대로 갈수록 영어가 많이 쓰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해지는 경향이 보였다.

<표 118>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한인사회에서더많이 쓰일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세대 코 딩	2세대	95	184	7	286
		33.2%	64.3%	2.4%	100.0%
	1.5세대	79	122	10	211
		37.4%	57.8%	4.7%	100.0%
1세대		215	281	26	522
		41.2%	53.8%	5.0%	100.0%
전체		389	587	43	1019
		38.2%	57.6%	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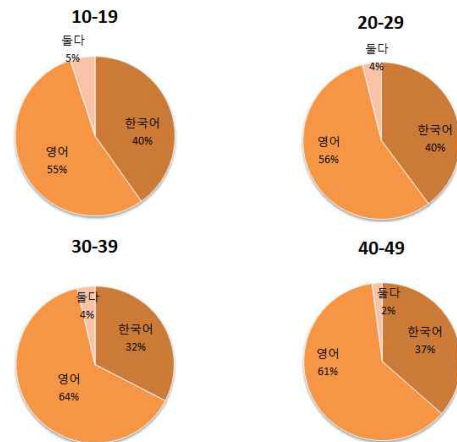
<그림 78>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앞으로 한인 사회에서 더 많이 쓰일 언어로 영어를 꼽았으며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

<표 119> 더 많이 사용될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한인사회에서더많이 쓰일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거주 기간 코 딩	10-19	146	199	18	363
		40.2%	54.8%	5.0%	100.0%
	20-29	133	188	13	334
		39.8%	56.3%	3.9%	100.0%
	30-39	71	139	8	218
		32.6%	63.8%	3.7%	100.0%
40-49		35	59	2	96
		36.5%	61.5%	2.1%	100.0%
50년 이상		3	6	0	9
		33.3%	66.7%	0.0%	100.0%
전체		388	591	41	1020
		38.0%	57.9%	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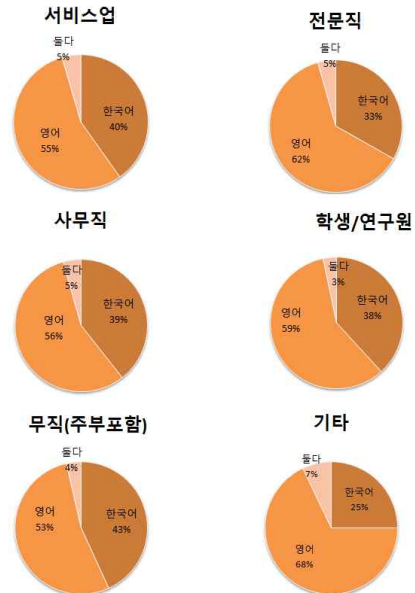
<그림 79> 더 많이 사용될 언어 거주 기간별 분석

○ 직업별 분석

직업에 상관없이 영어가 더 많이 쓰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특히 전문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120>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직업별 분석

		더 많이 쓰일 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직업	서비스업	117	161	13	291
		40.2%	55.3%	4.5%	100.0%
	전문직	68	128	9	205
		33.2%	62.4%	4.4%	100.0%
	사무직	54	77	6	137
		39.4%	56.2%	4.4%	100.0%
	학생/연구원	81	124	7	212
		38.2%	58.5%	3.3%	100.0%
	무직(주부포함)	60	74	5	139
		43.2%	53.2%	3.6%	100.0%
	기타	7	19	2	28
전체		387	583	42	1012
		38.2%	57.6%	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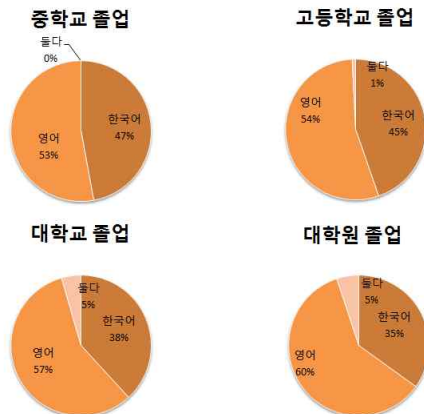
<그림 80>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직업별 분석

○ 학교 및 학력별 분석

학력이 높아질수록 한국어가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은 낮아지고 영어가 더 많이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표 121> 더 많이 사용될 언어 학력별 분석

		더 많이 쓰일 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학력	초등학교 졸업	2	2	0	4
		50.0%	50.0%	0.0%	100.0%
	중학교 졸업	8	9	0	17
		47.1%	52.9%	0.0%	100.0%
	고등학교 졸업	55	67	1	123
		44.7%	54.5%	0.8%	100.0%
	대학교 졸업	223	335	26	584
		38.2%	57.4%	4.5%	100.0%
	대학원 졸업	102	175	15	292
		34.9%	59.9%	5.1%	100.0%
전체		390	588	42	1020
		38.2%	57.6%	4.1%	100.0%



<그림 81> 더 많이 사용될 언어 학력별 분석

<표 122>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더 많이 쓰일 언어			전 체
		한국어	영어	둘다	
최 종 학 력 나 라	한 국	148 43.7%	179 52.8%	12 3.5%	339 100.0%
	미 국	222 37.0%	354 59.0%	24 4.0%	600 100.0%
	기 타	3 21.4%	11 78.6%	0 0.0%	14 100.0%
	둘 다	17 25.4%	44 65.7%	6 9.0%	67 100.0%
	전 체	390 38.2%	588 57.6%	42 4.1%	1020 100.0%



<그림 82> 더 많이 사용될 언어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 한인 사회에서 더 많이 쓰일 언어 분석 요약

재미 동포들은 현재 평소에도 한국어 사용을 조금 더 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인 사회에서는 영어가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였다. 이러한 인식은 연령별, 세대별, 직업별, 학력별로 비율의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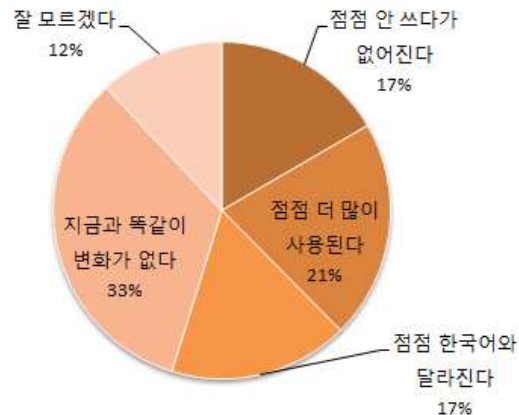
5.2 한국어의 미래의 모습

○ 기본 분석

‘재미 동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한국어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묻는 문항이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32%였고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0%에 이른다. 즉 반수 이상의 재미 동포들은 한국어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안 쓰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6%에 이른다.

<표 123>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점점 안 쓰다가 없어진다	171	16.3	16.6
	점점 더 많이 사용된다	216	20.6	21
	점점 한국어와 달라진다	177	16.9	17.2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다	342	32.6	33.2
	잘 모르겠다	124	11.8	12
	합계	1030	98.3	100
결측값		18	1.7	
합계		1048	100	



<그림 83>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

○ 성별 분석

남성과 여성 모두 지금과 똑같은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남성의 경우 점점 안 쓰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었고 여성의 경우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었다.

<표 124> 한국어의 미래 성별 분석

		한국어의 미래					전 체
		점점 안 쓰다가 없어진다	점점 더 많이 사용된다	점점 한국어와 달라진다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성별	남성	98	76	61	163	62	460
		21.3%	16.5%	13.3%	35.4%	13.5%	100.0%
	여성	73	138	116	178	62	567
		12.9%	24.3%	20.5%	31.4%	10.9%	100.0%
전 체		171	214	177	341	124	1027
		16.7%	20.8%	17.2%	33.2%	12.1%	100.0%

○ 연령별 분석

전 연령대에서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한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연령층에 따라 달랐다. 4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 대답이 많았지만 30대 이하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표 125> 한국어의 미래 연령별 분석

		한국어의 미래					전 체
		점점 안 쓰다가 없어진다	점점 더 많이 사용된다	점점 한국어와 달라진다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나 이	10대	9	3	6	17	11	46
		19.6%	6.5%	13.0%	37.0%	23.9%	100.0%
	20대	45	30	39	74	29	217
		20.7%	13.8%	18.0%	34.1%	13.4%	100.0%
	30대	39	35	32	59	22	187
		20.9%	18.7%	17.1%	31.6%	11.8%	100.0%
	40대	35	47	30	74	25	211
		16.6%	22.3%	14.2%	35.1%	11.8%	100.0%
	50대	21	57	25	58	17	178
		11.8%	32.0%	14.0%	32.6%	9.6%	100.0%
	60대	8	32	30	39	12	121
		6.6%	26.4%	24.8%	32.2%	9.9%	100.0%
	70대	14	12	15	20	8	69
		20.3%	17.4%	21.7%	29.0%	11.6%	100.0%
전 체		171	216	177	341	124	1029
		16.6%	21.0%	17.2%	33.1%	12.1%	100.0%

○ 이주 세대별 분석

다른 세대에서와는 달리 2세대에서는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가진 응답자가 다른 모든 전망에 비해서 가장 낮았다. 2세대는 한국어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6> 한국어의 미래 이주 세대별 분석

		한국어의미래					전 체
		점점 안 쓰다가 없어진다	점점 더 많이 사용된다	점점 한국어와 달라진다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세대 코딩	2세대	78	27	47	85	52	289
		27.0%	9.3%	16.3%	29.4%	18.0%	100.0%
	1.5세대	33	42	43	76	16	210
		15.7%	20.0%	20.5%	36.2%	7.6%	100.0%
	1세대	59	144	84	179	54	520
		11.3%	27.7%	16.2%	34.4%	10.4%	100.0%
전 체		170	213	174	340	122	1019
		16.7%	20.9%	17.1%	33.4%	12.0%	100.0%

○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 기간에 따라 분석해 보면 거주 기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127> 한국어의 미래 거주 기간별 분석

		한국어의미래					전체
		점점 안 쓰다가 없어진다	점점 더 많이 사용된다	점점 한국어와 달라진다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거주 기간 코딩	10-19	42	82	58	143	43	368
		11.4%	22.3%	15.8%	38.9%	11.7%	100.0%
	20-29	68	67	48	110	41	334
		20.4%	20.1%	14.4%	32.9%	12.3%	100.0%
	30-39	51	41	41	56	25	214
		23.8%	19.2%	19.2%	26.2%	11.7%	100.0%
	40-49	8	21	28	28	12	97
		8.2%	21.6%	28.9%	28.9%	12.4%	100.0%
50년 이상	1	2	2	3	1	9	
	11.1%	22.2%	22.2%	33.3%	11.1%	100.0%	
전체		170	213	177	340	122	1022
		16.6%	20.8%	17.3%	33.3%	11.9%	100.0%

○ 직업별 분석

모든 직종에서 지금과 똑같은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두 번째로 높은 응답으로는 서비스업과 전문직에서는 긍정적 전망이, 사무직과 학생 집단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였다.

<표 128> 한국어의 미래에 직업별 분석

		한국어의 미래					전 체
		점점 안 쓰다가 없어진 다	점점 더 많이 사용된 다	점점 한국어와 달라진 다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 다	
직 업	서비스업	54	67	43	90	38	292
		18.5%	22.9%	14.7%	30.8%	13.0%	100.0%
	전문 직	30	50	31	71	23	205
		14.6%	24.4%	15.1%	34.6%	11.2%	100.0%
	사무 직	28	25	27	51	6	137
		20.4%	18.2%	19.7%	37.2%	4.4%	100.0%
	학생/ 연구 원	41	30	36	73	37	217
		18.9%	13.8%	16.6%	33.6%	17.1%	100.0%
	무 직 (주 부 포 함)	12	31	33	46	15	137
		8.8%	22.6%	24.1%	33.6%	10.9%	100.0%
기 타	4	7	5	9	2	27	
	14.8%	25.9%	18.5%	33.3%	7.4%	100.0%	
전 체		169	210	175	340	121	1015
		16.7%	20.7%	17.2%	33.5%	11.9%	100.0%

○ 학교 및 학력별 분석

학력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특히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마친 경우는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29> 한국어의 미래 학력별 분석

		한국어의미래					전체
		점점 안 쓰다가 없어진다	점점 더 많이 사용된다	점점 한국어와 달라진다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학 력	초등학교	1	1	1	1	0	4
	졸업	25.0%	25.0%	25.0%	25.0%	0.0%	100.0%
	중학교	3	1	3	7	4	18
	졸업	16.7%	5.6%	16.7%	38.9%	22.2%	100.0%
	고등학교	15	35	21	36	17	124
	졸업	12.1%	28.2%	16.9%	29.0%	13.7%	100.0%
	대학교	100	114	109	191	71	585
	졸업	17.1%	19.5%	18.6%	32.6%	12.1%	100.0%
전체	대학원	51	63	41	105	31	291
	졸업	17.5%	21.6%	14.1%	36.1%	10.7%	100.0%
		170	214	175	340	123	1022
		16.6%	20.9%	17.1%	33.3%	12.0%	100.0%

<표 130> 한국어의 미래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한국어의미래					전체
		점점 안 쓰다가 없어진다	점점 더 많이 사용된다	점점 한국어와 달라진다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최종 학력 나라	한국	35	93	63	111	39	341
		10.3%	27.3%	18.5%	32.6%	11.4%	100.0%
	미국	127	97	97	201	80	602
		21.1%	16.1%	16.1%	33.4%	13.3%	100.0%
	기타	0	4	4	5	0	13
		0.0%	30.8%	30.8%	38.5%	0.0%	100.0%
	둘다	8	20	11	23	4	66
		12.1%	30.3%	16.7%	34.8%	6.1%	100.0%
전체		170	214	175	340	123	1022
		16.6%	20.9%	17.1%	33.3%	12.0%	100.0%

○ 한국어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분석 요약

재미 동포들은 한국어의 미래의 모습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 정도이며 점점 많이 쓰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0% 내외로 긍

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반 정도의 비율이었다. 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20% 내외, 점점 안 쓰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 내외인 점을 비교하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집단일수록 한국어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6.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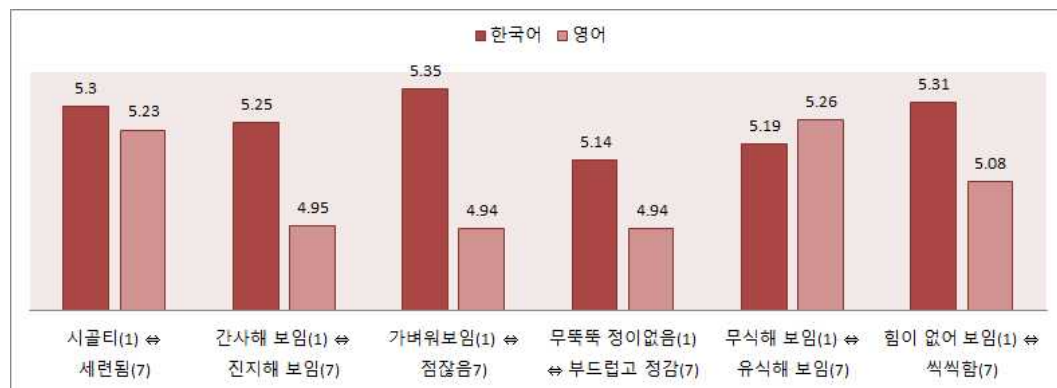
○ 기본 분석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느낌을 비교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 있어서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세련됨을 묻는 항목과 유식함을 묻는 항목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다른 항목의 경우에는 모두 한국어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1>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느낌 분석

구분	한국어			영어			t	유의 확률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시골티(1) ⇔ 세련됨(7)	977	5.30	1.267	970	5.23	1.272	1.494	.136
간사해 보인다(1) ⇔ 진지해 보인다(7)	973	5.25	1.389	964	4.95	1.294	6.624	.000**
가벼워보임(1) ⇔ 점잖음(7)	971	5.35	1.372	965	4.94	1.317	8.648	.000**
무뚝뚝 정이없음(1) ⇔ 부드럽고 정감(7)	984	5.14	1.582	970	4.94	1.375	3.289	.001**
무식해 보인다(1) ⇔ 유식해 보인다(7)	964	5.19	1.388	966	5.26	1.344	-1.382	.167
힘이 없어 보인다(1) ⇔ 씩씩하다(7)	975	5.31	1.386	967	5.08	1.288	4.818	.000**

**p<.01



<그림 84>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느낌 분석

○ 성별 분석

성별에 따라 다른 점은 남성은 한국어를 더 세련된 언어로 인식하고 있음에

반해 여성은 영어를 더 세련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고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같은 인식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132> 한국어와 영어의 느낌 성별 분석

성별		시골티 ⇔ 세련됨		간사해 보임 ⇔ 진지해 보임		가벼워 보임 ⇔ 믿음직스러움		무뚝뚝함 ⇔ 부드러움		무식해 보임 ⇔ 유식해 보임		힘없어 보임 ⇔ 씩씩함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남성	평균	5.35	5.11	5.26	4.87	5.32	4.89	5.08	4.8	5.11	5.17	5.21	4.96
	N	440	433	435	431	435	433	439	432	434	432	438	434
여성	평균	5.26	5.33	5.25	5.02	5.38	4.98	5.2	5.04	5.26	5.33	5.38	5.18
	N	534	534	535	530	533	529	543	535	527	531	534	530
합계	평균	5.3	5.23	5.26	4.95	5.35	4.94	5.14	4.93	5.19	5.26	5.31	5.08
	N	974	967	970	961	968	962	982	967	961	963	972	964

○ 연령별 분석

한국어에 대한 느낌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전 연령에 걸쳐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10대의 경우만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정감 있는 언어로 보고 있고 오히려 한국어 사용을 영어 사용보다 더 유식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어에 대해서 10대들은 다른 연령대와는 다르게 느끼게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0대와 30대의 경우도 한국어를 조금 더 유식해 보이는 언어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언어 능력이 부족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유식하게 판단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여겨진다.

<표 133> 한국어와 영어의 느낌 연령별 분석

연령		세련됨		진지해 보임		믿음직스러움		부드러움		유식해 보임		씩씩함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10대	평균	5.16	5	5.02	4.64	5.13	4.87	4.77	4.82	5.11	5.09	5.09	5
	N	45	45	45	45	45	45	44	45	45	45	45	45
20대	평균	5.22	4.97	4.99	4.72	5.26	4.76	4.9	4.69	5.14	5.09	5.13	4.91
	N	211	211	211	210	209	210	210	212	209	210	211	210
30대	평균	5.44	5.38	5.29	4.97	5.39	4.95	5.31	4.79	5.29	5.26	5.41	5.16
	N	186	186	185	185	184	185	185	183	182	184	185	186
40대	평균	5.26	5.27	5.16	4.92	5.25	4.99	5.02	4.91	5.13	5.24	5.25	5.01
	N	202	203	204	204	203	202	203	203	204	204	204	204
50대	평균	5.38	5.33	5.69	5.09	5.56	5.01	5.39	5.16	5.26	5.41	5.62	5.19
	N	164	162	163	160	165	163	167	162	164	162	166	161
60대	평균	5.36	5.24	5.51	5.2	5.54	5.1	5.43	5.28	5.36	5.49	5.4	5.3
	N	108	106	107	105	107	104	114	107	103	106	105	104
70대	평균	5.08	5.44	4.88	5.2	5.14	5.02	4.97	5.18	4.89	5.22	4.95	5.05
	N	59	55	57	54	57	55	59	56	56	54	57	55
합계	평균	5.3	5.23	5.25	4.95	5.35	4.94	5.15	4.93	5.19	5.26	5.31	5.08
	N	975	968	972	963	970	964	982	968	963	965	973	965

○ 이주 세대별 분석

한국어에 대한 느낌을 이주 세대별로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의 평균값이 더 큰 경향을 보이지만 1세대는 세련된 언어 항목에 있어 영어를 더 세련된 언어로 보고 있고 2세대는 정감 있는 언어로 영어보다 한국어를 꼽고 있는 점이 다른 것과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그 이외에 모든 항목에서 모든 세대가 한국어를 영어보다 긍정적인 느낌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134> 한국어와 영어의 느낌 이주 세대별 분석

이주 세대		세련됨		진지해 보임		믿음직스러움		부드러움		유식해 보임		씩씩함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1세대	평균	5.31	5.34	5.35	5.02	5.39	4.96	5.36	5.05	5.13	5.32	5.33	5.18
	N	410	405	409	404	408	404	419	407	404	408	409	404
1.5세대	평균	5.33	5.29	5.31	4.95	5.32	4.99	5.2	4.87	5.21	5.22	5.28	5.12
	N	212	210	211	210	210	212	211	210	210	209	211	210
2세대	평균	5.2	4.95	5.01	4.77	5.23	4.85	4.69	4.74	5.2	5.09	5.2	4.86
	N	278	279	278	278	277	277	275	278	276	277	279	279
합계	평균	5.28	5.2	5.23	4.93	5.33	4.93	5.12	4.91	5.17	5.23	5.28	5.06
	N	900	894	898	892	895	893	905	895	890	894	899	893

○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 기간에 따른 분석의 경우에도 유식해 보이는 언어를 묻는 항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점수가 더 높다.

<표 135> 한국어와 영어의 느낌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 기간		세련됨		진지해 보임		믿음직스러움		정감있음		유식해 보임		씩씩함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10~19	평균	5.38	5.36	5.32	4.9	5.45	4.92	5.38	4.84	5.23	5.28	5.28	5.13
	N	363	363	364	362	361	361	362	362	361	362	364	362
20~29	평균	5.22	5.05	5.2	4.9	5.29	4.85	5.07	4.92	5.14	5.21	5.39	5.01
	N	309	305	308	303	309	302	314	307	307	304	311	303
30~39	평균	5.34	5.35	5.3	5.13	5.39	5.1	5	5.18	5.35	5.41	5.46	5.25
	N	200	199	197	198	197	200	204	197	194	198	197	200
40~49	평균	5.16	5.08	5.16	4.95	5.11	5.03	4.89	4.85	4.92	5.08	4.91	4.85
	N	89	86	88	86	89	86	87	88	86	87	87	86
50년 이상	평균	5	5.11	4.78	5.13	5	5.11	4.44	5	4.67	5.13	4.44	5
	N	9	9	9	8	8	9	9	9	9	8	9	9
합계	평균	5.3	5.23	5.26	4.96	5.35	4.95	5.15	4.94	5.19	5.27	5.31	5.09
	N	970	962	966	957	964	958	976	963	957	959	968	960

○ 직업별 분석

직업에 따른 변인이 한국어에 대한 느낌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어서 직업에 상관없이 재미 동포들은 한국어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유식해 보이는가를 묻는 항목에만 다른 변인과 마찬가지로 영어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36> 한국어와 영어의 느낌 직업별 분석

직업		세련됨		진지해 보임		믿음직스러움		정감있음		유식해 보임		씩씩함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서비스업	평균	5.3	5.18	5.34	4.91	5.38	4.95	5.11	5.03	5.2	5.25	5.42	5.1
	N	266	260	264	261	264	264	271	263	262	261	265	261
전문직	평균	5.4	5.36	5.39	5.08	5.47	5.02	5.25	4.94	5.28	5.31	5.38	5.08
	N	196	196	195	195	195	194	194	194	191	194	196	196
사무직	평균	5.4	5.27	5.18	5.08	5.29	5.11	5.09	4.87	5.18	5.36	5.26	5.14
	N	136	134	136	132	134	133	136	133	136	132	136	133
학생/연구원	평균	5.2	5.06	5.06	4.7	5.26	4.79	5.03	4.78	5.22	5.17	5.19	4.98
	N	210	209	210	209	208	209	207	210	208	209	209	209
무직	평균	5.2	5.33	5.21	5.08	5.29	4.92	5.35	5.12	5.14	5.29	5.31	5.2
	N	128	129	128	126	129	125	134	129	128	128	129	127
기타	평균	5.33	5.33	5.58	5.11	5.3	4.88	5.15	4.56	4.85	5.3	5.08	5.11
	N	27	27	26	27	27	26	27	27	26	27	26	27
합계	평균	5.3	5.23	5.26	4.95	5.35	4.94	5.15	4.93	5.2	5.26	5.32	5.09
	N	963	955	959	950	957	951	969	956	951	951	961	953

○ 학교 및 학력별 분석

학력이나 최종 학력 국가의 변인도 크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137> 한국어와 영어의 느낌 학력별 분석

학력		세련됨		진지해 보임		믿음직스러움		정감있음		유식해 보임		씩씩함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초등학교	평균	4.25	4	5.75	5.5	6.25	3.75	5	5.75	6.25	5.75	6.5	5.67
	N	4	4	4	4	4	4	4	4	4	4	4	3
중학교	평균	5.33	5.33	5.2	5.38	5.63	5.27	5.29	5.12	6.13	5.87	6.06	5.87
	N	15	15	15	16	16	15	17	17	15	15	16	15
고등학교	평균	5.23	5.07	5.1	4.83	5.32	4.86	4.98	5.11	5.2	5.17	5.38	5.11
	N	112	111	108	107	111	110	112	110	109	108	111	108
대학교	평균	5.26	5.23	5.24	4.92	5.28	4.96	5.12	4.94	5.14	5.26	5.28	5.07
	N	560	553	560	552	556	551	563	552	555	552	560	555
대학원	평균	5.44	5.3	5.36	5.02	5.49	4.93	5.25	4.83	5.25	5.23	5.28	5.06
	N	280	280	280	279	278	279	280	281	276	280	279	280
합계	평균	5.3	5.23	5.26	4.95	5.35	4.94	5.15	4.93	5.2	5.26	5.31	5.09
	N	971	963	967	958	965	959	976	964	959	959	970	961

<표 138> 한국어와 영어의 느낌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최종학력 국가		세련됨		진지해 보임		믿음직스러 움		정감있음		유식해 보임		씩씩함	
		한국 어	영어	한국 어	영어	한국 어	영어	한국 어	영어	한국 어	영어	한국 어	영어
한국	평균	5.31	5.34	5.38	5.07	5.42	5	5.32	5.14	5.19	5.35	5.4	5.19
	N	309	301	306	297	307	300	315	302	304	300	309	300
미국	평균	5.32	5.17	5.19	4.89	5.32	4.91	5.05	4.83	5.21	5.19	5.26	5.03
	N	589	589	589	587	585	587	587	587	585	587	590	590
기타	평균	4.83	5.18	5.09	4.45	5.09	4.45	4.82	5.08	5.18	5.27	5.27	5.18
	N	12	11	11	11	11	11	11	12	11	11	11	11
둘다	평균	5.16	5.26	5.28	5.1	5.35	5.02	5.27	4.9	5.12	5.36	5.32	5.07
	N	61	62	61	63	62	61	63	63	59	61	60	60
합계	평균	5.3	5.23	5.26	4.95	5.35	4.94	5.15	4.93	5.2	5.26	5.31	5.09
	N	971	963	967	958	965	959	976	964	959	959	970	961

○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느낌 요약

재미 동포들이 한국어와 영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언어에 대한 느낌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한국어에 대한 느낌의 평균 점수가 영어에 대한 느낌의 평균 점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 한국어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고, 유식해 보이는가를 묻는 항목에서만 영어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한국어에 대한 평가 항목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점잖고 믿음직스럽다는 항목이었고, 그 뒤를 이어 씩씩하다는 항목과 세련되고 우아하다는 항목이다. 영어의 경우에는 믿음직스럽다는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나 태도가 한국어에 대한 언어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때, 특히 1세대나 2세대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통해 2세대 역시 모국어 유지나 언어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한국적 성향 및 미국적 성향

○ 기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는 달리 조사 대상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표 139> 한국적 성향 및 미국적 성향에 대한 분석

한국적 성향	N	평균	표준 편차	미국적 성향	N	평균	표준 편차	t	p
한국어를 아는 것이 사회적 성공에 도움이 된다	1028	3.97	.945	영어를 하는 것이 사회적 성공에 도움이 된다	1040	4.65	1.681	-11.931	.000**
한국 음악을 즐겨 듣는다.	1029	3.53	1.132	미국 음악을 즐겨 듣는다.	1031	3.36	1.043	3.484	.001**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즐겨 본다.	1034	3.80	1.085	미국 영화와 드라마를 즐겨 본다.	1034	3.50	1.060	6.408	.000**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롭다.	1036	4.29	.792	미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028	3.32	.871	30.136	.000**
다른 사람이 한국인을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다.	1033	4.50	.730	다른 사람이 미국인을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다.	1032	3.28	.967	35.063	.000**
한국 전통 문화를 지킨다.	1031	3.75	.920	미국 전통 문화를 대부분을 지킨다.	1017	3.19	.907	14.440	.000**
한국 이름으로 불리는 게 좋다.	1036	3.76	1.023	미국에 사는 한국인은 미국 이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36	3.08	1.072	13.289	.000**
한국 음식이 좋다.	1038	4.52	.691	미국 음식이 좋다.	1031	3.54	.951	28.427	.000**
다른 한국인들과 잘 어울린다.	1033	4.29	.821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과 잘 어울린다.	1034	3.45	1.114	19.319	.000**
한국인들은 한국인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037	3.02	1.093	다양한 민족적 커뮤니티 속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036	3.92	.847	-7.905	.000**

**p<.01

재미 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비교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 응답자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높게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대응표본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를 아는 것보다는 영어를 아는 것이 사회적 성공에 도움이 되고 한국인들과 어울려 살기보다는 다양한 커뮤니티 안에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음악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인인 것에 더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최근의 한류 붐은 한국 방송 시청이 용이한 재미 동포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과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보인다.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를 보는 1.5세대와 2세대의 비율이 높은 것 또한 이러한 점에 기여한 면이 있음을 뒤의 한국 방송 시청 설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선호하며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가지의 한국적 성향 및 미국적 성향에 대한 분석을 비교하였을 때 미국적 성향에서 더 점수가 높은 항목은 영어를 아는 것이 사회적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과 다양한 커뮤니티 안에서 사는 것이 좋다는 항목뿐이었다. 그러므로 이 결과를 통해서 재미 동포들의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한국인으로의 문화적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는 미국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좋고,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 공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 네 가지 언어 기능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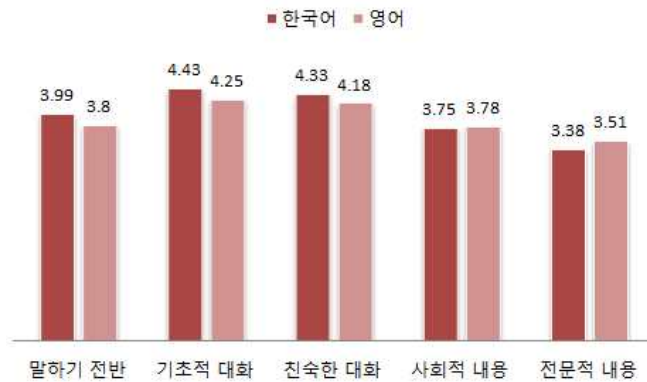
1. 한국어와 영어 능력 비교 분석

한국어 및 영어 능력에 대한 대답을 분석한 결과, 재미 동포들은 전체적으로 한국어 능력에 있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영어 능력에 있어서는 한국어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어의 말하기 능력 점수가 높고 기본적인 말하기 수준에 있어서는 한국어 능력이 영어 능력보다 낮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사회적 사건이나 친숙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한국어나 영어나 그 능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전문적인 내용의 말하기에 있어서는 영어 말하기 능력이 한국어 능력보다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표 140> 말하기 능력 분석

말하기 능력	한국어			영어			t값	유의 확률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당신은 (한국어/영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1031	3.99	1.082	999	3.8	1.036	3.601	.000**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1039	4.43	0.854	1042	4.25	0.879	4.876	.000**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대화할 수 있다.	1041	4.33	0.947	1041	4.18	0.94	3.826	.000**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1041	3.75	1.286	1037	3.78	1.183	-.421	.674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1040	3.38	1.417	1037	3.51	1.315	-2.083	.038*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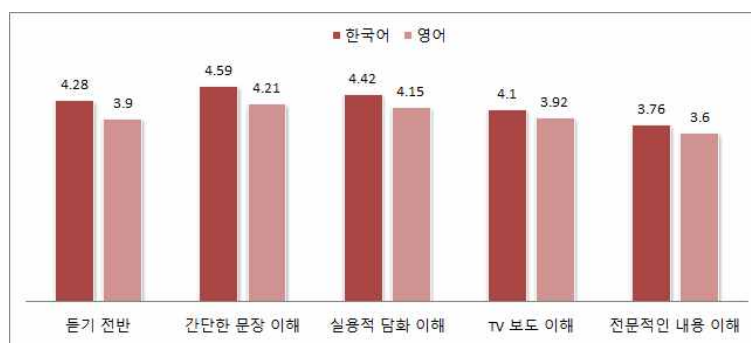
<그림 85> 말하기 능력 분석

듣기 능력에 대한 평가 역시 한국어 능력이 영어 능력보다 조금 우수하게 평가되어 한국어 듣기 능력이 더 좋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41> 듣기 능력 분석

듣기 능력	한국어			영어			t값	유의확률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듣기 전반	1005	4.28	0.909	996	3.9	0.982	8.049	.000**
간단한 문장 이해	1041	4.59	0.697	1043	4.21	0.952	11.948	.000**
실용적 담화 이해	1041	4.42	0.868	1041	4.15	0.974	6.666	.000**
TV 보도 이해	1042	4.1	1.152	1041	3.92	1.123	3.298	.001**
전문적인 내용 이해	1041	3.76	1.333	1040	3.6	1.286	2.467	.014*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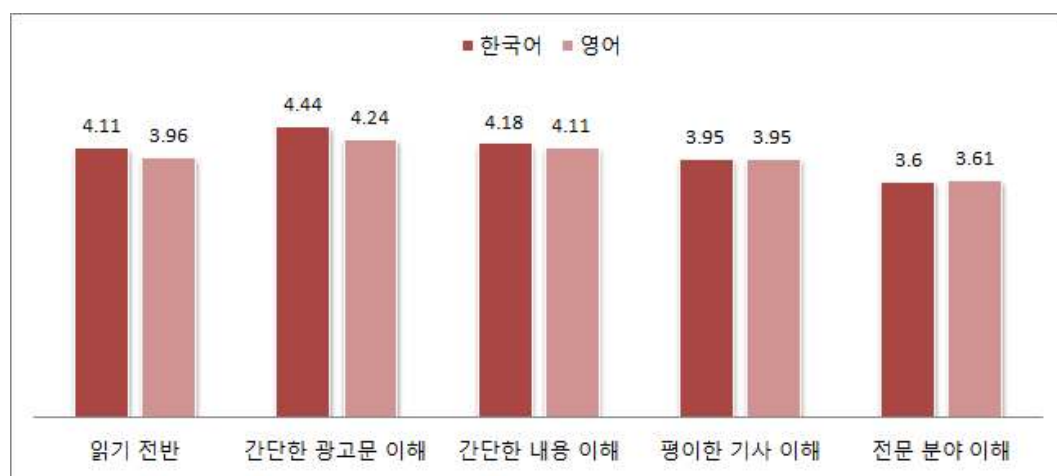
<그림 86> 듣기 능력 분석

한국어와 영어의 읽기 능력을 비교해 보면 한국어 능력이 영어 능력보다 평균 점수가 높지만 간단한 글을 읽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한국어 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어려운 내용으로 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142> 읽기 능력 분석

읽기 능력	한국어			영어			t값	유의 확률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읽기 전반	1004	4.11	1.156	1003	3.96	0.971	2.517	0.12*
간단한 광고문 이해	1043	4.44	0.879	1040	4.24	0.933	5.082	.000**
간단한 내용 이해	1042	4.18	1.123	1038	4.11	1.046	1.260	.208
평이한 기사 이해	1039	3.95	1.295	1037	3.95	1.13	-.016	.987
전문 분야 이해	1038	3.6	1.456	1038	3.61	1.279	-.276	.783

*p<.05, **p<.01



<그림 87> 읽기 능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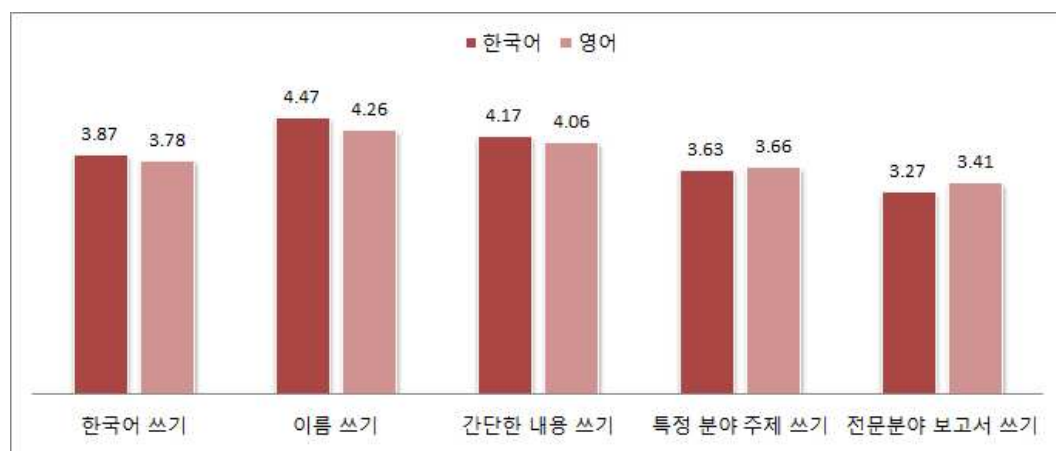
쓰기 능력의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이 거의 비슷하게 평가되었다. 두 능력에 있어 이름 쓰거나 간단한 내용 쓰기에서는 한국어 쓰기 능력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쓰기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인해 전체적으로 쓰기 능력은 한국어 능

력과 영어 능력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겠다.

<표 143> 쓰기 능력 분석

쓰기 능력	한국어			영어			t값	유의 확률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한국어 쓰기	1004	3.87	1.27	996	3.78	1.006	1.367	.172
이름 쓰기	1043	4.47	0.902	1043	4.26	0.942	5.258	.000**
간단한 내용 쓰기	1044	4.17	1.16	1041	4.06	1.075	2.007	.045*
특정 분야 주제 쓰기	1041	3.63	1.428	1041	3.66	1.267	-.438	.661
전문분야 보고서 쓰기	1042	3.27	1.533	1039	3.41	1.352	-1.800	.072

*p<.05, **p<.01



<그림 88> 쓰기 능력 분석

이제까지의 기본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언어의 네 기능 별로 보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44> 언어의 네 기능 분석

	한국어	영어
말하기	3.99	3.8
듣기	4.28	3.9
읽기	4.11	3.96
쓰기	3.87	3.78



<그림 89> 언어의 네 기능 분석

네 가지 언어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재미 동포들은 네 영역 모두 한국어 능력이 영어 능력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네 영역의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한국어의 능력이 좋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사건이나 친숙하지 않은 소재를 다루는 능력을 묻는 항목에서는 두 언어 능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말하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어보다 영어가 조금 더 낫다는 평가가, 듣기는 한국어가 조금 낫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읽기와 쓰기에선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재미 동포들이 언어의 기본 수준에서는 한국어 능력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고급 수준의 언어 구사에는 조금 자신이 없어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2. 세대별 언어 능력 분석

언어 능력을 이주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로 말하기와 쓰기 능력에 있어 2세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1세대나 1.5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영어 능력에 있어 한인 1세대들이 보이는 경향과 비슷하다. 설문에 참여한 1.5세대들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영어보다 한국어 능력이 더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145> 언어 능력 이주 세대별 분석

세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1세대	한국어	4.49	4.68	4.74	4.63
	영어	3.19	3.31	3.44	3.19
1.5세대	한국어	4.17	4.38	4.27	3.94
	영어	4.06	4.26	4.18	4.01
2세대	한국어	2.96	3.49	2.84	2.46
	영어	4.84	4.85	4.85	4.78
합계	한국어	3.96	4.26	4.07	3.83
	영어	3.89	3.98	4.04	3.85



<그림 90> 언어 능력 이주 세대별 분석

이를 추가적으로 자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각 세대별로 언어 능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2.1. 1세대 언어 능력

1세대의 경우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전 영역에 걸쳐 한국어 능력이 영어 능력보다 우수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표 146> 말하기 능력에 대한 1세대 분석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말하기 전반	한국어	4.51	496	.747	30.392	.000**
	영어	3.10	496	.784		
기초적 대화	한국어	4.60	524	.708	22.818	.000**
	영어	3.73	524	.842		
친숙한 대화	한국어	4.55	525	.759	23.038	.000**
	영어	3.60	525	.887		
사회적 내용	한국어	4.26	523	.974	24.615	.000**
	영어	3.00	523	.988		
전문적 내용	한국어	3.95	522	1.185	23.468	.000**
	영어	2.64	522	1.031		

**p<.01

<표 147> 듣기 능력에 대한 1세대 분석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듣기 전반	한국어	4.67	495	.596	37.162	.000**
	영어	3.24	495	.783		
간단한 문장 이해	한국어	4.63	527	.677	24.883	.000**
	영어	3.66	527	.930		
실용적 담화 이해	한국어	4.63	526	.674	26.236	.000**
	영어	3.56	526	.921		
TV 보도 이해	한국어	4.57	525	.747	29.802	.000**
	영어	3.17	525	.964		
전문적 내용 이해	한국어	4.38	525	.911	31.389	.000**
	영어	2.75	525	1.041		

**p<.01

<표 148> 읽기 능력에 대한 1세대 분석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읽기 전반	한국어	4.74	495	.577	34.238	.000**
	영어	3.37	495	.845		
간단한 광고문 이해	한국어	4.68	524	.625	24.846	.000**
	영어	3.72	524	.922		
간단한 내용 이해	한국어	4.66	522	.643	27.061	.000**
	영어	3.49	522	1.013		
평이한 기사 이해	한국어	4.61	518	.708	29.878	.000**
	영어	3.26	518	1.035		
전문 분야 이해	한국어	4.40	521	.904	29.846	.000**
	영어	2.82	521	1.093		

** p<.01

<표 149> 쓰기 능력에 대한 1세대 분석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쓰기 전반	한국어	4.62	490	.645	37.942	.000**
	영어	3.12	490	.749		
이름 쓰기	한국어	4.67	527	.633	23.508	.000**
	영어	3.74	527	.962		
간단한 내용 쓰기	한국어	4.62	526	.695	27.633	.000**
	영어	3.39	526	1.010		
특정 분야 쓰기	한국어	4.35	525	.971	30.233	.000**
	영어	2.81	525	1.031		
전문 분야 쓰기	한국어	4.12	525	1.105	28.101	.000**
	영어	2.53	525	1.058		

** p<.01

2.2 1.5세대 언어 능력

1.5세대의 경우에는 말하기 능력에 있어 기초적인 한국어와 영어 능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집단은 구체적으로 기초적인 대화나 친숙한 대화에 있어서는 두 언어 능력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내용이나 전문적인 내용의 말하기에 있어서만 영어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이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듣기 능력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간단한 문장 듣기의 경우만 한국어 능력이 조금 더 좋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읽기 능력의 경우에도 큰 차이는 없었지만 간단한 글을 읽는 능력을 제외하면 전문적인 영역으로 갈수록 영어 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쓰기의 경우도 특정 분야 쓰기나 전문 분야 쓰기에서는 영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전체적인 쓰기 평가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를 종합해 보면 1.5세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언어 간의 능력에 큰 차이가 없이 사용하는 이중언어 사용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고급의 언어 능력으로 갈수록 영어를 사용하는 데에 익숙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표 150> 말하기 능력에 대한 1.5세대 분석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말하기 전반	한국어	4.17	208	.790	1.450	.149
	영어	4.06	208	.778		
기초적 대화	한국어	4.67	212	.604	.000	1.000
	영어	4.67	212	.588		
친숙한 대화	한국어	4.65	212	.570	.000	1.000
	영어	4.65	212	.594		
사회적 내용	한국어	4.09	211	.982	-2.176	.031*
	영어	4.27	211	.833		
전문적 내용	한국어	3.69	211	1.149	-2.783	.006**
	영어	3.96	211	1.006		

*p<.05, ** p<.01

<표 151> 듣기 능력에 대한 1.5세대 분석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듣기 전반	한국어	4.38	203	.751	1.835	.068
	영어	4.25	203	.739		
간단한 문장 이해	한국어	4.75	213	.497	2.453	.015*
	영어	4.65	213	.639		
실용적 담화 이해	한국어	4.66	213	.581	1.291	.198
	영어	4.60	213	.670		
TV 보도 이해	한국어	4.40	213	.855	-.688	.492
	영어	4.45	213	.761		
전문적 내용 이해	한국어	4.01	213	1.068	-.195	.845
	영어	4.03	213	.971		

*p<.05, ** p<.01

<표 152> 읽기 능력에 대한 1.5세대 분석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읽기 전반	한국어	4.28	205	.873	1.233	.219
	영어	4.18	205	.755		
간단한 광고문 이해	한국어	4.68	213	.600	.717	.474
	영어	4.65	213	.624		
간단한 내용 이해	한국어	4.46	213	.821	-2.093	.038*
	영어	4.60	213	.663		
평이한 기사 이해	한국어	4.24	213	.968	-2.253	.025*
	영어	4.42	213	.794		
전문 분야 이해	한국어	3.78	210	1.211	-2.539	.012*
	영어	4.05	210	.942		

** p<.01

<표 153> 쓰기 능력에 대한 1.5세대 분석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쓰기 전반	한국어	3.95	201	1.090	-.551	.582
	영어	4.00	201	.815		
이름 쓰기	한국어	4.65	213	.689	-.492	.623
	영어	4.67	213	.603		
간단한 내용 쓰기	한국어	4.44	213	.897	-1.733	.085
	영어	4.57	213	.708		
특정 분야 쓰기	한국어	3.80	213	1.222	-3.872	.000**
	영어	4.18	213	.895		
전문 분야 쓰기	한국어	3.30	212	1.381	-4.556	.000**
	영어	3.85	212	1.068		

*p<.05, ** p<.01

2.3 2세대 언어 능력

2세대의 경우에는 네 가지 언어 기능 모두 모든 영역에 있어 영어 능력이 한국어 능력보다 우수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1세대와는 정반대되는 결과이다.

<표 154> 말하기 능력에 대한 2세대 분석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말하기 전반	한국어	2.98	272	1.057	-25.528	.000**
	영어	4.83	272	.509		
기초적 대화	한국어	3.98	281	1.047	-15.165	.000**
	영어	4.92	281	.350		
친숙한 대화	한국어	3.76	281	1.164	-16.255	.000**
	영어	4.90	281	.398		
사회적 내용	한국어	2.61	281	1.258	-27.877	.000**
	영어	4.83	281	.538		
전문적 내용	한국어	2.11	281	1.153	-33.546	.000**
	영어	4.76	281	.624		

** p<.01

<표 155> 듣기 능력에 대한 2세대 분석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듣기 전반	한국어	3.51	256	.990	-20.262	.000**
	영어	4.85	256	.401		
간단한 문장 이해	한국어	4.45	280	.775	-10.687	.000**
	영어	4.92	280	.340		
실용적 담화 이해	한국어	3.91	281	1.085	-15.551	.000**
	영어	4.91	281	.368		
TV 보도 이해	한국어	3.07	281	1.256	-23.559	.000**
	영어	4.89	281	.417		
전문적 내용 이해	한국어	2.48	280	1.247	-28.737	.000**
	영어	4.83	280	.505		

** p<.01

<표 156> 읽기 능력에 대한 2세대 분석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읽기 전반	한국어	2.85	267	1.133	-26.518	.000**
	영어	4.85	267	.422		
간단한 광고문 이해	한국어	3.85	280	1.139	-15.388	.000**
	영어	4.90	280	.399		
간단한 내용 이해	한국어	3.14	279	1.289	-22.235	.000**
	영어	4.91	279	.387		
평이한 기사 이해	한국어	2.59	279	1.269	-27.613	.000**
	영어	4.86	279	.471		
전문 분야 이해	한국어	2.06	279	1.189	-33.161	.000**
	영어	4.77	279	.571		

** p<.01

<표 157> 쓰기 능력에 대한 2세대 분석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쓰기 전반	한국어	2.48	267	1.063	-30.300	.000**
	영어	4.78	267	.525		
이름 쓰기	한국어	3.98	281	1.217	-12.613	.000**
	영어	4.90	281	.436		
간단한 내용 쓰기	한국어	3.17	281	1.351	-20.446	.000**
	영어	4.89	281	.453		
특정 분야 쓰기	한국어	2.20	280	1.208	-31.910	.000**
	영어	4.82	280	.554		
전문 분야 쓰기	한국어	1.74	280	1.041	-37.348	.000**
	영어	4.68	280	.679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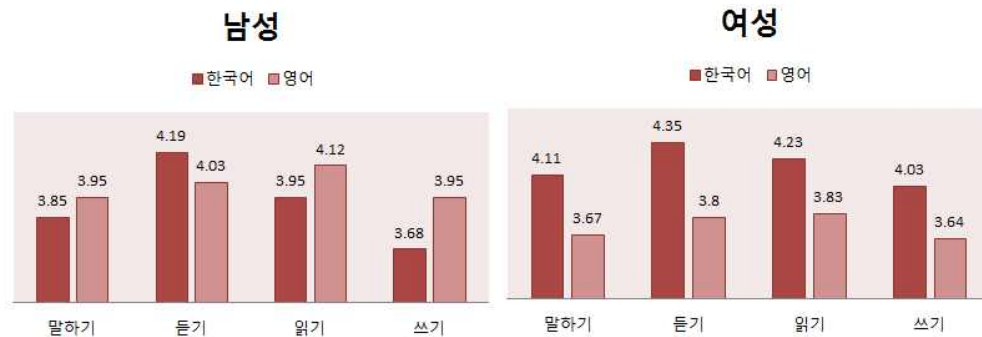
3. 변인별 언어 능력 분석

○ 성별 분석

언어 능력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좀 더 높은 평가를 한 반면에 영어 능력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약간 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재미 동포 사회 안에서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덜 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58> 언어 능력 성별 분석

성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남성	한국어	3.85	4.19	3.95	3.68
	영어	3.95	4.03	4.12	3.95
여성	한국어	4.11	4.35	4.23	4.03
	영어	3.67	3.80	3.83	3.64
합계	한국어	3.99	4.28	4.11	3.87
	영어	3.79	3.90	3.96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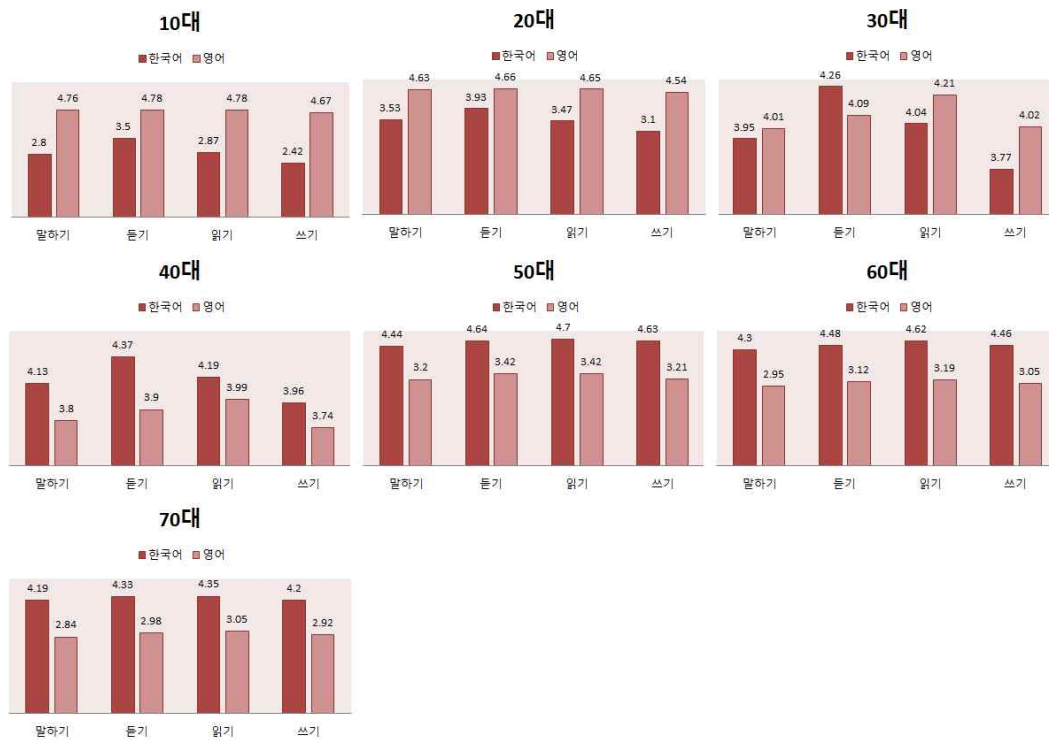
<그림 91> 언어 능력 성별 분석

○ 연령별 분석

언어 능력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말하기 능력에 있어 10대 및 20대는 한국어보다 영어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한 반면 30대 이상의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런 경향은 듣기, 읽기, 쓰기의 모든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보였다.

<표 159> 언어 능력 연령별 분석

나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10대	한국어	2.80	3.50	2.87	2.42
	영어	4.76	4.78	4.78	4.67
20대	한국어	3.53	3.93	3.47	3.10
	영어	4.63	4.66	4.65	4.54
30대	한국어	3.95	4.26	4.04	3.77
	영어	4.01	4.09	4.21	4.02
40대	한국어	4.13	4.37	4.19	3.96
	영어	3.80	3.90	3.99	3.74
50대	한국어	4.44	4.64	4.70	4.63
	영어	3.20	3.42	3.42	3.21
60대	한국어	4.30	4.48	4.62	4.46
	영어	2.95	3.12	3.19	3.05
70대	한국어	4.19	4.33	4.35	4.20
	영어	2.84	2.98	3.05	2.92
합계	한국어	3.99	4.28	4.11	3.87
	영어	3.79	3.90	3.96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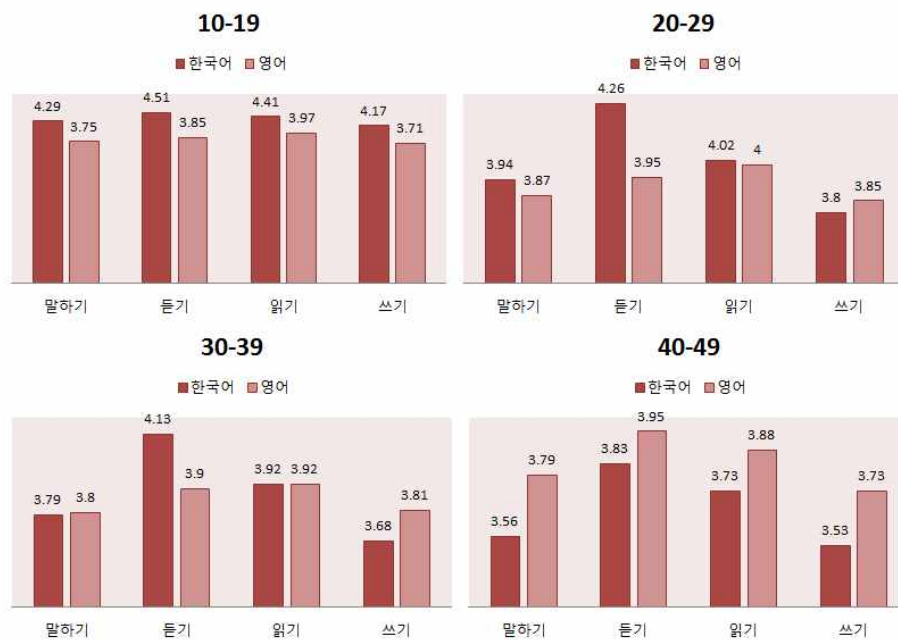
<그림 92> 언어 능력 연령별 분석

○ 거주 기간별 분석

언어 능력을 거주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간은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고 영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10년에서 30년까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160> 언어 능력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 기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10~19	한국어	4.29	4.51	4.41	4.17
	영어	3.75	3.85	3.97	3.71
20~29	한국어	3.94	4.26	4.02	3.8
	영어	3.87	3.95	4	3.85
30~39	한국어	3.79	4.13	3.92	3.68
	영어	3.8	3.9	3.92	3.81
40~49	한국어	3.56	3.83	3.73	3.53
	영어	3.79	3.95	3.88	3.73
50년이상	한국어	3.88	4.33	4	3.57
	영어	3.67	4.17	4.14	4.29
합계	한국어	4	4.28	4.11	3.88
	영어	3.8	3.9	3.96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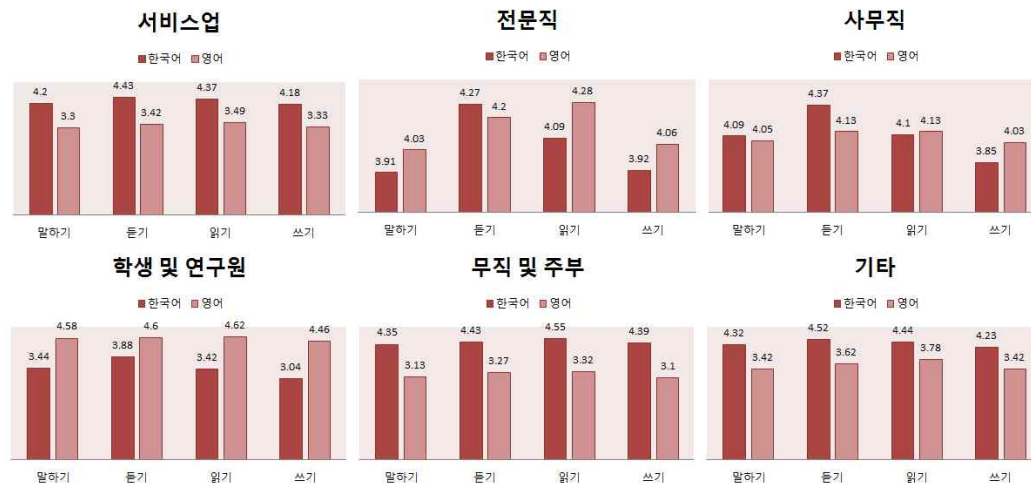
<그림 93> 언어 능력 거주 기간별 분석

○ 직업별 분석

직업별로 보면, 학생 및 연구원 집단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 영역에 있어서 영어 능력이 한국어 능력보다 낮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서비스업 종사자나 주부를 포함한 무직자 집단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영어 능력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문직이나 사무직 집단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 수준이 유사하였다.

<표 161> 언어 능력 직업별 분석

직업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서비스업	한국어	4.20	4.43	4.37	4.18
	영어	3.30	3.42	3.49	3.33
전문직	한국어	3.91	4.27	4.09	3.92
	영어	4.03	4.20	4.28	4.06
사무직	한국어	4.09	4.37	4.10	3.85
	영어	4.05	4.13	4.13	4.03
학생/연구원	한국어	3.44	3.88	3.42	3.04
	영어	4.58	4.60	4.62	4.46
무직/주부	한국어	4.35	4.43	4.55	4.39
	영어	3.13	3.27	3.32	3.10
기타	한국어	4.32	4.52	4.44	4.23
	영어	3.42	3.62	3.78	3.42
합계	한국어	3.99	4.28	4.10	3.87
	영어	3.80	3.91	3.96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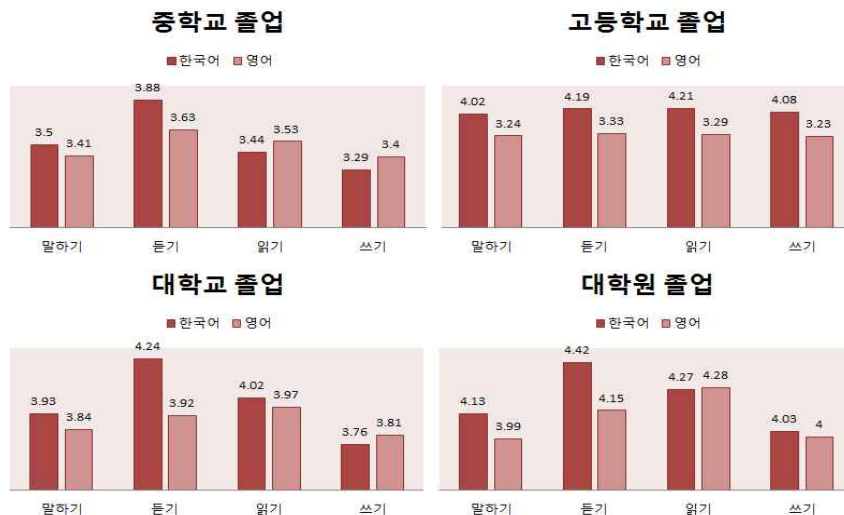
<그림 94> 언어 능력 직업별 분석

○ 학력별 분석

한국어와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구어 기능인 말하기, 듣기에 있어서는 모든 학력 집단에서 한국어를 영어보다 잘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문어 기능인 읽기, 쓰기에 있어서는 고학력 집단으로 갈수록 영어 능력의 수준이 한국어 능력에 근접할 정도로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응답자가 최종 학교 교육을 한국에서 받은 집단은 전반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였고 미국에서 받은 집단은 전반적으로 영어 능력이 우수하였다.

<표 162> 언어 능력 학력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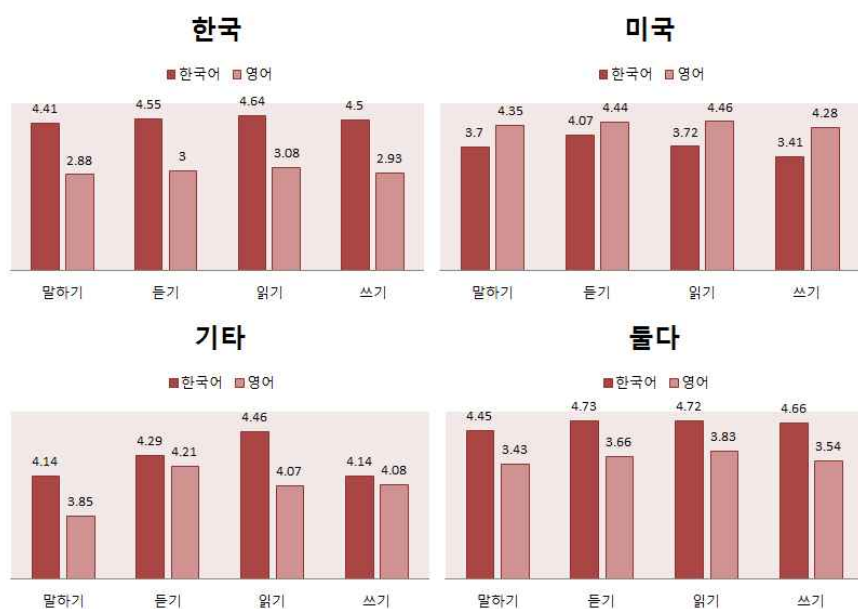
학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초등학교 졸업	한국어	3.8	3.6	3.5	3.75
	영어	2	2	2	1.67
중학교 졸업	한국어	3.5	3.88	3.44	3.29
	영어	3.41	3.63	3.53	3.4
고등학교 졸업	한국어	4.02	4.19	4.21	4.08
	영어	3.24	3.33	3.29	3.23
대학교 졸업	한국어	3.93	4.24	4.02	3.76
	영어	3.84	3.92	3.97	3.81
대학원 졸업	한국어	4.13	4.42	4.27	4.03
	영어	3.99	4.15	4.28	4
합계	한국어	3.99	4.28	4.1	3.87
	영어	3.8	3.91	3.96	3.78



<그림 95> 언어 능력 학력별 분석

<표 163> 언어 능력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최종학력국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한국	한국어	4.41	4.55	4.64	4.5
	영어	2.88	3	3.08	2.93
미국	한국어	3.7	4.07	3.72	3.41
	영어	4.35	4.44	4.46	4.28
기타	한국어	4.14	4.29	4.46	4.14
	영어	3.85	4.21	4.07	4.08
둘다	한국어	4.45	4.73	4.72	4.66
	영어	3.43	3.66	3.83	3.54
합계	한국어	3.99	4.28	4.1	3.87
	영어	3.8	3.91	3.96	3.78



<그림 96> 언어 능력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제4장 언어 사용 환경 및 언어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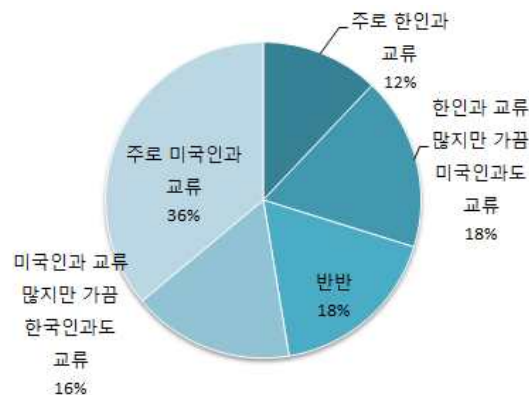
1. 재미 동포들의 언어 사용 환경

○ 기본 분석

‘당신은 다음의 상황에서 주로 어떤 사람과 교류합니까?’라는 질문 중에서 먼저 직업적으로 일을 할 때 주로 어떤 사람과 교류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주로 미국인과 교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주로 한인과 교류한다는 응답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직업적 장면에서 주로 한인보다는 미국인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없음’에 표시한 응답을 제외했을 때, 주로 한인과 교류한다는 응답과 한인과의 교류가 많다는 응답을 합하면 약 30%였고 주로 미국인과 교류한다는 응답과 미국인과의 교류가 많다는 응답을 합하면 약 53%로, 역시 미국인과의 교류가 한국인과의 교류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4> 직업적 교류 분석

직업적교류		빈도	퍼센트
유 효	주로 한인과 교류	116	11.1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도 교류	170	16.2
	반반	169	16.1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159	15.2
	주로 미국인과 교류	346	33
	해당 없음	51	4.9
	합계	1011	96.5
결 측	결측값	37	3.5
합계		10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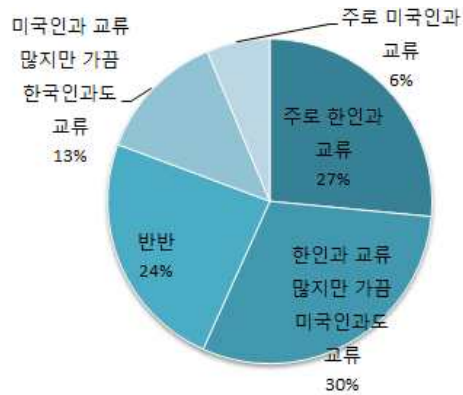


<그림 97> 직업적 교류 분석

다음으로 사교적 상황에서 주로 누구와 교류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5> 사교적 교류 분석

사교적 교류		빈도	퍼센트
유효	주로 한인과 교류	269	25.7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도 교류	307	29.3
	반반	243	23.2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132	12.6
	주로 미국인과 교류	64	6.1
	해당 없음	7	0.7
	합계	1022	97.5
결측	결측값	26	2.5
	합계	10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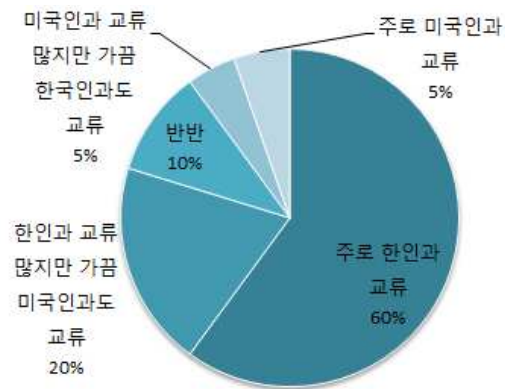
<그림 98> 사교적 교류 분석

사교적 장면에서는 ‘해당 없음’을 제외했을 때 응답자의 약 57%가 주로 한인과 교류하거나 한인과의 교류가 더 많다고 하였다. 주로 미국인과 교류하거나 미국인과의 교류가 더 많다고 한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적 교류와는 반대로 사교적 교류에 있어서는 주로 한인들 간의 교류가 더 많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종교적 장면에서 주로 누구와 교류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6> 종교적 교류 분석

종교적 교류		빈도	퍼센트
유효	주로 한인과 교류	549	52.4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도 교류	180	17.2
	반반	93	8.9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43	4.1
	주로 미국인과 교류	49	4.7
	해당 없음	114	10.9
	합계	1030	98.3
결측	결측값	20	1.9
	합계	1048	100



<그림 99> 종교적 교류 분석

종교적 교류에 있어서는 ‘해당 없음’을 표시한 응답을 제외했을 때, 주로 한인과 교류한다는 응답과 한인과의 교류가 많다는 응답을 합치면 전체의 80%

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주로 미국인과 교류하거나 미국인과의 교류가 많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미동포 사회에서 종교 활동이 주로 한인들끼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1.1 직업적 교류에 대한 변인별 분석

직업적 장면에서 주로 누구와 교류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주요 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 이하에서는 주로 미국인과 교류하거나 미국인과의 교류가 많다는 응답이 한인과의 교류 응답보다 많았다. 반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미국인과의 교류 비중이 줄어들어서 60대 이상이 되면 한인과의 교류가 더 많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주 세대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미국인과의 교류가 한인과의 교류보다 많았고 특히 2세대에서는 15%만이 한인과의 교류가 미국인과의 교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미국인과의 교류가 한인과의 교류보다 많았으며 특히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미국인과 교류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직업에 따라 분석한 결과, 특히 전문직과 사무직, 그리고 학생 및 연구원 집단에서 주로 미국인과 교류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미국인과의 교류가 한국인과의 교류보다 많아지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45%가 주로 미국인과 교류하였고 주로 한인과 교류한다는 응답은 6%에 지나지 않았다. 최종 졸업한 학교가 한국 학교인 경우에만 한인과의 교류가 미국인과의 교류보다 많았고 다른 모든 경우에는 반대로 미국인과의 교류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재미 동포들의 직업적 교류 상황은 미국인과의 교류가 한국인과 교류하는 상황보다 많다고 하겠다. 아래 각 변인별 표와 그림을 통해 구체적인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성별 분석

<표 167> 직업적 교류 성별 분석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직업적 교류	주로 한인과 교류	43	73	116
		9.4%	13.2%	11.5%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도 교류	81	88	169
		17.8%	15.9%	16.8%
	반반	71	98	169
		15.6%	17.8%	16.8%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72	87	159
		15.8%	15.8%	15.8%
	주로 미국인과의 교류	174	170	344
		38.2%	30.8%	34.1%
	해당 없음	15	36	51
		3.3%	6.5%	5.1%
전체		456	552	1008
		100.0%	100.0%	100.0%

남성



여성



<그림 100> 직업적 교류 성별 분석

○ 연령별 분석

<표 168> 직업적 교류 연령별 분석

		나이							전 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직업적 교류	주로 한인과 교류	3	12	18	18	33	20	12	116
		6.7%	5.5%	9.7%	8.5%	19.1%	17.2%	19.4%	11.5%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도 교류	2	32	30	36	28	29	13	170
		4.4%	14.7%	16.1%	17.1%	16.2%	25.0%	21.0%	16.8%
	반반	6	36	28	39	30	20	10	169
		13.3%	16.6%	15.1%	18.5%	17.3%	17.2%	16.1%	16.7%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8	39	33	33	23	16	7	159
		17.8%	18.0%	17.7%	15.6%	13.3%	13.8%	11.3%	15.7%
	주로 미국인과 교류	18	90	71	75	52	27	12	345
		40.0%	41.5%	38.2%	35.5%	30.1%	23.3%	19.4%	34.2%
	해당 없음	8	8	6	10	7	4	8	51
		17.8%	3.7%	3.2%	4.7%	4.0%	3.4%	12.9%	5.0%
전 체		45	217	186	211	173	116	62	10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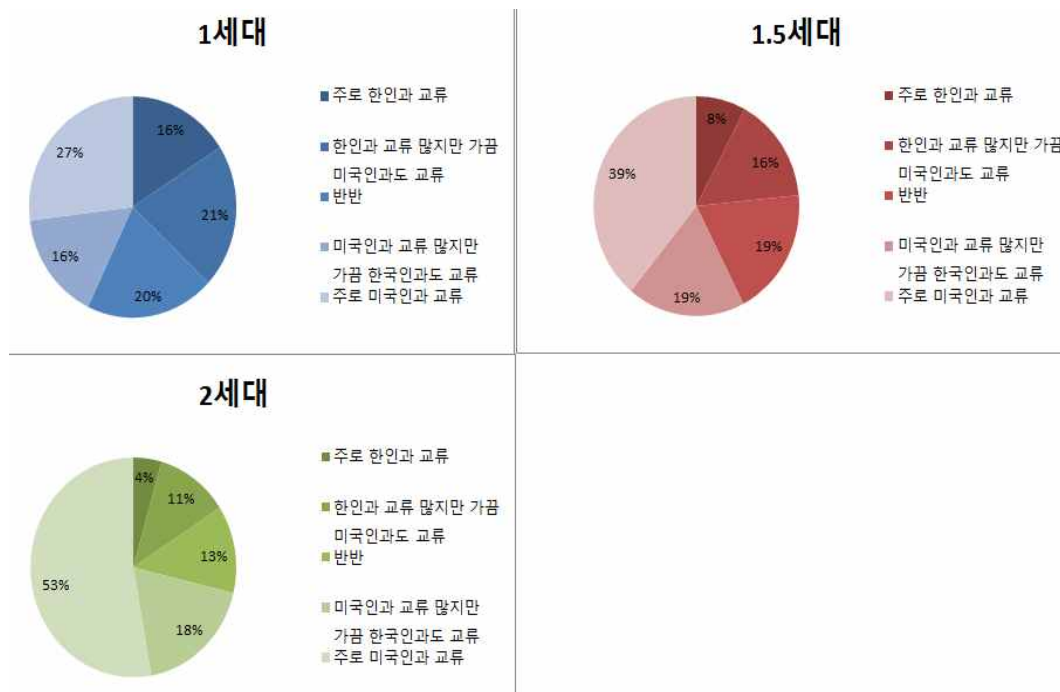


<그림 101> 직업적 교류 연령별 분석

○ 이주 세대별 분석

<표 169> 직업적 교류 이주 세대별 분석

		세대코딩			전체
		2세대	1.5세대	1세대	
직업적 교류	주로 한인과 교류	12	16	88	116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 교류	4.2%	7.6%	17.5%	11.6%
	반반	31	32	105	168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 교류	10.8%	15.2%	20.9%	16.8%
	주로 미국인과 교류	35	39	91	165
	해당 없음	12.2%	18.5%	18.1%	16.5%
		50	38	70	158
전체		17.4%	18.0%	13.9%	15.8%
		143	80	119	342
		49.8%	37.9%	23.7%	34.2%
		16	6	29	51
		5.6%	2.8%	5.8%	5.1%
		287	211	502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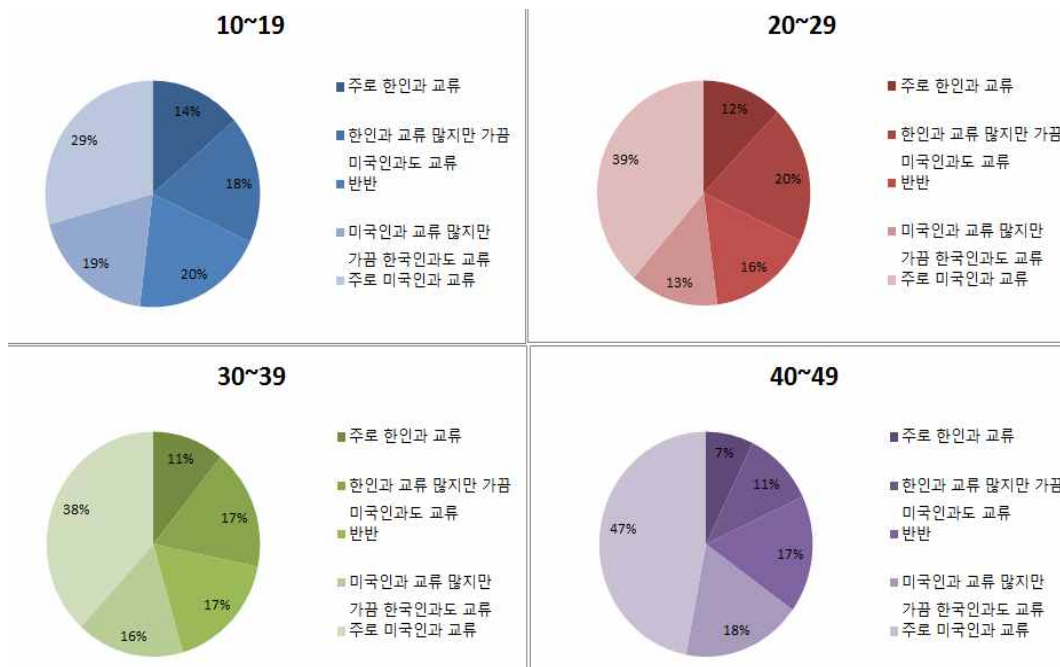


<그림 102> 직업적 교류 이주 세대별 분석

○ 거주 기간별 분석

<표 170> 직업적 교류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기간					전체
		10-19	20-29	30-39	40-49	50년이상	
직업적 교류	주로 한인과 교류	47 12.9%	39 11.9%	22 10.6%	6 6.5%	0 0.0%	114 11.4%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 교류	62 17.0%	63 19.2%	35 16.8%	9 9.7%	0 0.0%	169 16.8%
	반반	68 18.6%	51 15.5%	35 16.8%	14 15.1%	1 11.1%	169 16.8%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 교류	64 17.5%	43 13.1%	33 15.9%	15 16.1%	3 33.3%	158 15.8%
	주로 미국인과 교류	100 27.4%	123 37.5%	77 37.0%	39 41.9%	5 55.6%	344 34.3%
	해당 없음	24 6.6%	9 2.7%	6 2.9%	10 10.8%	0 0.0%	49 4.9%
	전체	365 100.0%	328 100.0%	208 100.0%	93 100.0%	9 100.0%	10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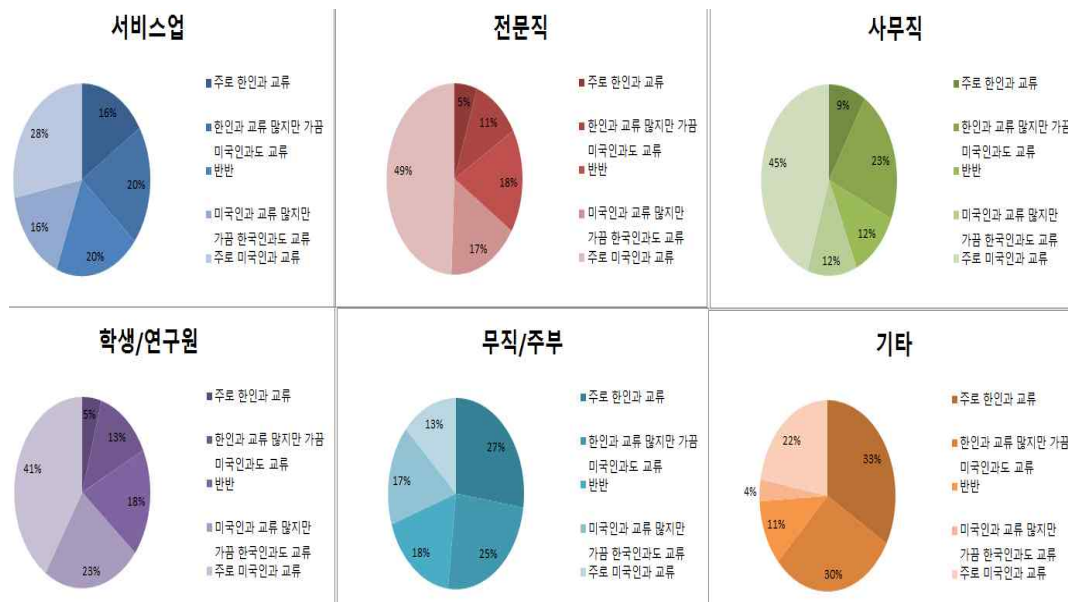


<그림 103> 직업적 교류 거주 기간별 분석

○ 직업별 분석

<표 171> 직업적 교류 직업별 분석

		직업						전체
		서비스업	전문직	사무직	학생/연구원	무직(주부포함)	기타	
직업적 교류	주로 한인과 교류	44 15.8%	11 5.3%	12 8.7%	9 4.2%	29 22.0%	9 32.1%	114 11.4%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도 교류	55 19.7%	23 11.2%	31 22.5%	26 12.1%	26 19.7%	8 28.6%	169 17.0%
	반반	55 19.7%	36 17.5%	16 11.6%	36 16.8%	19 14.4%	3 10.7%	165 16.5%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44 15.8%	34 16.5%	16 11.6%	46 21.5%	18 13.6%	1 3.6%	159 15.9%
	주로 미국인과 교류	77 27.6%	101 49.0%	61 44.2%	81 37.9%	14 10.6%	6 21.4%	340 34.1%
	해당 없음	4 1.4%	1 0.5%	2 1.4%	16 7.5%	26 19.7%	1 3.6%	50 5.0%
	전체	279 100.0%	206 100.0%	138 100.0%	214 100.0%	132 100.0%	28 100.0%	99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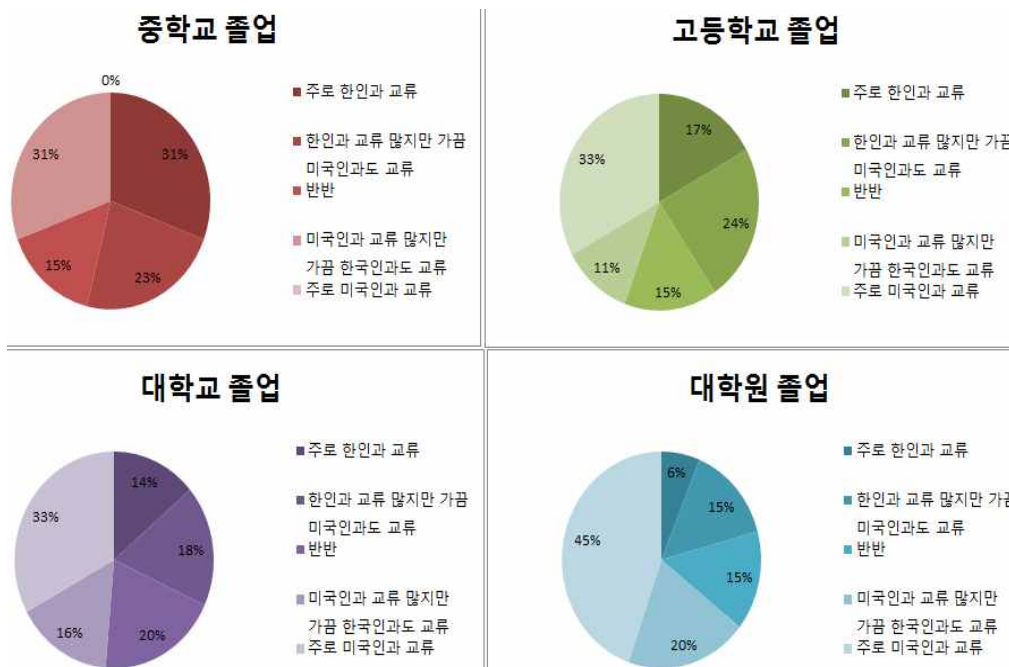


<그림 104> 직업적 교류 직업별 분석

○ 학력 및 학교별 분석

<표 172> 직업적 교류 학력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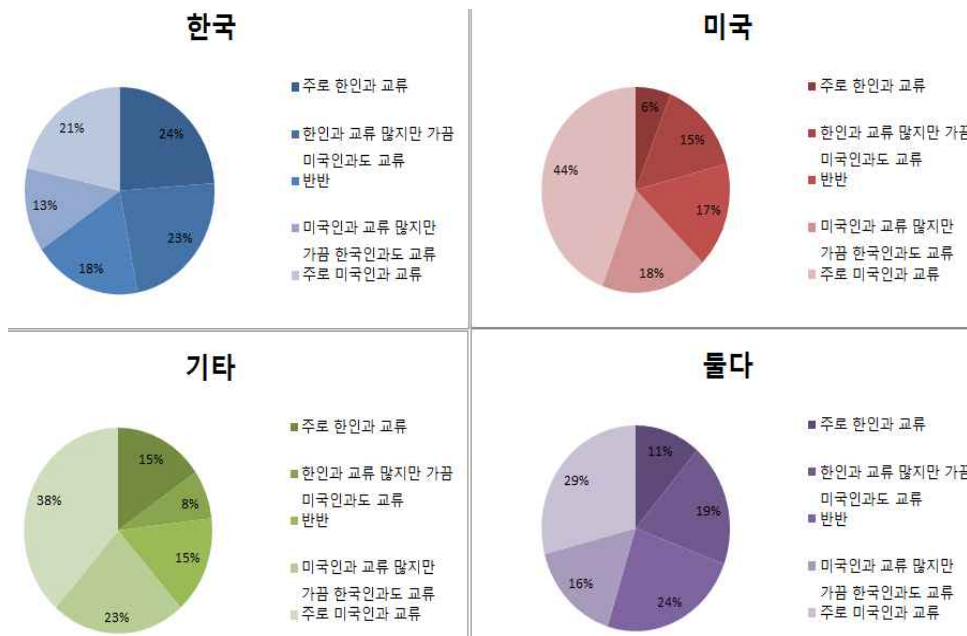
		학력					전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직업적 교류	주로 한인과 교류	0	4	18	75	18	115
		0.0%	26.7%	15.5%	13.0%	6.1%	11.5%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 교류	0	3	25	98	42	168
		0.0%	20.0%	21.6%	17.0%	14.2%	16.7%
	반반	1	2	16	106	43	168
		100.0%	13.3%	13.8%	18.4%	14.6%	16.7%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 교류	0	4	12	85	57	158
		0.0%	26.7%	10.3%	14.8%	19.3%	15.8%
	주로 미국인과 교류	0	0	35	179	129	343
		0.0%	0.0%	30.2%	31.1%	43.7%	34.2%
	해당 없음	0	2	10	33	6	51
		0.0%	13.3%	8.6%	5.7%	2.0%	5.1%
전체		1	15	116	576	295	100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105> 직업적 교류 학력별 분석

<표 173> 직업적 교류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최종학력나라				전체
		한국	미국	기타	둘다	
직업적 교류	주로 한인과 교류	71	35	2	7	115
		22.0%	5.8%	15.4%	10.6%	11.5%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도 교류	69	86	1	12	168
		21.4%	14.3%	7.7%	18.2%	16.7%
	반반	55	96	2	15	168
		17.1%	15.9%	15.4%	22.7%	16.7%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39	106	3	10	158
직업적 교류		12.1%	17.6%	23.1%	15.2%	15.8%
	주로 미국인과 교류	64	256	5	18	343
		19.9%	42.5%	38.5%	27.3%	34.2%
	해당 없음	24	23	0	4	51
		7.5%	3.8%	0.0%	6.1%	5.1%
	전체	322	602	13	66	1003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106> 직업적 교류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2 사교적 교류에 대한 변인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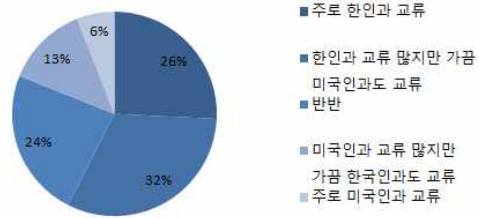
사교적 장면에서 주로 교류하는 사람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주로 한인과 교류하거나 한인과의 교류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로 한인과 교류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10대는 미국인과 교류하는 비중이 한국인과 교류하는 비중보다 높았다.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2세대는 전체의 43%가 미국인과의 교류가 많다고 응답했는데 그 비중은 1.5세대에서는 20%, 1세대에서는 7%로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었다. 거주 기간이 30년 미만인 집단에서는 한국인과의 교류가 미국인과의 교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30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그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한국인과의 교류가 미국인과의 교류보다 많았다. 사교적 장면에서의 교류 상대를 직업별로 분석해 보면 자영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와 주부를 포함한 무직 집단에서는 한국인과의 교류가 미국인과의 교류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전문직, 사무직, 학생 및 연구원 집단에서도 한국인과의 교류가 미국인과의 교류보다 높았다. 학력에 따른 변인은 모든 집단에서 한국인과의 교류가 많아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최종 교육을 받은 학교가 한국 학교였던 집단이나 미국 학교였던 집단 모두 한인과의 교류가 미국인과의 교류보다 활발하였다. 그러나 그 비중에는 차이가 있어서 한국 학교 졸업 집단은 4%만이 미국인과의 교류가 한인과의 교류보다 많다고 응답한 반면 미국 학교 졸업 집단에서는 28%가 미국인과의 교류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사교적 교류에 있어서는 직업적 교류에 비해 전체적으로 한국인과의 교류가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각 변인별로 구체적인 비율은 아래의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 성별 분석

<표 174> 사교적 교류 성별 분석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사 교 적 교 류	주로 한인과 교류	117 25.6%	151 26.9%	268 26.3%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도 교류	144 31.5%	163 29.0%	307 30.1%
	반반	107 23.4%	136 24.2%	243 23.8%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59 12.9%	72 12.8%	131 12.9%
	주로 미국인과 교류	27 5.9%	36 6.4%	63 6.2%
	해당 없음	3 0.7%	4 0.7%	7 0.7%
	전체	457 100.0%	562 100.0%	1019 100.0%

남성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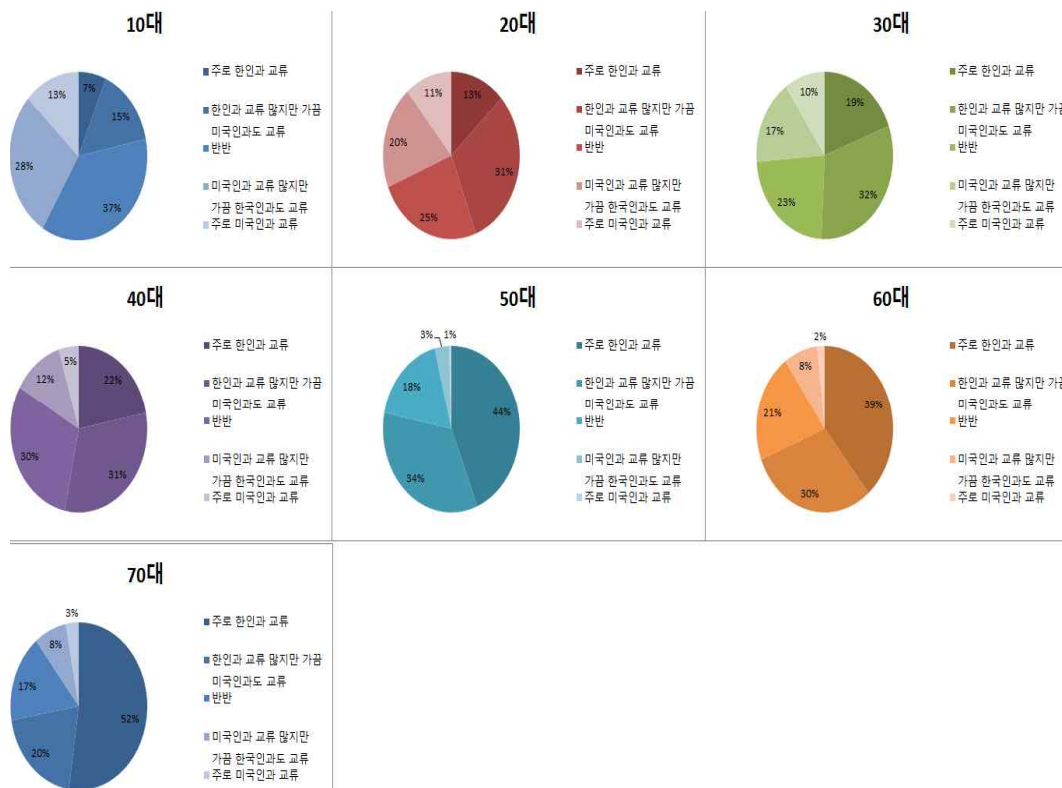


<그림 107> 사교적 교류 성별 분석

○ 연령별 분석

<표 175> 사교적 교류 연령별 분석

		나이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사 교 적 교 류	주로 한인과 교류	3 6.5%	28 12.9%	36 19.3%	46 21.9%	78 43.8%	44 37.6%	34 51.5%	269 26.3%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도 교류	7 15.2%	67 30.9%	59 31.6%	66 31.4%	61 34.3%	34 29.1%	13 19.7%	307 30.1%
	반반	17 37.0%	53 24.4%	43 23.0%	63 30.0%	32 18.0%	24 20.5%	11 16.7%	243 23.8%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13 28.3%	43 19.8%	31 16.6%	25 11.9%	6 3.4%	9 7.7%	5 7.6%	132 12.9%
	주로 미국인과 교류	6 13.0%	24 11.1%	18 9.6%	10 4.8%	1 0.6%	2 1.7%	2 3.0%	63 6.2%
	해당 없음	0 0.0%	2 0.9%	0 0.0%	0 0.0%	0 0.0%	4 3.4%	1 1.5%	7 0.7%
	전체	46 100.0%	217 100.0%	187 100.0%	210 100.0%	178 100.0%	117 100.0%	66 100.0%	10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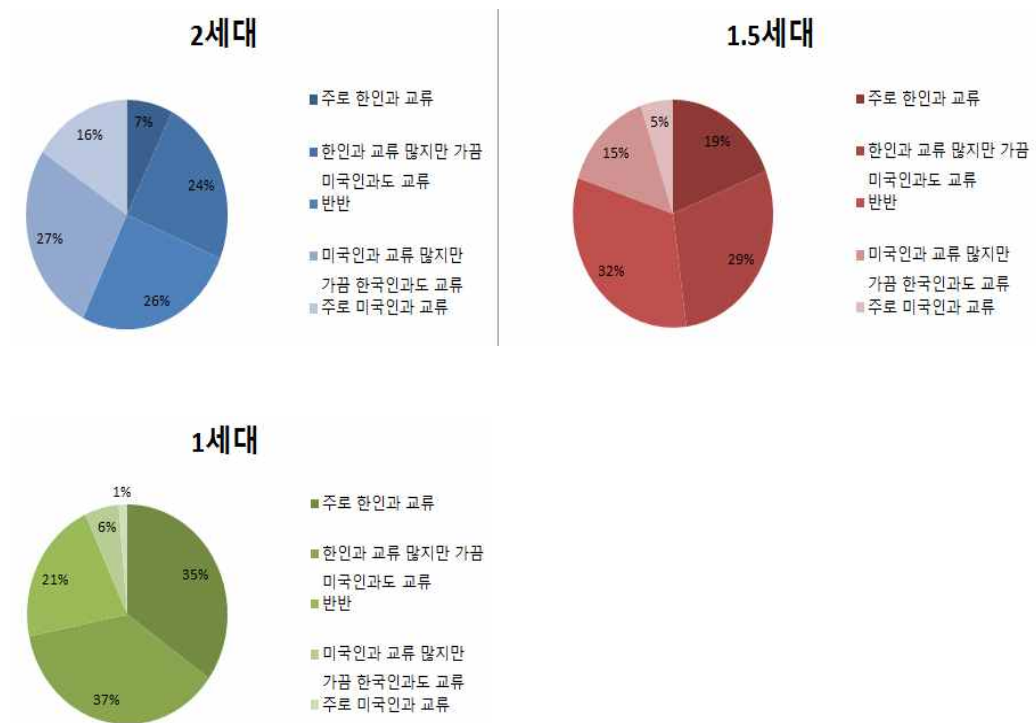


<그림 108> 사교적 교류 연령별 분석

○ 이주 세대별 분석

<표 176> 사교적 교류 이주 세대별 분석

		세대코딩			전체
		2세대	1.5세대	1세대	
사 교 적 교 류	주로 한인과 교류	21	40	208	269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 교류	7.3%	19.0%	40.5%	26.6%
	반반	68	61	171	300
	반반	23.7%	28.9%	33.3%	29.7%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 교류	74	68	99	241
	반반	25.8%	32.2%	19.3%	23.8%
	주로 미국인과 교류	77	31	24	132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 교류	26.8%	14.7%	4.7%	13.1%
전체	주로 미국인과 교류	45	11	6	62
	반반	15.7%	5.2%	1.2%	6.1%
전체	해당 없음	2	0	5	7
	해당 없음	0.7%	0.0%	1.0%	0.7%
전체		287	211	513	10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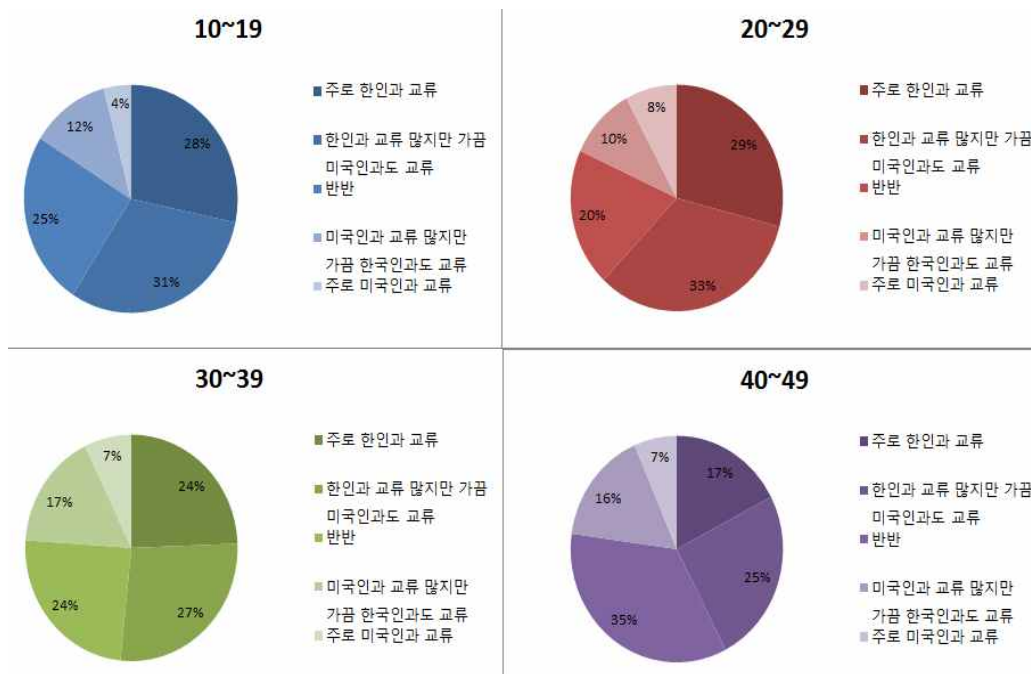


<그림 109> 사교적 교류 이주 세대별 분석

○ 거주 기간별 분석

<표 177> 사교적 교류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기간코딩					전체
		10-19	20-29	30-39	40-49	50년 이상	
사 교 적 교 류	주로 한인과 교류	104	96	51	16	0	267
		28.2%	28.9%	24.3%	17.0%	0.0%	26.3%
	한인과의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도 교류	113	109	57	23	1	303
		30.6%	32.8%	27.1%	24.5%	11.1%	29.9%
	반반	91	65	51	32	3	242
		24.7%	19.6%	24.3%	34.0%	33.3%	23.9%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도 교류	44	34	35	15	3	131
		11.9%	10.2%	16.7%	16.0%	33.3%	12.9%
	주로 미국인과 교류	15	26	15	6	2	64
		4.1%	7.8%	7.1%	6.4%	22.2%	6.3%
	해당 없음	2	2	1	2	0	7
		0.5%	0.6%	0.5%	2.1%	0.0%	0.7%
전체		369	332	210	94	9	10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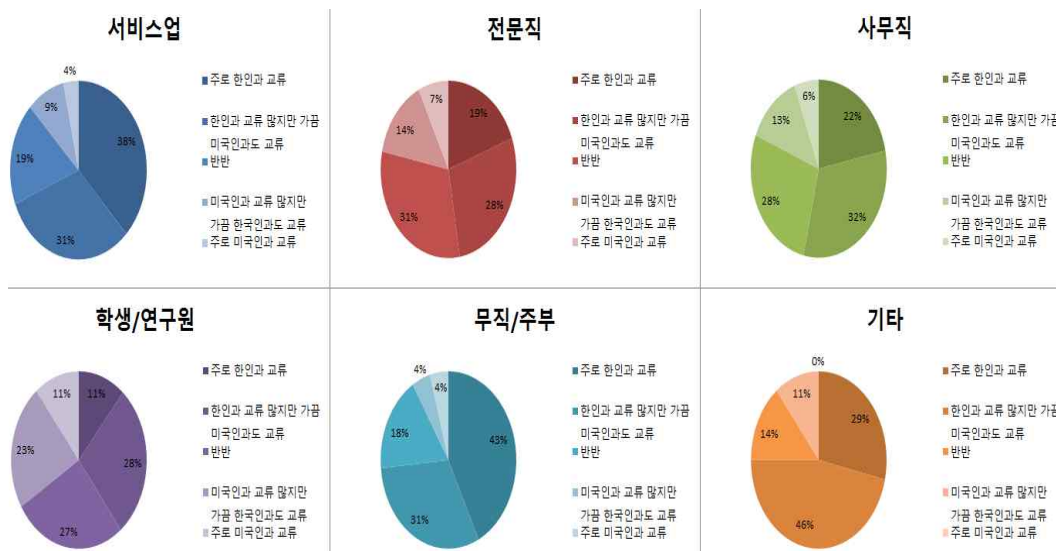


<그림 110> 사교적 교류에 거주 기간별 분석

○ 직업별 분석

<표 178> 사교적 교류 직업별 분석

		직업						전체
		서비스업	전문직	사무직	학생/연구원	무직(주부포함)	기타	
사 교 적 교 류	주로 한인과 교류	105 37.2%	40 19.3%	30 21.7%	24 11.2%	58 42.0%	8 28.6%	265 26.3%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 교류	87 30.9%	58 28.0%	44 31.9%	60 28.0%	42 30.4%	13 46.4%	304 30.2%
	반반	52 18.4%	64 30.9%	38 27.5%	57 26.6%	24 17.4%	4 14.3%	239 23.7%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 교류	25 8.9%	30 14.5%	18 13.0%	49 22.9%	6 4.3%	3 10.7%	131 13.0%
	주로 미국인과 교류	10 3.5%	15 7.2%	8 5.8%	23 10.7%	6 4.3%	0 0.0%	62 6.2%
	해당 없음	3 1.1%	0 0.0%	0 0.0%	1 0.5%	2 1.4%	0 0.0%	6 0.6%
	전체	282 100.0%	207 100.0%	138 100.0%	214 100.0%	138 100.0%	28 100.0%	10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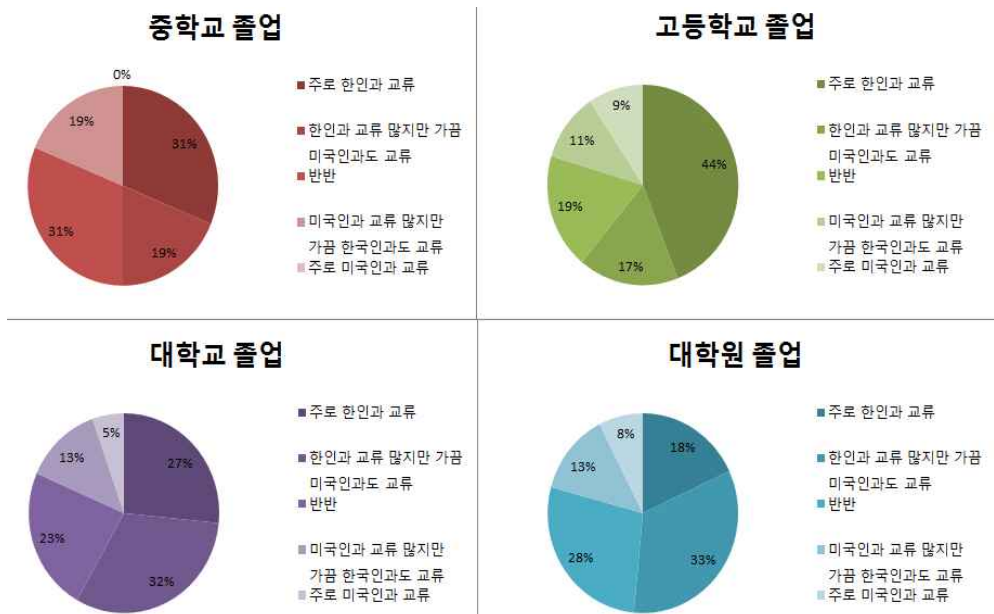


<그림 111> 사교적 교류 직업별 분석

○ 학력 및 학교별 분석

<표 179> 사교적 교류 학력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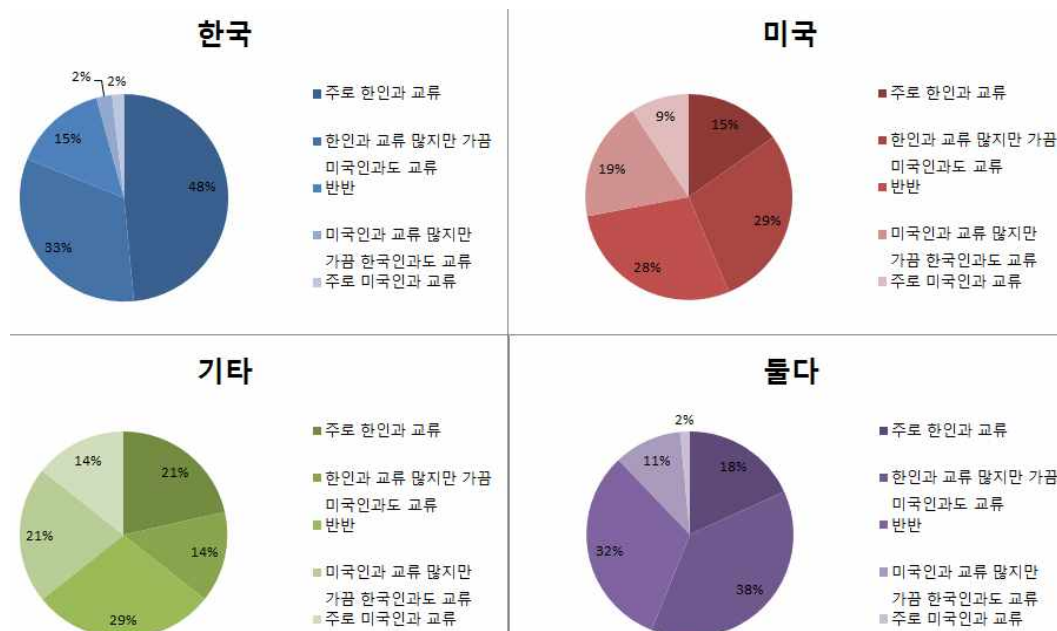
		학력					전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사교적 교류	주로 한인과 교류	1	5	52	154	53	265
		50.0%	31.3%	43.3%	26.4%	18.1%	26.1%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 교류	1	3	20	183	98	305
		50.0%	18.8%	16.7%	31.4%	33.4%	30.1%
	반반	0	5	22	135	81	243
		0.0%	31.3%	18.3%	23.2%	27.6%	24.0%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 교류	0	3	13	76	39	131
		0.0%	18.8%	10.8%	13.0%	13.3%	12.9%
	주로 미국인과 교류	0	0	11	31	22	64
		0.0%	0.0%	9.2%	5.3%	7.5%	6.3%
	해당 없음	0	0	2	4	0	6
		0.0%	0.0%	1.7%	0.7%	0.0%	0.6%
전체		2	16	120	583	293	10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112> 사교적 교류 학력별 분석

<표 180> 사교적 교류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최종학력국가				전체
		한국	미국	기타	둘다	
사교적 교류	주로 한인과 교류	159	91	3	12	265
		47.9%	15.1%	21.4%	18.2%	26.1%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도 교류	107	171	2	25	305
		32.2%	28.4%	14.3%	37.9%	30.1%
	반반	48	170	4	21	243
		14.5%	28.2%	28.6%	31.8%	24.0%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8	113	3	7	131
사교적 교류		2.4%	18.8%	21.4%	10.6%	12.9%
	주로 미국인과 교류	6	55	2	1	64
		1.8%	9.1%	14.3%	1.5%	6.3%
	해당 없음	4	2	0	0	6
		1.2%	0.3%	0.0%	0.0%	0.6%
	전체	332	602	14	66	1014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113> 사교적 교류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1.3 종교적 교류에 대한 변인별 분석

종교적 상황에서의 교류 상대를 성별로 분석하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남녀 모두 대부분의 교류를 한인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장면에서의 교류 상대는 연령별 분석에 있어서도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모든 연령대의 응답자들이 주로 한인들과 종교적 교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주 세대별 분석에 있어 1세대와 1.5세대, 2세대 간에 퍼센트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한인과 교류를 한다는 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 점에 있어서는 앞의 직업적 교류나 사회적 교류와 다른 양상이다. 이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1.5세대와 2세대의 한인 교회 출석률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거주 기간별로 분석했을 때 전 집단에서 한인과의 교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직업군에서 주로 한인과의 교류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서비스업과 주부를 포함한 무직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문직이나 사무직, 학생 및 연구원 종사자들도 종교적 상황에서는 주로 한인과 교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주로 한국인과 교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은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최종 학교별로 분석해 보면 모든 집단에서 주로 한인과 교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그 비중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한국에서 최종 학교 교육을 마친 집단의 경우 단 2%만이 미국인과의 교류가 많다고 응답한 반면에 미국에서 최종 학교 교육을 마친 집단의 경우 그 비중이 15%로 훨씬 높았다. 종교적 교류에 있어 뚜렷한 특징은 재미 동포들이 한인과의 교류 비율이 다른 직업적, 사교적 교류 영역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고, 특히 1.5세대나 2세대의 경우에도 종교적 교류에 있어서는 1세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가장 많이 한인과 주로 교류한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국 사회 내의 한인 교회의 역할을 짐작하게 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성별 분석

<표 181> 종교적 교류 성별 분석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종교적 교류	주로 한인과 교류	234	314	548
		51.0%	55.3%	53.4%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 교류	91	89	180
		19.8%	15.7%	17.5%
	반반	46	47	93
		10.0%	8.3%	9.1%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 교류	18	25	43
		3.9%	4.4%	4.2%
	주로 미국인과 교류	17	31	48
		3.7%	5.5%	4.7%
	해당 없음	53	60	113
		11.5%	10.6%	11.0%
전체		459	568	1027
		100.0%	100.0%	100.0%

남성



여성



<그림 114> 종교적 교류 성별 분석

○ 연령별 분석

<표 182> 종교적 교류 연령별 분석

		나이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종교적 교류	주로 한인과 교류	26	88	75	109	132	77	41	548
		56.5%	40.6%	39.7%	52.2%	74.2%	64.2%	59.4%	53.3%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 교류	9	48	37	33	24	18	11	180
		19.6%	22.1%	19.6%	15.8%	13.5%	15.0%	15.9%	17.5%
	반반	2	22	17	19	9	13	11	93
		4.3%	10.1%	9.0%	9.1%	5.1%	10.8%	15.9%	9.0%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 교류	2	9	11	12	2	5	2	43
		4.3%	4.1%	5.8%	5.7%	1.1%	4.2%	2.9%	4.2%
	주로 미국인과 교류	3	12	14	13	2	2	2	48
		6.5%	5.5%	7.4%	6.2%	1.1%	1.7%	2.9%	4.7%
	해당 없음	4	37	34	23	9	5	2	114
		8.7%	17.1%	18.0%	11.0%	5.1%	4.2%	2.9%	11.1%
전체		46	217	189	209	178	120	69	102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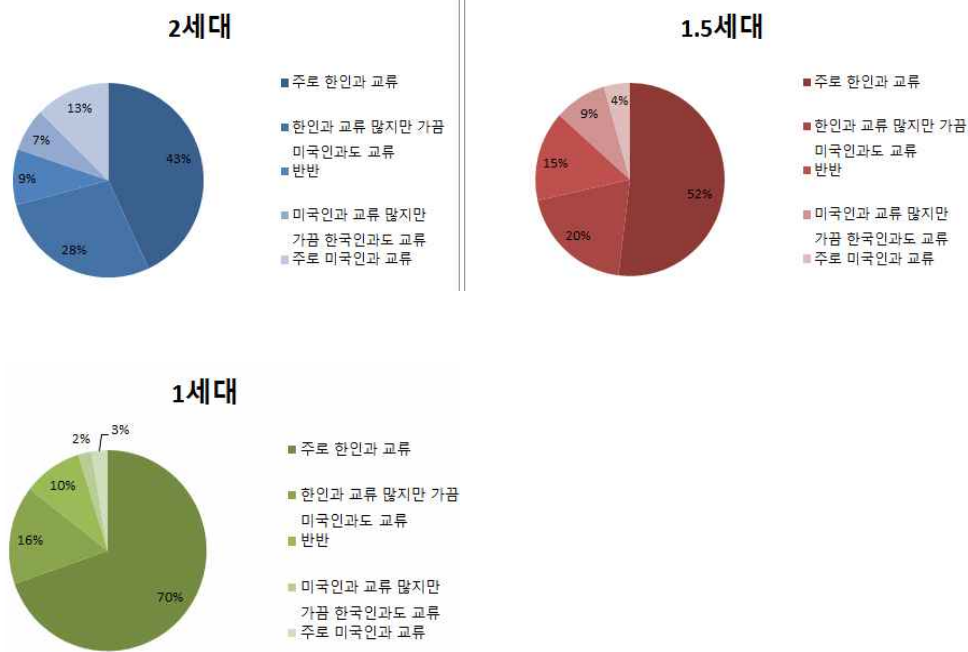


<그림 115> 종교적 교류 연령별 분석

○ 이주 세대별 분석

<표 183> 종교적 교류 이주 세대별 분석

		세 대			전 체
		2세대	1.5세대	1세대	
종교적 교류	주로 한인과 교류	102	93	349	544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도 교류	35.3%	44.3%	67.2%	53.4%
	반반	66	35	75	176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22.8%	16.7%	14.5%	17.3%
	반반	22	27	43	92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7.6%	12.9%	8.3%	9.0%
	주로 미국인과의 교류	17	16	9	42
	해당 없음	5.9%	7.6%	1.7%	4.1%
전 체		289	210	519	1018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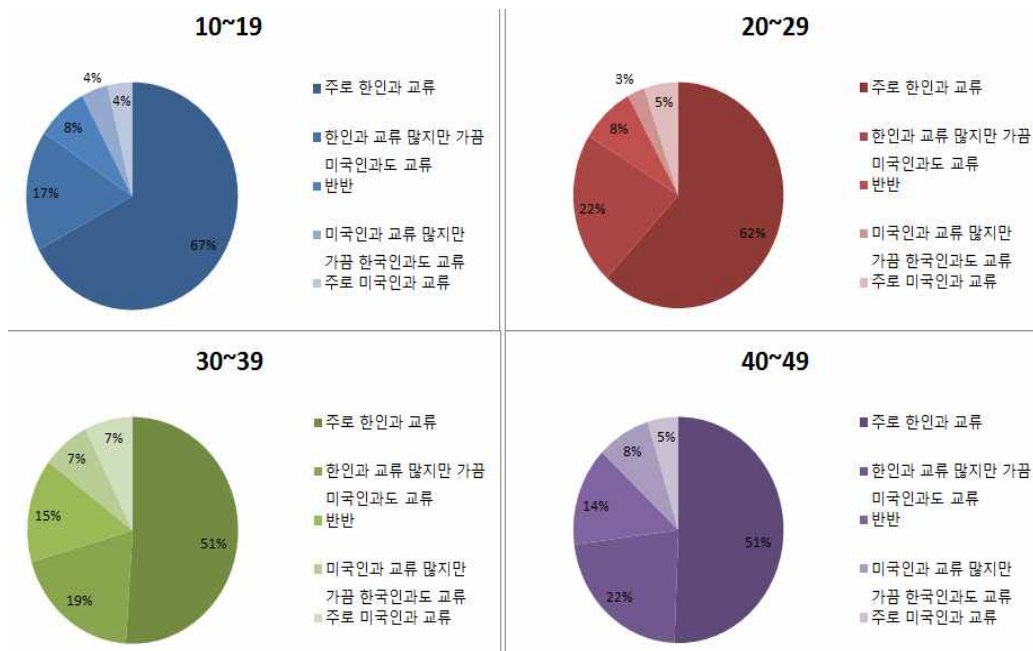


<그림 116> 종교적 교류 이주 세대별 분석

○ 거주 기간별 분석

<표 184> 종교적 교류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기간					전체
		10-19	20-29	30-39	40-49	50년 이상	
종교적 교류	주로 한인과 교류	215	187	97	43	3	545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도 교류	55	66	37	19	1	178
	반반	25	25	28	12	2	92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13	8	14	7	1	43
	주로 미국인과 교류	12	16	14	4	2	48
	해당 없음	48	29	25	12	0	114
		13.0%	8.8%	11.6%	12.4%	0.0%	11.2%
	전체	370	331	215	97	9	10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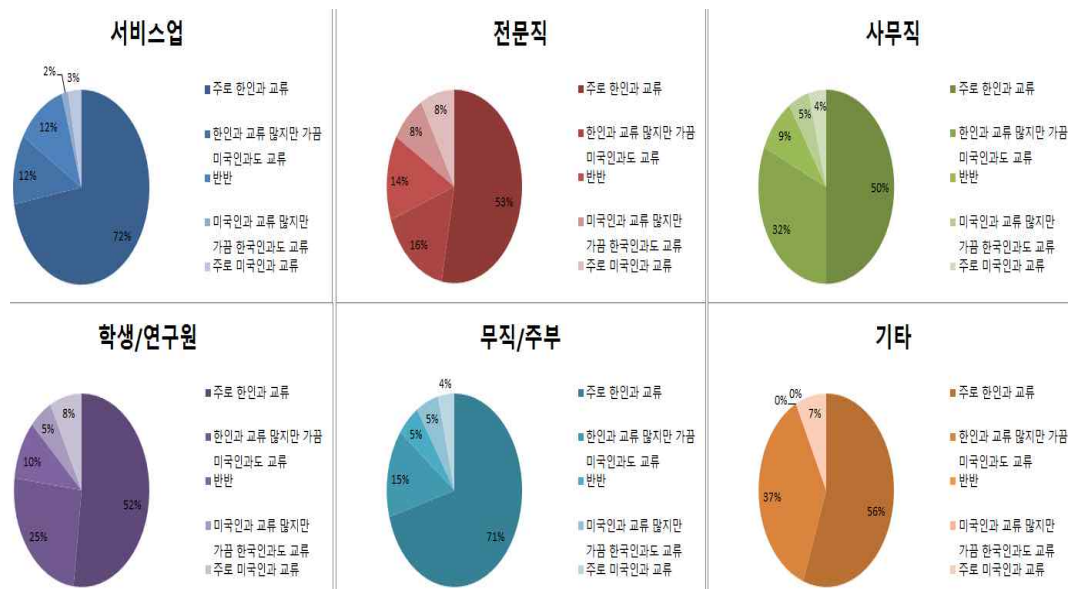


<그림 117> 종교적 교류 거주 기간별 분석

○ 직업별 분석

<표 185> 종교적 교류 직업별 분석

		직업						전체
		서비스업	전문직	사무직	학생/연구원	무직(주부포함)	기타	
종교적 교류	주로 한인과 교류	187	97	60	95	91	15	545
		65.4%	47.1%	43.8%	44.0%	64.5%	53.6%	53.7%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 교류	30	30	38	46	19	10	173
		10.5%	14.6%	27.7%	21.3%	13.5%	35.7%	17.1%
	반반	30	26	11	18	7	0	92
		10.5%	12.6%	8.0%	8.3%	5.0%	0.0%	9.1%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 교류	4	15	6	10	7	0	42
종교적 교류		1.4%	7.3%	4.4%	4.6%	5.0%	0.0%	4.1%
	주로 미국인과 교류	8	15	5	14	5	2	49
		2.8%	7.3%	3.6%	6.5%	3.5%	7.1%	4.8%
	해당 없음	27	21	17	33	12	1	111
		9.4%	10.2%	12.4%	15.3%	8.5%	3.6%	10.9%
	전체	286	206	137	216	141	28	10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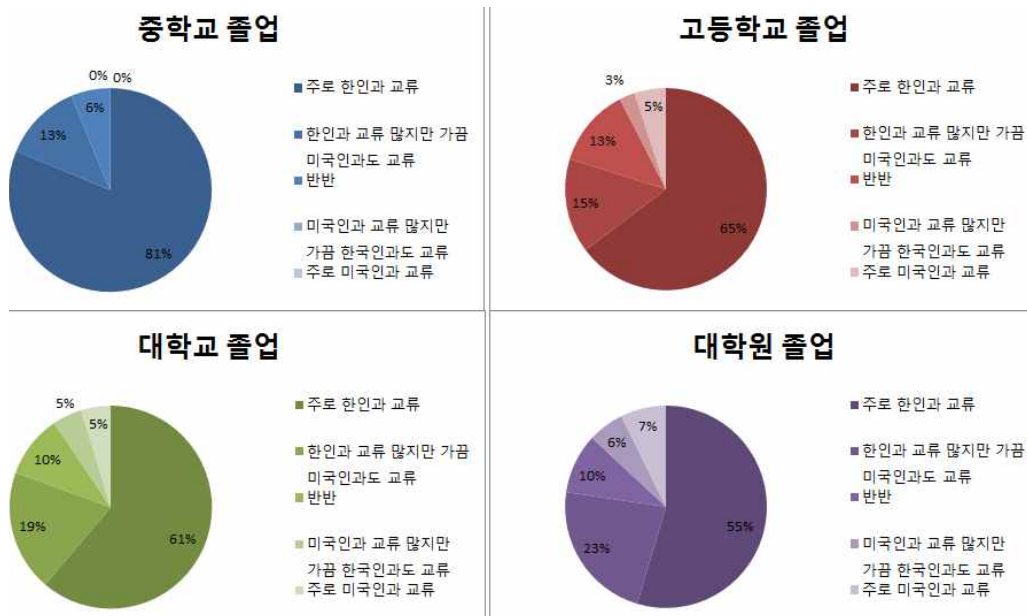


<그림 118> 종교적 교류 직업별 분석

○ 학력 및 학교별 분석

<표 186> 종교적 교류 학력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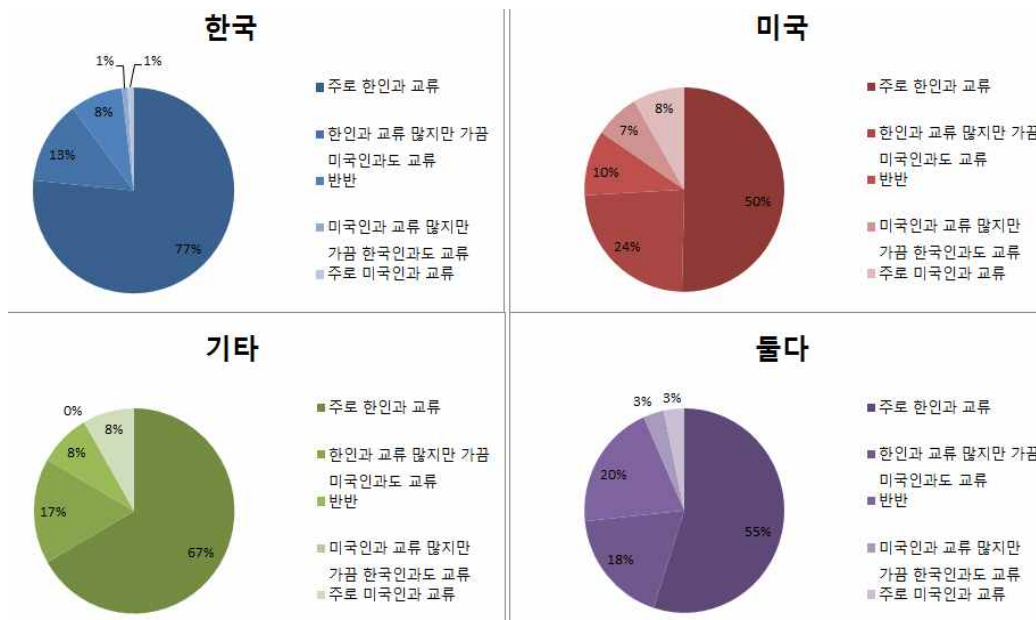
		학력					전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종교적 교류	주로 한인과 교류	2	13	77	311	142	545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도 교류	0	2	18	98	59	177
	반반	1	1	15	51	25	93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0	0	3	24	15	42
	주로 미국인과 교류	0	0	6	24	19	49
	해당 없음	0	1	4	75	34	114
		0.0%	5.9%	3.3%	12.9%	11.5%	11.2%
	전체	3	17	123	583	296	10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119> 종교적 교류 학력별 분석

<표 187> 종교적 교류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최종학력국가				전체
		한국	미국	기타	둘다	
종교적교류	주로 한인과 교류	245	259	8	33	545
		72.5%	42.9%	57.1%	50.0%	53.3%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 교류	42	122	2	11	177
		12.4%	20.2%	14.3%	16.7%	17.3%
	반반	27	53	1	12	93
		8.0%	8.8%	7.1%	18.2%	9.1%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 교류	3	37	0	2	42
		0.9%	6.1%	0.0%	3.0%	4.1%
	주로 미국인과 교류	3	43	1	2	49
		0.9%	7.1%	7.1%	3.0%	4.8%
	해당 없음	18	88	2	6	114
		5.3%	14.6%	14.3%	9.1%	11.2%
전체		338	604	14	66	1022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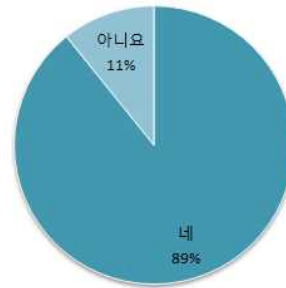
<그림 120> 종교적 교류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2. 한국 방문 경험 및 횟수와 체류 기간

재미 동포들은 이주 후에 적어도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한 번 이라도 있는 경우가 89%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들 중에 최근 5년간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70%에 이르며 5회 이상 매년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약 10%에 이른다.

<표 188> 한국 방문 경험 분석

한국방문경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네	932	88.9	89.19
	아니요	113	10.8	10.81
	합계	1045	99.7	100.00
결측	결측값	3	0.3	
합계		1048	100	



<그림 121> 한국 방문 경험 분석

<표 189> 최근 5년간 방문 횟수 분석

최근5년간 방문횟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방문없음	301	28.7	28.94
	1회	305	29.1	29.33
	2회	174	16.6	16.73
	3회	102	9.7	9.81
	4회	58	5.5	5.58
	5회이상	100	9.5	9.62
	합계	1040	99.2	100.00
결측	결측값	8	0.8	
합계		1048	100	



<그림 122> 최근 5년간 방문 횟수 분석

3. 한국 방송 시청 시간 및 즐겨보는 프로그램

재미 동포들은 최근 한국 방송을 집에서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실시간 인터넷으로 한국 방송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한국 방송 시청이 자유로워졌다.

미주 한인 방송은 본격적인 미주 교포사회가 형성되던 1972년 워싱턴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 초까지 LA에는 세 개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설립되어 고국의 텔레비전 방송을 보여줌으로써 교포들의 향수를 달래주는 역할을 했다. 이어 1983년과 1975년 설립된 미주 한국방송(KTB)과 미주 중앙방송권이 미주 한인방송(KTE)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LA지역의 Radio Korea와 TV Korea USA는 Radio Korea Media Group의 자회사로서 규모 면에서 LA 교민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05년에 개국한 TVK24의 경우 YTN, EBS, JGolf, Ar irang, 이데일리TV 등의 사업자의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2009년 11월에는 제2채널(TVK2)을 개국하였다. LA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한인 방송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미국 주요 도시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방송 권역을 가지고 있다. 동부 지역에 위치한 WKTV는 버지니아주에서 Basic Channel로 송출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KBS와 MBC의 동시 방영 계약권을 보유한 유일한 방송사이다. 뉴욕, 뉴저지 인근에서는 KBS의 콘텐츠를 재송출하는 MKTV와 SBS의 송출 계약권을 가지고 있는 TKC가 양대 한인 방송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외에도 시카고, 애틀랜타, 샌디에이고, 시애틀 등 주요 한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약 53개의 TV, 라디오 방송사가 분포되어 있다.⁴⁶⁾

한국 방송은 이민 초기부터 미주 지역 한인들의 정보 욕구를 해소하고 한인 사회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고 집결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현재 미주 지역 한인 언론은 다양한 매체들의 운영을 통한 다채널 환경을 형성하고 있어 양적인 성장을 이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방송을 보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약 20% 정도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매일 한 시간 이상씩 보는 경우가 응답자의 반에 이르고 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만난 재미 동포들의 경우에

46) 문준서(2010), 해외 한국어 방송사 현황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전파방송통신저널 26, pp.68-78

도 한국 방송을 시청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한국어를 잘 하게 되었고, 스스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말을 잘 모른다거나 새로운 말을 배웠다는 말을 하는 경우를 접할 수 있었다.

<표 190> 한국 방송 시청 기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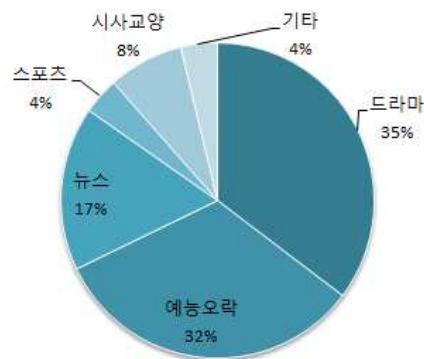
한국방송 시청기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안 본다	219	20.9	21.16
	1시간미만	329	31.4	31.79
	1-2시간	283	27	27.34
	2-3시간	117	11.2	11.30
	3시간이상	87	8.3	8.41
	합계	1035	98.8	10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1.2	
합계		1048	100	



<그림 123> 한국 방송 시청 기간 분석

<표 191> 즐겨보는 프로그램 분석

즐겨보는 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즐겨 보는 프로그램	드라마	423	35.30
	예능오락	389	32.50
	뉴스	202	16.90
	스포츠	45	3.80
	시사교양	93	7.80
	기타	45	3.80
합계		1197	100.00



<그림 124> 즐겨보는 프로그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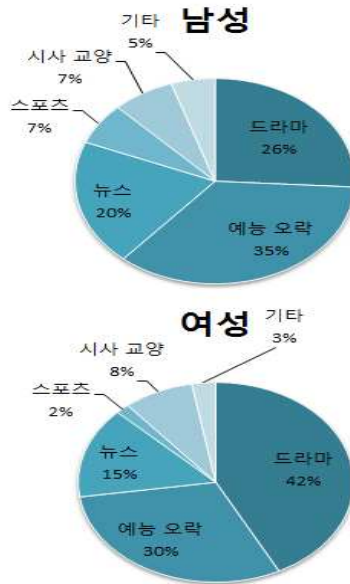
이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드라마나 예능 오락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고, 뉴스를 시청하는 경우가 17%정도,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는 합해서 13%정도였다. 드라마 35%, 예능 오락 32% 수준에 비하면 크지 않은 비율인 것으로 보아 드라마와 예능 오락이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에 향후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성별 분석

즐거 보는 프로그램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은 예능 오락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드라마, 뉴스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드라마를 가장 많이 시청하였고 예능 오락, 뉴스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92> 즐겨보는 프로그램 성별 분석

		즐거보는 프로그램						합계
		드라마	예능 오락	뉴스	스포츠	시사 교양	기타	
성별	남성	134	183	103	34	37	26	436
	여성	287	205	99	11	56	19	542
합계		421	388	202	45	93	45	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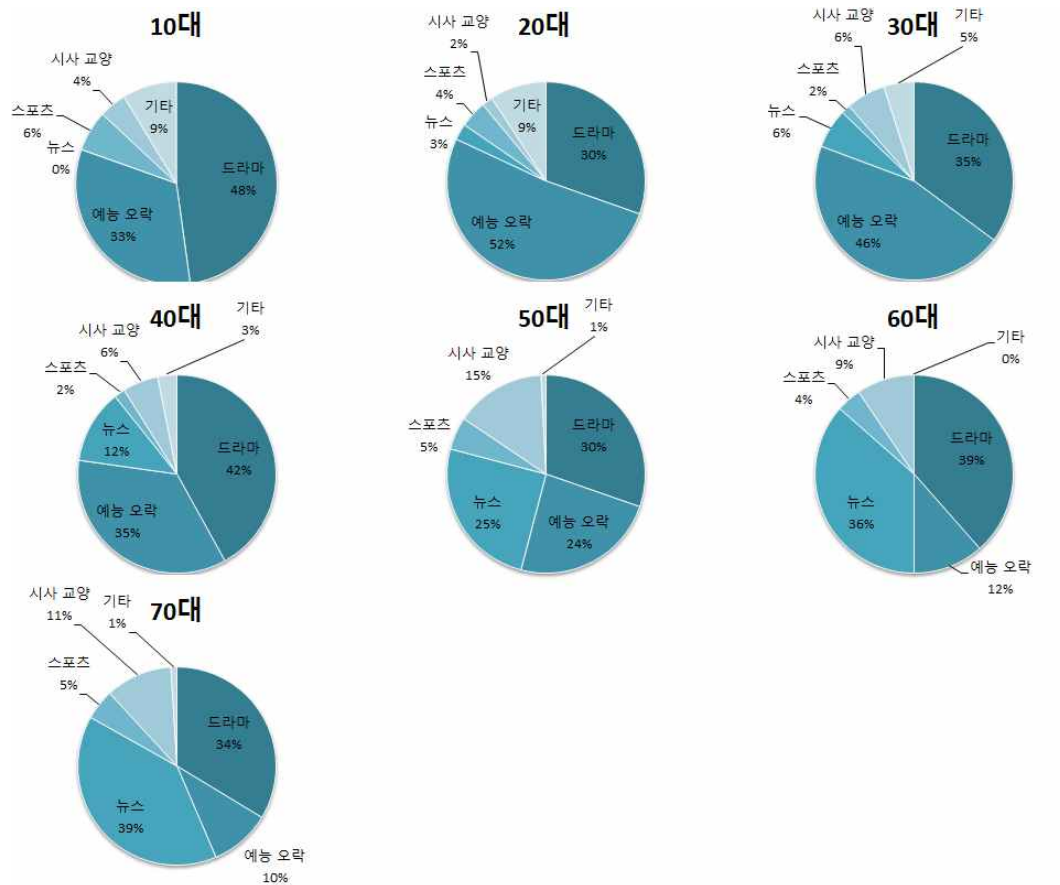


<그림 125> 즐겨보는 프로그램 성별 분석

○ 연령별 분석

<표 193> 즐겨보는 프로그램 연령별 분석

		즐거보는 프로그램						합계
		드라마	예능 오락	뉴스	스포츠	시사 교양	기타	
나이	10대	22	15	0	3	2	4	44
	20대	69	117	6	10	4	21	202
	30대	71	92	13	3	13	10	178
	40대	94	79	27	4	13	7	191
	50대	74	58	61	13	36	2	178
	60대	57	17	54	6	14	0	116
	70대	34	10	40	5	11	1	70
합계		421	388	201	44	93	45	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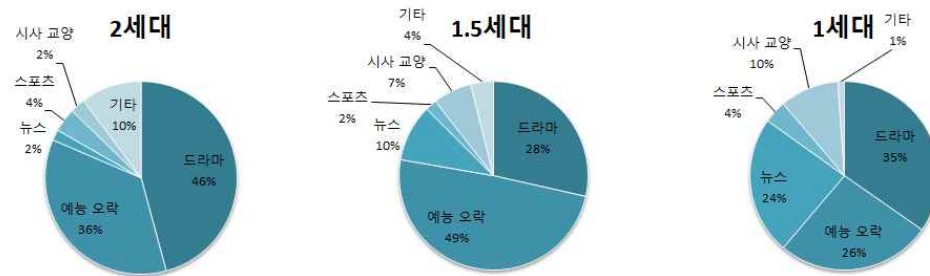
<그림 126> 즐겨보는 프로그램 연령별 분석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는 주로 예능 오락 프로그램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40대는 예능 오락 프로그램도 많이 보지만 그보다도 드라마를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를 보는 비중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70대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뉴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이주 세대별 분석

<표 194> 즐겨보는 프로그램 이주 세대별 분석

		즐겨보는 프로그램						합계
		드라마	예능오락	뉴스	스포츠	시사교양	기타	
세대	2세대	126	98	5	11	7	28	256
	1.5세대	73	126	25	5	17	10	205
	1세대	186	142	127	21	54	6	433
합계		385	366	157	37	78	44	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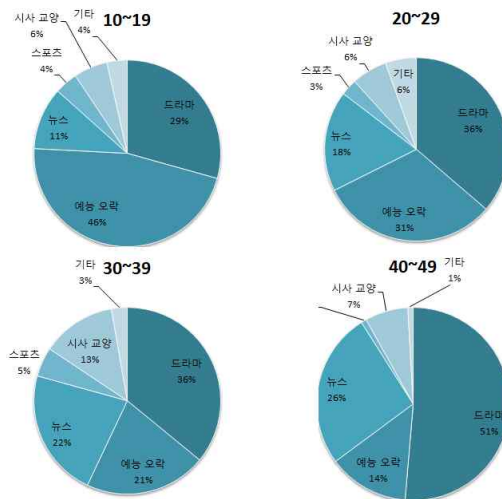
<그림 127> 즐겨보는 프로그램 이주 세대별 분석

이주 세대별로 분석해 보면 2세대는 드라마를 가장 많이 시청한다고 응답하였고 1.5세대는 예능 오락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시청한다고 하였다. 1세대는 드라마와 예능 오락 프로그램에 이어 뉴스도 제법 큰 비중으로 시청하고 있었다. 나이가 어린 1.5세대나 2세대의 한국어 교육을 염두에 두고 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이를 한국어 학습의 활용자료로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파악과 이를 자료 활용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 거주 기간별 분석

<표 195> 즐겨보는 프로그램 거주 기간별 분석

		즐거보는 프로그램						합계
		드라마	예능 오락	뉴스	스포츠	시사 교양	기타	
거주 기간	10~19	125	198	46	17	25	15	359
	20~29	139	120	68	11	24	21	316
	30~39	92	54	57	13	33	7	201
	40~49	57	15	29	1	8	1	88
	50년 이상	6	1	2	3	1	0	9
합계		419	388	202	45	91	44	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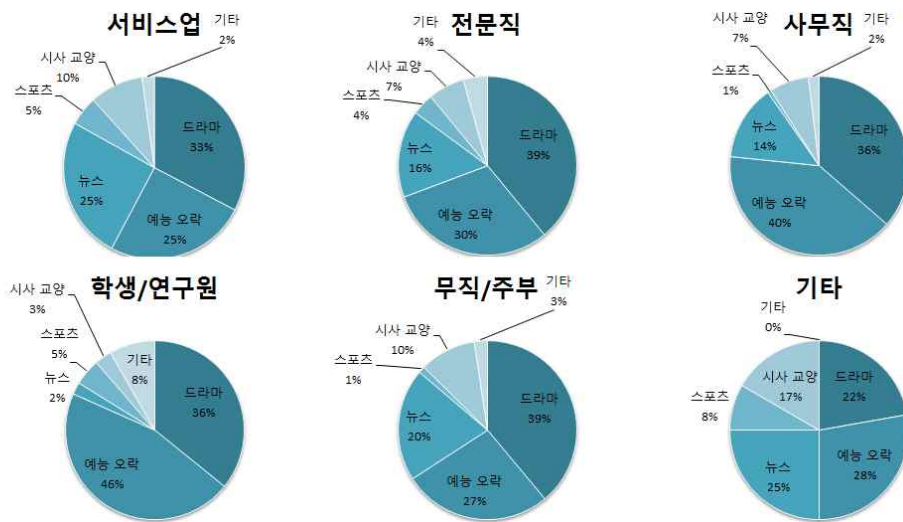
<그림 128> 즐겨보는 프로그램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 기간이 20년 미만인 집단에서는 예능 오락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년에서 40년 미만 거주 집단에서는 드라마가 조금 더 높은 비중으로 시청되고 있었다. 40년 이상 거주 집단에서도 드라마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시청되고 있었으나 예능 오락 프로그램보다 뉴스가 더 높은 비중으로 시청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집단과 달랐다.

○ 직업별 분석

<표 196> 즐겨보는 프로그램 직업별 분석

		즐거보는 프로그램						합계
		드라마	예능 오락	뉴스	스포츠	시사 교양	기타	
직업	서비스업	120	92	93	19	35	8	281
	전문직	89	69	36	9	15	10	187
	사무직	56	62	21	1	11	3	130
	학생/연구원	82	105	5	11	7	19	206
	무직/주부	65	45	34	2	17	4	136
	기타	8	10	9	3	6	0	27
합계		420	383	198	45	91	44	967



<그림 129> 즐겨보는 프로그램 직업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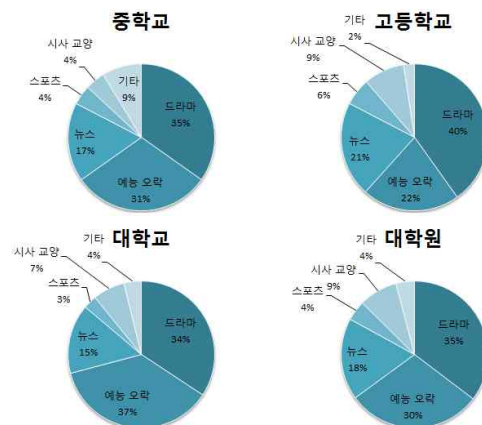
직업별로 분석해 보면 모든 직종에서 드라마와 예능 오락 프로그램의 시청 비중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뉴스 시청 비중은 전문직 및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업이나 주부를 포함한 무직 집단에서 비교적 높았다. 학생 및 연구원 집단은 뉴스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 및 학교별 분석

학력별로 분석해 보면 집단 간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97> 즐겨보는 프로그램 학력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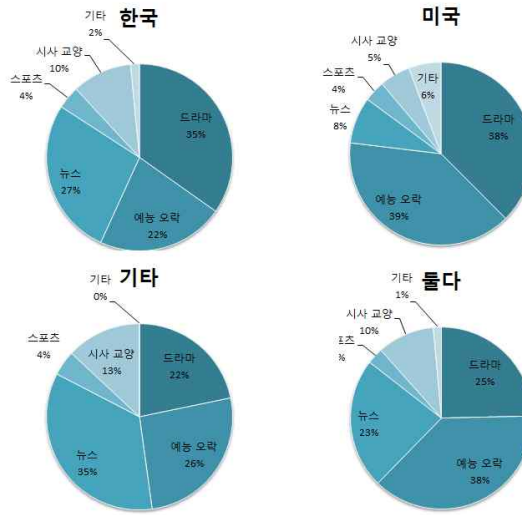
		즐겨보는 프로그램						합계
		드라마	예능 오락	뉴스	스포츠	시사 교양	기타	
학력	초등학교	2	0	1	0	1	0	4
	중학교	8	7	4	1	1	2	16
	고등학교	67	36	35	10	15	4	124
	대학교	233	249	104	20	48	26	562
	대학원	112	94	57	14	27	13	269
합계		422	386	201	45	92	45	975



<그림 130> 즐겨보는 프로그램 학력별 분석

<표 198> 즐겨보는 프로그램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즐거보는 프로그램						합 계
		드 라 마	예 능 오 락	뉴 스	스 포 츠	시 사 교 양	기 타	
최 종 학 력 국 가	한 국	158	100	124	18	47	7	339
	미 국	242	254	53	24	35	37	559
	기 타	5	6	8	1	3	0	14
	둘 다	17	26	16	2	7	1	63
합계		422	386	201	45	92	45	975



<그림 131> 즐겨보는 프로그램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최종 학교 교육을 받은 나라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최종 학력을 받은 경우 드라마에 이어 뉴스의 비중이 높았고 미국에서 최종 학력을 받은 경우 예능 오락과 드라마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뉴스 시청은 8%에 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방송이 미국 내 재미 교포 사회에 주는 영향과 이들의 한국어 유지 및 사용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국 방송의 미국 내 시청이 다양화되고 자유로워지면서 재미 교포들은 거의 한국과 동시에 방송을 시청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과 거의 차이를 느끼지 않고 있으며 어떤 교포들은 한국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더 한국 방송을 많이 본다고 한다.⁴⁷⁾

인터뷰 대상자들의 한국 방송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첫째는 요즘 한국 방송에서 배운 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미국에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 방송에서 배운 말을 재미있어 하면서 사용하는 경우와 둘째, 한국 방송을 보면 한국말이 달라서 좀 이해하기 힘들다고 언급하는 경우이다.

47) 인터뷰에서 만난 교포들 중에 1세대나 1.5세대의 대부분은 자신이 한국 사람처럼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말을 잘하는 이유를 요즘에 한국 방송을 계속 시청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한국 방송을 시청하면서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를 접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현재 미국 내 한국 방송이 재미 교포의 한국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재미 동포들은 현재 한국 방송 시청 시간이 많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편중된 시청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어를 모르는 2세대나 3세대의 경우에도 드라마의 한국어 번역 자막을 통해 한국 방송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한 경우를 몇몇의 인터뷰에서 확인하였는데 드라마의 내용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통로라고 여기며 이를 즐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가족 간 언어 사용

‘당신이 가족들에게 말할 때, 한국어와 영어 중에서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응답 보기를 5점 척도로 환산하였다. 응답 보기 중 ‘대부분 한국어로’는 1, ‘한국어를 더 많이’는 2, ‘절반씩’은 3, ‘영어를 더 많이’는 4, ‘대부분 영어로’는 5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5에 가까울수록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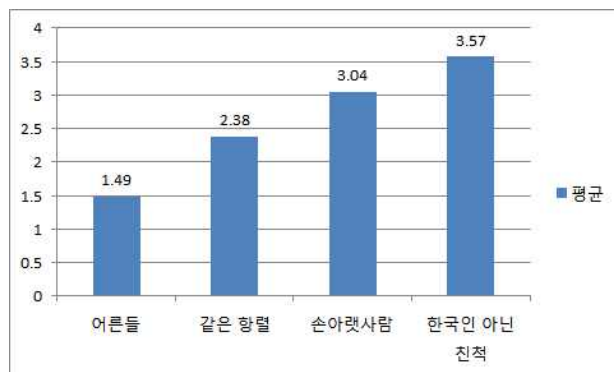
4.1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기본 분석

응답자들은 가족에게 말할 때 대화 상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를 달리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른들에게 말할 때는 거의 한국어로 말하는 것에 가까운 수치가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같은 항렬에게 말할 때, 손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점점 영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높아졌다. 한국인이 아닌 친척에게 말할 때는 대부분 영어를 선택해서 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99> 가족에게 쓰는 말 분석

청자	N	평균
어른들	984	1.49
같은 항렬	1018	2.38
손아랫사람	919	3.04
한국인 아닌 친척	563	3.57



<그림 132> 가족에게 쓰는 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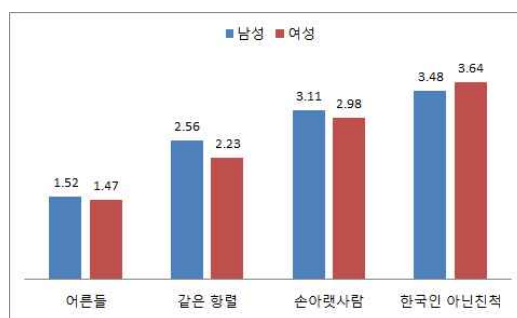
○ 성별 분석

가족에게 말할 때 쓰는 말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 모두 어른들에게 쓸 때는 대부분 한국어로, 한국인이 아닌 친척에게 말할 때는 대부분 영어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항렬에게 말할 때는 남녀 모두 한국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고 손아랫사람에게는 한국어와 영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항렬에게 사용할 때 남성보다 여성이 더 한국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

<표 200> 가족에게 쓰는 말 성별 분석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어른들 에게	남성	442	1.52	1.082	.789	.431
	여성	540	1.47	1.036		
같은항렬 에게	남성	453	2.56	1.663	3.214	.001**
	여성	562	2.23	1.532		
손아랫 사람에게	남성	417	3.11	1.561	1.239	.216
	여성	499	2.98	1.570		
한국인이 아닌 친척에게	남성	239	3.48	1.621	-1.162	.246
	여성	321	3.64	1.578		

** p<.01



<그림 133> 가족에게 쓰는 말 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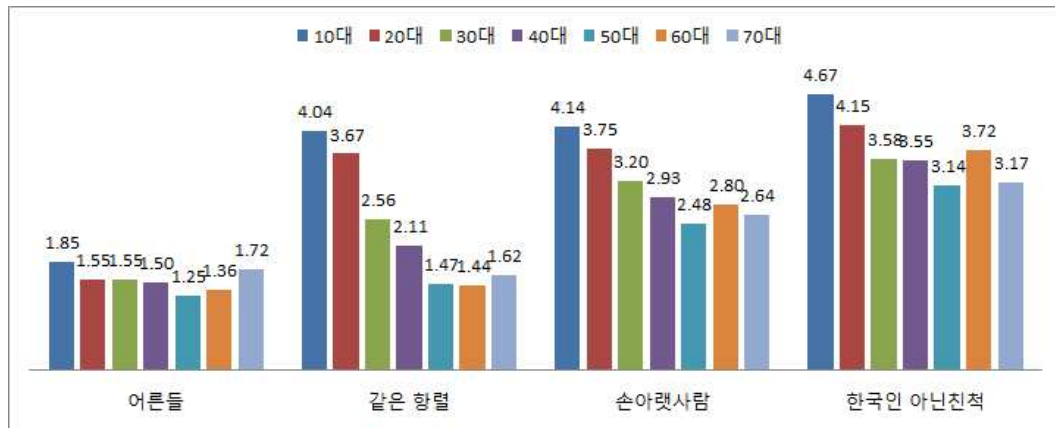
○ 연령별 분석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어른들에게는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한국인이 아닌 친척에게는 영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그런데 모든 대화 상대에 있어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한국어가 많이 선택되는 양상이 보인다. 같은 항렬에게 말할 때 10대와 20대는 주로 영어를 사용한다고 하였고 30대는 반반 정도를 보였다. 40대 이상에서는 주로 한국어가 선택되었다. 또한 손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는 차이가 없는 반면에 30대 40대는 차이가 있고, 이들은 또한 50대 이상의 연령대와의 차이도 보여주고 있다.

<표 201> 가족에게 쓰는 말 연령별 분석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어른들에게	10대 (a)	46	1.85	1.247	3.265 /.003**	g>a,b,c,d,e
	20대 (b)	215	1.55	1.084		
	30대 (c)	187	1.55	1.151		
	40대 (d)	200	1.50	1.130		
	50대 (e)	173	1.25	.719		
	60대 (f)	105	1.36	.889		
	70대 (g)	57	1.72	1.206		
	합계	983	1.49	1.056		
같은 항렬에게	10대 (a)	45	4.04	1.224	73.403 /.000**	a,b>c,d,e,f, g
	20대 (b)	212	3.67	1.416		
	30대 (c)	187	2.56	1.672		
	40대 (d)	207	2.11	1.532		
	50대 (e)	179	1.47	.967		
	60대 (f)	118	1.44	.843		
	70대 (g)	68	1.62	.978		
	합계	1016	2.38	1.599		
손아랫사람에게	10대 (a)	37	4.14	1.182	15.036 /.000**	a,b>c>d,e,f, g
	20대 (b)	155	3.75	1.345		
	30대 (c)	158	3.20	1.578		
	40대 (d)	202	2.93	1.579		
	50대 (e)	178	2.48	1.451		
	60대 (f)	118	2.80	1.545		
	70대 (g)	70	2.64	1.606		
	합계	918	3.04	1.568		
한국인 아닌 친척에게	10대 (a)	9	4.67	.707	4.452 /.000**	a>c,d,e,g
	20대 (b)	74	4.15	1.382		
	30대 (c)	104	3.58	1.623		
	40대 (d)	127	3.55	1.636		
	50대 (e)	108	3.14	1.655		
	60대 (f)	88	3.72	1.477		
	70대 (g)	52	3.17	1.605		
	합계	562	3.56	1.598		

**p<.01



<그림 134> 가족에게 쓰는 말 연령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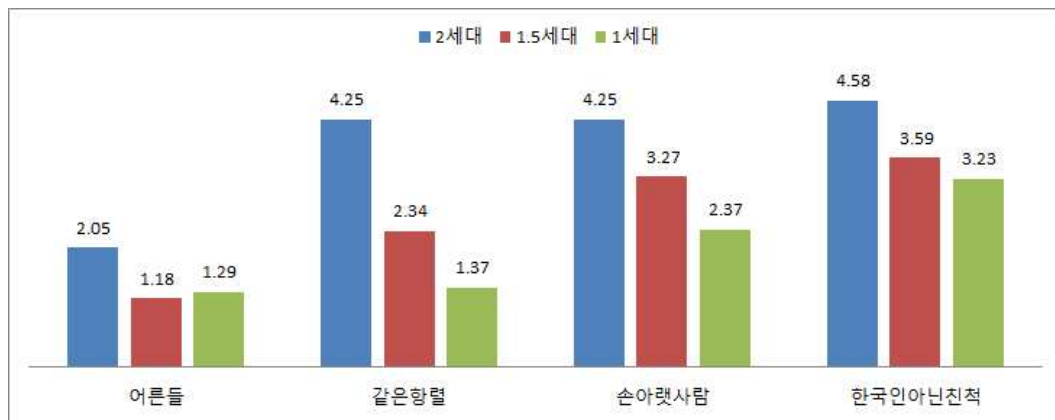
○ 이주 세대별 분석

이주 세대별로 보면 각 세대 별로 대화 상대에게 사용하는 언어 선택의 정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결과는 1세대는 전체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1.5세대는 1세대와 2세대의 중간값에 위치하지만 1세대나 2세대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02> 가족에게 쓰는 말 이주 세대별 분석

	세대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어른들에게	2세대(a)	285	2.05	1.453	65.821 /.000**	a>c>b
	1.5세대(b)	211	1.18	.490		
	1세대(c)	476	1.29	.795		
	합계	972	1.49	1.054		
같은항렬에게	2세대(a)	281	4.25	1.137	711.399 /.000**	a>b>c
	1.5세대(b)	211	2.34	1.354		
	1세대(c)	514	1.37	.784		
	합계	1006	2.37	1.599		
손아랫사람에게	2세대(a)	241	4.25	1.131	160.505 /.000**	a>b>c
	1.5세대(b)	169	3.27	1.392		
	1세대(c)	500	2.37	1.429		
	합계	910	3.04	1.568		
한국인아닌친척에게	2세대(a)	108	4.58	.996	32.887 /.000**	a>b>c
	1.5세대(b)	103	3.59	1.581		
	1세대(c)	346	3.23	1.627		
	합계	557	3.56	1.601		

**p<.01



<그림 135> 가족에게 쓰는 말 이주 세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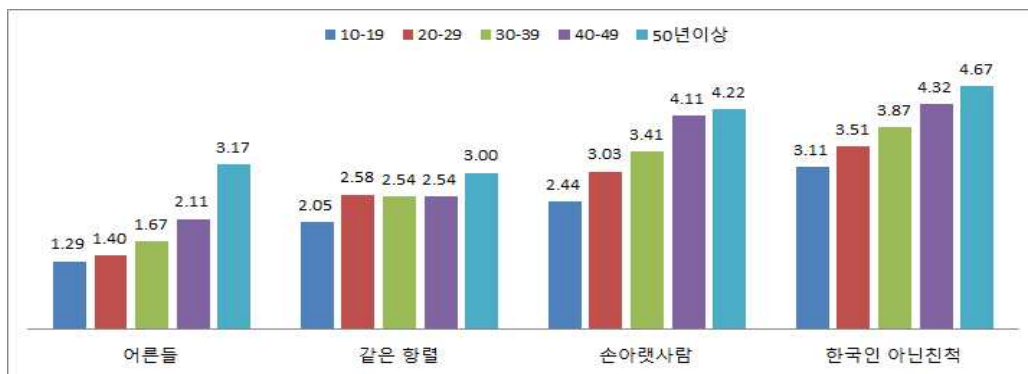
○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한국어의 사용에 비해 영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집단 간에는 주로 30년 이상 거주한 집단과 20년 미만으로 거주한 집단의 차이가 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모든 항목에 있어 20년 미만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3> 가족에게 쓰는 말 거주 기간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어른들에게	10-19(a)	363	1.29	.771	17.040 /.000**	d>a,b, c>a
	20-29(b)	318	1.40	.957		
	30-39(c)	208	1.67	1.227		
	40-49(d)	81	2.11	1.492		
	50년이상(e)	6	3.17	2.041		
	합계	976	1.49	1.056		
같은 향렬에게	10-19(a)	365	2.05	1.390	6.381 /.000**	b,c>a
	20-29(b)	333	2.58	1.712		
	30-39(c)	212	2.54	1.668		
	40-49(d)	93	2.54	1.585		
	50년이상(e)	8	3.00	1.773		
	합계	1011	2.38	1.598		
손아랫사람에게	10-19(a)	301	2.44	1.435	29.279 /.000**	d>b,c>a
	20-29(b)	300	3.03	1.575		
	30-39(c)	208	3.41	1.494		
	40-49(d)	93	4.11	1.238		
	50년이상(e)	9	4.22	1.394		
	합계	911	3.04	1.567		
한국인 아닌 친척에게	10-19(a)	175	3.11	1.652	9.361 /.000**	d>b,c>a
	20-29(b)	177	3.51	1.655		
	30-39(c)	147	3.87	1.440		
	40-49(d)	56	4.32	1.177		
	50년이상(e)	6	4.67	.516		
	합계	561	3.57	1.596		

**p<.01



<그림 136> 가족에게 쓰는 말 거주 기간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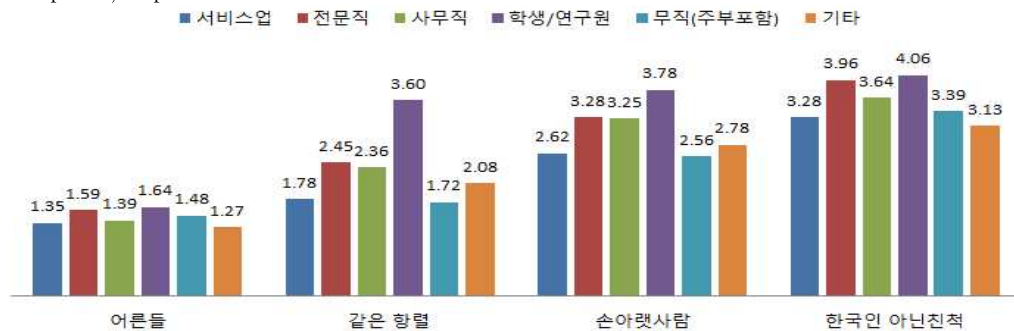
○ 직업별 분석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생 및 연구원 집단에서 주로 영어를 선택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직과 사무직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자영/서비스업이나 무직의 경우에 가장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04> 가족에게 쓰는 말 직업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어른들에게	서비스업(a)	270	1.35	.843	2.628 /.023*	d>a
	전문직(b)	200	1.59	1.257		
	사무직(c)	132	1.39	.979		
	학생/연구원(d)	215	1.64	1.131		
	무직(주부포함)(e)	127	1.48	1.030		
	기타(f)	26	1.27	.724		
같은 향렬에게	합계	970	1.48	1.049	45.979 /.000**	d>b,c>a,e
	서비스업(a)	286	1.78	1.275		
	전문직(b)	206	2.45	1.678		
	사무직(c)	134	2.36	1.494		
	학생/연구원(d)	213	3.60	1.510		
	무직(주부포함)(e)	138	1.72	1.231		
손아랫사람에게	기타(f)	26	2.08	1.521	16.237 /.000**	d>b,c>a,e
	합계	1003	2.38	1.600		
	서비스업(a)	276	2.62	1.512		
	전문직(b)	185	3.28	1.565		
	사무직(c)	122	3.25	1.588		
	학생/연구원(d)	158	3.78	1.328		
한국인 아닌 친척에게	무직(주부포함)(e)	135	2.56	1.519	4.533 /.000**	d>a
	기타(f)	27	2.78	1.553		
	합계	903	3.04	1.568		
	서비스업(a)	196	3.28	1.663		
	전문직(b)	109	3.96	1.521		
	사무직(c)	72	3.64	1.577		
	학생/연구원(d)	69	4.06	1.413		
	무직(주부포함)(e)	90	3.39	1.563		
	기타(f)	16	3.13	1.500		
	합계	552	3.57	1.599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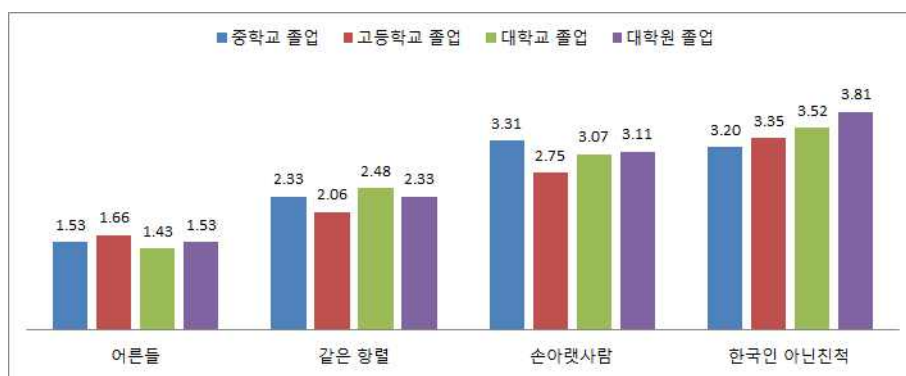
<그림 137> 가족에게 쓰는 말 직업별 분석

○ 학력 및 학교별 분석

학력별로는 집단 간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학력을 받은 나라별로 보면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였는데, 특히 한국에서 최종 교육을 받은 집단은 미국에서 최종 교육을 받은 집단에 비해 모든 대화 상대에 대해서 한국어를 더 많이 선택하였다.

<표 205> 가족에게 쓰는 말 학력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어른들에게	초등학교 졸업(a)	4	2.25	1.893	1.756 /.136	
	중학교 졸업(b)	17	1.53	1.068		
	고등학교 졸업(c)	102	1.66	1.173		
	대학교 졸업(d)	566	1.43	.949		
	대학원 졸업(e)	288	1.53	1.192		
	합계	977	1.49	1.058		
같은 항렬에게	초등학교 졸업(a)	4	2.25	1.893	1.777 /.131	
	중학교 졸업(b)	18	2.33	1.534		
	고등학교 졸업(c)	116	2.06	1.428		
	대학교 졸업(d)	578	2.48	1.601		
	대학원 졸업(e)	294	2.33	1.660		
	합계	1010	2.38	1.602		
손아랫사람에게	초등학교 졸업(a)	4	2.75	1.708	1.326 /.258	
	중학교 졸업(b)	16	3.31	1.815		
	고등학교 졸업(c)	116	2.75	1.576		
	대학교 졸업(d)	507	3.07	1.519		
	대학원 졸업(e)	268	3.11	1.636		
	합계	911	3.04	1.569		
한국인 아닌 친척에게	초등학교 졸업(a)	4	3.50	1.915	1.523 /.194	
	중학교 졸업(b)	10	3.20	1.814		
	고등학교 졸업(c)	81	3.35	1.652		
	대학교 졸업(d)	299	3.52	1.572		
	대학원 졸업(e)	163	3.81	1.593		
	합계	557	3.57	1.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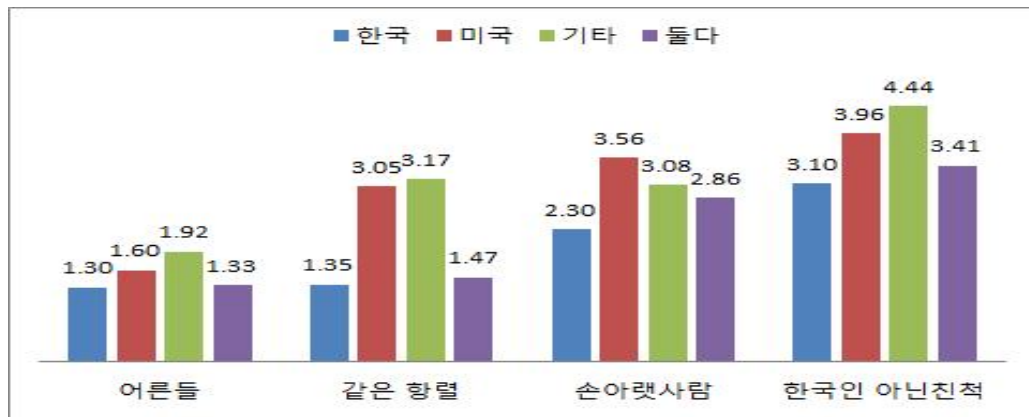


<그림 138> 가족에게 쓰는 말 학력별 분석

<표 206> 가족에게 쓰는 말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최종학력국가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어른들에게	한국	305	1.30	.777	-4.627	.000**
	미국	599	1.60	1.161		
같은항렬에게	한국	336	1.35	.725	-21.649	.000**
	미국	598	3.05	1.657		
손아랫사람에게	한국	332	2.30	1.409	-12.405	.000**
	미국	503	3.56	1.472		
한국인 아닌 친척에게	한국	227	3.10	1.607	-6.240	.000**
	미국	277	3.96	1.481		

** p<.01



<그림 139> 가족에게 쓰는 말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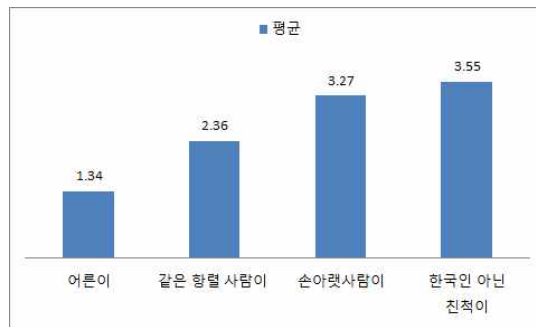
4.2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 기본 분석

‘가족들이 당신에게 말할 때 한국어와 영어 중에서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부모, 조부모 등 어른들은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고 형제, 자매와 같은 항렬 사람들도 한국어를 영어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아랫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는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 한국인이 아닌 친척은 거의 영어로 말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207>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분석

화자	N	평균
어른이 나에게	975	1.34
같은 항렬 사람이 나에게	1021	2.36
손아랫사람이 나에게	916	3.27
한국인 아닌 친척이 나에게	556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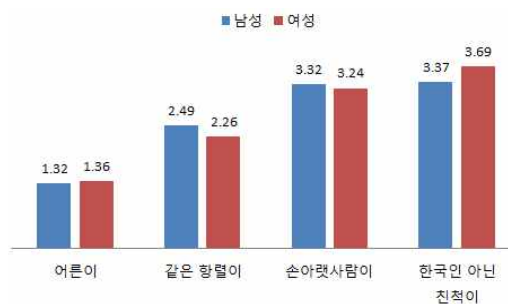
<그림 140>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분석

○ 성별 분석

성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친척 어른이나 손아랫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같은 항렬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주로 더 영어로 말하는 환경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08>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성별 분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친척어른이	남성	438	1.32	.790	-.846	.398
	여성	535	1.36	.948		
같은 항렬 사람이	남성	452	2.49	1.640	2.302	.022
	여성	566	2.26	1.556		
손아랫사람이	남성	412	3.32	1.518	.726	.468
	여성	501	3.24	1.550		
한국인 아닌 친척이	남성	238	3.37	1.698	-2.232	.026
	여성	315	3.69	1.580		



<그림 141>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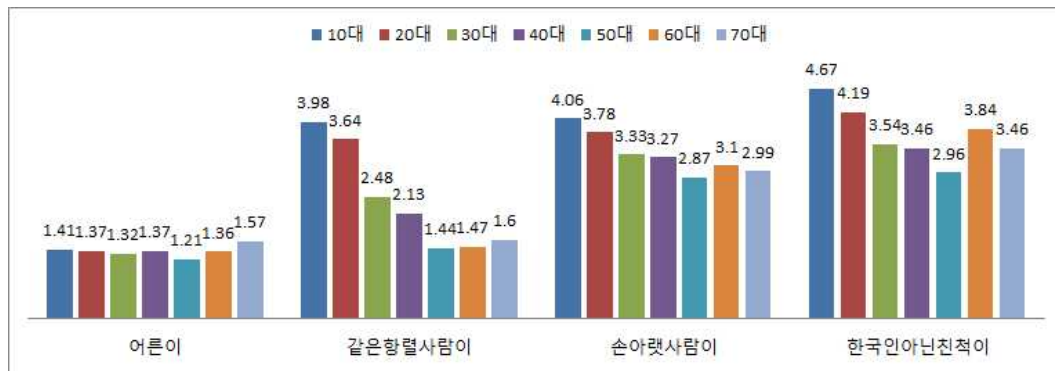
○ 연령별 분석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어른들이 말할 때에 대한 항목은 전 나이에 걸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한국어를 주로 사용해서 말한다는 인식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10대나 20대,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그룹에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각 그룹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언어 사용에 있어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209>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연령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친척어른이나에게	10대(a)	46	1.41	.956	1.461 /.188	
	20대(b)	214	1.37	.899		
	30대(c)	187	1.32	.887		
	40대(d)	200	1.37	.942		
	50대(e)	173	1.21	.676		
	60대(f)	101	1.36	.901		
	70대(g)	54	1.57	.983		
	합계	975	1.34	.880		
같은항렬사람이나에게	10대(a)	45	3.98	1.234	70.792 /.000**	a,b>c,d>e,f
	20대(b)	214	3.64	1.449		
	30대(c)	186	2.48	1.677		
	40대(d)	208	2.13	1.511		
	50대(e)	180	1.44	.964		
	60대(f)	118	1.47	.903		
	70대(g)	68	1.60	.933		
	합계	1019	2.36	1.596		
손아랫사람이나에게	10대(a)	34	4.06	1.179	7.415 /.000**	a,b>e,f
	20대(b)	155	3.78	1.434		
	30대(c)	157	3.33	1.550		
	40대(d)	202	3.27	1.526		
	50대(e)	183	2.87	1.542		
	60대(f)	115	3.10	1.469		
	70대(g)	68	2.99	1.579		
	합계	914	3.27	1.535		
한국인아닌친척이나에게	10대(a)	9	4.67	.707	5.531 /.000**	a,b>c,d>e
	20대(b)	69	4.19	1.417		
	30대(c)	103	3.54	1.661		
	40대(d)	123	3.46	1.695		
	50대(e)	105	2.96	1.687		
	60대(f)	88	3.84	1.437		
	70대(g)	57	3.46	1.626		
	합계	554	3.55	1.637		

**p<.01



<그림 142>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연령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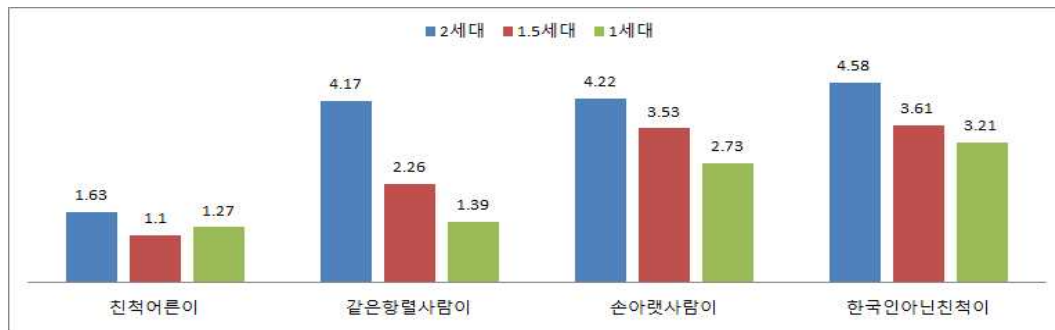
○ 이주 세대별 분석

이주 세대별로는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하여 2세대로 갈수록 모든 항목에 있어 영어 점수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세대 간에 모든 영역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하였다.

<표 210>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이주 세대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 확률	사후검정
친척어른이나에게	2세대(a)	282	1.63	1.174	26.518 /.000**	a>c>b
	1.5세대(b)	212	1.10	.362		
	1세대(d)	470	1.27	.779		
	합계	964	1.34	.876		
같은항렬사람이나에게	2세대(a)	281	4.17	1.187	623.058 /.000**	a>b>c
	1.5세대(b)	212	2.26	1.379		
	1세대(d)	516	1.39	.820		
	합계	1009	2.35	1.593		
손아랫사람이나에게	2세대(a)	238	4.22	1.182	95.343 /.000**	a>b>c
	1.5세대(b)	169	3.53	1.393		
	1세대(d)	500	2.73	1.490		
	합계	907	3.27	1.536		
한국인아닌친척이나에게	2세대(a)	106	4.58	1.004	31.181 /.000**	a>b>c
	1.5세대(b)	99	3.61	1.628		
	1세대(d)	346	3.21	1.668		
	합계	551	3.55	1.638		

**p<.01



<그림 143>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이주 세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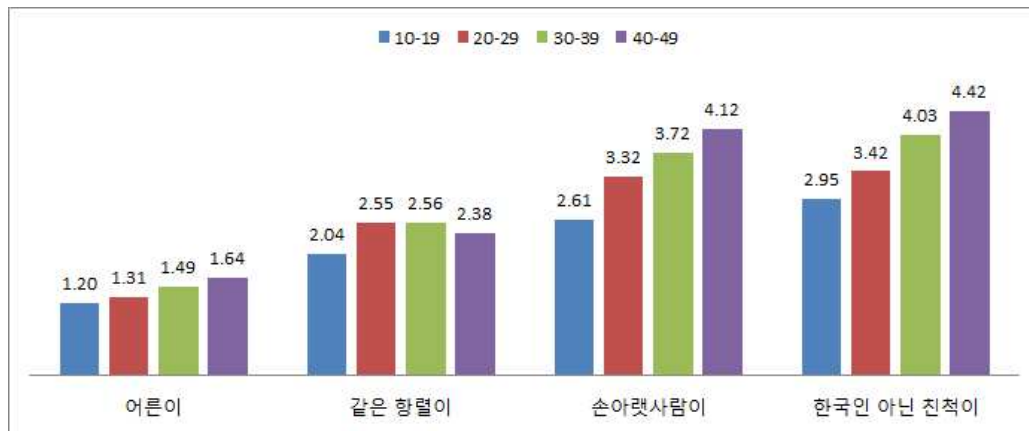
○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 기간별로 보면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대화상대자가 자신에게 영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20년 미만의 집단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 이외의 집단의 점수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211>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거주 기간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친척어른이나에게	10-19(a)	361	1.20	.697	11.822 /.000**	c,d>a
	20-29(b)	318	1.31	.813		
	30-39(c)	201	1.49	1.045		
	40-49(d)	81	1.64	1.121		
	50년이상(e)	6	3.00	1.673		
	합계	967	1.34	.882		
같은 항렬사람이나에게	10-19(a)	365	2.04	1.397	6.129 /.000**	b,c>a
	20-29(b)	335	2.55	1.705		
	30-39(c)	210	2.56	1.671		
	40-49(d)	95	2.38	1.559		
	50년이상(e)	8	2.88	1.553		
	합계	1013	2.35	1.594		
손아랫사람이나에게	10-19(a)	298	2.61	1.494	30.850 /.000**	c,d>b>a
	20-29(b)	306	3.32	1.537		
	30-39(c)	203	3.72	1.352		
	40-49(d)	92	4.12	1.166		
	50년이상(e)	9	4.78	.667		
	합계	908	3.27	1.535		
한국인아닌친척이나에게	10-19(a)	173	2.95	1.731	16.231 /.000**	c,d>a,b
	20-29(b)	171	3.42	1.690		
	30-39(c)	142	4.03	1.321		
	40-49(d)	60	4.42	1.109		
	50년이상(e)	8	4.88	.354		
	합계	554	3.56	1.634		

**p<.01



<그림 144>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거주 기간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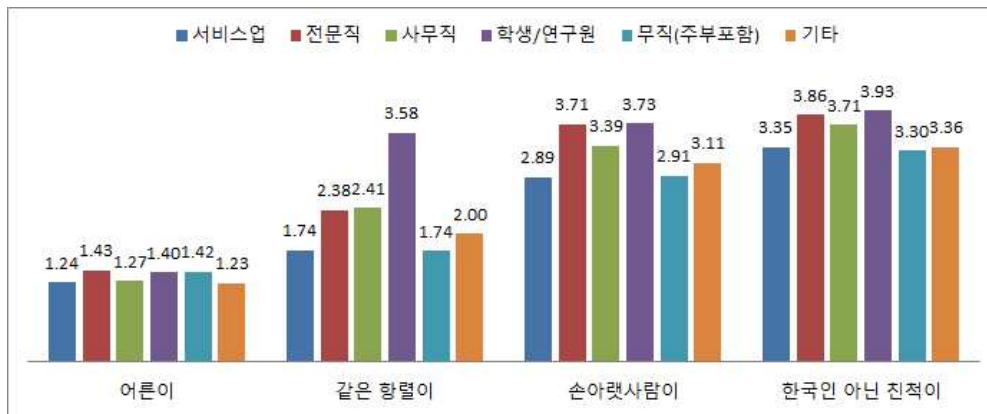
○ 직업별 분석

직업별로 분석했을 때 학생 및 연구원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같은 항렬끼리 대화하거나 어린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 그 대화 상대는 학생한테는 더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명되었다. 그리고 전문직이나 사무직에게 영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자영업이나 무직인 경우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직업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사용하는 말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표 212>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직업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화 률	사후검정
친척어른이나에게	서비스업(a)	267	1.24	.657	1.839 /.103	
	전문직(b)	198	1.43	1.063		
	사무직(c)	132	1.27	.790		
	학생/연구원(d)	214	1.40	.938		
	무직(주부포함)(e)	125	1.42	.969		
	기타(f)	26	1.23	.587		
합계		962	1.34	.877	46.811 /.000**	d>b,c>a,e
같은 항렬사람이나에 게	서비스업(a)	286	1.74	1.249		
	전문직(b)	205	2.38	1.666		
	사무직(c)	135	2.41	1.518		
	학생/연구원(d)	215	3.58	1.498		
	무직(주부포함)(e)	138	1.74	1.269		
	기타(f)	26	2.00	1.470		
합계		1005	2.36	1.597	11.478 /.000**	b,d>a,e
손아랫사람이나에게	서비스업(a)	282	2.89	1.486		
	전문직(b)	180	3.71	1.447		
	사무직(c)	122	3.39	1.587		
	학생/연구원(d)	156	3.73	1.407		
	무직(주부포함)(e)	134	2.91	1.563		
	기타(f)	27	3.11	1.502		
합계		901	3.28	1.534	2.656 /.022*	
한국인 아닌 친척이나 에게	서비스업(a)	193	3.35	1.639		
	전문직(b)	105	3.86	1.620		
	사무직(c)	72	3.71	1.622		
	학생/연구원(d)	67	3.93	1.531		
	무직(주부포함)(e)	93	3.30	1.660		
	기타(f)	14	3.36	1.550		
합계		544	3.56	1.634		

*p<.05, **p<.01



<그림 145>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직업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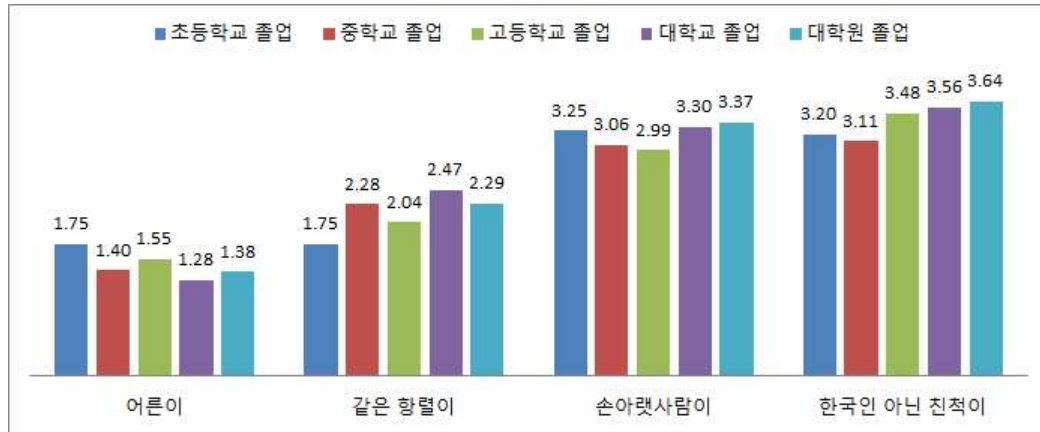
○ 학력 및 학교별 분석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집단 간 특별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13>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학력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친척어른이나에게	초등학교 졸업(a)	4	1.75	1.500	2.652 /.032*	
	중학교 졸업(b)	15	1.40	1.056		
	고등학교 졸업(c)	101	1.55	1.024		
	대학교 졸업(d)	562	1.28	.747		
	대학원 졸업(e)	286	1.38	1.022		
	합계	968	1.34	.878		
같은 항렬사람이나에게	초등학교 졸업(a)	4	1.75	1.500	2.222 /.065	
	중학교 졸업(b)	18	2.28	1.674		
	고등학교 졸업(c)	118	2.04	1.329		
	대학교 졸업(d)	579	2.47	1.614		
	대학원 졸업(e)	294	2.29	1.642		
	합계	1013	2.36	1.597		
손아랫사람이나에게	초등학교 졸업(a)	4	3.25	1.500	1.350 /.250	
	중학교 졸업(b)	16	3.06	1.843		
	고등학교 졸업(c)	115	2.99	1.501		
	대학교 졸업(d)	511	3.30	1.502		
	대학원 졸업(e)	263	3.37	1.589		
	합계	909	3.28	1.535		
한국인 아닌 친척이나에게	초등학교 졸업(a)	5	3.20	1.304	.375 /.826	
	중학교 졸업(b)	9	3.11	1.900		
	고등학교 졸업(c)	83	3.48	1.611		
	대학교 졸업(d)	295	3.56	1.609		
	대학원 졸업(e)	159	3.64	1.696		
	합계	551	3.56	1.634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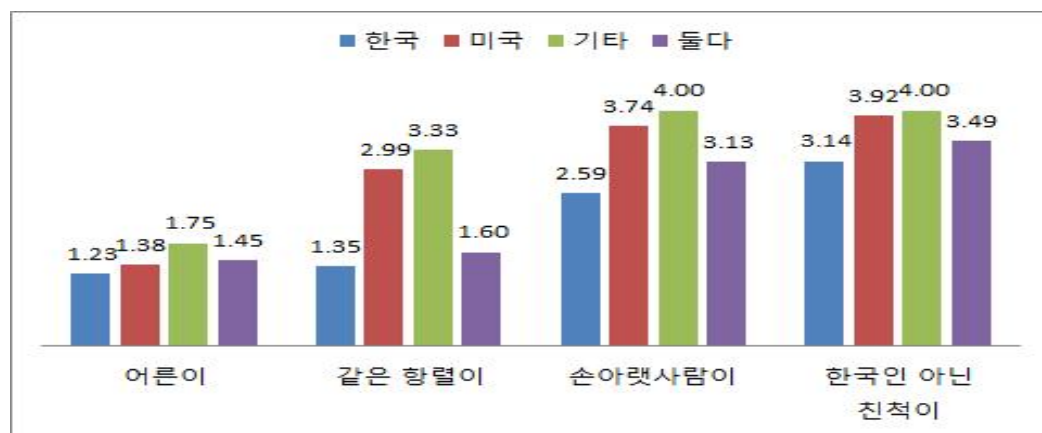
<그림 146>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학력별 분석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최종 학교 나라별로 분석한 결과 최종 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한 경우는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미국에서 졸업한 경우는 영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14>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최종학력국가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친척어른이나에게	한국	297	1.23	.655	-2.687	.007**
	미국	597	1.38	.931		
같은향렬사람이나에게	한국	335	1.35	.735	-20.736	.000**
	미국	599	2.99	1.669		
손아랫사람이나에게	한국	335	2.59	1.463	-11.281	.000**
	미국	499	3.74	1.405		
한국인 아닌 친척이나에게	한국	228	3.14	1.662	-5.424	.000**
	미국	271	3.92	1.537		

**p<.01



<그림 147>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5. 대화 대상과 상황별 언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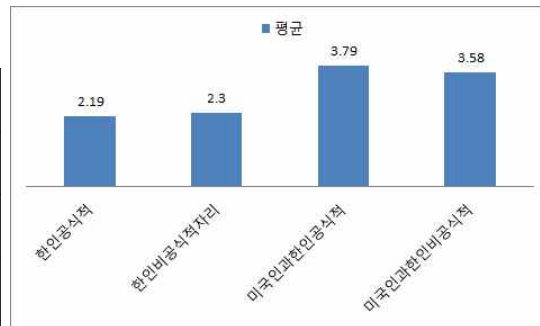
5.1.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 기본 분석

‘다음 상황에서 한국어와 영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응답 보기를 5점 척도로 환산하였다. 응답 보기 중 ‘대부분 한국어로’는 1, ‘한국어를 더 많이’는 2, ‘절반씩’은 3, ‘영어를 더 많이’는 4, ‘대부분 영어로’는 5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5에 가까울수록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결과, 한인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공식적 자리에서나 비공식적 자리에서나 한국어를 영어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영어를 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회의 등 공식적인 모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표 215>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분석

	평균	N	표준 편차
한인공식적 모임	2.19	995	1.509
한인비공식적 자리	2.30	1030	1.479
미국인과한인 공식적모임	3.79	971	1.215
미국인과한인 비공식적자리	3.58	1011	1.314



<그림 148>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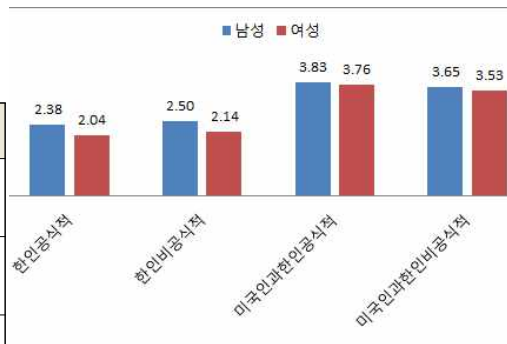
○ 성별 분석

상황별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한인들의 모임에서는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한국어를 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성별
분석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한인공식적 모임	남성	451	2.38	1.567	3.593	.000**
	여성	542	2.04	1.444		
한인비공식적 자리	남성	460	2.50	1.526	3.825	.000**
	여성	567	2.14	1.423		
미국인과한인 공식적모임	남성	448	3.83	1.204	.892	.373
	여성	521	3.76	1.220		
미국인과한인 비공식적자리	남성	459	3.65	1.327	1.520	.129
	여성	550	3.53	1.299		

**p<.01



<그림 149>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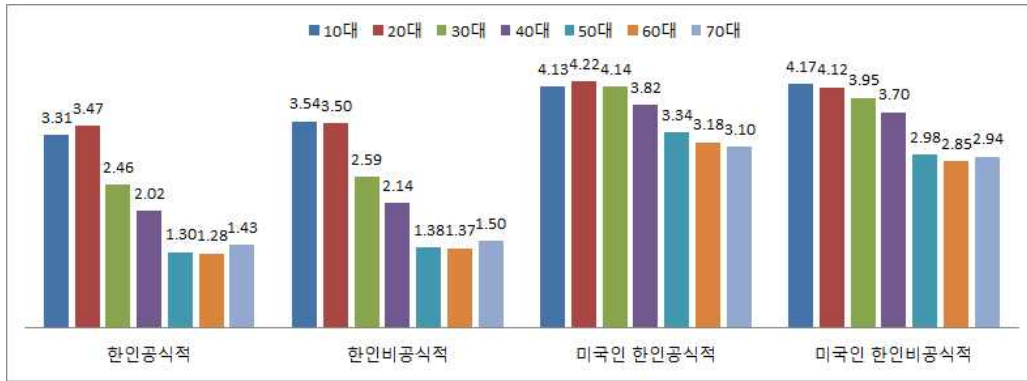
○ 연령별 분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모든 대화 상황에서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한인들의 모임에 있어서는 10대와 20대, 30대와 40대, 50대 이상의 집단끼리 집단 안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다른 집단과는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는데, 이는 나이대가 어릴수록 영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인이 섞여 있을 때는 40대 이하의 집단과 그 이상의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7>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연령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한인공식적모임	10대(a)	39	3.31	1.360	72.129 /.000**	a,b>c,d>e, f
	20대(b)	209	3.47	1.471		
	30대(c)	180	2.46	1.642		
	40대(d)	197	2.02	1.444		
	50대(e)	181	1.30	.659		
	60대(f)	121	1.28	.581		
	70대(g)	67	1.43	.802		
	합계	994	2.19	1.510		
한인비공식적자리	10대(a)	46	3.54	1.242	78.247 /.000**	a,b>c>d> e,f
	20대(b)	218	3.50	1.362		
	30대(c)	186	2.59	1.551		
	40대(d)	208	2.14	1.453		
	50대(e)	180	1.38	.710		
	60대(f)	122	1.37	.658		
	70대(g)	68	1.50	.801		
	합계	1028	2.30	1.479		
미국인과한인공식적모임	10대(a)	45	4.13	.894	21.449 /.000**	a,b,c,d>e,f
	20대(b)	216	4.22	1.004		
	30대(c)	178	4.14	1.083		
	40대(d)	199	3.82	1.161		
	50대(e)	163	3.34	1.244		
	60대(f)	111	3.18	1.281		
	70대(g)	59	3.10	1.348		
	합계	971	3.79	1.215		
미국인과한인비공식적자리	10대(a)	46	4.17	.877	29.209 /.000**	a,b,c,d>e,f
	20대(b)	216	4.12	1.093		
	30대(c)	185	3.95	1.201		
	40대(d)	207	3.70	1.242		
	50대(e)	175	2.98	1.264		
	60대(f)	116	2.85	1.347		
	70대(g)	65	2.94	1.356		
	합계	1010	3.58	1.312		

**p<.01



<그림 150>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연령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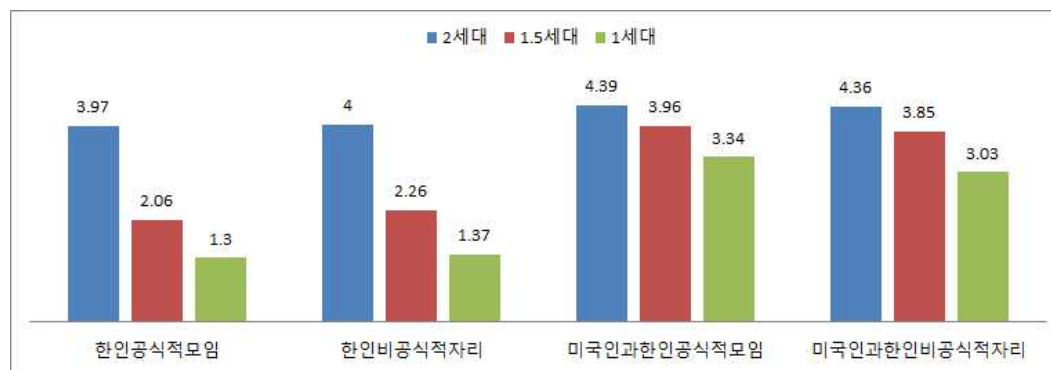
○ 이주 세대별 분석

이주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2세대는 모든 대화 상황에서 주로 영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1.5세대를 거쳐 1세대로 갈수록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커졌다.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표 218>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이주 세대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한인공식적모임	2세대(a)	270	3.97	1.261	640.141 /.000**	a>b>c
	1.5세대(b)	199	2.06	1.276		
	1세대(c)	514	1.30	.652		
	합계	983	2.19	1.508		
한인비공식적자리	2세대(a)	286	4.00	1.168	683.717 /.000**	a>b>c
	1.5세대(b)	211	2.26	1.232		
	1세대(c)	521	1.37	.679		
	합계	1018	2.30	1.479		
미국인과한인공식적모임	2세대(a)	284	4.39	.885	80.261 /.000**	a>b>c
	1.5세대(b)	207	3.96	1.085		
	1세대(c)	469	3.34	1.267		
	합계	960	3.79	1.217		
미국인과한인비공식적자리	2세대(a)	287	4.36	.916	124.366 /.000**	a>b>c
	1.5세대(b)	211	3.85	1.173		
	1세대(c)	501	3.03	1.300		
	합계	999	3.58	1.312		

**p<.01



<그림 151>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이주 세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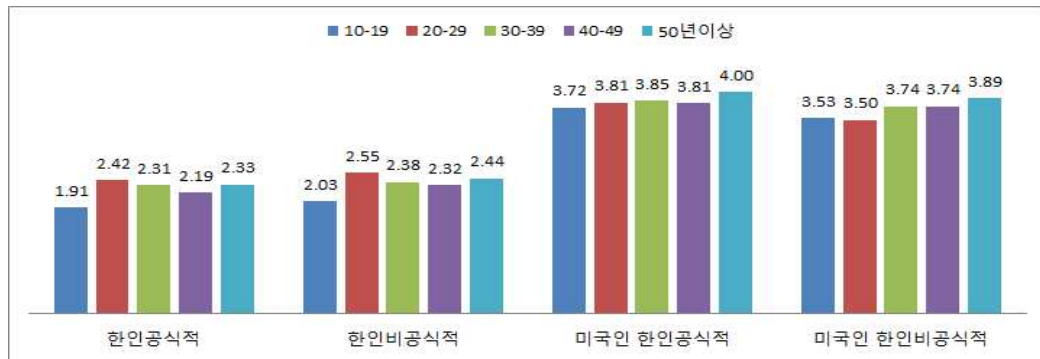
○ 거주 기간별 분석

거주 기간에 따라 보면 20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다른 집단보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 크지만 다른 집단들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219>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거주 기간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화 률	사후검정
한인공식적모임	10-19(a)	353	1.91	1.282	5.292 /.000**	b,c,d>a
	20-29(b)	327	2.42	1.629		
	30-39(c)	210	2.31	1.612		
	40-49(d)	89	2.19	1.476		
	50년이상(e)	9	2.33	1.581		
	합계	988	2.19	1.509		
한인비공식적자리	10-19(a)	369	2.03	1.239	5.690 /.000**	b>a
	20-29(b)	337	2.55	1.623		
	30-39(c)	213	2.38	1.542		
	40-49(d)	94	2.32	1.497		
	50년이상(e)	9	2.44	1.424		
	합계	1022	2.30	1.477		
미국인과한인공식적모임	10-19(a)	348	3.72	1.181	.486 /.746	
	20-29(b)	318	3.81	1.282		
	30-39(c)	201	3.85	1.152		
	40-49(d)	88	3.81	1.230		
	50년이상(e)	8	4.00	1.069		
	합계	963	3.79	1.212		
미국인과한인비공식적자리	10-19(a)	362	3.53	1.265	1.729 /.141	
	20-29(b)	333	3.50	1.396		
	30-39(c)	206	3.74	1.302		
	40-49(d)	93	3.74	1.206		
	50년이상(e)	9	3.89	1.054		
	합계	1003	3.59	1.313		

**p<.01



<그림 152>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거주 기간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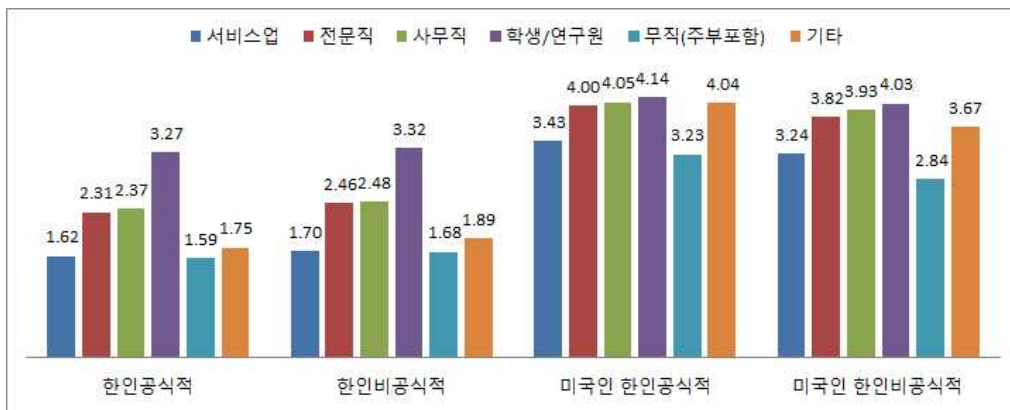
○ 직업별 분석

직업별로 보면, 학생 및 연구원 집단에서는 상황에 관계없이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집단과 달랐고, 그 뒤를 이어 전문직과 사무직의 영어 사용 비중 역시 다른 직업군과 차이가 있었다.

<표 220>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직업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 확률	사후검정
한인 공식적 모임	서비스업(a)	287	1.62	1.125	41.610 /.000**	d>b,c>a,e
	전문직(b)	194	2.31	1.570		
	사무직(c)	131	2.37	1.575		
	학생/연구원(d)	207	3.27	1.543		
	무직(주부포함)(e)	134	1.59	1.056		
	기타	28	1.75	1.351		
	합계	981	2.20	1.513		
한인 비공식적 자리	서비스업(a)	285	1.70	1.132	43.917 /.000**	d>b,c>a,e
	전문직(b)	206	2.46	1.545		
	사무직(c)	138	2.48	1.420		
	학생/연구원(d)	217	3.32	1.477		
	무직(주부포함)(e)	141	1.68	1.117		
	기타	28	1.89	1.343		
	합계	1015	2.31	1.480		
미국인 과 한인 공식적 모임	서비스업(a)	268	3.43	1.286	17.223 /.000**	b,c,d>a,e
	전문직(b)	202	4.00	1.106		
	사무직(c)	128	4.05	1.118		
	학생/연구원(d)	213	4.14	1.030		
	무직(주부포함)(e)	119	3.23	1.272		
	기타	27	4.04	1.055		
	합계	957	3.78	1.214		
미국인 과 한인 비공식적 자리	서비스업(a)	281	3.24	1.356	22.782 /.000**	b,c,d>a,e
	전문직(b)	205	3.82	1.228		
	사무직(c)	136	3.93	1.194		
	학생/연구원(d)	214	4.03	1.123		
	무직(주부포함)(e)	133	2.84	1.313		
	기타	27	3.67	1.240		
	합계	996	3.58	1.319		

**p<.01



<그림 153>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직업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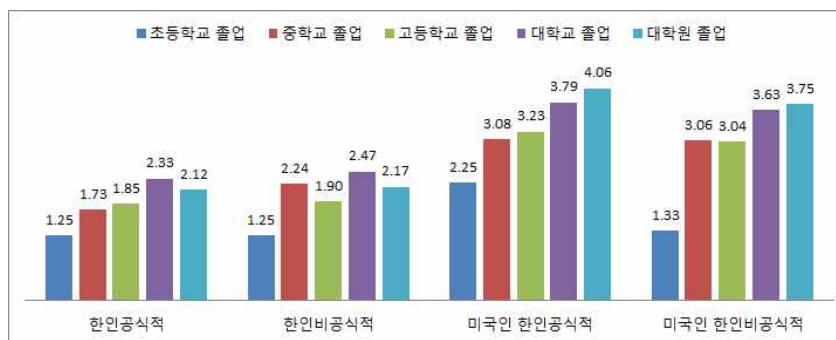
○ 학력 및 학교별 분석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보다 한인들의 모임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향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집단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최종 학교를 미국에서 나온 경우와 한국에서 나온 경우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표 221>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학력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한인공식적모임	초등학교 졸업(a)	4	1.25	.500	3.663 /.006**	d>b
	중학교 졸업(b)	15	1.73	1.033		
	고등학교 졸업(c)	118	1.85	1.231		
	대학교 졸업(d)	570	2.33	1.553		
	대학원 졸업(e)	280	2.12	1.533		
	합계	987	2.20	1.512		
한인비공식적자리	초등학교 졸업(a)	4	1.25	.500	5.180 /.000**	d,e>b
	중학교 졸업(b)	17	2.24	1.437		
	고등학교 졸업(c)	118	1.90	1.236		
	대학교 졸업(d)	589	2.47	1.511		
	대학원 졸업(e)	294	2.17	1.469		
	합계	1022	2.31	1.479		
미국인과한인공식적모임	초등학교 졸업(a)	4	2.25	.957	12.514 /.000**	d,e>b
	중학교 졸업(b)	13	3.08	1.320		
	고등학교 졸업(c)	109	3.23	1.351		
	대학교 졸업(d)	554	3.79	1.173		
	대학원 졸업(e)	285	4.06	1.143		
	합계	965	3.79	1.215		
미국인과한인비공식적자리	초등학교 졸업(a)	3	1.33	.577	9.272 /.000**	d,e>b
	중학교 졸업(b)	16	3.06	1.482		
	고등학교 졸업(c)	114	3.04	1.372		
	대학교 졸업(d)	581	3.63	1.279		
	대학원 졸업(e)	291	3.75	1.287		
	합계	1005	3.58	1.316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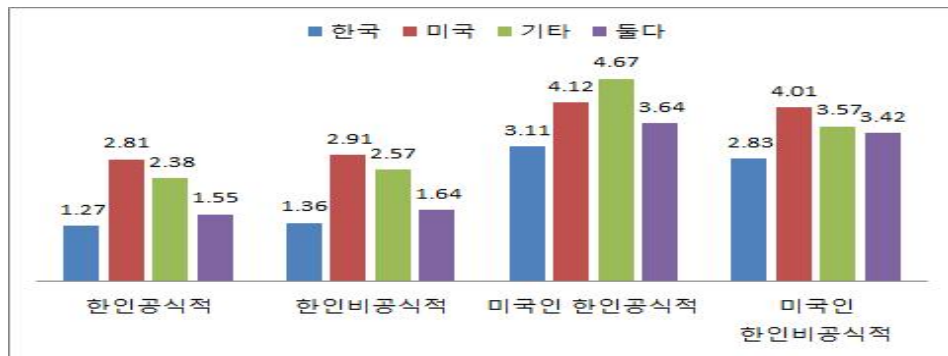


<그림 154>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학력별 분석

<표 222>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최종학력나라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한인공식적모임	한국	333	1.27	.591	-20.504	.000**
	미국	574	2.81	1.619		
한인비공식적자리	한국	338	1.36	.657	-21.542	.000**
	미국	603	2.91	1.541		
미국인과한인공식적모임	한국	293	3.11	1.270	-11.791	.000**
	미국	594	4.12	1.030		
미국인과한인비공식적자리	한국	323	2.83	1.307	-13.778	.000**
	미국	602	4.01	1.115		

**p<.01



<그림 155>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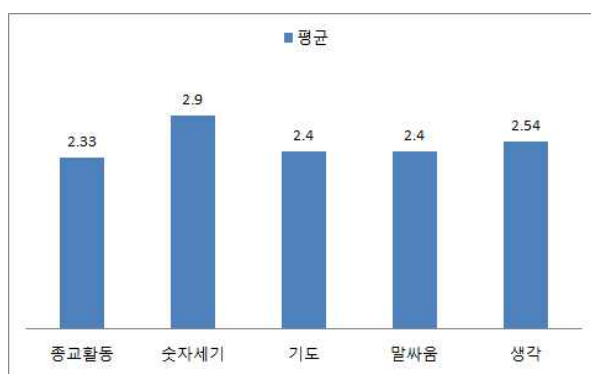
5.2. 특수한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 기본 분석

‘다음 상황에서 한국어와 영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에 대한 응답 역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1, 영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5점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수치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상황에서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 세기는 거의 반반씩에 해당되는 수치로 나타났다.

<표 223> 특수한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분석

특수한 상황	N	평균
종교활동	903	2.33
숫자세기	1037	2.90
기도	1031	2.40
말싸움	1027	2.40
생각	1034	2.54



<그림 156> 특수한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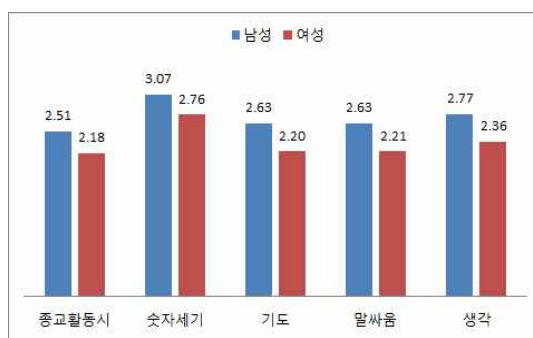
○ 성별 분석

모든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표 224> 특수한 상황 성별 분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종교활동	남성	401	2.51	1.580	3.220	.001**
	여성	499	2.18	1.471		
숫자세기	남성	465	3.07	1.583	3.140	.002**
	여성	569	2.76	1.545		
기도	남성	460	2.63	1.659	4.290	.000**
	여성	568	2.20	1.517		
말싸움	남성	461	2.63	1.643	4.276	.000**
	여성	563	2.21	1.496		
생각	남성	463	2.77	1.618	4.231	.000**
	여성	568	2.36	1.524		

**p<.01



<그림 157> 특수한 상황 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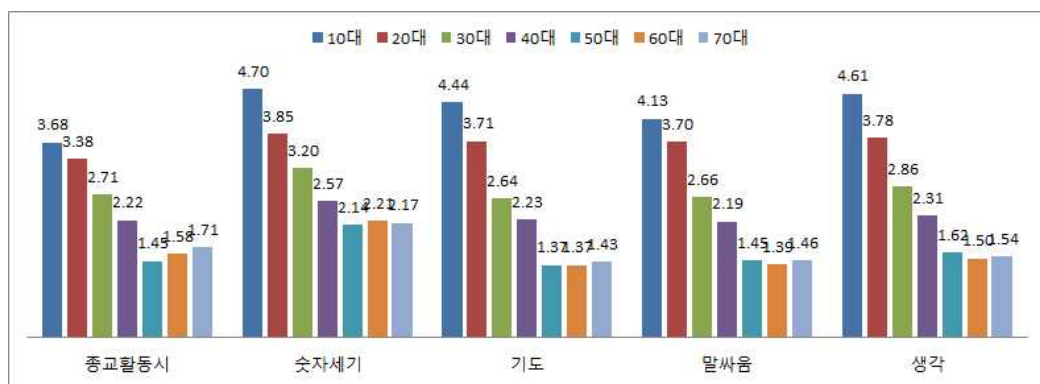
○ 연령별 분석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숫자 세기, 기도, 말싸움, 생각을 할 때 10대와 20대는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고, 높은 연령으로 갈수록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표 225> 특수한 상황 연령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종교활동	10대(a)	41	3.68	1.404	48.371 /.000**	a,b>c,d>e,f, g
	20대(b)	175	3.38	1.496		
	30대(c)	149	2.71	1.608		
	40대(d)	185	2.22	1.520		
	50대(e)	165	1.45	.879		
	60대(f)	118	1.58	.999		
	70대(g)	68	1.71	.993		
	합계	901	2.33	1.528		
숫자세기	10대(a)	46	4.70	.785	50.775 /.000**	a>b>c>d>e, f,g
	20대(b)	215	3.85	1.350		
	30대(c)	189	3.20	1.530		
	40대(d)	209	2.57	1.492		
	50대(e)	183	2.14	1.329		
	60대(f)	123	2.21	1.295		
	70대(g)	70	2.17	1.307		
	합계	1035	2.90	1.570		
기도	10대(a)	45	4.44	.967	98.408 /.000**	a>b>c.d>e,f, g
	20대(b)	212	3.71	1.440		
	30대(c)	187	2.64	1.595		
	40대(d)	207	2.23	1.544		
	50대(e)	183	1.37	.721		
	60대(f)	123	1.37	.740		
	70대(g)	72	1.43	.901		
	합계	1029	2.40	1.597		
말싸움	10대(a)	46	4.13	1.067	86.694 /.000**	a,b>c,d>e,f, g
	20대(b)	212	3.70	1.381		
	30대(c)	189	2.66	1.645		
	40대(d)	207	2.19	1.498		
	50대(e)	181	1.45	.885		
	60대(f)	120	1.39	.759		
	70대(g)	71	1.46	.892		
	합계	1026	2.40	1.578		
생각	10대(a)	46	4.61	.745	94.911 /.000**	a>b>c>d>e, <f,g
	20대(b)	214	3.78	1.276		
	30대(c)	189	2.86	1.583		
	40대(d)	206	2.31	1.542		
	50대(e)	183	1.62	.970		
	60대(f)	123	1.50	.843		
	70대(g)	71	1.54	.954		
	합계	1032	2.54	1.579		

**p<.01



<그림 158> 특수한 상황 연령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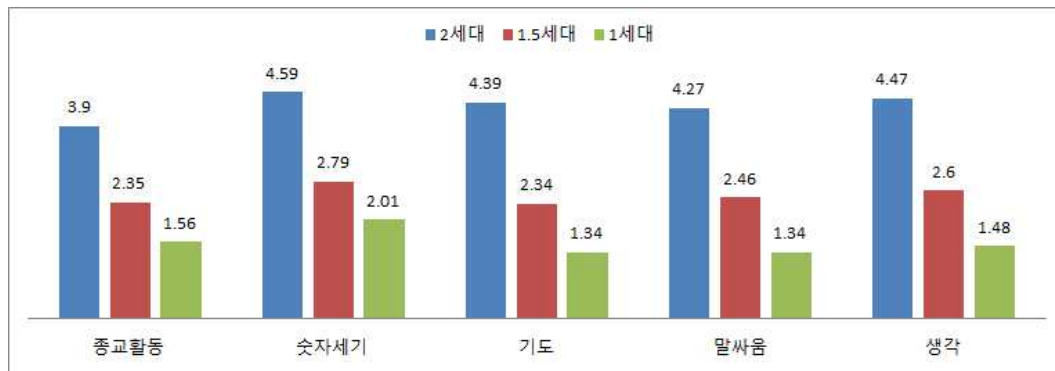
○ 이주 세대별 분석

이주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2세대로 갈수록 영어를, 1세대로 갈수록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뚜렷한 경향이 관찰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세대별로 각 집단의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26> 특수한 상황 이주 세대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종교활동	2세대(a)	233	3.90	1.347	311.122 /.000**	a>b>c
	1.5세대(b)	174	2.35	1.422		
	1세대(c)	485	1.56	.972		
	합계	892	2.33	1.530		
숫자세기	2세대(a)	286	4.59	.832	493.415 /.000**	a>b>c
	1.5세대(b)	212	2.79	1.248		
	1세대(c)	527	2.01	1.200		
	합계	1025	2.89	1.570		
기도	2세대(a)	281	4.39	1.061	976.984 /.000**	a>b>c
	1.5세대(b)	212	2.34	1.250		
	1세대(c)	526	1.34	.679		
	합계	1019	2.39	1.596		
말싸움	2세대(a)	285	4.27	1.049	858.235 /.000**	a>b>c
	1.5세대(b)	211	2.46	1.353		
	1세대(c)	521	1.34	.678		
	합계	1017	2.40	1.575		
생각	2세대(a)	283	4.47	.884	923.746 /.000**	a>b>c
	1.5세대(b)	213	2.60	1.231		
	1세대(c)	526	1.48	.832		
	합계	1022	2.54	1.579		

**p<.01



<그림 159> 특수한 상황 이주 세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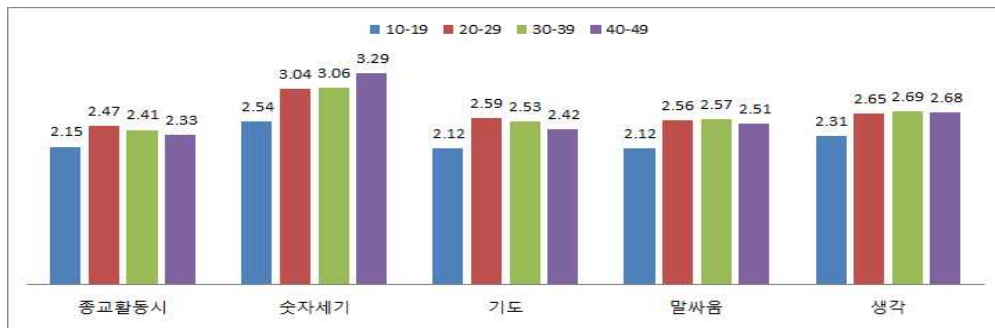
○ 거주 기간별 분석

종교 활동의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20년 미만 거주한 집단과 다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표 227> 특수한 상황 거주 기간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종교 활동	10-19(a)	314	2.15	1.431	1.946 /.101	
	20-29(b)	299	2.47	1.574		
	30-39(c)	190	2.41	1.597		
	40-49(d)	83	2.33	1.523		
	50년 이상(e)	9	2.56	1.509		
	합계	895	2.33	1.528		
숫자세기	10-19(a)	370	2.54	1.452	9.293 /.000**	b,c,d>a
	20-29(b)	337	3.04	1.644		
	30-39(c)	217	3.06	1.586		
	40-49(d)	96	3.29	1.472		
	50년 이상(e)	9	4.11	.928		
	합계	1029	2.90	1.569		
기도	10-19(a)	367	2.12	1.425	4.768 /.001**	b,c>a
	20-29(b)	334	2.59	1.699		
	30-39(c)	217	2.53	1.661		
	40-49(d)	96	2.42	1.587		
	50년 이상(e)	9	3.00	1.732		
	합계	1023	2.40	1.598		
말싸움	10-19(a)	368	2.12	1.403	4.765 /.001**	b,c>a
	20-29(b)	331	2.56	1.687		
	30-39(c)	214	2.57	1.633		
	40-49(d)	97	2.51	1.575		
	50년 이상(e)	9	2.78	1.563		
	합계	1019	2.40	1.578		
생각	10-19(a)	370	2.31	1.430	3.602 .006**	b,c>a
	20-29(b)	335	2.65	1.667		
	30-39(c)	215	2.69	1.635		
	40-49(d)	97	2.68	1.598		
	50년 이상(e)	9	3.22	1.481		
	합계	1026	2.54	1.578		

**p<.01



<그림 160> 특수한 상황 거주 기간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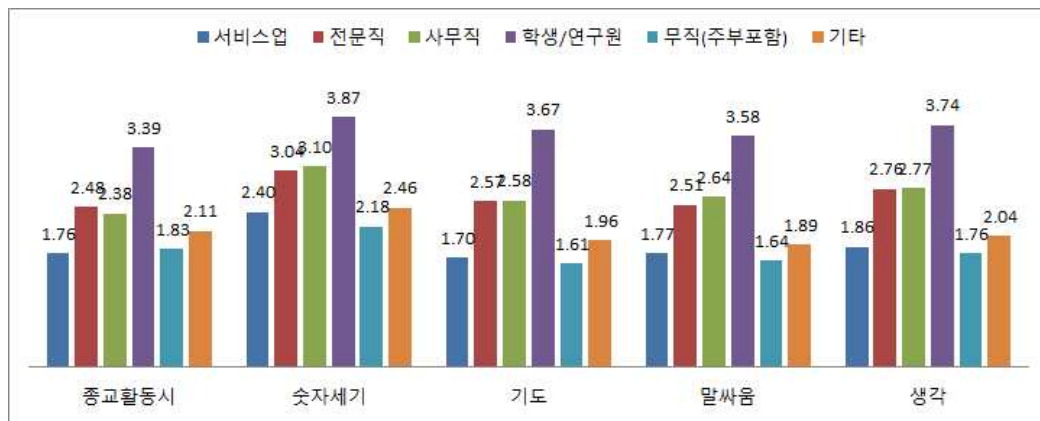
○ 직업별 분석

직업별 분석 결과, 학생 및 연구원 집단이 유독 두드러지게 다른 집단과 달랐는데, 이들은 모든 상황에서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이나 무직 집단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표 228> 특수한 상황 직업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종교활동	서비스업(a)	258	1.76	1.222	32.597 /.000**	d>b.c>a.e
	전문직(b)	183	2.48	1.640		
	사무직(c)	117	2.38	1.394		
	학생/연구원(d)	178	3.39	1.549		
	무직(주부포함)(e)	127	1.83	1.216		
	기타	27	2.11	1.368		
	합계	890	2.33	1.530		
숫자세기	서비스업(a)	292	2.40	1.467	34.103 /.000**	d>b.c>a.e
	전문직(b)	207	3.04	1.516		
	사무직(c)	137	3.10	1.501		
	학생/연구원(d)	215	3.87	1.406		
	무직(주부포함)(e)	142	2.18	1.359		
	기타	28	2.46	1.575		
	합계	1021	2.90	1.572		
기도	서비스업(a)	292	1.70	1.232	59.737 /.000**	d>b.c>a.e
	전문직(b)	206	2.57	1.605		
	사무직(c)	136	2.58	1.585		
	학생/연구원(d)	212	3.67	1.506		
	무직(주부포함)(e)	141	1.61	1.074		
	기타	28	1.96	1.427		
	합계	1015	2.40	1.601		
말싸움	서비스업(a)	291	1.77	1.259	50.694 /.000**	d>b.c>a.e
	전문직(b)	207	2.51	1.579		
	사무직(c)	136	2.64	1.590		
	학생/연구원(d)	213	3.58	1.467		
	무직(주부포함)(e)	137	1.64	1.187		
	기타	28	1.89	1.370		
	합계	1012	2.41	1.579		
생각	서비스업(a)	292	1.86	1.346	56.497 /.000**	d>b.c>a.e
	전문직(b)	206	2.76	1.549		
	사무직(c)	137	2.77	1.480		
	학생/연구원(d)	214	3.74	1.396		
	무직(주부포함)(e)	141	1.76	1.207		
	기타	28	2.04	1.401		
	합계	1018	2.55	1.582		

**p<.01



<그림 161> 특수한 상황 직업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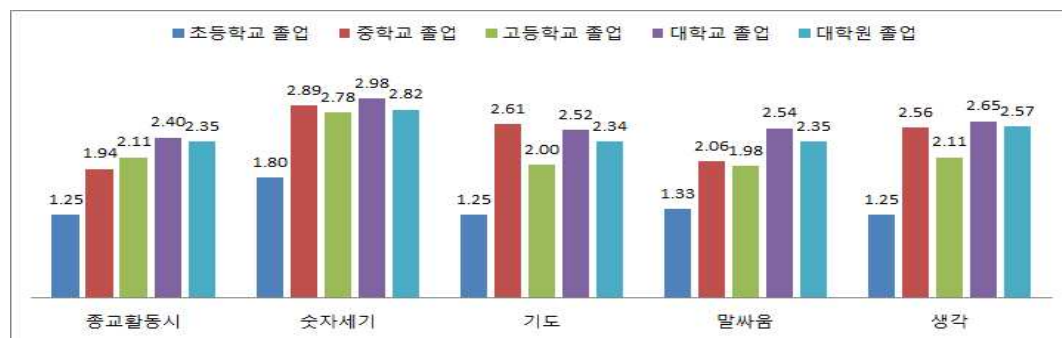
○ 학력 및 학교별 분석

학력에 따라 기도와 말싸움과 생각에 있어서만 고졸과 대졸 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최종 학력을 미국에서 마친 경우에는 모든 항목에 있어서 영어의 사용이 더 높았다.

<표 229> 특수한 상황 학력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정
종교활동	초등학교 졸업(a)	4	1.25	.500	1.676 /.153	
	중학교 졸업(b)	16	1.94	1.181		
	고등학교 졸업(c)	118	2.11	1.388		
	대학교 졸업(d)	500	2.40	1.543		
	대학원 졸업(e)	257	2.35	1.582		
	합계	895	2.34	1.530		
숫자세기	초등학교 졸업(a)	5	1.80	.837	1.385 /.237	
	중학교 졸업(b)	18	2.89	1.676		
	고등학교 졸업(c)	124	2.78	1.585		
	대학교 졸업(d)	588	2.98	1.578		
	대학원 졸업(e)	295	2.82	1.551		
	합계	1030	2.91	1.571		
기도	초등학교 졸업(a)	4	1.25	.500	3.508 /.007**	d>c
	중학교 졸업(b)	18	2.61	1.883		
	고등학교 졸업(c)	125	2.00	1.508		
	대학교 졸업(d)	583	2.52	1.626		
	대학원 졸업(e)	293	2.34	1.546		
	합계	1023	2.40	1.600		
말싸움	초등학교 졸업(a)	3	1.33	.577	4.113 /.003**	d>c
	중학교 졸업(b)	18	2.06	1.392		
	고등학교 졸업(c)	123	1.98	1.446		
	대학교 졸업(d)	584	2.54	1.600		
	대학원 졸업(e)	293	2.35	1.571		
	합계	1021	2.41	1.579		
생각	초등학교 졸업(a)	4	1.25	.500	3.696 /.005**	d>c
	중학교 졸업(b)	18	2.56	1.756		
	고등학교 졸업(c)	125	2.11	1.562		
	대학교 졸업(d)	587	2.65	1.584		
	대학원 졸업(e)	292	2.57	1.551		
	합계	1026	2.55	1.581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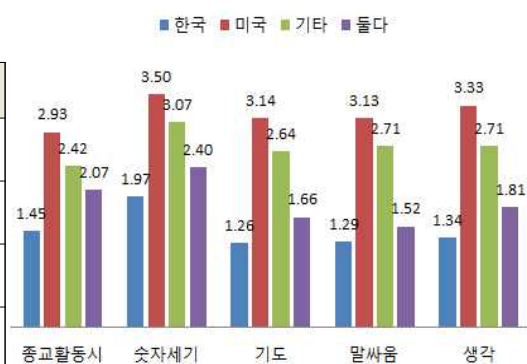


<그림 162> 특수한 상황 학력별 분석

<표 230> 특수한 상황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최종학 력국가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종교 활동	한국	319	1.45	.795	-17.398	.000**
	미국	504	2.93	1.620		
숫자 세기	한국	344	1.97	1.224	-17.057	.000**
	미국	604	3.50	1.497		
기도	한국	344	1.26	.613	-25.165	.000**
	미국	598	3.14	1.630		
말싸 움	한국	340	1.29	.642	-25.007	.000**
	미국	601	3.13	1.594		
생각	한국	344	1.34	.719	-27.216	.000**
	미국	600	3.33	1.517		

**p<.01



<그림 163> 특수한 상황 최종학력 국가별 분석

제5장 언어 습득과 한국어 교육

1.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재미 동포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 항목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한국어 학교⁴⁸⁾에 보내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1.1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필요성 인식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태도는 현재 재미 동포들 사이에서 인식이 가장 바뀐 부분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어 학교에 보낸다고 응답하였다. 1970년대의 초기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의 적응과 미국 언어 교육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것에 비해 현재는 95% 이상 한국어 학교에 보내겠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⁴⁹⁾ 실제적으로는 1968년에 제정된 이중언어교육법이 제정되었으나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1974년 재개정되어 미국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1980년대부터 다시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비판적인 정서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영어를 미국의 유일한 공식적 언어로 명시화하려는 영어전용주의 운동(English Only Movement)⁵⁰⁾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러한 시기에 자녀들의

48) 재미 동포들의 경우에 한국어를 배우는 교육 기관의 이름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한글 학교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나 원 명칭은 한국 학교인 경우도 있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한국어 학원도 있고, 또한 세종 학당이나 교회의 주일 학교 등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학교라는 명칭으로 기술한다. 이는 특정 학교의 이름이라기 보다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에 보낸다는 의미로 설문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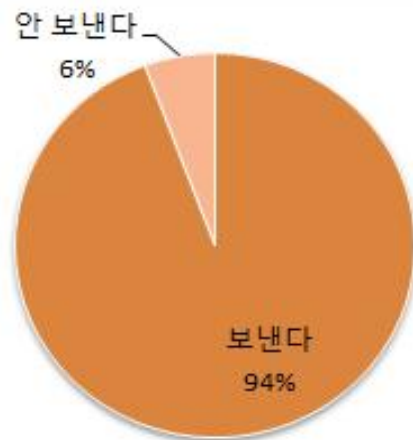
49)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미국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어 이외의 타 언어들의 사용을 억압하고 앵글로 색슨 중심의 미국문화를 형성하는, 이른바 용광로(melting pot) 정책이 지배했다.(박준언, 2004) 이 시기에 미국에서 수행된 영어 위주의 제한적인(restrictive) 언어 정책의 예로 흑인 노예들의 노동력 통제를 위해서 그들에게 모국어 사용은 허용되지 않았고, 이민자들은 미국이라는 하나의 문화권에 동화되어야만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영어 교육이 강조되었다. 또한 당시 교육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당시 미국 사회에 동화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적, 문화적 적응은 학생의 책임이고 교사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모경환, 2013)

50) English Only Movement를 주도하는 대표적 단체로는, 1983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었던 일본계 S. I. Hayakawa가 설립한 민간단체 US English가 있다. US English는 미국 전역에 걸쳐 17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2003년 현재),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기 위해 헌법 개정과 각종 다중언어 진흥 관련 법률들을 폐기,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교육을 미국에서 시켰던 재미 동포들은 한국어보다는 영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국어를 가르치지 말라는 교사들의 제언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가 미국 대학 입학시험인 SAT II 과목으로 들어가고 최근 들어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의 문화에 자부심을 얻은 재미 동포들은 한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자녀를 한국어 학교에 보내지 못하였거나 자녀들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재미 동포 1세대의 경우에 손자, 손녀는 한글학교에 보내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시하였고, 한국어도 할 수 있으면 훨씬 좋다는 의견을 표하였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획득한 이후에 자녀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회를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⁵¹⁾

<표 231> 자녀들의 한국어 학교 출석 여부
분석

자녀들을 한국어 학교에 보내겠는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낸다	954	91	94.3
안 보낸다	58	5.5	5.7
합계	1012	96.6	100
시스템 결측값	36	3.4	
합계	1048	100	



<그림 164> 자녀들의 한국어 학교 출석 여부
분석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제한, 이민 규제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박준언, 2004)

51) 심층 인터뷰에서 자녀들은 한국말을 잘 하시냐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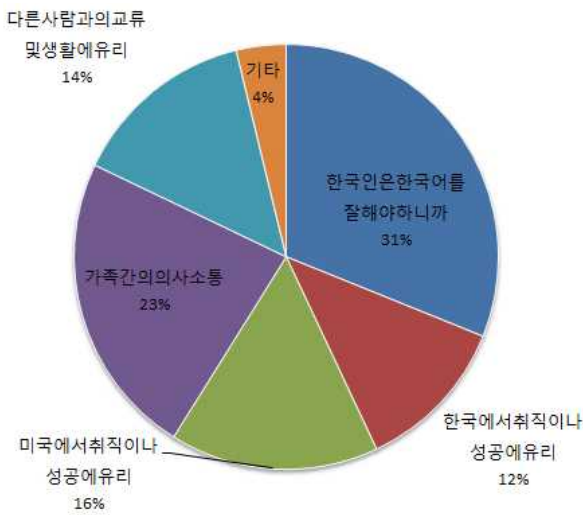
1.2 자녀를 한국어 학교에 보내는 이유

자녀를 한국어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이유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장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한국인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면 한국어를 아는 것이 한국에서 취직이나 성공에 유리하다고 응답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국에서 취직이나 성공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

기타 응답으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인으로서는 정체성을 배우고 유지, 확립시키기 위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중 언어 혹은 다중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응답도 많이 나타났으며 여러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에 노출되는 것이 가치관 및 세계관 형성에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응답과 이중 언어로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은 한국말도 잘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의 미래와 한인 문화 보전을 위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응답과 인성 교육 및 가정교육을 위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표 232> 한국어 학교에 보내는 이유 분석

한국어 학교에 보내는 이유	응답	
	빈도	퍼센트
한국인은한국어를 잘해야하니까	706	31.10
한국에서취직이나 성공에유리	270	11.90
미국에서취직이나 성공에유리	361	15.90
가족간의의사소통	527	23.20
사람과의교류및 생활에유리	321	14.10
기타	87	3.80
합계	2272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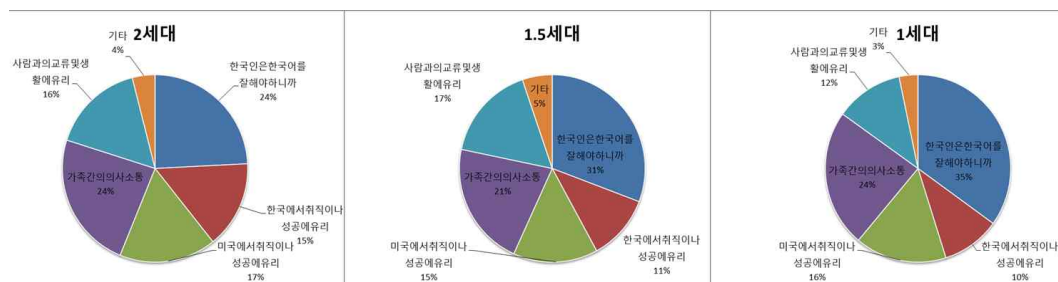
<그림 165> 한국어 학교에 보내는 이유 분석

○ 이주 세대별 분석

한국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이유의 경우에는 세대별 변인에 따라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 1세대와 1.5세대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큰 반면에 2세대의 경우에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잘 해야 하는 응답의 비율이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는 응답과 비슷한 분포를 보여 1세대나 1.5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또한 2세대의 경우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나 다른 사람과의 교류 및 생활에 유리해서라는 응답이 다른 세대보다 높다는 것은 1.5세대나 1세대가 한국어를 배운 이유인 한국인으로서의 당위성이나 한국어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성공이나 취직에 유리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해석 가능하다.

<표 233> 한국어 학교에 보내는 이유 이주 세대별 분석

		한국어 학교에 보내는 이유						합계
		한국인은 한국어를 잘해야 하니까	한국에서 취직이나 성공에 유리	미국에서 취직이나 성공에 유리	가족간의 의사소통	사람과의 교류 및 생활에 유리	기타	
세대	2세대	165	103	115	162	110	27	255
	1.5세대	136	50	65	95	73	23	197
	1세대	331	96	151	225	112	31	437
	합계	632	249	331	482	295	81	889



<그림 166> 한국어 학교에 보내는 이유 이주 세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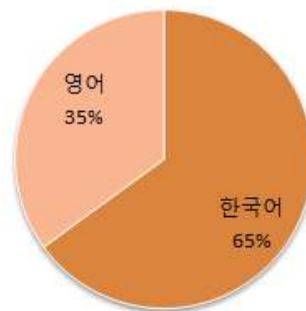
2.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2.1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경험 여부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들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응답을 유도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35% 정도의 영어로 된 설문지가 사용되었는데 이 항목에 대한 응답들은 영어로 작성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들 중에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61명의 설문을 대상으로 본 항이 작성되었다.

<표 234> 설문 언어 사용 빈도 분석

언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어	681	65.0	65.00
영어	367	35.0	35.00
합계	1048	1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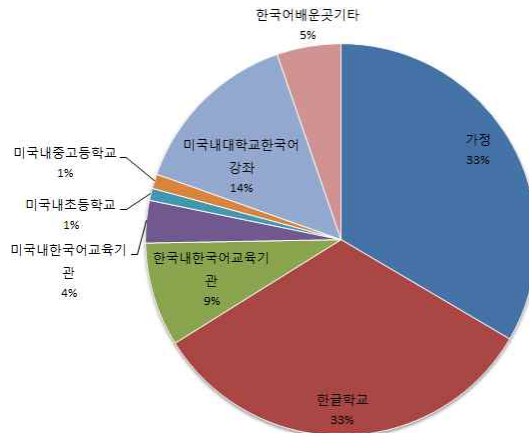
<그림 167> 설문 언어 사용 빈도 분석

2.2 한국어 학습 장소

이 문항은 미국 내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곳은 가정 이었고, 다음으로는 한글학교를 통한 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2세대, 혹은 1.5세대들의 경우에는 대학 내에 한국어 강좌를 들은 경우가 15% 정도임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경험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에 8% 정도는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한국어교육기관에서도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5> 한국어를 배운 기관 분석

한국어 배운 곳	빈도	퍼센트
가정	202	33.50
한글학교	197	32.70
한국내한국어교육기관	52	8.60
미국내한국어교육기관	21	3.50
미국내초등학교	6	1.00
미국내중고등학교	7	1.20
미국내대학교한국어강좌	86	14.30
한국어배운곳기타	32	5.30
합계	60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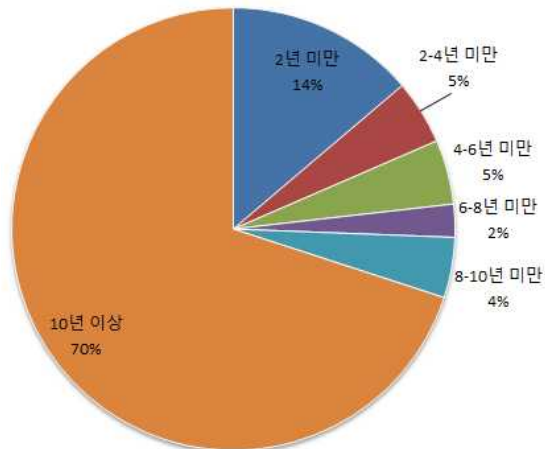
<그림 168> 한국어를 배운 기관 분석

2.3 한국어 사용 기간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어를 배워 사용한지 10년 이상이 경우가 많았지만 2년 미만인 재미 동포들의 숫자도 상당수가 되었다. 이들의 경우에 아마도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배워서 사용한 기간을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236> 한국어 사용 기간 분석

사용기간	빈도	퍼센트
2년 미만	47	13.80
2-4년 미만	16	4.70
4-6년 미만	16	4.70
6-8년 미만	8	2.40
8-10년 미만	15	4.40
10년 이상	238	70.00
합계	340	100.00



<그림 169> 한국어 사용 기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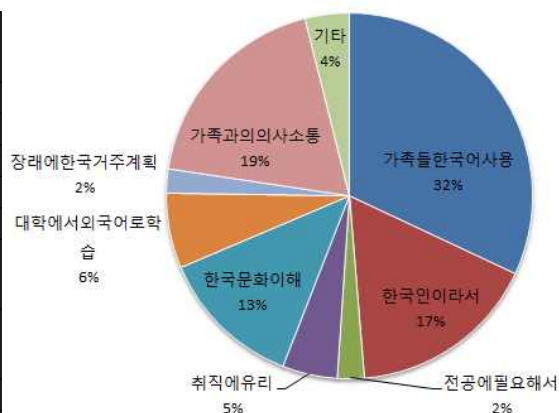
2.4 한국어 학습 이유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재미 동포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가

장 큰 이유는 가족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이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뒤를 이어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큰 학습 이유가 됨을 알 수 있다. 그 이외에 ‘한국인이라서’라는 응답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공이나 취직, 장래에 한국에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큰 이유가 되지 못했다. 이는 자녀를 한국어 학교에 보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응답한 2세대들의 이유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취직이나 전공과 같은 이유보다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실질적인 필요,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데에 있어 통합적 동기가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물론 한국인이라서 배운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필요도 3번째로 높은 이유이기 때문에 2세대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욕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표 237> 한국어 학습 이유 분석

한국어 학습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족들한국어사용	270	32	31.99
한국인이라서	141	16.70	16.71
전공에 필요해서	20	2.40	2.37
취직에 유리	41	4.90	4.86
한국문화이해	107	12.70	12.68
대학에서외국어로 학습	56	6.60	6.64
장래에한국거주계획	18	2.10	2.13
가족과의의사소통	158	18.70	18.72
기타	33	3.90	3.91
전체	844	100	100.00



<그림 170> 한국어 학습 이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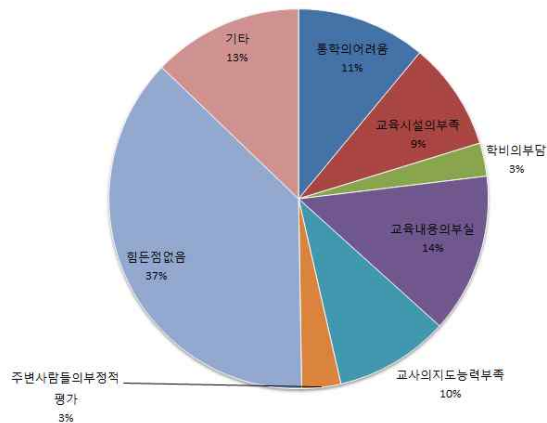
2.5 한국어 학습 시 어려움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 재미 동포의 약 40%는 한국어를 배운 환경에 대해서 특별한 어려움을 표하지 않았다. 교육 내용의 부족함을 지적한 경우가 13%로 가장 높은 어려움이었고, 통학의 어려움도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 시설의 부족과 교사의 능력 부족도 약 10%씩의 어려운 점으로

뽑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이 없다는 의견과 한국어 학습 동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학습 시간 부족이나, 철자, 발음의 어려움 등 개인적인 어려움의 문제와, 구식 콘텐츠의 문제, 자신의 숙달도 수준에 맞는 반을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 한국어 수업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238> 한국어 학습 시 어려움 분석

한국어 학습 시 어려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통학의 어려움	43	11.00	11.03
교육시설의 부족	36	9.20	9.23
학비의 부담	11	2.80	2.82
교육내용의 부실	53	13.60	13.59
교사의 지도능력 부족	38	9.70	9.74
주변사람들의 부정적 평가	13	3.30	3.33
힘든점없음	146	37.40	37.44
기타	50	12.80	12.82
합계	390	100	100.00



<그림 171> 한국어 학습 시 어려움 분석

2.6 한국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

한국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5점 매우 불만족을 1점으로 코딩하였을 경우에 평균 3.55정도로 보통 수준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통 정도에서 형성되어 그리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239> 한국어 수업 만족도 분석

한국어 수업 만족도	빈도	퍼센트
매우 만족	53	16.60
만족	101	31.70
보통이다	136	42.60
불만족	25	7.80
매우 불만족	4	1.26
합계	319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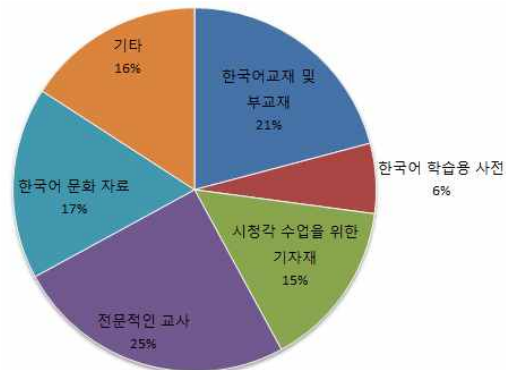
<그림 172> 한국어 수업 만족도 분석

2.7 한국어 수업에 보충이 필요한 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적인 교사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외에 한국어교재 및 부교재에 대한 요구, 시청각 수업을 위한 기자재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 문화 자료에 대한 요구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40> 한국어 수업에 보충해야 할 점 분석

한국어 수업에 보충이 필요한 점	빈도	퍼센트
한국어교재 및 부교재	50	20.80
한국어 학습용 사전	15	6.20
시청각 수업을 위한 기자재	36	14.90
전문적인 교사	60	24.90
한국어 문화 자료	41	17.00
기타	38	15.80
합계	241	100.00



<그림 173> 한국어 수업에 보충해야 할 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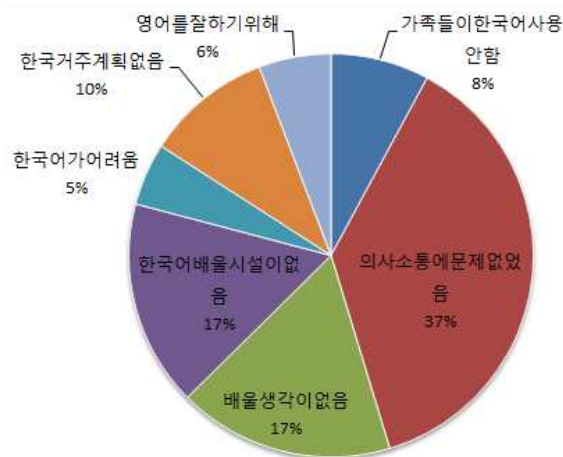
2.8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이유

한국어를 배울 계획이 없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아마도 미국에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고, 배우

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어 배울 시설이 없다는 응답도 조금 있었고, 한국에 거주할 계획이 없고 가족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표 241>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이유
분석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이유	빈도	퍼센트
가족들이한국어사용안함	11	7.90
의사소통에문제없었음	52	37.40
배울생각이없음	24	17.30
한국어배울시설이없음	23	16.50
한국어가어려움	7	5.0
한국거주계획없음	14	10.10
영어를잘하기위해	8	5.80
합계	139	100



<그림 174>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이유 분석

2.9 한국어 학습 의향

○ 기본 분석

이 설문 문항은 한국어를 잘해서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 말고 자신의 한국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한국어를 배울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응답에 배울 계획이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이 거의 반반으로 조사되었다.

<표 242> 한국어 학습 의향 분석

한국어 학습 의향	빈도	퍼센트
있다	203	45.00
없다	194	43.00
모르겠다	54	12.00
전체	451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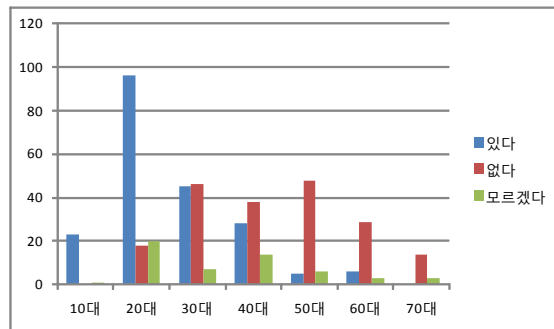
<그림 175> 한국어 학습 의향 분석

○ 연령별 분석

한국어 학습 의향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10대나 20대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학습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30대 이후로 넘어가면 한국어 실력이 좀 부족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배우겠다는 의향이 없음을 드러낸다.

<표 243> 한국어 학습 의향 연령별 분석

한국어 학습 의향	나이							전 체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있다	23	96	45	28	5	6	0	203
없다	0	18	46	38	48	29	14	193
모르 겠다	1	20	7	14	6	3	3	54
전체	24	134	98	80	59	38	17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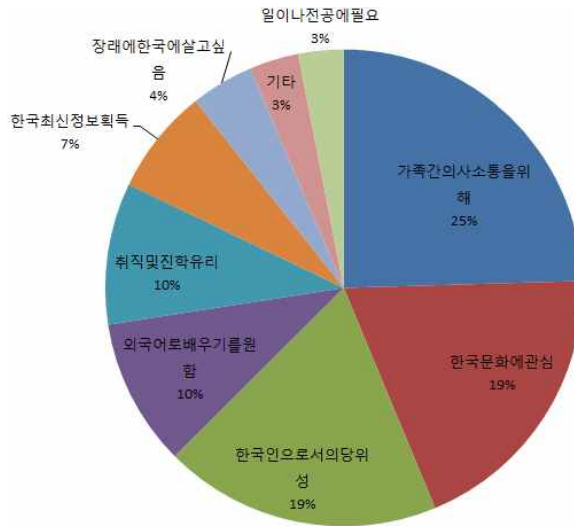
<그림 176> 한국어 학습 의향 연령별 분석

2.10 한국어 학습 희망 이유

이 분석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유를 응답한 항목과 큰 차이가 없다.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이유는 중복 응답으로 처리하였고 그 이유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가족 간 의사소통을 위해서 배우겠다는 이유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인 것이 나타났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기를 원하는 경우나 취직 및 진학에 유리하다는 이유가 약 10%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일이나 전공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낮았다.

<표 244> 한국어 학습 희망 이유 분석

한국어 학습 희망 이유	빈도	퍼센트
취직및진학유리	72	9.60
한국최신정보획득	54	7.20
일이나전공에필요	23	3.10
한국문화에관심	144	19.20
외국어로배우기를원함	75	10.00
장래에한국에살고싶음	32	4.30
가족간의사소통을위해	184	24.50
한국인으로서의당위성	141	18.80
기타	25	3.30
합계	75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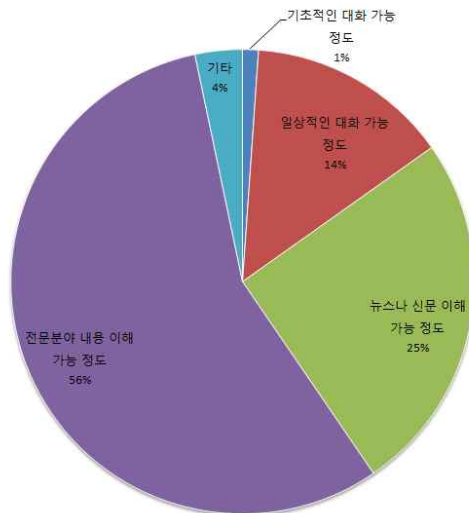
<그림 177> 한국어 학습 희망 이유 분석

2.11 한국어 학습 희망 성취 수준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수준까지 물어봤을 때 이들의 반 이상은 전문분야까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원했고,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을 선택한 경우는 드물었다.

<표 245> 한국어 학습 희망 성취 수준 분석

한국어 학습 희망 성취 수준	빈도	퍼센트
기초적인 대화 가능 정도	3	1.10
일상적인 대화 가능 정도	39	14.10
뉴스나 신문 이해 가능 정도	70	25.30
전문분야 내용 이해 가능 정도	156	56.30
기타	9	3.30
합계	277	100



<그림 178> 한국어 학습 희망 성취 수준 분석

제6장 재미 동포의 한국어 변이 형태 자료의 구축

본 장에서는 재미 동포의 언어적 변이 형태를 나름의 분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변이 형태란, 재미 동포가 한국어로 말할 때 사용되는 어휘나 표현 중에서 현대 한국어의 표준어와 구별되는 언어 자료를 지칭한다. 변이 형태의 수집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삼았는데, 첫째로는 구어 형태를 수집하기 위하여 재미 동포를 심층 인터뷰하여 해당 자료를 전사하였다. 둘째로는 문어 형태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지 한인 사회의 신문 등 매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 자료에서 한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들을 추출하여 성격에 따라 귀납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여기에는 접사 등의 어휘 이하 단위부터 어휘적, 통사적 단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나 짧은 문장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이 형태 자료가 포함되었다.

이들 변이 형태는 그 발생 배경에 따라 구분하였고, 또한 해당 형태가 인터뷰에서 발견되었는지 매체 자료에서 발견되었는지를 구분하여 그 출처에 따라 크게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본고는 재미 동포의 언어적 변이 형태는 그 발생 배경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재미 동포 집단이 이주민으로서 모국과 시공간적으로 비교적 단절되어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특성상 한국에서의 언어적 개신의 영향을 받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개신형 대신에 살아남아 있는 이전 용어 또는 비개신형이 있다. 여기에는 인터뷰에 참가한 화자가 한국에서부터 사용하던 지역 방언형 역시 포함시켰다.

둘째, 현지의 지배적 언어인 영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기에는 한국어 사용 맥락에서 영어가 단어나 구, 때로는 절 단위로 삽입되어 사용되는 것과 단어 이하의 단위로 한국어의 파생접사와 함께 사용되어 혼종어를 이루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그 형태를 중시하여 외국어(영어)와 혼종어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한국어 구사력이 퇴화되거나 아직 완전히 학습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중간언어 형태가 있다. 이 때 ‘중간언어’라는 용어는 언어교육학 분야에서 흔히 학습자 언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의 중간언어가 아니라 현대 한국어의 표준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벗어난 비규범적인 언어

형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인터뷰에 참가한 재미 동포가 한국어를 목표어로 설정한 한국어 학습자 집단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1. 비개신형

재미 동포의 언어 변이 형태 중 일부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사라졌거나 최소한 널리 사용되는 언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언어가 재미 동포 사회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 준다. 이길재(2000)에서는 공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언어 변이의 유형을 시간적 차원에서 구분하면서, 그 중 하나로서 ‘언어 개신이 언어 변화에 반영되지 않고 이전 시기의 공식적인 변이 상태로 잔존하고 있는 변이’를 설정하였는데, 이 범주에 속하는 변이 형태가 바로 이러한 종류의 변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변이 형태를 개신형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비개신형’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이 범주에는 또 이주자가 이주 이전에 사용하던 언어 형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속 방언 역시 포함되었다.

이러한 비개신형 및 방언 범주에 속하는 변이 형태는 인터뷰 자료에서만 86개가 발견되었으며 매체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매체 언어의 생산자 집단 스스로가 구형 및 방언 언어를 글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 일종의 자기 검열을 거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인터뷰 자료에 나타난 비개신형 및 방언 변이 형태의 총빈도(token)는 117로, 그 목록 및 빈도는 아래와 같다.

<표 246> 인터뷰 자료에 나타난 비개신형 및 방언 변이 형태

변이 형태 (원어)	빈도	변이 형태 (원어)	빈도
가생이 (가장자리)	2	식모 (파출부)	1
가첩다 (가깝다)	1	쌀민 (국수)	1
간호원 (간호사)	2	쏘련어 (러시아어)	1
감투 (직위)	1	쓰레빠 (슬리퍼)	1
갑작시리 (갑자기)	1	아랑대로 (마음대로)	1
거마비 (교통비)	1	애리 (칼라)	1
거진 (거의)	1	양반 (아버지)	1
고국어 (조국어)	1	여궁 (여궁)	1
과히 (심하게)	1	여급 (집대부)	1
국민학교 (초등학교)	9	열독하다 (열독하다)	1

군대를 다 나오다 (제대하다)	1	영다 (녕다)	2
군속 (군무원)	1	외상 공부 (학자금 대출)	1
꼬바리 (꼴찌)	1	우나기 (장어)	1
꽁지 (꼴찌)	1	우정국 (우체국)	1
끈 (연줄)	1	원호병원 (보훈병원)	1
-ㄴ고 (의문중결어미)	5	월남 (베트남)	1
대하다 (비교하다)	2	이발관 (이발소)	1
두이 (둘)	1	인민 (국민)	1
땀때기 (땀띠)	1	일경 (일본 경찰)	1
때보짱 (똥똥한 사람)	1	자죽 (자국)	1
뚜껑 머리 (바가지 머리)	1	작달만하다 (작다)	1
맹글다 (만들다)	1	저분 (젓가락)	1
몬고니 (뒤편거니)	1	전 (센트)	4
무사분주 (무사분주)	1	전연 (전혀)	1
민짜 (민짜)	1	제 (때)	2
바구리 (시장바구니)	1	제의 (협정)	1
변소 (화장실)	2	졸업 말다 (졸업하다)	2
병산제 (거리 비례 요금제)	1	종살이 (종살이)	1
복덕방 (부동산 중개소)	3	지압집 (마사지샵)	1
봉급 (보수)	2	질 들이다 (버릇 들이다)	1
-분지 (삼분지 일)	1	짱구 (바보)	1
불란서 (프랑스)	1	짱꼴라 (중국인)	1
비행장 (공항)	2	찬모 (찬모)	1
비행장에서 떨어지다 (비행기에서 내리다)	1	챙기다 (차리다)	1
사분하다 (사분의 일로 나누다)	1	치우다 (그만두다)	1
상고머리 (상고머리)	1	탁구다이 (탁구대)	1
서독 (서독)	1	태어나다 (타고나다)	1
서이 (셋)	1	테레비 (텔레비전)	6
설브다 (어설프다)	1	하꼬방 (쪽방)	1
소학교 (초등학교)	1	한목을 보다 (크게 잘되다)	1
순경 (경찰)	1	허줄하다 (허름하다)	1
순사 (경찰)	1	혀 밑에 땀이 나다 (많이 힘들다)	1
식구 (친척)	1	흡 (흡)	1

방언의 경우, 인터뷰 참가자들이 발화한 토속 방언 중에서 표준어와 음운 및 발음상의 차이만을 가지는 것들은 배제하고 어휘적 방언만을 수록하였다. 예컨대 ‘가생이(가장자리)’, ‘가첩다(가깝다)’, ‘땀때기(땀띠)’, ‘맹글다(만들다)’, ‘영다(녕다)’, ‘저분(젓가락)’ 등이 여기에 속한다.⁵²⁾

52) 이들 지역 방언은 한국인 방언 화자들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미 동포만의 변이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어휘의 경우 비개신형과 방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만일 해당 어휘가 해당 지역의 방언 화자들 가운데 거의 그 쓰임을 잃어가는 단어라면 재미 동포 사회에서만 여전히 살아남아 쓰이는 것으로 볼 여지도

개신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비개신형의 경우, ‘화장실’을 나타내는 ‘변소’, ‘국수’를 나타내는 ‘쌀민’, ‘연줄’을 나타내는 ‘끈’, ‘공항’을 나타내는 ‘비행장’, ‘아버지’를 나타내는 ‘양반’, 또는 ‘학자금 대출’을 의미하는 ‘외상 공부’, ‘프랑스’를 나타내는 ‘불란서’ 등의 단어와 같이 현재는 해당 단어와 동일한 지시대상(references)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개신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순경’이나 ‘제의’, ‘챙기다’, ‘태어나다’처럼 현재에도 해당 단어가 쓰이지만 그 의미가 달라진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순경’은 현재는 경찰 공무원 계급 중 하나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재미 동포들은 ‘경찰’을 일반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용하였다. ‘태어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모태로부터 세상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재미 동포 인터뷰 참가자는 ‘개는 그쪽으로는 아주 태어났어.’처럼 ‘타고 나다’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 목록에는 현재는 새로운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는 지시물을 갖는 ‘전 용어’ 역시 포함되었다. ‘간호원(간호사)’, ‘국민학교(초등학교)’, ‘소학교(초등학교)’, ‘군속(군무원)’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변이 형태는 정책에 따라 인위적으로 변화된 개신형이 한국 사회에서는 잘 정착되어 사용됨에 따라 거의 사라져 가는 것인데 이러한 언어적 개신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재미 동포 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아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한국에서는 그 사용이 현저히 줄어든 일부 단위 명사가 관찰되기도 하였는데 ‘전’이나 ‘홉’이 이에 속한다. 특히 ‘전’의 경우 본래의 한국 화폐 단위 중 하나를 나타내던 의미에서 의미 변화가 발생하여 미국 화폐 단위 중 하나인 ‘cent’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었다.

한편, 비개신형 변이 형태 중에는 ‘애리(칼라)’, ‘쓰레빠(슬리퍼)’, ‘테레비(텔레비전)’ 등과 같은 일본식 외래어 역시 포함되었다. 이들은 영어 단어에 그 기원을 두지만 그 원어가 이미 국어사전에 외래어로 등재되어 있을 만큼 한국어 체계에 잘 편입되어 있기에 외국어 범주로 묶기 어려우며, 주로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령 세대에서 그 쓰임이 활발하였으나 현재 젊은 층

있으므로 일단 수록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본 목록에 포함된 방언 형태들이 해당 방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으로 올수록 원어인 외래어 자체로 대체되어 쓰인다는 점을 중시하여 구형에 포함시켰다.

또한 단어 이하의 단위도 두 건 관찰되었는데 하나는 한자어 수사 뒤에 붙어서 ‘몇 뿔으로 나눈 가운데’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분지’였고 다른 하나는 주로 예스러운 표현을 만들며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인 ‘-ㄴ고’였다.

이상 소개한 비개신형 및 방언 변이 형태 중 최고 빈도를 보인 단어는 ‘초등학교’의 전 용어인 ‘국민학교’로 9건이 관찰되었다. 그밖에 3이상의 빈도를 보인 단어의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47> 비개신형 및 방언 변이 형태 중 고빈도어

변이 형태 (원어)	빈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9
테레비 (텔레비전)	6
-ㄴ고 (의문종결어미)	5
전 (센트)	4
복덕방 (부동산 중개소)	3

2. 혼종어

혼종어는 인터뷰에서 264개, 매체 자료에서 14개의 유형(type)이 출현하여 모두 278개의 유형이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여러 번 출현한 변이 형태가 있어 전체 빈도수(token)로는 도합 329개의 혼종어 변이 형태가 있었다. 이 때의 출현 빈도는 인터뷰 자료의 경우 몇 명의 인터뷰 참가자가 해당 변이 형태를 발화했는지를 표시한 것으로, 만일 한 명의 인터뷰 참가자가 해당 변이 형태를 여러 번 발화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복해서 계산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변이 형태가 인터뷰 참가자 개개인의 언어 습관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빈도 정보를 해당 변이 형태의 목록에 함께 제시하였다.

혼종어 변이 형태를 출처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48> 인터뷰 자료에 나타난 혼종어 변이 형태 목록

변이 형태 (의미)	빈도	변이 형태 (의미)	빈도
갯얼롱하다 (어울리다)	1	에로점 (어려운 점)	2

기브업하다 (포기하다)	1	엑스첸지하다 (교대하다)	1
기어업하다 (기어를 올리다)	1	오 애비뉴 (5번가)	1
널버스하다 (초조하다)	1	오너권 (소유권)	1
노멤버월 (11월)	1	오더하다 (주문하다)	2
노하다 (거절하다)	1	오터레이션하다 (변경하다)	1
다운되다 (침체되다)	1	오퍼레이션하다 (운영하다)	1
다운시키다 (할인하다)	1	오픈되다 (쉬다)	1
다운하다 (선지급하다)	3	오픈되다 (열리다)	1
데이투데이 옷 (일상복)	1	오픈하다 (개업하다)	5
델리 가게 (여러 음식을 파는 식당)	1	오픈하다 (개장하다)	1
드라이버하다 (운전하다)	1	오픈하다 (열다)	2
드라이하다 (건조하다)	1	온하다 (소유하다)	1
드롭시키다 (떨어뜨리다)	1	올드하다 (낡았다)	1
디바이드하다 (나누다)	1	왕팬 (왕팬)	1
디벨롭하다 (개발하다)	1	월 페이 (월급)	1
디스크라이브하다 (설명하다)	1	워크하다 (약하다)	1
디씨션을 만들다 (결정을 하다)	1	유스트되다 (적응하다)	1
디자인하다 (디자인하다)	1	유즈드가 되다 (익숙해지다)	1
디퍼하다 (디퍼해 줄게)	1	이머진씨 차 (응급차/구급차)	1
디프레스드하다 (우울하다)	1	인라지하다 (확대하다)	1
라운드하다 (반올림하다)	1	인바이트하다 (초대하다)	1
라이트하다 (가볍다)	1	인볼브되다 (연루되다)	1
라이팅하다 (글을 쓰다)	1	인볼브되다 (참여하다)	1
럭키다 (운이 좋다)	1	인볼브시키다 (참여시키다)	1
런칭하다 (개업하다)	1	인볼브하다 (참여하다)	1
레커맨하다 (추천하다)	1	인터내셔널 공항 (국제 공항)	1
렉처하다 (강의를 하다)	1	인터네셔널 되다 (국제화되다)	1
렌트비 (임대료)	2	인터레스팅하다 (흥미롭다)	1
로컬 사회 (지역 사회)	1	인터프리션하다 (해석하다)	1
론하다 (대출하다)	1	인텐시브로 (집중적으로)	1
롱런으로 (장기적으로)	1	인텐시브하다 (집중적이다)	1
롱런하다 (오래가다)	1	장기 롱 플랜 (장기 계획)	1
롱타임으로 (오랜 시간 동안)	1	전문 잡 (전문 직업)	1
루드하다 (무례하다)	1	조인하다 (합류하다)	1
루즈하다 (느슨해지다)	1	짜브가 되다 (취직하다)	1
루즈하다 (손해보다)	1	차지하다 (청구하다)	3
루턴하다 (반복되다)	1	챌린지하다 (도전이 되다)	1
룩다운하다 (경멸하다, 무시하다)	1	체크업하다 (검사하다)	2
리딩하다 (판독하다)	1	츄라이하다 (먹어 보다)	1
리스닝하다 (듣다)	1	츄라이하다 (시도하다)	1
리스트릭트되다 (제한되다)	1	카바하다 (걸쳐 있다)	1
리커버하다 (회복하다)	1	카바하다 (할 수 있다)	1
리코딩하다 (녹음하다)	1	카피하다 (모방하다)	1
리콰이어드이다 (필수이다)	1	카피하다 (복사하다)	1
리퀘스트하다 (권하다)	1	칼라링하다 (색칠하다)	1

리타이어하다 (은퇴하다)	10	캔슬하다 (취소하다)	1
리턴하다 (돌아오다)	1	컨트롤되다 (조절되다)	1
리퍼하다 (언급하다)	1	컨트롤하다 (통제하다)	1
리퓨즈하다 (거절하다)	1	컨트리뷰션하다 (공헌하다)	1
리플라이하다 (답변하다)	1	컨퓨즈되다 (헷갈리다)	1
리퍼트하다 (반복하다)	2	컨퓨즈하다 (헷갈리다)	1
릴렉스하다 (쉬다)	1	컨피던트를 빌드하다 (자신감을 쌓다)	1
마이너스되다 (적자가 나다)	1	컴바인하다 (병행하다)	1
매니지하다 (관리하다)	1	컴포터블하다 (편하다)	1
매인티넌스비 (관리비)	1	컴퓨터라이즈되다 (전산화되다)	1
메니팩처하다 (제조하다)	1	컴플레인하다 (불평하다)	2
메이비하다 (추측하다)	1	컴피트하다 (경쟁하다)	1
메이크 센스다 (말이 되다)	1	케어하다 (보살피다)	2
메이크업하다 (만화하다)	1	케얼하다 (돌보다)	1
모더니이즈되다 (현대화되다)	1	코디넷하다 (편성하다)	1
무브하다 (이사하다)	1	코렉트하다 (수정하다)	1
믹스되다 (섞이다)	1	코리안이다 (한국인이다)	1
바덜하다 (괴롭히다)	1	코멘트하다 (이야기하다)	1
바이링구얼하다 (이중언어를 구사하다)	1	콜로니하다 (식민 지배하다)	1
버라이어티하다 (다양하다)	1	쿡하다 (요리하다)	3
번하다 (타다)	1	크레딧되다 (신용이 쌓이다)	1
베이식하다 (기본적이다)	1	크레이지하다 (미치다)	1
베이크하다 (굽다)	1	크로스하다 (긋다)	1
본하다 (태어나다)	2	클래스를 테이크하다 (수강하다)	1
브러하다 (수프하다)	1	클로즈되다 (문 닫다)	1
브레이크하다 (타트하다)	1	타이트해지다 (줄어들다)	1
비디오 컨퍼런싱하다 (화상 회의하다)	1	타프하다 (어렵다)	1
비즈니스를 열다 (사업을 시작하다)	1	택케얼하다 (보살피다)	1
비즈니스하다 (영업하다)	1	터치하다 (간접하다)	1
비짓하다 (방문하다)	1	턴오버하다 (뒤집다)	1
빌드하다 (짓다)	1	테이케어하다 (돌보다)	2
새리스파잉하다 (만족하다)	1	테이크아웃 집 (음식을 포장해서 파는 식당)	1
샐러리 직업 (급여를 받는 직업)	1	토스하다 (넘겨주다)	1
샷받다 (충격받다)	2	트랜스퍼하다 (넘기다)	1
서바이브하다 (살아남다)	1	트랜스퍼하다 (바꾸다)	1
서치하다 (찾다)	1	트랜스퍼하다 (전학하다)	1
서포트하다 (지원하다)	4	트랜스퍼하다 (환승하다)	1
셀브하다 (제공하다)	1	트렌디하다 (유행에 민감하다)	1
세이브하다 (남겨두다)	1	티칭하다 (가르치다)	1
세이브하다 (저축하다)	1	티켓 값 (교통위반벌금)	1
세이프하다 (안전하다)	1	티피컬하다 (전형적이다)	1

세일즈 분야 (영업 분야)	1	팁제 (팁을 받는 제도)	1
셋업되다 (정해지다)	1	파킹 비용 (주차 비용)	1
소셜하다 (어울리다)	1	파킹비 (주차비)	1
소프레스하다 (놀라다)	1	파킹장 (주차장)	1
쇼킹하다 (충격받다)	1	파퐁러하다 (인기있다)	2
수하다 (고소하다)	1	패스되다 (통과되다)	1
셀로우하다 (얕다)	1	패스하다 (합격하다)	1
스마트하다 (똑똑하다)	1	퍼블리쉬하다 (출판하다)	1
스카우트하다 (스카우트하다)	1	펼쩍하다 (완벽하다)	4
스킵하다 (건너뛰다)	1	페이 텐션하다 (집중하다)	1
스탑되다 (중단되다)	1	페이하다 (지불하다)	1
스탑하다 (멈추다)	2	포털하다 (일반적이다)	1
스테이하다 (고정적이다)	1	포커스로 (위주로)	1
스테이하다 (머물다)	1	포커스하다 (집중하다)	1
스트러글하다 (힘들어하다)	1	푸시하다 (강요하다)	2
스트레스풀하다 (스트레스가 많다)	1	폴 장학금 (전액 장학금)	1
스트레칭하다 (스트레칭하다)	1	폴장 (수영장)	4
스티플레이트 브레인 하다 (뇌를 자극하다)	1	프라우드하다 (자랑스럽다)	2
스페셜라이즈되다 (특화되다)	1	프랙티스하다 (연습하다)	1
슬로우하다 (느리다)	1	프런틀리하다 (유창하다)	1
시리어스하다 (심각하다)	2	프레스하다 (다림질하다)	1
실리하다 (어리석다)	1	프로바이드하다 (제공하다)	1
심플하다 (간단하다)	1	프로페셔널하다 (전문적이다)	1
싱글하다 (바느질하다)	1	프리로 (공짜로)	2
아답트되다 (적응하다)	1	프리저브되다 (보전되다)	1
아이디어 쓰다 (생각하다)	1	플랜하다 (계획을 짜다)	1
아카데미하다 (학구적이다)	1	플레인하다 (답백하다)	1
아클라메이트되다 (순응하다)	1	플렉시블하다 (유연하다)	1
액티브하다 (활동적이다)	1	플로우하다 (유동성있다)	1
액팅하다 (연기하다)	1	피니시하다 (끝내다)	1
야채 그로서리 (야채 가게)	1	피스풀하다 (평화롭다)	1
어드미션하다 (도와주다)	1	픽업하다 (데려가다)	2
어베일러블하다 (가능하다)	1	픽업하다 (데리러 오다)	1
어저스트하다 (적용하다)	1	픽업하다 (선발하다)	2
어태치되다 (정기 들다)	1	픽업하다 (익히다)	1
어프하다 (할인하다)	1	하이로 (높게)	1
어플라이하다 (지원하다)	2	하이어하다 (고용하다)	1
언더스탠드하다 (이해하다)	1	하이얼하다 (고용하다)	1
언더스탠드되다 (이해되다)	1	한타 (한인타운)	1
언클로지하다 (막지 않다)	1	햇하다 (맵다, 뜨겁다)	1
업되다 (기분이 좋아지다)	1	헨셈하다 (잘생기다)	1
업투 육십오 프로 (65%까지)	1	헬프하다 (도와주다)	1
에듀케이트하다 (교육시키다)	1	홀세일하다 (도매하다)	1

에드하다 (더하다)	1	후리덤하다 (자유롭다)	1
에로 사항 (어려운 점)	1	히스토리하다 (인생 경험을 얘기하다)	1

<표 249> 매체 자료에 나타난 혼종어 변이 형태 목록

변이 형태 (의미)	빈도	변이 형태 (의미)	빈도
대세일 (큰 할인 행사)	2	연 인컴 (연소득)	1
반찬 헬퍼 (반찬 도우미)	1	정크 차 (고장난 차)	2
벤딩하다 (판매하다)	1	주방 쿡 (요리사)	1
벤딩하다 (팔다)	1	준매카닉 (준정비공)	1
북키퍼하다 (부기하다)	1	커팅사 (재단사)	1
싱거사 (재봉사)	1	킨더 과정 (어린이 과정)	1
언락되다 (잠긴 것이 풀리다)	1	파킹장 (주차장)	2

이러한 혼종어 변이 형태는 그 특징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가장 흔한 유형은 영어 단어에 용언 파생 접사를 붙여 만든 형태이다. 용언 파생 접사로 가장 흔하게는 ‘-하다’가 사용되었는데 이 때 어간 부분에는 영어의 동사나 형용사 뿐 아니라 ‘메이비하다’의 ‘메이비(maybe)’, ‘업되다’의 ‘업(up)’, ‘택케일하다’의 ‘택케일(take care)’ 등과 같이 다양한 품사, 다양한 단위의 영어 표현이 등장하였다. 그밖에 피동이나 사동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되다’나 ‘-시키다’ 등도 사용되었다. 또한 ‘럭키다’, ‘메이크 센스다’처럼 명사가 아닌 영어 표현에 ‘이다’를 붙여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흔한 혼종어 변이 형태는 한국어와 영어 요소가 혼합되어 이루어진 파생 명사나 명사구이다. ‘노뽀머 월’, ‘장기 룡 플랜’처럼 같은 의미를 가진 한국어와 영어 단어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특정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영어 표현과 한국어 표현을 병치한 경우도 있었다. 후자 가운데서 ‘데이 투데이 옷’, ‘텔리 가게’, ‘티켓 값’, ‘반찬 헬퍼’, ‘연 인컴’, ‘정크 차’, ‘킨더 과정’, ‘야채 그로서리’ 등은 특정 한국어 명사가 영어 표현의 앞이나 뒤에 붙어 명사구를 이룬 경우이다. 또한 ‘렌트비’, ‘메인티넌스비’, ‘팁제’, ‘대세일’, ‘싱거사’, ‘커팅사’, ‘준매카닉’, ‘파킹장’ 등은 특정 한국어 접사가 영어 표현에 결합되어 마치 파생어처럼 사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파생 명사나 명사구 구성은 특히 인터뷰 자료보다는 매체 자료에서 많이 발견되었는데, 매체 자료에 등장한 15개의 혼종어 변이 형태 유형 중 11개가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밖에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여 ‘혼종-연어’ 구성을 이룬 형태도 발견되었다. 이들 연어 구성 표현은 주로 영어식 연어 구성 방식을 따르되 그 중 일부

를 직역한 한국어 어휘를 영어 어휘 대신에 사용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를 열다’, ‘디씨션을 만들다’와 같은 식이다. ‘클래스를 테이크하다’나 ‘컨퍼던트를 빌드하다’처럼 영어식 연어 구성에 조사나 용언과 생접사만을 붙여 사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한층 더 나아가 ‘스티물레잇 브레인 하다’와 같이 어순마저 영어식을 따른 것에 단지 ‘-하다’만을 붙인 경우도 있었다.

그밖에 특이한 유형으로는 ‘업투 육십오 프로’, ‘오 애비뉴’처럼 숫자 표현만을 한국어로 말한 것과 ‘한인 타운’이라는 혼종어를 다시 한국식 두자어로 바꾸어 ‘한타’라고 말한 것 등이 발견되었다.

혼종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 것은 ‘리타이어하다(은퇴하다)’로 모두 10회 사용되었다. ‘오픈하다’의 경우 ‘개업하다’의 의미로 쓰인 빈도가 높았다. 그밖에 빈도 3 이상을 보이는 혼종어 변이 형태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250> 혼종어 변이 형태 중 고빈도어

변이 형태 (의미)	빈도
리타이어하다 (은퇴하다)	10
오픈하다 (개업하다)	5
필팩하다 (완벽하다)	4
풀장 (수영장)	4
서포트하다 (지원하다)	4
다운하다 (선지급하다)	3
파킹장 (주차장)	3
쿡하다 (요리하다)	3
차지하다 (청구하다)	3

3. 외국어

외국어는 재미 동포의 언어 자료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관찰된 변이 형태이다. 이는 미국에서 살면서 현지의 지배 언어인 영어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재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반영하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 변이 형태는 영어 단어나 구, 때로는 소절에 이르는 단위가 그 자체로 차용되어 사용되는 경우와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에 따라 변형된 채로 사용되는 경우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원형 외국어’, 후자를 ‘변형 외국어’로 지칭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3.1 원형 외국어

외국어는 인터뷰에서 855개, 매체 자료에서 123개의 유형(type)이 출현하였으며 출처 구분 없이 하면 모두 958개의 유형이 조사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⁵³⁾ 여러 번 출현한 변이 형태가 있어 전체 빈도수(token)로는 도합 1,177개의 외국어 변이 형태가 출현하였다. 빈도 정보를 함께 제시한 외국어 변이 형태의 목록을 출처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51> 인터뷰 자료에 나타난 외국어 변이 형태 목록

변이 형태 (원어)	빈도	변이 형태 (원어)	빈도
가드너 (gardener)	1	어쿠스틱 퍼포먼스 (acoustic performance)	1
갬블 (gamble)	1	어포인먼트 (appointment)	1
걸 프렌드 (girl friend)	1	어프라이 (apply)	1
게스 스테이션 (gas station)	1	어프레절 (appraisal)	1
골든 라인 (golden line)	1	어플라이 (apply)	1
골핑 (golfing)	1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1
그라지 (garage)	1	언더그래주에일 (undergraduate)	1
그라지 세일 (garage sale)	1	언더스틴 (understand)	1
그래듀에이트 프로그램 (graduate program)	1	언리미티드 (unlimited)	1
그레이브야드 시프트 (graveyard shift)	1	언클 (uncle)	1
그로서리 (grocery)	3	언페일 (unfair)	1
그로서리 마켓 (grocery market)	2	업앤다운 (up-and-down)	1
그로서리 스토어 (grocery store)	1	업투 (upto)	1
그린 빈 (green been)	1	에그잼플 (example)	1
그릴 (grill)	1	에그짓 (exit)	1
글로벌 (global)	1	에디팅 (editing)	1
기프트 (gift)	1	에미션 (emission)	1
기프트 스토어 (gift store)	1	에버리지 (average)	1
기프트샵 (gift shop)	1	에브리 (every)	1
길티 (guilty)	1	에브리 위크 (every week)	1
나이스 (nice)	1	에브리데이 (everyday)	1
낫 베드 (Not bad)	1	에브리띵 (everything)	1
내쇼날 가드 (national guard)	1	에브리웍 (every week)	1
넌트리디셔널 스튜던트 (non-traditional student)	1	에브리지 사이즈 (average size)	1

53) 출처별 변이 형태 유형의 합계보다 전체 변이 형태 유형의 수가 작은 이유는 일부 변이 형태가 인터뷰 자료와 매체 자료 양쪽 모두에서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넬스 (nurse)	2	에어 (air)	1
넬싱 홈 (nursing home)	1	에어리어 (area)	2
네셔널 (national)	1	에어포트 (airport)	1
네이버 (neighbor)	1	에이드 (aid)	1
네이비 (navy)	1	에이비씨 (A.B.C.)	1
네이션와이드 (nationwide)	1	에이션 (Asian)	1
네이티브 스피커 (native speaker)	1	에이션 어메리칸 스터디즈 (Asian American studies)	1
네이티브 코리안 (native Korean)	1	에이션 어메리칸 히스토리 (Asian American History)	1
네임 (name)	2	에이전트 (agent)	2
넥스트 먼스 (next month)	1	에듀케이션 (education)	1
넥스트 이어 (next year)	1	에틱스 커미티 (ethics committee)	1
노멀 티피컬 (normal typical)	1	엑스트라 (extra)	2
노블 (novel)	1	엑스트라 차지 (extra charge)	1
노스 코리아 (North Korea)	1	엑티비티 (activity)	1
노프라블럼 (no problem)	1	엔롤먼트 (enrollment)	1
놀스 (north)	1	엘리멘터리스쿨 (elementary school)	1
놀스웨스트 (northwest)	1	엘보 페인 (elbow pain)	1
누들 (noodle)	1	엣 리스트 (at least)	1
누들 스타일 (noodle style)	1	예스 노 (Yes no)	1
뉴 스타일 (new style)	1	오거나이즈 (organize)	1
뉴 이털 (new year)	1	오겐자 (organza)	1
뉴 크랍 (new crop)	1	오션 (ocean)	1
니 페인 (knee pain)	1	오케이 (OK)	1
다운 스테어즈 (down stairs)	1	오프 레코드 (off record)	1
다운힐 (downhill)	1	오픈하우스 (openhouse)	1
다이닝 룸 (diningroom)	4	오피스 (office)	2
다이닝 테이블 (dining table)	1	오피스 스페이스 (office space)	1
다이퍼 (diaper)	1	오피스잡 (officejob)	1
닥터 (doctor)	4	온 비즈니스 (own business)	1
닥터스 오피스 (doctor's office)	1	올개닉 (organic)	1
대디 (daddy)	1	올드 (old)	1
더블 라아지 (double large)	1	올드 스타일 (old style)	1
더블 싱크 (double sink)	1	올디스트 원 (oldest one)	1
데님 (denim)	1	올모스트 에브리이어 (almost every year)	1
데모그래픽 (demographic)	1	올인크루시브 (all inclusive)	1
데얼 (there)	1	와이프 (wife)	1
데프레스 (depress)	1	완포인트 (one point)	1
도네이션 (donation)	2	울트라사운드 (ultra-sound)	1
듀얼 랭귀지 (dual language)	1	워닝 (warning)	1
드라이 히트 (dry heat)	1	워터 (water)	1

드라이버 (driver)	1	워크샵 (workshop)	1
드랍오프 (drop-off)	2	원 데이 (one day)	1
드레스업 (dress-up)	1	원 베드룸 (one bedroom)	1
드링크 (drinking)	1	원 오브 더 코리안 (one of the Korean)	1
디그리 (degree)	1	원미터 (one meter)	1
디렉트 플라이트 (direct flight)	1	원웨이 (oneway)	1
디렉틀리 (directly)	1	워크홀릭 (workaholic)	1
디벨로퍼 (developer)	1	웰페어 (welfare)	1
디셈버 (december)	1	웨글러 (regular)	1
디스차지 (discharge)	1	웨스턴 닥터 (western doctor)	1
디스트리뷰션 (distribution)	1	웨스턴 메디슨 (western medicine)	1
디스틱 (district)	1	웨스트 코우스트 (west Coast)	1
디씨포인티드 (disappointed)	1	웨이트레이닝 (weight training)	1
디자이너 스토어 (designer store)	2	웬즈데이 (wednesday)	1
디지즈 (disease)	1	위켄드 (weekend)	3
디파트먼트 (department)	1	윈도우 (window)	1
디파트먼트 스토어 (department store)	1	윈터 (winter)	1
디펜드 온 (depend on)	1	유 (you)	1
디프런트 (different)	1	유니버시티 스칼라십 (University Scholarship)	1
딕셔너리 (dictionary)	1	유니벌스 (university)	1
딕션너리 (dictionary)	1	유닛 (unit)	1
딕테이션 (dictation)	1	유스 (youth)	1
딜리버리 (delivery)	1	유스 그룹 (youth group)	1
뎡스기빙 (Thanksgiving)	3	유즈얼 뎡 (usual thing)	1
프리 제너레이션 (three generation)	1	유즈얼 커몬 뎡즈 (usual common things)	1
피어리 (theory)	1	유즈얼리 (usually)	1
뎡 (theme)	1	이그잼 (exam)	1
라미네이트 플로어 (laminated floor)	1	이그젝틀리 (exactly)	1
라아지 (large)	1	이너미디얼 (intermediate)	1
라운드 추립 (round trip)	1	이니셜스 (initials)	1
라이드 (ride)	2	이머전트 서비스 (emergent service)	1
라이프 (life)	1	이벤츄얼리 (eventually)	1
라이프 스타일 (life style)	1	이스터데이 (Easter Day)	1
라이프 스토리 (life story)	1	이얼즈올드 (years old)	2
라이프 인슈어런스 (life insurance)	1	이에스엘 (ESL)	1
랏 (lot)	1	이에셀클래스 (ESL Class)	1
레이버 데이 (Labor Day)	2	익스케어 (excuse)	1
랜롤 (landlord)	1	익스텐디드 패밀리 (extended family)	1
랭귀지 디파트먼트 (language department)	1	익스페리언스 (experience)	1

랭귀지 컬처럴 히스토리 (language cultural history)	1	익스펜스 (expense)	1
러너 (runner)	1	익스프레스 (express)	1
러시아워 트래픽 (rush hour traffic)	1	익스피리언스 (experience)	1
라이어 (lawyer)	1	인 제너럴 (in general)	1
럭키 케이스 (lucky case)	1	인도어 (indoor)	1
런치 (lunch)	2	인라지 (enlarge)	1
런치 타임 (lunch time)	1	인베스트먼트 홈 (investment home)	1
레귤러 (regular)	2	인슈어스 (insurance)	1
레귤러 잉글리시 클래스 (regular English class)	1	인스트럭터 (instructor)	1
레귤러 프라이스 (regular price)	1	인앤아웃 (in and out)	1
레귤레이션 (regulation)	1	인저리 (injury)	1
레디얼러지 (radiology)	1	인컴 (income)	1
레털 (letter)	1	인터내셔널 마켓 (international market)	1
레시피 (recipe)	3	인터내셔널 센터 (international center)	1
레이디 (lady)	1	인터네셔널 (international)	1
레저베이션 (reservation)	1	인터네셔널 비즈니스 (international bussiness)	1
레지던시 (residency)	1	인터미디엇 (intermediate)	1
레지전서 스탱 (residence stop)	1	인턴십 (internship)	1
레프트 레그 (left leg)	1	인텐시브 케어 (intensive care)	1
렉처 (lecture)	1	인트리스트 (interest)	1
렉처 (lecture)	1	인포메이션 (information)	3
렌트 (rent)	4	일렉트로닉 (electronic)	2
로이어 (lawyer)	4	일렉트릭샐 (electrician)	1
로컬 (local)	5	일렉트릭컬 엔지니어 (electrical engineer)	1
로컬 마켓 (local market)	1	임프레션 (impression)	1
로컬 스쿨 (local school)	1	잡 (job)	8
로컬 스쿨 카운서 (local school council)	1	재페니스 레스토랑 (Japanese restrant)	1
로테이팅 (rotating)	1	제너레이션 (generation)	1
로프트 (loft)	1	죽 (joke)	1
론 (loan)	5	지브라 (zebra)	1
롤 모델 (role model)	1	짐내스틱 (gymnastic)	1
라이드 (ride)	1	차이니스 (chinese)	1
라이팅 (writing)	1	차이니즈 어메리칸 (Chinese American)	1
락 스타 (rock star)	1	차일드 (child)	1

루프 (roof)	1	차지 (charge)	1
루프탑 (rooftop)	1	챌스 (chance)	1
류케미아 (leuk(a)emia)	1	처치 (church)	1
리버럴 (liberal)	1	체크 (cheque)	1
리빙 룸 (living room)	6	첵 (check)	1
리빙룸 (living room)	1	초이스 (choice)	2
리서치 (research)	1	츄리디션 (tradition)	1
리셉셔니스트 (receptionist)	1	카테고리 (category)	1
리스닝 (listening)	1	카스툼 (custom)	1
리얼 에스테이트 (real estate)	2	카우치 (couch)	1
리절브드 (reserved)	1	카이로프락트 (Kairoppractice)	1
리절트 (result)	1	카키 (khaki)	1
리커 스토어 (liquor store)	1	카피 (copy)	1
리커 스토어 (liquor store)	1	칸츄랙 (contract)	1
리콰이어먼트 (requirement)	1	칸피덴셜 (confidential)	1
리퀘스트 (request)	1	칼라 매치 (color match)	1
리테일 스토어 (retail store)	1	칼리지 (college)	3
리테일러 (retailer)	1	칼처 (culture)	1
리프트 (lift)	1	캐러링 (catering)	1
릴레이션 (relation)	1	캐셔 (cashier)	1
릴레이션십 (relationship)	1	캐쉬 (cash)	4
릴리저스 (religious)	1	캐페테리아 (cafeteria)	1
립글로스토얼 (lip gloss store)	1	캔서 (cancer)	1
링귀스틱 (linguistic)	1	캠퍼스 (campus)	1
마더 랭귀지 (mother language)	1	갭 (gap)	1
마이너리티 (minority)	1	커넥션 (connection)	2
마인드 (mind)	2	커머셜 (commercial)	1
마일드 (mild)	1	커머셜 프로덕트 (commercial product)	1
마켓 (market)	3	커뮤니티 컬리지 (community college)	2
마크 스티커 (mark sticker)	1	커버리지 (coverage)	1
맘 (mom)	1	커스토머 (customer)	1
매니지먼 컴퍼니 (management company)	1	커즌 (cousin)	1
매니지먼트 (management)	1	컨비니어스툼 (convenience store)	1
매스컴피디션 (mass competition)	1	컨서넨 (consonant)	1
매스터 디그리 (master degree)	1	컨설브티브 (conservative)	1
매스터 베드룸 (master bedroom)	2	컨설턴시 (consultancy)	1
메이드 서비스 (maid service)	1	컨세넨트 (consonant)	1
메인티넨스 (maintenance)	1	컨센츄레이션 (consent)	1
머쉬룸 (mushroom)	1	컨스츄랙 (contract)	1
머슬 페인 (muscle pain)	1	컨트랙 (contract)	2
멀티 에티벵 (multi ethnic)	1	컨티뉴 (continue)	1
멀티 컬처 소사이어지 (multi cultural)	1	컨티뉴어스리 (continuously)	1

society)			
멀티 태스킹 (multi-tasking)	1	컨퍼런스 (conference)	1
메디슨 (medicine)	1	컬렉팅 (collecting)	1
메디칼 (medical)	1	컬리 (curly)	1
메디칼 스쿨 (medical school)	2	컬리지 (college)	1
메모아 (memoir)	1	컬처 (culture)	5
메스터 프로그램 (master program)	1	컴파니 (company)	1
메이비 (maybe)	4	컴포트 (comfort)	1
메이저 (major)	3	컴퓨터 엔지니어 (computer engineer)	1
메인 (main)	2	컴플레인 (complaint)	1
메인 리즌 (main reason)	1	컴플리케이션 (complication)	1
메인 코스 (main course)	1	케미컬 (chemical)	1
메케닉 (mechanic)	1	케어폴리 (carefully)	1
메타볼리즘 (metabolism)	1	케이블 (cable)	1
메티컬 터미널리지 (medical terminology)	1	코리안 어메리칸 (Korean American)	1
멕시코 (Mexican)	1	코리안-어메리칸 파운데이션 (Korean American Foundation)	1
멕시코 푸드 (Mexican food)	1	코리안푸드 (Korean food)	1
멘토 (mentor)	1	코센 (consent)	1
멤버십 (membership)	1	콜 (call)	1
모던 스타일 (modern style)	1	콜드 (cold)	1
모멘텀 (momentum)	1	콜로니 (colony)	1
몰 (mall)	2	쿡 (cook)	4
몰게지 (mortgage)	1	퀄리티 (quality)	1
무비 (movie)	1	크라스 (class)	1
무비 씨어터 (movie theater)	1	크랙 (crack)	1
뮤지엄 (museum)	1	크레디빌리티 (credibility)	1
뮤지움 (museum)	1	크레딧 (credit)	4
뮤직 (music)	1	크루세이더 (crusader)	1
미니멈 웨이지 (minimum wage)	2	크리스 슬립 (crease slip)	1
미닝 (meaning)	1	크리스찬 (christian)	1
미들 (middle)	1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creative writing)	1
미들 웨스트 (Middel West)	1	클라젯 (closet)	2
미디움 (medium)	1	클래스 (class)	3
미션 트립 (mission trip)	1	클래스메이트 (classmate)	2
미스테인크 (mistake)	1	클럭 (clerk)	1
미트 (meat)	1	클리어런스 섹션 (clearance section)	1
밀리터리 (military)	1	키친 (kitchen)	6
밀리터리 닥터 (military doctor)	1	키패드 (keypad)	1
바버샵 (barbershop)	1	킨더가든 (kindergarten)	1

바쓰룸 (bathroom)	1	킵 (keep)	1
바울 (vowel)	2	타겟 (target)	1
바이링글 클래스 (bilingual class)	1	타운 (town)	2
바이링구얼 (bilingual)	4	타운하우스 (town house)	1
바이블 스터디 (bible study)	1	타임 카드 (time card)	1
바이블 클래스 (Bible class)	1	타이트니스 (tightness)	1
바이오에틱 (bioethics)	1	탑 (top)	3
발런티어 (volunteer)	2	탑 버블 (top bubble)	1
밥 (B.O.B.)	1	탑 파이프 (top five)	1
배러 닥터 (better doctor)	1	택세이션 (taxation)	1
배쓰룸 (bathroom)	1	텍스 (tax)	2
백 페인 (back pain)	1	터미놀로지 (terminology)	1
백야드 (backyard)	1	텀 (term)	1
백허그 (backhug)	1	테넌트 (tenant)	1
밸리 (valley)	1	테너 (tenure)	1
버건디 (burgundy)	1	테라피 (therapy)	1
버블 (bubble)	1	테리블리 (terribly)	1
버스스탑 (bus stop)	1	테크날리지 (technology)	2
버짓 (budget)	3	테크니션 (technician)	1
버케블러리 (vocabulary)	1	테크니컬 (technical)	1
벗 (but)	1	텍스 (tax)	5
베드룸 (bedroom)	4	텍스타일 (textile)	1
베드룸 퍼니처 (bedroom furniture)	1	텍스트북 (textbook)	1
베리 디스턴트 렐러티브 (very distant relatives)	1	텍아웃 (takeout)	1
베리 팬시 (very fancy)	1	텐 위크 (ten weeks)	1
베이비시터 (baby sitter)	1	텐 파운드 (ten pound)	1
베이비시팅 (babysitting)	2	텐 퍼센트 (ten percent)	1
베이스먼트 (basement)	1	토틸 (total)	1
베이직 커뮤니케이션 (basic communicate)	1	투 (too)	1
베케이션 (vacation)	2	투 베드룸 투 베쓰 (two bedroom two bath)	1
베케이션 데이 (vacation day)	1	투 시메스터 (two semesters)	1
베큐엄 (vacuum)	1	투 이얼 (two years)	1
보드 (board)	1	투어리스트 (tourist)	1
보얼링 (boring)	1	투에니 썸씽 (twenty something)	1
보캐블러리 (vocabulary)	1	투웨니투 이어 (twenty-two years)	1
뷰리 서플라이 (beauty supply)	1	튜터링 (tutoring)	1
뷰리 스쿨 (beauty school)	1	트라이 (try)	1
뷰리 스프라이 (beauty spray)	1	트라이링구얼 (trilingual)	1
브랜딩 (blending)	1	트래디셔널 (traditional)	1
브랜치 (branch)	1	트래블링 (traveling)	1
브랜치 아웃 (branch out)	1	트래픽 (traffic jam)	2
브레스트 (breast)	1	트러디셔널 스튜던트 (traditional	1

브로커 라이선스 (broker license)	1	student)	1
브릭 (brick)	1	트레이드마크 (trade mark)	1
블랙 벨트 (black belt)	1	트레지디 (tragedy)	1
블로깅 (blogging)	1	트랜스레이터 (translator)	1
비기너 (beginner)	2	트랜슬레 (translate)	1
비치 (beach)	2	티칭 (teaching)	3
비코즈 (because)	1	티켓 코너 (ticket corner)	1
빈체어 (bean chair)	1	티켓 프라이스 (ticket price)	1
빌 (bill)	1	파닉 (phonic)	1
빌롱 투 (belong to)	1	파더 (father)	1
사우스 (south)	2	파이낸셜 컴패니 (financial company)	1
사이드 (siding)	1	파이낸싱 (financing)	1
사인 오브 코리안 (sign of Korean)	1	파이널 (final)	1
�opping 센터 (shopping center)	1	파이널 세일 (final sale)	1
서버번 (suburban)	1	파이어월 (firewall)	1
서버브 (suburb)	1	파킹 (parking)	2
서버번 하이 인컴 (suburban high income)	1	파킹랏 (parking lot)	1
서베이 (survey)	1	파폴리 (popular)	1
서브 (serve)	1	파크 (park)	2
서브 스페셜리티 (sub-speciality)	1	팔로우 업 (follow up)	1
서브타이틀 (subtitle)	1	팔로잉 (following)	1
서포트 (support)	1	팔마콜로지 (pharmacology)	1
설티피케이션 (certification)	1	팔머 (farmer)	1
섬타임즈 (sometimes)	1	팜 (farm)	1
세네터 (senator)	1	팝 (F.O.B (Fresh off the boat))	1
세마이 애뉴얼 세일 (semi-annual sale)	1	팟 (pot)	1
세븐데이즈 (seven days)	1	패디 (patty)	2
세일즈 (sales)	2	패럴러 파킹 (parallel parking)	1
세일즈 (sales)	1	패런 메이킹 (pattern making)	1
세컨 (second)	1	패밀리 (family)	3
세컨 랭귀지 (second language)	1	패밀리룸 (family room)	4
세컨 제너레이션 (second generation)	1	패브릭 (fabric)	1
세컨 제네레이션 (second generation)	1	패브릭 샵 (fabric shop)	1
세컨 하우스 (second house)	1	패싱 바이 (passing-by)	1
세퍼레이트 (separate)	1	패디션 (petition)	1
섹션 (section)	1	팬시 (fancy)	1
셀러폰 (cellularphone)	1	퍼니시드 콘도 (furnished condominium)	1
셀렉션 (selection)	1	퍼니처 (furniture)	1
셀폰 (cell phone)	1	퍼블릭 (public school)	1
셀프 서브 (self service)	1	퍼블릭 스쿨 (public school)	2
셀프스터디 (self-study)	1	퍼스널 데이 (personal day)	1
		퍼스트 제너레이션 (first student)	1

셰프 (chef)	1	generation)	1
소셜 네트워크 (social network)	1	퍼펙클리 (perfectly)	1
소셜 버지 (social budget)	1	필리시 (policy)	1
소시오링귀스틱스 (sociolinguistics)	1	필먼 (apartment)	1
솔트 (salt)	1	필서널 테이스 (personal taste)	1
숄더 페인 (shoulder pain)	1	필서널 퍼포스 (personal purpose)	1
숏텀 (short-term)	1	필스널 (personal)	1
수퍼바이저 (supervisor)	1	페버 (favor)	1
쉐브론 (chevron)	1	페어러레스 (Fahrenheit)	1
셸터 (shelter)	1	페이롤 (payroll)	1
쉬폰 (chiffon)	1	페이먼트 (payment)	2
		페이지 바이 페이지 (page by page)	1
스몰 비즈니스 (small business)	2	페이커 (faker)	1
스몰러 (smaller)	1	페이퍼 타월 (paper towel)	1
스вим 팀 (swim team)	1	페퍼 (pepper)	1
스칼라십 (scholarship)	2	펜스 (fence)	1
스태티스틱스 (stastics)	1	펠로우십 (fellowship)	3
스터디 리서치 (study research)	1	포 베드룸 (four bedroom)	1
스테아프 (staff)	1	포 웨이 스트레치 (four way stretch)	1
스테이션 (station)	1	포 유닛 (four unit)	1
스테이지 (stage)	1	포 이그젼플 (for example)	1
스테이크하우스 (steakhouse)	1	포린 랭귀지 파트 (foreign language part)	1
스테이터스 (status)	1	포비아 (phobia)	1
스테이트 (state)	1	포션 (portion)	1
스테잇 (state)	1	포스트오피스 (post office)	1
스토어 (store)	2	포열 (foyer)	1
스튜던트 (student)	1	포이즌 (poison)	1
스트러블턱 (stable)	1	포이즌 아이비 (poison ivy)	1
스트레이트 (straight)	1	포인리스 (pointless)	1
스트레치블 (stretchable)	1	포커스 (focus)	2
스트록 (stroke)	2	폴루션 (pollution)	1
스티프니스 (stiffness)	1	폴리스 (police)	1
스틸 (still)	1	푸드 (food)	1
스파클링 (sparkling)	1	푸드코트 (food court)	1
스패니쉬 (Spanish)	2	풀 (full)	1
스펜딩 (spending)	1	풀테이블 (full table)	1
스페셜 디자인 (special design)	1	풋볼 플레이어 (football player)	1
스페셜리스트 (specialist)	1	퓨너럴 (funeral)	1
스폰 (sponsor)	1	프라범 (problem)	1

스프링 브레이크 (spring break)	1	프라블럼 (problem)	1
슬로우 다운 (slow down)	1	프라이머리 랭귀지 (primary language)	1
시니어 (senior)	1	프라이빗 (private)	4
시리어스 (serious)	1	프라이빗 레슨 (private lesson)	1
시메스터 (semester)	1	프라이빗 스쿨 (private school)	1
시츄에이션 (situation)	2	프라이빗 튜터링 (private tutoring)	1
시티즌 (citizen)	1	프라이스 (price)	1
식데이 (sick day)	1	프라이스 레벨 (price level)	1
식스 먼스 (six months)	1	프라이어리티 (priority)	1
식스티화이브 퍼센트 오프 (65% off)	1	프라이팅 포워드 (Private forwarding)	1
심플 (simple)	1	프라퍼티 택스 (property tax)	1
싱글 스토리 (single story)	1	프롬 (prom)	1
싸틀라이트 (satellite)	1	프레셔 (pressure)	3
싸이드 디쉬 (side dishes)	1	프레지던트 카터 (President Carter)	1
싸이콜로지 (psychology)	2	프렌드 (friend)	1
사이트씨잉 (sightseeing)	1	프로나운스 (pronounce)	1
씨버 (server)	1	프로덕션즈 (productions)	1
씨벌번 (sub-urban)	1	프로젝션 (projection)	1
씨브웨이 (subway)	1	프로텍션 (protection)	1
썸데이 (sunday)	1	프로퍼티 (property)	1
썸비스 (service)	1	프로퍼티 택스 (property tax)	1
썸머 (summer)	2	프로핏 (profit)	1
썸타임즈 (sometimes)	1	프리 (free)	1
썸타이르 (subtitles)	1	프리빌리지 (privilege)	1
썸타이틀 (subtitle)	1	프리젠테이션 (presentation)	1
셀시우스 (celsius)	1	프리페어 (prepare)	1
셀프 썸 체크아웃 (self-served checkout)	1	플레인 (plan)	1
쏘 매니 디퍼런 (so many different)	1	플랜 (plan)	4
쏘링 세너 (sorting center)	1	플랫 (flat)	1
쏘사이어티 (society)	1	플레이 (play)	1
쏘셜 워크 (social work)	1	플레이데이트 (playdate)	1
쏘잉 (sewing)	1	플레이스 (place)	1
쏘포모 (sophomore)	1	플레이야드 (play yard)	1
쓰리 베드룸 (three bedroom)	1	플레이트 (plate)	1
쓰리 베드룸 아파트먼트 (three bedroom apartment)	1	플렉서빌리티 (flexibility)	1
씨니어 (senior)	1	플루언 코리아 (fluent Korean)	1
씨리얼 (cereal)	1	피겨 (figure)	1
씨씨유 (coronary care unit)	1	피쉬 (fish)	1
씨어터 (theater)	1	피앙세 (fiance)	1
씨티 홀 (city hall)	1	피에이취디 (Ph.D)	2

씨티즌십 (citizenship)	1	피지컬리 (physically)	1
씨푸드 (seafood)	2	피직스 (physics)	1
아나토미 (anatomy)	1	피크닉 (picnic)	4
아메리칸 (American)	1	피티에프 (PTF(Part-Time Flexible))	1
아미 (army)	1	픽스트 레이트 (fixed rate)	1
아웃고잉 (outgoing)	1	픽업 (pick-up)	1
아웃오브더 컨트리 (out of the country)	1	핏 (fit)	1
아웃페이션트 (outpatient)	1	하드 타임 (hard time)	2
아이 노우 (I know)	1	하비 (hobby)	1
아이 돈 리멤버 (I don't remember)	1	하우스 (house)	2
아이 씽크 (I think)	1	하우스 페이 (house-pay)	1
아이씨유 (intensive care unit)	1	하우스와이프 (housewife)	1
아이컨택 (eye contact)	1	하우스키핑 (housekeeping)	1
아일랜드 (island)	1	하이 메인테넌스 (high maintenance)	1
아큐광채 (acupuncture)	1	하이 클래스 (high class)	1
아트 뮤지엄 (art museum)	1	하이블러드 프래셔 (high blood pressure)	1
아파트먼트 (apartment)	2	하이스쿨 (high school)	3
아폴튜니티 (opportunity)	1	하이엔드 (high-end)	3
알트레이션 (alteration)	1	하이웨이 (highway)	1
애널로그 티비 (analog TV)	1	하이클래스 (high class)	1
애니웨이 (anyway)	1	하트 (heart)	1
애니타임 (anytime)	1	하트 어택 (heart attack)	1
애라빅 (Arabic)	1	하프 (half)	1
애프리칸 아메리칸 (African-Americans)	1	할러데이 (holiday)	5
애프터 스쿨 (after school)	1	할러데이 시즌 (holiday season)	1
애프털 (affer)	1	핫 (hot)	1
애피타이저 (appetizer)	1	핫소스 (hot source)	1
액 (act)	1	핸들 (handle)	1
액츄얼리 (actually)	1	햄스트링 (hamstring)	1
액티비티 (activity)	3	허즈밴드 (husband)	2
액팅 (acting)	1	헌드레드 미털 (hunderd meters)	1
앤서링 (answering)	1	헐웨이 (hallway)	1
앤설 (answer)	1	헬퍼 (helper)	1
앵글로 (anglo)	1	호스트 (host)	1
야드 (yard)	3	홀세일 (wholesale)	1
어드바이스 (advice)	1	홀웨이 (hallway)	1
어드밴티지 (advantage)	1	홈리스 (homeless)	2
어드벤스드 (advanced)	1	홈스테이 (homestay)	1
어디서널 (additional)	1	홈씩 (homesick)	1

어메리카나이즈 (americanize)	1	홈웍 (homework)	1
어메리칸 본 코리아인 (America-born Korean)	1	후레시 (fresh)	1
어새시네이션 (assasination)	1	후론트 데스크 (front desk)	1
어셈블 (assemble)	1	후리 (free)	2
어셈블리 (assembly)	1	후스탬프 (foodstamp)	1
어소시에이트 (associate)	1	휴밋 (humid)	1
어시스턴스 레프레제네티브 (assistance representative)	1	히스토리 (history)	1
어시스턴트 (assistant)	1	히스토리 테이킹 (history-taking)	1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assistant professor)	1	히어링 (hearing)	2
어카운트 (account)	1	히얼 (here)	1
어카운팅 (accounting)	4		

<표 252> 매체 자료에 출현한 외국어 변이 형태 목록

변이 형태 (원어)	빈도	변이 형태 (원어)	빈도
가라지 (garage)	2	워런티 (warranty)	2
거라지 세일 (garage sale)	1	워킹 클라젯 (walkin closet)	1
그로서리 (grocery)	1	이카 (two car)	1
그로서리텔리 (grocery deli)	1	이큘먼트 (equipment)	1
덕트 (duct)	1	인 앤 아웃 (in and out)	1
데몰레이션 (demolition)	1	인벤토리 (inventory)	1
텔리 (deli)	1	인보이스 (invoice)	1
텔리케이스 (deli case)	1	인테리어 휘니시 (interior finish)	1
드랍 오프 (drop off)	1	인펜터리 (inventory)	1
드롭 오프 (drop off)	1	임포터 (importer)	1
디시워셔 (dish washer)	1	캐시어 (cashier)	1
디유아이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1	커머셜 리스 (commercial lease)	1
딜리버리 (delivery)	1	커스텀 (custom)	1
라운드리멧 (laundromat)	1	컴퓨터 체크업 (check-up)	1
라인 오브 크레딧 (line of credit)	1	코압 (Co-Op)	2
레노베이션 (renovation)	1	코인런드리 (coin laundry)	1
렌더스페셜 (lender special)	1	콜렉션 (collection)	2
로컬 (local)	1	쿼터오픈 (quarter open)	1
루핑 (roofing)	1	크레딧 모니터링 (credit monitoring)	1
리밋 (limit)	1	크레딧카드 (credit card)	1
리스크 (risk)	1	클로징 (closing)	1
리스팅 (listing)	1	키머니 (key money)	1
리커 (liquor)	1	킨더가든 (kindergarten)	1
리커스토어 (liquor store)	1	타이밍 벨트 (timing belt)	1

마운틴 클럽 (mountain club)	1	타일 헬퍼 (tile helper)	1
메카닉 (mechanic)	1	택스 (tax)	1
머천트 (merchant)	1	테넌트 (tenant)	1
머천 (merchant)	1	테일러 (tailor)	1
메디케어 (medicare)	2	토잉 (towing)	1
메디케이드 (medicaid)	2	튠업 (tune-up)	1
모기지 (mortgage)	1	트림 (trim)	1
무빙세일 (moving sale)	1	파킹 (parking)	1
미니멈 페이 (minimum pay)	1	파킹랏 (parking lot)	1
미션홈 (mission home)	1	퍼밋 (permit)	1
배드크레딧 (bad credit)	1	페이롤 (payroll)	1
뱅크럽 (bankrupt)	1	페이먼 (payment)	2
사이딩 (siding)	2	페이먼트 (payment)	1
서버브 (suburb)	2	펜스 (pence)	1
서블릿 (sublet)	1	포클로저 (foreclosure)	1
섭디비전 (subdivision)	1	폴딩도어 (folding door)	1
셀폰 (cell phone)	2	프라펄리 (property)	1
소셜 (social ID)	1	프레서 (pressor)	1
소셜넘버 (social number)	1	프로썬싱 (processing)	1
숏 세일 (short sale)	4	프리 세일 (pre-sale)	1
쉐워룸 (shareroom)	1	프리 어프루벌 (pre-approval)	1
셸터 (shelter)	1	플러밍 (plumbing)	2
스타코 (stucco)	1	피킹 (picking)	1
스테이트먼트 (statement)	1	하이웨이 (highway)	1
스트럭처 (structure)	1	하이터치 (high-touch)	1
스페이스 렌트 (space rent)	1	핫머니 (hot money)	1
스폰서십 (sponsorship)	1	핸드맨 (handman)	1
시큐리티 디파짓 (security deposit)	1	핸디맨 (handy-man)	1
싸이딩 (siding)	1	헬퍼 (helper)	1
썬룸 (sun room)	1	호울 세일 (whole sale)	1
아카데믹 스펙 (academic spec)	1	홀세일 (wholesale)	1
어카운트 (account)	1	홈 에퀴티 (home equity)	1
어프루브드 (approved)	1	홈 인스펙션 (home inspection)	1
언더 컨트랙트 (under contract)	1	홈리스 (homeless)	1
에프터 스쿨 (after school)	1	웨이셜 마사지 (facial massage)	1
오피스 렌트 (office rent)	1	히팅 (heating)	1
워터 (water)	2	히트 (heat)	1

외국어 변이 형태는 단일 어휘에서부터 ‘아이 돈 리멤버(I don’t remember)’와 같은 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위로 사용되고 있었다.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재미 동포의 모국과의 교류가 용이해진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이 활발하게 사용하는 외국어는 한국에 역수입되어 한국인 사이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어 변이 형태들은 잠재적 외래어로의 발전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역할 또한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 매체 자료에 나타난 외국어의 경우 그 표기가 한국식 영어 발음을 반영한 경우와 영어식 발음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예컨대 ‘drop off’의 경우 ‘드롭 오프’로도, ‘드랍 오프’로도 표기되어 있었고 ‘merchant’는 ‘머천트’라는 표기와 ‘머천’이라는 표기가 모두 나타났다. ‘payment’는 ‘페이먼트’로 표기되기도 하고 ‘페이먼’이라고 표기되기도 했고 ‘water’는 ‘워러’로 표기된 쓰임이 나타났다.

일부 외국어 변이 형태는 인터뷰 자료와 매체 자료 양쪽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이러한 중복 출현 변이 형태는 입말과 글말 형태로 모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53> 매체 자료와 인터뷰 자료에 중복 출현한 외국어 변이 형태

변이 형태	매체 자료 빈도	인터뷰 자료 빈도	빈도 합계
그로서리 (grocery)	1	3	4
딜리버리 (delivery)	1	1	2
로컬 (local)	1	5	6
사이딩 (siding)	2	1	3
서버브 (suburb)	2	1	3
셀폰 (cell phone)	2	1	3
셸터 (shelter)	1	1	2
어카운트 (account)	1	1	2
워러 (water)	2	1	3
킨더가든 (kindergarten)	1	1	2
텍스 (tax)	1	2	3
테넌트 (tenant)	1	1	2
파킹 (parking)	1	2	3
파킹랏 (parking lot)	2	1	3
페이롤 (payroll)	1	1	2
페이먼트 (payment)	1	2	3
하이웨이 (highway)	1	1	2
헬퍼 (helper)	1	1	2
홀세일 (wholesale)	1	1	2
홈리스 (homeless)	1	2	3

한편, 외국어 변이 형태 중 최고 빈도 어휘는 ‘잡(job)’으로 모두 8회 사용되었다. ‘키친(kitchen)’이나 ‘로컬(local)’, ‘리빙 룸(living room)’ 등의 생활 밀착

형 어휘도 빈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빈도 3 이상을 보인 고빈도 어휘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54> 외국어 변이 형태 중 고빈도어

변이 형태 (원어)	빈도	변이 형태 (원어)	빈도
잡 (job)	8	프레셔 (pressure)	3
키친 (kitchen)	6	페이먼트 (payment)	3
로컬 (local)	6	칼리지 (college)	3
리빙 룸 (living room)	6	하이엔드 (high-end)	3
텍스 (tax)	5	클래스 (class)	3
컬처 (culture)	5	패밀리 (family)	3
할러데이 (holiday)	5	탑 (top)	3
론 (loan)	5	펠로우십 (fellowship)	3
프라이빗 (private)	4	텍스 (tax)	3
피크닉 (picnic)	4	하이스쿨 (high school)	3
플랜 (plan)	4	티칭 (teaching)	3
캐쉬 (cash)	4	파킹 (parking)	3
쿡 (cook)	4	파킹 랫 (parking lot)	3
크레딧 (credit)	4	워터 (water)	3
패밀리룸 (family room)	4	인포메이션 (information)	3
숏 세일 (short sale)	4	위켄드 (weekend)	3
어카운팅 (accounting)	4	셀폰 (cell phone)	3
렌트 (rent)	4	야드 (yard)	3
메이비 (maybe)	4	액티비티 (activity)	3
그로서리 (grocery)	4	메이저 (major)	3
베드룸 (bedroom)	4	버짓 (budget)	3
다이닝 룸 (diningroom)	4	뎡스기빙 (Thanksgiving)	3
바이링구얼 (bilingual)	4	마켓 (market)	3
닥터 (doctor)	4	서버브 (suburb)	3
로이어 (lawyer)	4	레시피 (recipe)	3
홈리스 (homeless)	3	사이드 (siding)	3

3.2 변형 외국어

변형 외국어는 영어 단어 본래의 형태나 의미에 변화가 일어나 한국식으로 변형되어 쓰이는 것을 말한다. 본고의 조사 대상 자료에 나타난 변형 외국어는 주로 영어의 구 구성 중 일부를 생략하여 사용한 경우나 영어 단어의 일부를 절단하여 사용한 절단어가 많았다.⁵⁴⁾ 변형 외국어는 인터뷰 자료에서 14개,

54) 그밖에 합격선을 뜻하는 ‘컷라인(cut line)’이나 미혼 여성을 뜻하는 ‘미스(miss)’, 뒤에서

매체 자료에서 3개의 유형이 관찰되었으며 전체 빈도수(token)는 19였다. 이를 출처별로 구분하여 빈도와 함께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56> 인터뷰 자료에 나타난 변형 외국어 변이 형태

변이 형태 (원어, 의미)	빈도
기프트 (gift shop, 기념품점)	1
드랍 썰비스 (drop off service, 세탁물을 두고 가는 서비스)	1
링게루 (ringer)	1
먼쓸리 (monthly payment, 월 사용료)	1
멀티 소사이 (multi society, 다민족 사회)	1
사이드 (side dishes, 반찬)	1
새러다 믹스 (salade mix, 섞은 채소)	1
설티피 (certificate, 증명서)	1
썰비스 (worship service, 예배)	1
오픈 아워 (opening hour, 개장 시간)	1
원베드 (one bedroom, 침실 1개인 집)	1
킨더 (kindergarten, 유치원)	1
트래픽 (traffic jam, 교통 체증)	1
페이 (payment, 임금)	2

<표 255> 매체 자료에 나타난 변형 외국어 변이 형태

변이 형태 (원어)	빈도
다운 (down payment, 선지급)	1
다운 페이 (down payment, 선지급)	2
체크킹 (checking, 직불)	1

4. 중간언어

재미 동포의 언어적 변이 형태 중 마지막 범주는 규범적이고 문법적인 한국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로, 비록 재미 동포 집단을 한국어 학습자 집단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학습자 언어를 나타내는 ‘중간언어’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이들 변이 형태를 지칭하기로 한다. 특히 재미 동포 2세의 언어 사용 양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중간언어를 분석하지 않고는 재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간언어는 모두 인터뷰 자료에서 관찰되었으며 그 단위는 형태, 통사, 담화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중간언어의 사용 양

받쳐주는 사람을 이르는 ‘백(back)’처럼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도 조사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외래어이므로 재미 동포만 쓰는 변이 형태라고 보기 어려워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상 자체를 보이기 위해 해당 중간언어를 단어별로 정제하지 않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대로 제시하기로 한다.

① 부정의문문 대답

아니지요, 없죠 (아니지요, 있죠), 아니요, 안 나가 보셨어요 (네, 안 나가 보셨어요)
--

부정의문문에 대한 ‘예, 아니요’ 대답에서 영어식 체계를 따른 것이 관찰되었다.

② 영한 번역식 어휘의 사용

실행되고 있는 세일 (실행하고 있는 세일), 농구도 노는 (농구도 하는), 뉴욕 경기가 활발해 가지고 (뉴욕 경기가 활성화돼서), 영어가 편안한 거예요 (영어가 편한 거예요), 모험적인 스포츠 (위험한 스포츠), 30학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30학점을 따라 돼요), 미국 사회 조금 더 편안해요 (미국 사회가 조금 더 편해요), 이번 년에는 (올해에는), 홀푸드 가고 있어요 (홀푸드에 다니고 있어요), 하고 (그리고)

‘활발하다, 활성화되다’, ‘편하다, 편안하다’, ‘가다, 다니다’ 등 의미가 비슷하나 주로 사용되는 맥락이 다른 어휘에 있어서의 혼란이 보였다. 접속어로 ‘그리고’를 써야 하는 자리에 조사 ‘하고’를 쓰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또한 ‘농구를 놀다, 학점을 갖다’처럼 영어식 어구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듯한 표현도 관찰되었다.

③ 용언 활용

같으대요 (같대요), 늘으신 것 (느신 것), 신기하는데 (신기한테), 오래지 않는 (오래지 않은), 와이프가 그런데 (와이프가 그러는데), 답답하는 (답답한), 서투르는 (서투른), 비슷하는데 (비슷한테), 안 써고 (안 쓰고), 왓 때는 (올 때는)

용언이 서술어로 사용된 경우나 관형어로 사용된 경우 모두에서 비문법적인 용언 활용이 나타났다. 특히 ‘쓰고’를 ‘써고’로 잘못 활용한 경우나 ‘올 때’를 ‘왓 때’로 잘못 활용한 경우는 재미동포들이 ‘-어/아(요)’로 활용된 어형을 해당 용언의 기본형으로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④ 체언 곡용 (조사 사용)

봄하고 가을하고를 (봄하고 가을을), 대부분으로는 (대부분은), 저가 (제가), 한 사람에
서 (한 사람에), 서울만 있어서 (서울에만 있어서), 맨하탄으로 있었으면 (맨하탄에서
있었으면), 한 시간 반을 걸리니까 (한 시간 반이 걸리니까), 대화를 된다 (대화가 된
다), 사람들하고 보라고 (사람들에게 보라고)

조사 사용에 있어서는 잘못된 조사를 사용한 경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 조사를 사용한 경우 등이 관찰되었다. 특히 영어의 영향으로 조사를 생
략하는 오류가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조사를 오히려 과잉 사
용한 경우가 관찰되었다.

⑤ 필수 성분 누락

도움 됐을 같아요 (도움 됐을 것 같아요), 애 놀고 (애랑 놀고), 애들하고 대화랑 (애
들하고 하는 대화랑), 좋았던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 거 같은데 (힘들었던
거 같은데), 종류별도 많기 때문에 (종류별로도 많기 때문에)

필수 성분이 누락된 중간언어 유형은 ‘것’과 같은 의존명사나 ‘하는’과 같은
관계관형수식화요소, ‘던’과 같은 선어말어미, ‘로’와 같은 조사가 생략된 경우
와 같이 의존적 성질을 가졌으나 생략하면 안 될 정도의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는 성분을 생략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었다.

⑥ 중복 사용

월요일 날 (월요일), 이십오 일 날 (이십오 일), 도움을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도와
주고)

위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⑦ 단위명사의 단순화

나무 네 개 (나무 네 그루), 차 네 개 (차 네 대), 강아지 두 개 (강아지 두 마리)

‘그루, 대, 마리’ 등의 다양한 단위명사가 나타나지 않고 이들을 모두 ‘개’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단위명사가 단순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⑧ ‘하다, 되다’의 과잉 사용

나이 뭐 돼 있으면 (나이 뭐 써 있으면), 배워 할라면 (배워 쓰려면), 꿈을 했나 봐요 (꿈을 폈나 봐요), 고통하는 (고통 받는), 편지도 잘 하고 (편지도 잘 쓰고)

위의 예와 같이 ‘하다, 되다’를 과잉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다, 되다’를 대동사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⑨ 수관형사 사용

삼 끼를 먹었거든요 (세 끼를 먹었거든요), 두 주일 (이 주일), 십사 개 (열네 개)

단위 명사에 어울리지 않는 수관형사를 사용한 중간언어가 관찰되었다.

⑩ ‘-고’의 과잉 사용

리스월 쪽을 지나고 (리스월 쪽을 지나서), 자연스럽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어서’, ‘-게’ 등 다른 문법 요소를 사용해야 하는 자리에 ‘-고’를 사용한 경우가 관찰되었다.

⑪ 어휘 사용

졸업 말았고 (졸업했고), 명절을 쓰지 않고 (명절을 지내지 않고), 군인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자주 지내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주로 없는 거 같아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못 생각나거든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일본집 (일식집), 별로 약하고 (조금 약하고), 어휘력이 까먹을 수밖에 (어휘를 까먹을 수밖에), 한국 자꾸 돌보지 말고 (한국을 자꾸 신경쓰지 말고), 휴교도 내고 (휴학계도 내고/ 휴학도 하고), 장을 받아 가야지 (장을 봐야지), 미국말만 해지니까 (미국말만 하게 되니까), 해가 내려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한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거나 한국어가 한국에서와 다른 의미

로 사용된 경우 등이 있었다.

⑫ 기타

가보고 꼭 싶었는데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이 잡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잡고 있어요), 받았게 됐어요 (받게 됐어요)
--

그밖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어순이 사용된 경우, ‘-아 있다’와 ‘-고 있다’를 혼동한 경우,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잘못된 위치에 나타난 경우 등이 관찰되었다.

제7장 재미 동포의 언어 실태와 이중 언어 정책 제언

재미 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이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재미 동포의 이중 언어 정책, 특히 한국어 교육 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재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요약

재미 동포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어 및 영어 능력, 언어 사용 상황에 따른 언어 선택, 그리고 한국어 습득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한국어 사용의 변이 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미 동포들의 이주 역사와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미국 내의 동, 서, 남, 북의 대도시인 뉴욕,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시카고와 하와이의 호놀룰루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 성별, 연령, 이주 세대, 거주 기간, 직업, 학력 및 최종 학력 취득 국가를 변인으로 분석을 하였다. 재미 동포의 이주 역사와 거주 환경의 특성 상 거주 지역에 따른 커다란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서 거주 지역을 제외한 성별, 나이, 이주 세대, 거주 기간, 직업, 학력 및 최종 학력 취득 국가 7개의 변인으로 분석을 하여 의미 있는 변인을 찾아내었다.

재미 동포들은 한국어와 영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한국어 능력보다 영어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재중 동포나 독립국가 연합 동포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언어 능력에 있어서는 1세대는 모든 영역의 단계에 대해 한국어 능력이 영어 능력에 비해 우수한 반면에 2세대의 경우는 정반대로 영어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난다. 1.5세대의 경우는 성인이 되기 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에 있어 기본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전문적인 영역의 언어 사용

능력에 있어서만 영어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한국어에 대한 정체성에 있어서는 세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2세대들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독립국가 연합 동포들에 비해 높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느낌이 영어나 미국 문화에 대한 느낌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미 동포들은 직업과 학력에 따라 직업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고학력자의 경우와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영어 능력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재미 동포 이민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직업적으로 한인 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영어 능력의 향상 없이 한국어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집단과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여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일이 많은 직업 간에 언어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자들은 직업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환경에 놓여 있으나 사교적 모임에 있어서는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종교적으로는 2세대의 경우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재미 동포들은 평소에 한국어와 영어를 반반씩 사용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80% 가까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는 여전히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미 동포 2세대나 1.5세대들 가운데 한국어를 가장 잘 못하는 집단은 70년대~80년대에 이주한 1세대들의 자녀들이다. 당시 미국 공교육의 영향과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영어만 빨리 습득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에 소홀했던 1세대들은 나이가 들어 자녀들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단절되면서 한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을 한국어 학교에 보내겠냐는 항목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95%의 재미 동포들이 자녀들을 한국어 학교에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결과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한국어를 아는 것이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자녀들의 성공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에는 한국 방송이나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재미 동포 2세대들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한국어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리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2세대들의 경우에도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의향을 드러냈으며 한국어에 대한 정체성이나 한국 문화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문적인 수준까지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응답을 한 응답자도 다수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재미 동포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의 변이 형태를 조사하였다. 재미 동포 사회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의 변이 형태는 현재 한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일종의 언어섬의 형태로 존재하는 한국어의 비개신형으로 볼 수 있는 옛말이나 방언의 형태가 일부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이 형태는 영어의 영향으로 사용되는 한국어와 영어의 혼종어, 한국식 영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영어의 차용어가 나타났다. 또한 1.5세대나 2세대에서 나타나는 중간 언어의 양상도 일부 조사되었다. 이는 그동안 재미 동포들을 대상으로 변종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기초 자료를 그대로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재미 동포를 위한 이중 언어 정책 제언

1) 재미 동포 한국어 교육 정책의 목표 또는 철학의 다중 설정

5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재미 동포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 항목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한국어 학교에 보내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재미 동포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을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신장”이나 “모국과의 연계 강화”라는 고전적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자녀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 학교에 보내겠다는 응답이 여전히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 비중은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더구나 한국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세대별 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그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 1세대와 1.5세대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큰 반면에 2세대의 경우에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나 사교적인 이유로 한국어를 배운다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이나 미국 직장에서의 성공에 한국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자녀를 한국 학교에 보내게 되는 이유가 앞으로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또한 현재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이유나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도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유가 그 뒤를 잇고,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기를 원하는 경우나 취직 및 진학에 유리하다는 이유도 나타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정책의 목표 또는 철학도 재미 동포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변화를 반영하여 다층적인 모습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2)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재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 시 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와 한국어 수업에 보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능력이 부족한 교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문적인 교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미 동포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글학교의 교사들이 한국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가 매우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재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글학교 교사들의 한국어 교육 연수 기회 확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지원, 한글학교 교사의 자격 기준 강화, 한글학교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추진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 대상을 미주 지역의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면 교포 사회에 올바른 어문 규범 보급과 재미 동포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현지 실정에 맞는 한국어 교재 개발 지원

전문적인 교사의 필요성과 함께 한국어 수업에 보충이 필요한 점으로 많이 지적된 것은 한국어 교재 및 부교재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 외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 및 부교재가 양적으로는 결코 적지 않다. 문제는 이미 다양한 교재 및 부교재가 나와 있지만, 정작 그것들을 재미동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미동포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은 한글학교와 같이 수업 일수와 시간이 적은 비정규 기관이 많고, 미국 내 대학의 한국어 강좌의 경우에는 일차적인 대상이 한국어를 계승어로서 배우는 재미동포 학습자이기보다는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려는 미국인 학습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미국의 한글학교의 실정과 요구에 맞는 한국어 교재와 부교재가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미국 내 대학의 한국어 강좌에서 이용하기에 적절한 한국어 교재와 부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재들은 대부분 한국 내에 있는 정규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개발되었고, 그것의 개발도 대부분 한국에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현지의 실정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물론 우수한 교재 및 부교재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국 현지의 사회 문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시간적, 재정적 한계로 인해 현지 실정과 요구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반영이 부족한 교재 및 부교재는 애써 개발되었음에도 현지 교사와 학습자들에게는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 현지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한국어 교재와 부교재의 개발을 위해서는 현지의 실정과 수요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개발의 주체에도 미국 현지의 한국어 전문가와 교사가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처럼 재미동포용 한국어 교재를 한국에서 개발하여 미국에 보급하는 방식보다는 현지 전문가와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지원은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연계 또는 파견 등의 인적 지원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4) 가정 학습용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경험과 학습 장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미동포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은 곳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곳은 ‘가정’으로, 이는 전체 응답자의 약 1/3(33.5%)에 해당하며 한글학교(32.7%)보다도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 외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가정 내에서도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및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미 동포 자녀들이 정규 제도 교육에 진입하기 이전 시기에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혼자서도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재미 동포의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가정 학습용 한국어 교육 자료는 종이 형태의 전형적인 한국어 교재와 부교재만이 아니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도구로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듣기 이해 능력이 우수하고 한국 대중문화와의 접촉이 풍부한 계층의 학습자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드라마, 대중가요, 전자게임 등을 활용한 놀이형 학습 도구 개발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5) 한국어 교육의 제도 교육화 지원

한국어를 배우기 원하는 재미 동포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우기를 원하는지 물어봤을 때 이들의 절반 이상은 전문 분야까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원했고,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을 선택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한국어 학습의 희망 성취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은 현재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글학교를 통

해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부분의 한글학교는 1주일에 하루 2~4시간 정도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미 동포들이 한국어 학습을 한 장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정과 한글학교가 65%를 넘고, 초·중·고등학교는 겨우 2% 남짓이며 대학교 내 한국어 강좌도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의 제도 교육에서 정규 과정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재미 동포 단체 등을 중심으로 미국 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대학들이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어학과 또는 한국학과를 개설하고 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한국어 교육 매체로서의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재미 교포 사회에서 한국어 방송국은 한인들을 위한 의사소통의 주요 도구이자 모국 관련 정보를 해외에 전달하는 창구로서 문화 공동체 발전을 위한 인프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인 TV, 라디오 방송과 같은 한국어 방송에 매일 24시간 접근이 용이한 재미 동포들에게는 방송을 통한 한국어 전파가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글학교가 주말 학교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포 1.5세대와 2세대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미 한국어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효과를 고려해 볼 시점이라 생각한다. 한국어 교육 매체로서 한국어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일관된 목표나 정책 비전이 계획되고 제도적인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의 연관성 상에서 재외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라는 장기 연구 과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미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연구를 마무리 하면서 추후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설문조사에서 비롯된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미 동포들의 언어 사용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변인을 고려하여 변인의 특성에 맞는 조사 대상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접촉이 가능한 재미 동포의 범위에 있어서 모든 조건에 맞는 설문 대상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1.5세대나 2세대의 경우에 한인 사회와 접촉이 많지 않은 설문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만을 접촉할 수 있었다. 한인과 접촉이 부족한 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려면 이러한 대상자를 많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따로 심도 있게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미국의 동, 서, 남, 북이라는 도시의 지역 특성보다 한인이 몰려 사는 대도시에 사느냐, 한인 거주가 많지 않은 중소도시에 사느냐를 변인으로 살펴 보려고 설문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설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디에 사느냐를 묻는 질문으로는 이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미국의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가 많이 있는데 이를 대도시로 보느냐 중소도시로 보느냐가 쉽지 않았다. 또한 중소도시라고 하더라도 한인의 인구수, 한인 교회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었고, 또한 설문 대상자 개인이 한인 사회와 접촉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인 밀집 지역에 사는 한인들과 그렇지 않은 곳에 사는 한인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미국이라는 지역의 특성 상 거주 지역에 따른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대도시의 한인들이 많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중소도시에 사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안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조사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뒷받침되면 좋을 것이다.

셋째, 직업적 변인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 직업을 물어보기는 했지만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인지 영어인지를 명확하게 물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직업적 변인으로 사용 양상을 분석할 수 있었지만 직업적으로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예상되는 항목의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미국은 1세대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을 떠날 때에 갖고 있던 직업 여부를 물어보았다면 더 구체적인 직업의 변인에 대한 연구가 가능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미국 거주 기간이라는 변인으로 분석을 시도하여 몇몇의 양상은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거주 기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세대들의 경우에 거주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 이 경우에 이차적으로 이들의 직업이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1세대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주 시기와 거주 기간, 직업을 변인으로 살펴보면 현재 재미 동포 1세대들의 언어 양상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1.5세대들의 경우는 이민 집단에서 성장한 전형적인 이중 언어 화자의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연구를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2세대들이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 특히 성인이 된 후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 즉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가면서 한국어 능력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응답자들과 한국어 능력을 유지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시도하는 재미 동포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연구가 되지는 못하였다. 1.5세대들과 2세대들을 위한 설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한국 문화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더 많은 2세대들을 인터뷰한다면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한국어의 변화 양상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 연구를 통해서 재미 동포 사회에서는 지역적 변인

이나 거주 기간보다는 세대별 변인, 직업적 변인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세대별 변인에 있어 거주하는 곳의 한인 사회의 존재 여부 및 한인 사회와의 접촉 여부, 또한 직업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을 고려한 추가 연구를 한다면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세대별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한 가운데에 구체적인 양상의 파악을 위해 1세대의 이주년도나 배우자의 국적과 같은 변인도 고려되어야 한다. 재미 동포 사회는 현재 명확하게 1세대, 1.5세대, 그리고 2세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세대별로 진행된다면 사용 양상의 역동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변이 형태 조사의 한계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태 조사의 핵심이 설문 조사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한국어 변이형에 대한 인터뷰에 한계가 존재했다. 심층 면접 대상자와 인터뷰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이번 연구는 재미 동포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변이형과 중간 언어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의미를 두고 일반적인 수준의 자료 제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연구비와 연구의 기간 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 자료를 일반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추후 지역별, 세대별, 학력별 등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변인에 따라 구분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확연히 구분되는 변이형을 추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응답자들의 실제 담화 상황을 담기 위해 인터뷰 방식 외에 재미 교포들 간의 자연스런 대화 내용을 전사하는 방법도 시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제시 방법에 있어서도 인터뷰 전사 및 매체 언어 사용 조사를 통한 어휘나 중간 언어의 형태의 제시는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해 제시하기 보다는 자료 그 자체를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본 연구는 재미 동포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 변이 형태의 분류 기준이나 변이 형태의 기원, 혹은 중간 언어 형태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자료의 제시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향후 추후 연구를 통해서 개념의 정립과 분류 기준에 따른 제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논저류

- 강남옥(2009), “영어권 교포 화자의 한국어 어휘 인식 유형화 연구”,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강승혜(2013),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Korean Education as a Heritage Language)에 대한 소고: 방향과 향후 과제”, 『언어사실과 관점』 3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 강승혜 외(2006), 『한국어 평가론』, 태학사.
- 강윤희(2014), “언어자원과 언어능력의 재구성: 싱가포르 한국 조기유학생들과 동반 가족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20-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강윤희(2004), “주변화에 따른 전통구술장르의 변화와 언어이데올로기: 인도네시아 뿌탈랑안 부족의 사례”, 『韓國文化人類學』 37, 한국문화인류학회.
- 강정희(2002), “재일 한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태도 조사: 오사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어문학』 86, 한국어문학회.
- 강현화(2006), 『Korean picture dictionary』, 다락원.
- 강현화(2007), “한국어 교재의 문형유형 분석 - 문형 등급화를 위해”, 『한국어교육』 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휘원(2009), “캐나다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이중언어정책”, 『국가정책연구』, 23권 3호, pp.193-222.
- 강휘원(2010), “미국의 소수인종 통합정책 탐색: 교육, 복지,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0권 1호.
- 강희숙(1999), “언어 변화와 언어 유지의 원리: 의문법 어미 ‘-니’의 확산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34, 국어문학회.
- 강희숙(2001), “언어의 변화와 보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광주 방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7, 한국언어문학회.
- 국립국어원(2011), “국외 동포 언어 실태 기초 연구”, 연구보고서.
- 국립국어원(2012ㄱ), “재중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 국립국어원(2012),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 연구보고서.
- 국립국어원(2013),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 김경근(2005), “미주 한인의 민족교육관 연구”, 『比較教育研究』 15, 한국비교교육학회.
- 김정령(2008) “미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어와 문화』 3,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 김광혜(2002), “LA 지역의 한국어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 先淸語文 3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남균(2007), “미국의 국가 정체성, 위기인가?: 영어 공용화론”, 『미국사연구』, 26집, pp.191-219.
- 김남길(2011), “국제 한국어 응용 언어학 특집을 꾸미면서”, 『한국어정보학』 13, 한국어정보학회.
- 김대희(2014), “언어 이데올로기와 계층어 교육에 대한 고찰”, 『國語教育學研究』 43, 국어교육학회.
- 김덕호(2001), “인상적 등어선에 대한 연구”, 『語文學』 73, 韓國語文學會.
- 김도영(2012), “재미동포를 위한 웹기반 한글 맞춤법 교육 프로그램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2001), “맞춤법 오류에 관한 연구: 재미교포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김보경(2012),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의 서술어 오류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선정(2009), “한인의 미국 이주 시기 구분과 특징”, 『남북문화예술연구』 4, 남북문화예술학회.
- 김성연(2010), “재미 한국계 대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불안, 성취동기,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외국어교육연구논집』 2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 김신일 외(1998), 『재외 민족교육 강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한계 극복방안 :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영미(1996), “한국어 세계화의 제문제”, 『이중언어학』 13, 이중언어학회.
- 김영선(2012), “미주권 한국인 이민자의 음운 규칙 손실(loss)”, 『우리말연

- 구』 31, 우리말학회.
- 김영주(2006), 영어권 고급학습자들의 조사 및 동사 어미 사용 - 오류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김영주 외(2012), “한국어 문법성 판단 테스트 개발 연구”, 『국어교육』 137, 한국어교육학회.
- 김은주(2010), “이중 언어 사용자의 국어 어휘 능력 연구 : 국내 외국인학교 한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왕배(2002), “미주 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주의”, 『교포정책자료』, 통권 제103호, pp.39-53.
- 김정숙·남기춘(2002),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 분석과 교육 방법: ‘-이/가’와 ‘은/는’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3,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김주영(2014),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습득 양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호(2012), “한국어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25,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김태진(2011), “재미 한글학교 교육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한 교육주체 요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철(2010), “동티모르의 언어문제: 다언어주의 정책 하에서 포르투갈어의 역할”,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7,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 김화자(2005), “재미동포의 한국어 가정교육 실태 및 지도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형욱(2004), “재미 한인단체의 현황과 조직적 특성”, 『한국동북아논총』 31, 한국동북아학회.
- 노길희(2012), “뉴욕시 거주 한인 노인의 문화적응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0,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명드미뜨리(1991), “재소고려인 인구수, 거주 및 언어 상태”, 『이중언어학』 8-1, 이중언어학회.
- 모경환, 황혜원(2013), “미국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새국어생활』, 23권 4호.

- 문금현(2011), 어휘장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 민병갑(2012), “Twice Migrant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 민진영(2002),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조사 오류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현식(2002),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방법론 연구”, 『사회언어학』 10-1,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경래(2002),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10-2,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경철(2013), “공공외교로서의 한국어 해외보급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계영(2007), “제9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대회(한국학과 한국어교육) : 미국에서의 한국학과 한국어교육 ; 어디로 가야 하나? -버지니아 테크 충격 사건과 재미 한인 사회”, 『국어교육연구』 2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박봉남(1989), “재미 교포 2세들의 한국어 교육 문제”, 『이중언어학』 5, 이중언어학회.
- 박소연(2014),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 중앙아시아 3개국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승의(2013), “사할린 한인디아스포라의 민족문화정체성 형성과 변천과정 연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在外韓人研究』 29, 在外韓人學會.
- 박주형(2010), “한국 내 중국 조선족의 언어 태도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준언(2004), “동화주의정책으로 회귀하는 미국에서의 다중언어사용”, 『이중언어학』, 24호.
- 박채형(2011), “재외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教育思想研究』 25, 韓國教育思想研究會.
- 박채형(2012), “우리나라 재외동포 교육정책의 변천 과정”, 『학습자중심교과교

- 육연구』 1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박혜숙(2005), “미국 소재 주말 한글학교에서의 학습과 그 후 10년”, 『教育問題研究』 23,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 서에스더(2012), “베트남 거주 한인 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현정(2014), “어린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호민(1991), “미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새국어생활』 1-2, 국립국어연구원.
- 손호민(1999),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방법”,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손호민(2001),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미래 조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안한나(2006), “재미교포(Korean-American) 한국어 학습자의 정체성 지각에 관한 연구 : 한국어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한나(2008), “한국어 교육이 정체성 영향에 미치는 영향 - 재미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양수경(201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태식(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이념과 목표”, 『초등 국어교육』, 서울교육대학 국어교육과.
- 염철현(2008) “미국의 이중언어교육법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비교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pp.103-122
- 오미정(2005), “한국어의 존대 어휘 연구 - 고유어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27, 한국어학회.
- 오새내(2011), “사회언어학의 이론으로 본 지역 인구 변동과 지역어 변화의 관련성”,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 오성애(2011), “중국 청도 거주 조선족의 언어태도와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영인(2012), “미국 이중언어 교육정책과 이민자들 - 1968년 이중언어 교육법

- 과 1970년대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35집, pp.161-190.
- 왕한석(1996), “언어.사회.문화 -언어 인류학의 주요 조류-”, 『사회언어학』 4-1, 한국사회언어학회.
- 왕한석(1998), “로스앤젤레스의 초기 이주 한인의 언어 접변”, 『한국 인류학의 성과와 전망(송현이광규교수정년기념논총)』, 집문당.
- 왕혜숙(1995), “영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어휘상 오류 분석”, 『이중언어학』 12-1, 이중언어학회.
- 유영희(2013), “온라인상의 한국어 학습사이트 이용자 현황분석”,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경 외(2007), “영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조사 “가”와 “는”의 교수 방안 연구 -한영 병렬 말뭉치를 이용하여-”,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 육효창(2013), “재외 한글학교 교사 사이버연수 과정의 현황과 과제-만족도 설문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2, 이중언어학회.
- 윤금선(2004), “19세기 초 재미 한인의 국어교육”,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 윤병석(2003), “미주 한인사회의 성립과 민족운동”, 『순국』, 통권144호, pp.70-85.
- 윤인진(2000), “미국으로의 한인 이주와 이민가족의 세대갈등”, 『재외한인연구』, 9호.
- 윤인진(2002), “세계 한민족의 이주 및 정착의 역사와 한민족 정체성 비교연구”, 『재외한인연구』 12-1, 재외한인학회.
- 윤인진(2003), “중국 조선족의 도시이주, 사회적응, 도시공동체 : 청소 사례연구”, 『재외한인 연구』 15, 재외한인학회.
- 윤인진(2004), “사회조사방법을 통한 재외한인연구”, 『在外韓人研究』 16, 在外韓人學會.
- 윤인진 외(2008), “재미한인 차세대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세대별 및 민족집단별 비교”, 『세계지역연구논총』 26, 한국세계지역학회.
- 윤현아(2013),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설치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

- 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진숙(2013), “다문화 배경 국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언어 의식”, 『國語教育學研究』 46, 국어교육학회.
- 이광규(2008), “미주 동포와 한국어 교육” 『언어와 문화』 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이경민(2007), “사진 신부, 결혼에 올인하다 - 하와이 이민과 사진 결혼의 탄생(1), 『황해문화』, 통권 제56호, pp.402-411.
- 이경민(2007), “사진 신부, 결혼에 올인하다 - 하와이 이민과 사진 결혼의 탄생(2), 『황해문화』, 통권 제57호, pp.406-414.
- 이남근(2003), “미국에서 한국어의 언어지위 향상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동은(2009), “한국어 학습자의 철자 오류와 개선 방안: 북미지역 청소년 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학』 35, 한국어학회.
- 이동재(2003), “미국에서의 중·고등학생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교수법 : 한국어 세계화의 지름길”, 『한국어교육』 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복자(2013), “영어권 재외 동포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 화행 연구 : 숙달도별 거절 협상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억(1983), “해외 교포 자녀를 위한 국어교육의 효율적 방안: 미국편”, 『이중언어학』 1-1, 이중언어학회.
- 이선근(2007), “이중언어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기획발표 : 재미 동포의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 이선우(2013) “미국 정규 학교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교사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선진 외(2012), “한국어교육 : 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달 연구”, 『새국어교육』 91,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숙(2009), “한영 대조분석 -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분석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8,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 이용은(2004), “재미 교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13), “재미 동포 미취학 아동의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발달 연구

- 미동북부 지역 거주 만 4, 5세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준언(2014), “계승한국어 사용에 대한 다중사례 연구 : 역이민 재미교포 1.5 세대의 한국어 인식과 사회언어학적 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2010), “재미 교포 초급 학습자와 비교포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비교”, 『이중언어학』 44, 이중언어학회.
- 이향근(2013), “거시적 접근 방법을 통한 재외 동포 학습자의 시 교육 내용 설계 연구”, 『한국어 교육』 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임영철(2006), “이민 커뮤니티의 언어의식”, 『사회언어학』 14-1, 한국사회언어학회.
- 임영철(2012), “재외 한국인의 거주 형성사 및 언어생활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日本研究』 53, 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研究센터 日本研究所.
- 임채완(1999), “중아시아 고려인의 언어적 정체성과 민족의식”, 『국제정치논총』 39-2, 한국국제정치학회.
- 임혜선(2005), “재미동포의 모국 TV방송 시청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경(2009), “영어권 고급 학습자들의 조사 오류 분석-말하기 과제 수행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장은영(2011),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관한 다중 사례연구,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 전영아(2004), “영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오류 분석”, 『언어와 문화』 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정아현(2010),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어머니의 자녀교육 실태와 인식 : 뉴욕·뉴저지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형근(2014),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을 위한 디아스포라 소셜 활용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윤희(2001),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언어상황과 한국어의 지위”, 『재외한인연구』 10, 재외한인학회.

- 조인정(2005),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무정성 주어와 타동사 구문”, 『한국어 교육』 16-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인정(2006),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주격과 목적격 조사 대치 오류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분석”, 『한국어 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현용·이상혁(2012), “논문 :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언어 환경과 한국어교육 문제 연구”, 『한국어 교육』 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혜영(2000), “재미 한인 2세와 민족 정체성”, 『在外韓人研究』 9, 재외한인학회.
- 조혜영(2001), “연구논문 : 외국어로서의 ‘모국어’ 학습과 민족 정체성 - 재미 한인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 참여 과정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韓國文化人類學』 34, 한국문화인류학회.
- 조혜진(2009), “카탈루냐의 언어통합정책과 사회언어학적 측면의 변화”, 『유럽연구』 27-2, 한국유럽학회.
- 최진숙(2005), “과테말라 마야 정체성의 이데올로기적 형성 : 코드 전환에 의한 언어적 편견의 재생산”, 『韓國文化人類學』 38-2, 한국문화인류학회.
- 지동은(2009), “조선족집산거주민의 조한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 비교연구”, 『중국조선어문』 160,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진정란(2009), “재미동포 저밀집 지역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캠프”, 『외국어교육연구논집』 2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 최낙복(2008),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조사 연구 :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2, 우리말학회.
- 최열(2010) “미국 대학 한국어 교재의 분석과 개발 방향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최영환(2013), “재미 한글 학교의 한글 교재 사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최호성(2013), “미국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들에 대한 사례 연구: 학습 동기 및 한국어 강좌에 대한 인식”, 『외국어교육연구논집』 27-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 하연주(2007), “재미교포 청소년 학습자의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화 중심

- 의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연구”,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갑수(2013), “미국 재외동포 교육 실태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 한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상미(2005),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 연구 :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희경(2012), “재미교포사회에서의 조기 이중언어 발달”, 『이중언어학』 50, 이중언어학회.
- 허승철(1996), “구소련 지역 한인의 언어 동화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1959, 1970, 1979, 1989년 인구센서스 언어 자료 분석”, 『재외한인연구』 6-1, 재외한인학회.
- 홍은진(2004),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분석과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25, 이중언어학회.
- Cho, Grace, Cho, Kyung sook & Tse, Lucy(1997), Why ethnic minorities want to develop their heritage language: The case of Korean Americans, New York : Routledge.
- Cho, Hyesun(2014), ‘It’s very complicated’ exploring heritage language identity with heritage language teachers in a teacher preparation program, New York : Routledge.
- Chun, Hee Chung(2011), “재미교포 청소년의 문화정체감과 한국어 숙달도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Eisenlohr, Patrick(2006), Language ideology and imaginations of Indianness in Mauritius,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 Garcia, Dania Lopez(2008), !En esta casa se habla espanol! The role of language ideology and life choices in language maintenance and language shift across three generations of a Cuban American family in the United States,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Gu, Lin(2014), At the interface between language testing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ability and context of learning,

Language Testing.

- Guillamet Benoit(2010),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교육 방안 : 학습자 인식 조사 및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Henne, Richard Brian.(2003), Tongue-tied: Sociocultural change, language, and language ideology among the Oglala Lakota (Pine Ridge Sioux),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H Teresa Pyon(2012), “Understanding 1.5 Generation Korean Americans”, 『在外韓人研究』 28, 在外韓人學會.
- Hyun-Sook Kang(2013),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Language Practices and Identity Positioning: “Not Korean, but not American”, New York : Routledge
- Jeon, Mihyon(2007), Language Ideologies and Bilingual Education: A Korean-American Perspective, Language Awareness.
- Jeon, Mihyon(2010), Korean Language and Ethnicity in the United States: Views From Within and Acros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 Jo, Hye-young(2010), ‘Heritage’ Language Learning and Ethnic Identity: Korean Americans’ Struggle with Language Authorities, New York : Routledge.
- Joo, Hyungmi(2009), Literacy practices and heritage language maintenance: The case of Korean-American immigrant adolescents, Amsterdam; Philadelphia :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Kang, H. S. & Kim, I. S.(2012), Perceived and actual competence and ethnic identity in heritage language learning: a case of Korean-America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 Kim, Jinhee(2011), Korean Immigrant Mothers’ Perspectives: The Meanings of a Korean Heritage Language School for Their Children’s American Early Schooling Experiences, Early Childhood Educ J.

- Lee, Boh Young(2013), Heritage language maintenance and cultural identity formation: the case of Korean immigrant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the USA, New York : Routledge.
- Lee, Jin Sook(2010),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The Role of Cultural Identity in Heritage Language Learning, New York : Routledge.
- Mirela Cherciov(2013), Investigating the impact of attitude on first language attri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rom a Dynamic Systems Theory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 Montrul, Silvina A.(2012), Is the heritage language like a second language?, Amsterdam; Philadelphia :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Moon, Tae-im & Cundick, Bert P.(1983), Shifts and Constancies in Rorschach Responses as a Function of Culture and Language, Mahwah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Nkonko M. Kamwangamalu(2013), Rural-urban and south-north migrations and language maintenance and shift, De Gruyter Mouton.
- Ruth Lingxin Yan(2003), Parental Perceptions on Maintaining Heritage Languages of CLD Students, Tempe : Bilingual Press.
- Song, Juyoung(2010),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in Transnational Space: Globalization, Migration, and Bilingualism among Korean Families in the USA, New York : Routledge.
- Woolard, K. A. & Schieffelin, B. B.(1994), Language Ide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 You, Byeong-keun(2005), Children Negotiating Korean American Ethnic Identity Through Their Heritage Language, New York : Routledge.
- Zhang, D. H.(2012), Co-Ethnic Network, Social Class, and Heritage Language Maintenance Among Chinese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AND EDUCATION.

2. 웹사이트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뉴욕한국교육원 www.nykoredu.org
로스엔젤레스 한국교육원 en.kecla.org
미국외국어교육협의회(ACTFL) www.actfl.org
미국한국어교육자협회(AATK) www.aatk.org
미주한국학교연합회 www.koreanschool-usa.org
미주한인회총연합회 www.koreanfedus.org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 www.kecsf.org
세계한상센터 www.hansang.net
시카고 한국교육원 www.chicagokec.org
워싱턴 한국교육원 www.kecdc.org/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www.hansang.or.kr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www.naks.org
재미한국학교 지역협의회(NAKS) www.naks.org
재외동포재단 www.okf.or.kr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usa.mofa.go.kr
주휴스턴 한국교육원 kr.houkec.org
한국국제교류재단 www.kf.or.kr
한국어세계화재단 www.glokorean.org
한국어진흥재단 www.klacusa.org
한국학술진흥재단 www.krf.or.kr
Korean American DataBank koreanamericandatabank.org

<부록 1> 국문 설문지

재미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2014 년 8 월

조사자 :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팀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설문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평소 생각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 정보와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국립국어원

< 연구 동의서 >

나는 이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및 연구 참여 거부와 자유,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것을 허락합니다.

서명 -----

날짜 -----

재미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설문지

설문지 번호 :

조사일시	2014년 월 일	조사자	
조사지역		조사장소	
사용언어			

A. 기본 정보

A0. 나이 : ① 10 대 ② 20 대 ③ 30 대 ④ 40 대 ⑤ 50 대 ⑥ 60 대 ⑦ 70 대 이상

A1.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A2.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_____

(도시)_____

A3.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나라)_____ (도시)_____

A4. 부모님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부 : (나라)_____ (도시)_____

모 : (나라)_____ (도시)_____

A5.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민족

① 한국계 (한국계 한국인, 한국계 미국인 포함)

② 비한국계 (한국계가 아닌 모든 민족 포함)

③ 배우자 없음

A6. 당신의 현재 국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한국

② 미국 시민권자

③ 미국 영주권자

④ 이중 국적 (한국과 미국)

⑤ 기타 (_____)

A7. 당신은 몇 세에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까? 또는 미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① 미국에서 태어남

② 미국으로 이주함 : 이주 연도 (_____)년도, 이주 시 나이 (_____)세
(예) 1992 년도, 37 세

A8. 미국에는 대략 몇 년 동안 거주하셨습니까? (_____)년

A9. 당신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은퇴하신 분은 주로 종사했던 직업을 적어 주세요.)

(예: 주부, 학생, 자영업, 판매업 등등)

(_____)

A10. 어느 나라에서 다음 학교를 다녔는지 해당하는 곳에 **모두** ☒ 표시해 주세요.

(복수 표시 가능)

학교	한국	미국	기타 국가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			
(5) 대학원			
(6) 학교에 다닌 적 없음			

B. 한국어에 대한 태도 및 인식

B0. 재미 동포는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B1. 재미 동포는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B2. 당신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끼리는 한국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B3. 당신의 모국어(제일 처음 배운 언어)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어 ② 영어 ③ 기타 언어

B4.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질문	한국어	영어
(1) 어느 언어를 더 잘합니까?		
(2)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3) 가족 간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4) 듣기에 편한 언어는 무엇입니까?		
(5)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6) 앞으로 이 지역의 한인 사회에서 어떤 언어가 더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B5. 재미 동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점점 안 쓰다가 없어지고 말 것이다.
 ②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③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와 점점 달라질 것이다.
 ④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B6.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아래 예시와 같이, 제시된 표현과 가까운 쪽으로 표시해 주세요.

<예시> 시골티(촌티)가 난다 <-1---2---3---4---5--- V ---7-> 세련되고 우아하다
--

B6-1. [한국어에 대한 느낌]

- (1) 시골티(촌티)가 난다 <-1---2---3---4---5---6---7-> 세련되고 우아하다
- (2) 간사해 보인다 <-1---2---3---4---5---6---7-> 진지해 보인다
- (3) 가벼워 보인다 <-1---2---3---4---5---6---7-> 점잖고 믿음직스럽다
- (4) 무뚝뚝하고 정이 없다<-1---2---3---4---5---6---7-> 부드럽고 정감 있다
- (5) 무식해 보인다 <-1---2---3---4---5---6---7-> 유식해 보인다
- (6) 힘이 없어 보인다 <-1---2---3---4---5---6---7-> 씩씩하다

B6-2. [영어에 대한 느낌]

- (1) 시골티(촌티)가 난다 <-1---2---3---4---5---6---7-> 세련되고 우아하다
- (2) 간사해 보인다 <-1---2---3---4---5---6---7-> 진지해 보인다
- (3) 가벼워 보인다 <-1---2---3---4---5---6---7-> 점잖고 믿음직스럽다
- (4) 무뚝뚝하고 정이 없다<-1---2---3---4---5---6---7-> 부드럽고 정감 있다
- (5) 무식해 보인다 <-1---2---3---4---5---6---7-> 유식해 보인다
- (6) 힘이 없어 보인다 <-1---2---3---4---5---6---7-> 씩씩하다

B7. 아래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B7-1. [한국적 성향]

질문	매우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한국어를 아는 것이 사회적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국 음악을 즐겨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즐겨 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롭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이 한국인을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한국 전통 문화를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한국 이름으로 불리는 게 좋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한국 음식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한국인들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10) 한국인들은 한국인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B7-2. [미국적 성향]

질문	매우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영어를 하는 것이 사회적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미국 음악을 즐겨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미국 영화와 드라마를 즐겨 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미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이 미국인을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미국 전통 문화 대부분을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7) 미국에 사는 한국인은 미국 이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미국 음식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양한 민족적 커뮤니티 속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C. 네 가지 언어 기능 능력

<한국어 능력에 대한 설문입니다.>

[말하기 능력]

C0. 당신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 ① 아주 못한다 ②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한다 ⑤ 아주 잘한다

C0-1.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질문	아주 못한 다	못한 다	보통 이다	잘한 다	아주 잘한 다
(1)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듣기 능력]

C1. 당신은 한국어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 ① 아주 못한다 ②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한다 ⑤ 아주 잘한다

C1-1.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질문	아주 못한 다	못한 다	보통 이다	잘한 다	아주 잘한 다
(1) 인사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광고나 일기 예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TV에서 하는 보도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이나 토론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읽기 능력]

C2. 당신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① 아주 못한다 ②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한다 ⑤ 아주 잘한다

C2-1.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질문	아주 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1)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편지나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잡지나 신문 기사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문 분야의 서적이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쓰기 능력]

C3. 당신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① 아주 못한다 ②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한다 ⑤ 아주 잘한다

C3-1.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질문	아주 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1)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간단한 편지나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영어 능력에 대한 설문입니다.>

[말하기 능력]

C4. 당신은 영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 ① 아주 못한다 ②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한다 ⑤ 아주 잘한다

C4-1.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질문	아주 못한 다	못한 다	보통 이다	잘한 다	아주 잘한 다
(1)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듣기 능력]

C5. 당신은 영어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 ① 아주 못한다 ②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한다 ⑤ 아주 잘한다

C5-1.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질문	아주 못한 다	못한 다	보통 이다	잘한 다	아주 잘한 다
(1) 인사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광고나 일기 예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TV에서 하는 보도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이나 토론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읽기 능력]

C6. 당신은 영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 ① 아주 못한다 ②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한다 ⑤ 아주 잘한다

C6-1.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질문	아주 못한 다	못한 다	보통 이다	잘한 다	아주 잘한 다
(1)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편지나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잡지나 신문 기사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문 분야의 서적이거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쓰기 능력]

C7. 당신은 영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 ① 아주 못한다 ②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한다 ⑤ 아주 잘한다

C7-1.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질문	아주 못한 다	못한 다	보통 이다	잘한 다	아주 잘한 다
(1)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간단한 편지나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D. 언어 사용 환경 및 언어 선택

D0. 당신은 다음의 상황에서 주로 어떤 사람과 교류하니까?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주로 한인과 교류 한다	한인과 교류가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 도 교류한다	한인과 미국인과 의 교류 정도가 반반이다	미국인과 교류가 많지만 가끔 한인과의 교류한다	주로 미국인 과 교류한 다	해당 없음
(1)직업적으로 일을 할 때						
(2)사교적으로 교류할 때						
(3)종교적으로 교류할 때						

D1.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요

D1-1. 최근 5년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횟수와 체류 기간을 적어 주세요.

횟수 (_____회) 총 체류 기간 (_____년 _____개월)

D2. 하루 중 한국 방송 시청 시간은 대략 몇 시간 정도입니까?

- ① 안 본다 ② 1 시간 미만 ③ 1-2 시간 ④ 2-3 시간 ⑤ 3 시간 이상

D2-1. 한국 방송 프로그램 중 가장 즐겨 보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① 드라마 ② 예능·오락 ③ 뉴스 ④ 스포츠 ⑤ 시사·교양
⑥ 기타 (_____)

D3. 당신이 가족들에게 말할 때, 한국어와 영어 중에서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질문	대부분 한국어로	한국어를 더 많이	절반씩	영어를 더 많이	대부분 영어로	해당 없음
(1)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에게 말할 때						
(2) 형제, 자매, 사촌 등에게 말할 때						
(3)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4)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의 사람에게 말할 때						

D4. 가족들이 당신에게 말할 때, 한국어와 영어 중에서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질문	대부분 한국어로	한국어를 더 많이	절반씩	영어를 더 많이	대부분 영어로	해당 없음
(1)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이 나에게						
(2) 형제, 자매, 사촌 등에게 말할 때						
(3) 자녀나 손자나 손녀 등 손아랫사람이 나에게						
(4)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가 나에게						

D5. 다음 상황에서 한국어와 영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질문	대부분 한국어로	한국어를 더 많이	절반씩	영어를 더 많이	대부분 영어로	해당 없음
(1) 한인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를 할 때						
(2) 비공식적 자리에서 다른 한인과 사교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3) 미국인과 한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						
(4) 미국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인과 일상 이야기를 할 때						
(5) 종교가 있다면, 종교 활동을 할 때						

D6. 다음 상황에서 한국어와 영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질문	대부분 한국어로	한국어를 더 많이	절반씩	영어를 더 많이	대부분 영어로	해당 없음
(1)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2)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3) 화가 났을 때나 한국인과 말싸움을 할 때						
(4)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D7. 한국에서와 달리 사용하거나, 미국 한인 사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한국어 표현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써 주세요. (단어나 구, 문장 등을 써 주시면 됩니다.)

* 여기에 답을 써 주세요.

E. 언어 습득과 한국어 교육

[※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E0. 만일 당신의 자녀(또는 손자나 손녀)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보내시겠습니까 ?

- ① 보낸다 (E0-1 번으로) ② 안 보낸다 (E0-2 번으로)

E0-1. 자녀(또는 손자, 손녀)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한국인은 한국어를 잘해야 하니까
② 한국어를 잘해야 한국에서 취직이나 성공에 유리해서
③ 한국어를 잘해야 미국에서 취직이나 성공에 유리해서
④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⑤ 사람을 사귀거나 생활하는 데 유리해서
⑥ 기타 (_____)

E0-2. 자녀(또는 손자나 손녀)를 한국어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한국어는 집에서 배우면 되니까
② 영어를 잘해야 한국에서 취직이나 성공에 유리해서
③ 영어를 잘해야 미국에서 취직이나 성공에 유리해서
④ 사람을 사귀거나 생활하는 데 유리해서
⑤ 주변에 한인 학교가 없어서
⑥ 기타 (_____)

[※ 미국에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E1. 미국에서 공식적으로(학교, 학원 등)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워서 잘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E3. 한국어를 미국에서 배운 적이 있는 사람만 대답해 주십시오.

E3-1. 한국어는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가정 ② 한글학교
- ③ 한국 내 한국어교육기관 (어학당, 학원 등)
- ④ 미국 내 한국어교육기관 (어학당, 학원 등)
- ⑤ 미국 내 초등학교 ⑥ 미국 내 중고등학교
- ⑦ 미국 내 대학교 한국어 강좌 ⑧ 기타 (_____)

E3-2. 한국어를 배워서 사용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2년 미만 ② 2~4년 미만 ③ 4~6년 미만
④ 6~8년 미만 ⑤ 8~10년 미만 ⑥ 10년 이상

E3-3. 한국어를 배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가족들이 다 한국어를 했기 때문에 저절로 배웠다.
- ②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③ 지금하고 있는 일이나 전공에 필요해서 배웠다.
- ④ 취직을 하거나 상급 학교에 갈 때 유리하기 때문에 배웠다.
- ⑤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웠다.
- ⑥ 한국어를 대학에 와서 외국어로 배웠다.
- ⑦ 장래에 한국에 가서 살 계획이 있어서 배웠다.
- ⑧ 가족이나 친척들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해서 배웠다.
- ⑨ 기타 ()

E3-4. 한국어를 배울 때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 | | |
|----------------|-------------------|
| ① 통학의 어려움 | ② 교육 시설의 부족 |
| ③ 학비의 부담 | ④ 교육 내용의 부실 |
| ⑤ 교사의 지도 능력 부족 | ⑥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 |
| ⑦ 힘든 점 없음 | ⑧ 기타 (_____) |

E3-5. 한국어 수업이나 강의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E3-6. 한국어 수업에서 가장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한국어 교재 및 부교재 | ② 한국어 학습용 사전 |
| ③ 시청각 수업을 위한 기자재 | ④ 전문적인 교사 |
| ⑤ 한국어 문화 자료 | ⑥ 기타 (_____) |

E4. 한국어를 미국에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만 대답해 주세요.

E4-1.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가족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② 가족들이 한국어를 사용했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③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④ 주변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⑤ 한국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⑥ 한국에 가서 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⑦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⑧ 이미 한국어를 잘 하기 때문에
⑨ 기타 (_____)

E5. 한국어를 미국에서 배운 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 대답해 주십시오.

E5-1. 앞으로 한국어를 배울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E5-2,3 번으로)
- ② 없다 (E5-4 번으로)
- ③ 모르겠다 (아래 모두 대답)

E5-2. 한국어를 배울 생각이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한국어를 잘하면 취직이나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 ② 한국의 최신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 ③ 지금하고 있는 일이나 전공에 필요하기 때문에
- ④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 ⑤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싶어서
- ⑥ 장래에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 ⑦ 가족이나 친척들 간에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 ⑧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⑨ 기타 (_____)

E5-3. 한국어를 배운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고 싶습니까?

- ① 자기소개나 길 묻기, 물건 사기 등과 같은 기초적인 대화하는 정도
- ② 다른 사람과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 ③ TV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읽고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 ④ 전문 분야의 책이나 문학 작품을 읽고 내용을 말할 수 있을 정도
- ⑤ 기타 (_____)

E5-4. 한국어를 배울 생각이 없다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미국에서는 한국어를 못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 ② 미국에서는 영어를 잘해야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 ③ 영어를 잘해야 취직을 하거나 진학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 ④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 ⑤ 이미 한국어를 잘 하기 때문에
- ⑥ 기타 (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영문 설문지

Research on Language Usage
of Korean-Americans

August 2014

By Research Team
Assign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of Republic of Korea

Greetings!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is conducting a survey on language usage patterns of overseas Koreans across the world. This survey will be used to better understand the patterns of the Korean language by Korean ethnic groups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so called Korean-Americans). Kindly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rom your ordinary thoughts. Your answers will be used for research purposes only and your personal information and answers will be strictly protected. Your sincere participation will be highly appreciated. Thank you.

August 2014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 Agreement >

I have received sufficient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 have also been informed and therefore comprehend the details of the conditions with regard to my participation in this survey that include my compensation, my freedom of rejection, and my rights as a participant. Therefore, I hereby allow the research team to freely use all of the information I provide in this survey.

Signature _____

Date _____

Survey on Language Usage of Korean-Americans

			Survey No. :
Date	2014. . .	Surveyor	
Region		Location	
Language in use			

A. Basic Information

A0. Age : ① 10s ② 20s ③ 30s ④ 40s ⑤ 50s ⑥ 60s ⑦ 70s or above

A1. Gender : ① Male ② Female

A2. Current place of residence: (State)_____

(City)_____

A3. Birthplace (Country)_____ (City)_____

A4. Birthplace of your parents

Father : (Country)_____ (City)_____

Mother : (Country)_____ (City)_____

A5. (If married,) which ethnic group does your spouse belong to?

- ① Korean (including Korean-Korean and Korean-American)
- ② Non-Korean (all other ethnic groups)
- ③ No spouse

A6. What is your current nationality?

- ① Korean national
- ② U.S. Citizen
- ③ U.S. permanent residentship holder
- ④ Dual nationality (Korea and U.S.)
- ⑤ Others (_____)

A7. At what age did you immigrate to U.S.? Or were you born in U.S.?

① Born in U.S.

② Immigrated to U.S. : in year (____), at age of (____)
(e.g.) in year (1992), at age of (37)

A8. How long have you resided in U.S.? (____ years)

A9. What is your current occupation? (If you are a retiree, you may choose one of your past occupations which is **most** significant.)

(e.g. housewife, student, self-employee, sales person, etc.)

(_____)

A10. Mark ☒ under the country name where you attended the following schools **respectively**. (multiple answers allowed)

School	Korea	U.S.	Others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 College			
Graduate School			
No Schooling			

B. Attitude and Awareness about Korean Language

B0. Do you think Korean-Americans should have good competence in Korean?

-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B1. Do you think Korean-Americans should have good competence in English?

-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B2. Do you think Korean-Americans should use Korean in communication among themselves?

-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B3. What is your mother tongue (the first language you learned)?

- ① Korean ② English ③ Others

B4. Mark ☒ in the appropriate column to the following questions.

Questions	Korean	English
(1) Which language do you speak better?		
(2) Which language do you use more in daily communication?		
(3) Which language does your family prefer in family conversation?		
(4) Which language do you feel more comfortable in listening?		
(5) Which language do you think you should speak better?		
(6) In the future, which language do you think will be more commonly used in the Korean community of your location?		

B5.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to Korean language among Korean-Americans in the future?

- ① It will be used by less people and eventually not used at all.
- ② It will be used by more people.
- ③ It will be used differently from Korean language used in Korea.
- ④ It will be used the same as it is used now.
- ⑤ Not sure

B6. As shown in the example below, indicate your perception about Korean language and English by selecting an appropriate number between each pair of descriptions.

<Example>		
Unrefined (unsophisticated)	<-1---2---3---4---5—V---7->	Sophisticated and elegant

B6-1. [Perception of Korean language]

- (1) Unrefined(unsophisticated) <-1---2---3---4---5---6---7-> Sophisticated and elegant
- (2) Sly and crafty <-1---2---3---4---5---6---7-> Serious and sincere
- (3) Shallow <-1---2---3---4---5---6---7-> Respectable and trustworthy
- (4) Blunt and hardhearted <-1---2---3---4---5---6---7-> Gentle and warmhearted
- (5) Ignorant <-1---2---3---4---5---6---7-> Knowledgable
- (6) Dull <-1---2---3---4---5---6---7-> Energetic

B6-2. [Perception of English]

- (1) Unrefined(unsophisticated) <-1---2---3---4---5---6---7-> Sophisticated and elegant
- (2) Sly and crafty <-1---2---3---4---5---6---7-> Serious and sincere
- (3) Shallow <-1---2---3---4---5---6---7-> Respectable and trustworthy
- (4) Blunt and hardhearted <-1---2---3---4---5---6---7-> Gentle and warmhearted
- (5) Ignorant <-1---2---3---4---5---6---7-> Knowledgable
- (6) Dull <-1---2---3---4---5---6---7-> Energetic

B7. Mark ☒ in the column which describes your views on the questions below.

B7-1. [Korean-oriented inclination]

Ques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think Korean competence will benefit my career.	①	②	③	④	⑤
(2) I like listening to Korean pop songs.	①	②	③	④	⑤
(3) I like watching Korean movies and dramas.	①	②	③	④	⑤
(4) I am proud of my Korean background.	①	②	③	④	⑤
(5) I feel offended if someone looks down on Koreans.	①	②	③	④	⑤
(6) I keep Korean traditional culture.	①	②	③	④	⑤
(7) I like being called by my Korean name.	①	②	③	④	⑤
(8) I like Korean food.	①	②	③	④	⑤
(9) I get along well with other Koreans (Korean-Americans).	①	②	③	④	⑤
(10) I think Koreans should live among other Koreans.	①	②	③	④	⑤

B7-2. [American-oriented inclination]

Ques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think English competence will benefit my career.	①	②	③	④	⑤
(2) I like listening to American pop songs.	①	②	③	④	⑤
(3) I like watching American movies and dramas.	①	②	③	④	⑤
(4) I am proud of American culture.	①	②	③	④	⑤
(5) I feel offended if someone looks down on Americans.	①	②	③	④	⑤
(6) I keep most of American traditional culture.	①	②	③	④	⑤
(7) I think a Korean-American should also have an American-style name.	①	②	③	④	⑤
(8) I like American food.	①	②	③	④	⑤
(9) I get along well with non-Koreans.	①	②	③	④	⑤
(10) I think a person should live in a community with various ethnicities.	①	②	③	④	⑤

C. Four Functional Skills of Language

<About your Korean language competence>

C0. How well do you **speak** Korean?

- ① Very poor ② Poor ③ Average ④ Good ⑤ Very good

C0-1. Mark ☒ in the appropriate column.

Ques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n Korean, I can carry on a basic conversation such as introducing myself and buying goods.	①	②	③	④	⑤
(2) In Korean, I can carry on a simple conversation about familiar content such as my work and hobbies.	①	②	③	④	⑤
(3) In Korean, I can explain or report about unfamiliar content such as social issues.	①	②	③	④	⑤
(4) In Korean, I can carry on a more sophisticated conversation such as a speech, discussion or interpretation about professional content.	①	②	③	④	⑤

C1. How is your Korean **listening** comprehension?

- ① Very poor ② Poor ③ Average ④ Good ⑤ Very good

C1-1. Mark ☒ in the appropriate column.

Ques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n Korean, I can listen to and understand a standardized simple sentence such as greetings.	①	②	③	④	⑤
(2) In Korean, I can listen to and understand advertisements, weather forecasts or conversations with my family and friends.	①	②	③	④	⑤
(3) In Korean, I can listen to and	①	②	③	④	⑤

understand most TV reports.					
(4) In Korean, I can listen to and understand a speech or discussion about professional content.	①	②	③	④	⑤

C2. How well do you **read** Korean?

① Very poor ② Poor ③ Average ④ Good ⑤ Very good

C2-1. Mark ☒ in the appropriate column.

Ques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n Korean, I can read and understand signboards or simple advertisements.	①	②	③	④	⑤
(2) In Korean, I can read and understand letters or product manuals.	①	②	③	④	⑤
(3) In Korean, I can read and understand articles in magazines, newspapers or so.	①	②	③	④	⑤
(4) In Korean, I can read and understand professional books or literature.	①	②	③	④	⑤

C3. How well do you **write** Korean?

① Very poor ② Poor ③ Average ④ Good ⑤ Very good

C3-1. Mark ☒ in the column which is **most** appropriate.

Ques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n Korean, I can write the name of a person or an object.	①	②	③	④	⑤
(2) In Korean, I can write a simple letter, a journal entry, or an instruction notice.	①	②	③	④	⑤
(3) In Korean, I can write an article on a specific topic in a certain area.	①	②	③	④	⑤
(4) In Korean, I can write a report on a professional area.	①	②	③	④	⑤

<About your English competence>

C4. How well do you speak English?

- ① Very poor ② Poor ③ Average ④ Good ⑤ Very good

C4-1. Mark ☒ in the appropriate column.

Ques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n English, I can carry on a basic conversation such as introducing myself and buying things.	①	②	③	④	⑤
(2) In English, I can carry on a simple conversation about familiar content such as my work and hobbies.	①	②	③	④	⑤
(3) In English, I can explain or report about unfamiliar content such as social issues.	①	②	③	④	⑤
(4) In English, I can carry on a more sophisticated conversation such as a speech, discussion or interpretation about professional contents.	①	②	③	④	⑤

C5. How is your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 ① Very poor ② Poor ③ Average ④ Good ⑤ Very good

C5-1. Mark ☒ in the appropriate column.

Ques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n English, I can listen to and understand a standardized simple sentence such as greetings.	①	②	③	④	⑤
(2) In English, I can listen to and understand advertisements, weather forecasts or conversations with my family and friends.	①	②	③	④	⑤
(3) In English, I can listen to and understand most TV reports.	①	②	③	④	⑤

(4) In English, I can listen to and understand a speech or discussion about professional contents.	①	②	③	④	⑤
--	---	---	---	---	---

C6. How well do you read English?

① Very poor ② Poor ③ Average ④ Good ⑤ Very good

C6-1. Mark ☒ in the appropriate column.

Ques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n English, I can read and understand signboards or simple advertisements.	①	②	③	④	⑤
(2) In English, I can read and understand letters or product manuals.	①	②	③	④	⑤
(3) In English, I can read and understand articles in magazines, newspapers or so.	①	②	③	④	⑤
(4) In English, I can read and understand professional books or literatures.	①	②	③	④	⑤

C7. How well do you write English?

① Very poor ② Poor ③ Average ④ Good ⑤ Very good

C7-1. Mark ☒ in the appropriate column.

Ques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n English, I can write the name of a person or an object.	①	②	③	④	⑤
(2) In English, I can write a simple letter, a journal entry, or an instruction notice.	①	②	③	④	⑤
(3) In English, I can write an article on a specific topic in a certain area.	①	②	③	④	⑤
(4) In English, I can write a report on a professional area.	①	②	③	④	⑤

D. Language Environments and Language Selection

D0. Between Koreans and non-Koreans, which group of people do you associate with more often?

	Mainly with Koreans	More with Koreans but at times with non-Koreans	Neutral	More with non-Koreans but at times with Koreans	Mainly with non-Koreans	N/A
(1) When working						
(2) When socializing						
(3) When attending religious activities						

D1. Have you ever visited Korea?

- ① Yes ② No

D1-1. If yes, indicate the number of your visits and the length of stay in last 5 years.

Visits (_____ times) Total length of stay (_____ years _____ months)

D2. Approximately how many hours a day do you watch Korean TV programs?

- ① None ② Less than 1 hour ③ 1-2 hours
④ 2-3 hours ⑤ More than 3 hours

D2-1. What is your **most favorite** among Korean TV programs?

- ① Drama ② Entertainment ③ News
④ Sports ⑤ Educational ⑥ Others(_____)

D3. Between Korean and English, which language do you mostly use when you talk to family members? Mark ☒ in the appropriate column.

Question	Mostly in Korean	More in Korean	Neutral	More in English	Mostly in English	N/A
(1) To elders such as parents or grandparents						
(2) To the same generation group such as brothers, sisters, or cousins						
(3) To a younger generation group such as children or grand children						
(4) To your non-Korean spouse, son-in-law or daughter-in-law						

D4. Between Korean and English, which language do your family members mostly use when they talk to you? Mark ☒ in the appropriate column.

Question	Mostly in Korean	More in Korean	Neutral	More in English	Mostly in English	N/A
(1) Elders such as parents or grandparents to me						
(2) Same generation group such as brothers, sisters or cousins to me						
(3) Younger generation group such as children or grand children to me						
(4) My non-Korean spouse, son-in-law or daughter-in-law to me						

D5. Between Korean and English, which language do you mostly use in the following situations? Mark ☒ in the appropriate column.

Question	Mostly in Korean	More in Korean	Neutral	More in English	Mostly in English	N/A
(1) In an official meeting with other Korean-Americans						
(2) In a casual gathering with other Korean-Americans						
(3) In a meeting with both Korean-Americans and non Korean-Americans						
(4) In a casual conversation with Korean-Americans in the presence of non Korean-Americans						
(5) If you have a religion, in religious activities						

D6. In the following situations, which language do you mostly use? Mark ☒ in the appropriate column.

Question	Mostly in Korean	More in Korean	Neutral	More in English	Mostly in English	N/A
(1) When counting or calculating						
(2) When praying or making a wish						
(3) When angry or arguing with another Korean-American						
(4) When thinking						

D7. Please write any Korean expressions that are used differently from when used in Korea, or expressions that are used only 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he answers can be a word, a phrase or

* Answer here

E. Language Acquisition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 Question about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children]

E0. If there is a school teaching Korean in your location, would you send your children (or grandchildren) to that school?

- ① Yes (continue to **E0-1**) ② No (skip to **E0-2**)

E0-1. If you think you would send your children (or grandchildren) to the school teaching Korean, what is the reason? Select all choices applicable.

- ① Because a Korean should speak Korean well
- ② Because adequate competence in Korean will help their career opportunities in Korea.
- ③ Because adequate competence in Korean will help their career opportunities in the U.S.
- ④ Because adequate competence in Korean will help family communication
- ⑤ Because adequate competence in Korean will help their social activities or daily life
- ⑥ Others (_____)

E0-2. If you don't think you need to send your children (or grandchildren) to the school teaching Korean, what is the reason? Select all choices applicable.

- ① Because they can learn Korean at home
- ② Because adequate competence in English will help their career opportunities in Korea.
- ③ Because adequate competence in English will help their career opportunities in the U.S.
- ④ Because adequate competence in English will help their social activities or daily life
- ⑤ Because there is no school teaching Korean near my location
- ⑥ Others (_____)

[※ Question about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U.S.]

E1. Have you ever learned Korean officially in the U.S.? (e.g. school, language institute)

- ① Yes
- ② No
- ③ No need to learn Korean more because I have already learned it in Korea

E3. The followings questions are only for those who officially learned Korean in the U.S.

E3-1. Where did you learn Korean? Select all choices applicable.

- ① Home
- ② Korean culture & language school ('han-geul-hak-gyo')
- ③ Korean language institute in Korea
- ④ Korean language institute in the U.S.
- ⑤ Elementary school in the U.S.
- ⑥ Secondary school in the U.S.
- ⑦ Korean class at a college/university in the U.S.
- ⑧ Others (_____)

E3-2. How long did you use Korean after learning it?

- ① Less than 2 years
- ② 2~4 years
- ③ 4~6 years
- ④ 6~8 years
- ⑤ 8~10 years
- ⑥ More than 10 years

E3-3. Why did you learn Korean? Select all choices applicable.

- ① I learned it naturally because my family speaks Korean.
- ② I thought it was obligatory to learn Korean as a Korean.
- ③ My work or study requires it.
- ④ It is beneficial for my employment or admission to higher schools.
- ⑤ I learned it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 ⑥ I learned it at college/university as a foreign language.
- ⑦ I learned it because I plan to live in Korea in the future.
- ⑧ I learned it because I need it for communication with my family and relatives.
- ⑨ Others (_____)

E3-4. While learning Korean, what were the difficulties? Select all choices applicable.

- ① Difficulty of commuting ② Lack of educational facilities
- ③ High tuition ④ Low quality of content
- ⑤ Poor teaching skills ⑥ Negative views of people around me
- ⑦ No difficulty
- ⑧ Others (_____)

E3-5. How satisfied were you with your Korean classes?

- ① Very satisfied ② Satisfied
- ③ Average ④ Disappointed
- ⑤ Very disappointed

E3-6. In your opinion, what needs to be most improved?

- ① Textbook or workbook
- ② Dictionary
- ③ Equipment for audio-visual education
- ④ Professional teaching staff
- ⑤ Materials for culture education
- ⑥ Others (_____)

E4. The followings questions are only for those who have never officially learned Korean in the U.S.

E4-1. If you have never learned Korean, what are the reasons? Select all choices applicable.

- ① Because my family doesn't speak Korean.
- ② Though my family can speak Korean, there was no problem communicating without Korean.
- ③ Because I don't think I need to learn Korean
- ④ There was no school or facility teaching Korean around my location
- ⑤ Because Korean was too difficult to learn
- ⑥ Because I have no plans to live in Korea
- ⑦ To speak English better
- ⑧ Because my Korean is already good enough
- ⑨ Others (_____)

E5. The following questions are both for those who have learned and have not learned Korean officially in the U.S.

E5-1. Do you want to learn Korean in the future?

- ① Yes (answer to E5-2,3) ② No (answer to E5-4)
- ③ Not sure (answer to E5-2,3,4)

E5-2. If you want to learn Korean in the future, what are the reasons? Select all choices applicable.

- ① For my employment or admission to higher schools
- ② To have access to the latest Korean news
- ③ Because my current job or study requires it
- ④ Because I am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 ⑤ To acquire one more foreign language
- ⑥ Because I have plans to live in Korea in the future
- ⑦ For better communication with my family or relatives
- ⑧ Because I think it is obligatory to learn Korean as a Korean
- ⑨ Others (_____)

E5-3. If you learn Korean in the future, what level do you want to reach?

- ① Basic level such as self-introduction, asking for directions, or shopping
- ② Conversation level such as talking with others on casual topics
- ③ Intermediate level such as discussing the content after listening to TV news or reading a newspaper
- ④ Advanced level such as discussing the content after reading books or literature in professional areas
- ⑤ Others (_____)

E5-4. If you do not want to learn Korean in the future, what is the reason?

Select all choices applicable.

- ① Because there is no problem living in the U.S. without Korean
- ② Because adequate competence in English is enough to succeed in my career in the U.S.
- ③ Because adequate competence in English will help my employment or admission to higher schools.
- ④ Because Korean is difficult to learn
- ⑤ Because my Korean is already good enough
- ⑥ Others (_____)

< This is the end of the survey. Thank you very much.>

<부록 3> 설문지 문항 비교

재중 동포 설문지	독립국가연합 설문지	재미 동포 설문지
-----------	------------	-----------

1. 기본 정보

100. 올해 나이 ____세 ____년생(띠)	102. 생년월일	A0. 나이 10~70대
	103. 나이	
101. 성별	101. 성별	A1. 성별
103. 현재 거주지	105. 현재 거주지	A2. 현재 거주지
102. 출생지	104. 출생지	A3. 출생지
1. 부모님 출생지	111. 부 출생지	A4. 부모님 출생지 (배우자 -)
	113. 모 출생지	
	115. 배우자 출생지(+)	
105. 부모님과 배우자 민족 (조부모님, 부모님, 배우자)	109. 조부 민족 (-)	A5. 배우자의 민족 (조부모님, 부모님 -)
	110. 조모 민족 (-)	
	112. 부 민족 (-)	
	114. 모 민족 (-)	
	116. 배우자 민족	
	119. 국적	A6. 현재 국적
104. 현재 거주지로 이주한 시기	106. 이주 나이	A7. 미국 출생, 미국으로 이주한 나이
104-1 이주했다면 어디에서 이주?		
106. 조선에서 이주한 몇 세대? 1~4세대, 기타	107. 세대	(-)
	108. 이주 경로 (+)	(-)
		A8. 거주 기간 (+)

107. 직업	117. 직업	A9. 직업
108.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와 학교의 종류 선택	118. 학력	A10. 학교
110. 조선족과 한족 중 주로 어떤 사람과 교류합니까?		(-)
	121. 사용 가능 언어 (+)	(-)

2. 한국어에 대한 태도 및 이해도

200. 조선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	200. 고려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	B0.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
201. 중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	201. 러시아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	B1.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
		B2. 한국인들끼리 한국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
202. 모어(제1언어)?	202. 모어(제1언어)?	B3. 모어(언어)
203. 질문에 따라 순위 쓰기 1. 조선말, 한국말, 한족말 중 잘하는 말 순위 표시 2. 보통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순위표시 3. 가족끼리 말할 때 쓰는 말 순위표시 4. 제일 듣기 좋은 말 순위표시 5.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 순위표시 6. 자녀, 손자손녀가 앞으로 사용할 것 같은 말 순위(-)	203. 질문에 따라 순위 쓰기 1. 고려말, 한국어, 러시아어, 지역어 중 잘하는 말 2. 보통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순위표시 3. 가족끼리 말할 때 쓰는 말 순위표시 4. 제일 듣기 좋은 말 순위표시 5.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 순위표시 6. 자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말(-) 7. 고려인 사회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은 말	B4. 해당 질문에 체크 1. 더 잘하는 언어 2.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 3. 가족 간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 4. 듣기에 편한 언어 5.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 6. 한인 사회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은 언어

7. 조선족 사회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은 말 순위	순위	
204. 중국에서 조선말의 장래에 대한 생각(5)	204. 자국에서 고선말의 장래에 대한 생각(5)	B5. 재미 동포들 사이에서의 한국어의 장래(5)
205. 한국말에 대한 느낌 1. 긍정적인 느낌 하나 선택 ①세련되고 우아하다 ②상냥하고 애교있다 ③점잖고 믿음직스럽다 ④ 부드럽고 정감있다 ⑤유식해 보인다 ⑥썩썩하다 2. 부정적 느낌 하나 ①시골티(촌티)가 난다 ②간사해 보인다 ③가벼워 보인다 ④무뚝뚝하가 정이 없다 ⑤무식해 보인다 ⑥힘이 없어 보인다	205. 한국어에 대한 느낌 1. 긍정적인 느낌 두개 선택 ①세련됐다 ②애교 있다 ③점잖다 ④ 부드럽다 ⑤유식해 보인다 ⑥촌티가 난다. ⑦간사해 보인다 ⑧가벼워 보인다 ⑨무뚝뚝하다 ⑩무식해보인다 ⑪기타 ⑫ 없다	B6.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느낌(7점 척도) 1. 한국어에 대한 느낌 ①촌티가 난다 - 세련되고 우아하다 ②간사해 보인다 - 진지해 보인다 ③가벼워 보인다 - 점잖고 믿음직스럽다 ④무뚝뚝하고 정이 없다 - 부드럽고 정감이 있다 ⑤무식해 보인다 - 유식해 보인다 ⑥힘이 없어 보인다 - 썩썩하다 2. 영어에 대한 느낌 ①촌티가 난다 - 세련되고 우아하다 ②간사해 보인다 - 진지해 보인다 ③가벼워 보인다 - 점잖고 믿음직스럽다 ④무뚝뚝하고 정이 없다 - 부드럽고 정감이 있다 ⑤무식해 보인다 - 유식해 보인다 ⑥힘이 없어 보인다 - 썩썩하다

	<p>603. 민족정체성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생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2.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 3. 한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사회단체에 활발히 참여 4. 나의 한민족 역사에 대해 잘 안다 5. 한민족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6. 다른 사람들에게 한반도와 한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 7. 고려인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 계승해야 한다 	<p>B7. 한국적 성향, 미국적 성향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적 성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한국어를 아는 것이 사회적 성공에 도움이 된다 ②한국 음악을 즐겨 듣는다 ③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즐겨 본다 ④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롭다 ⑤한국인을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다 ⑥한국 전통 문화를 지킨다 ⑦한국 이름으로 불리는 게 좋다 ⑧한국 음식이 좋다 ⑨다른 한국인들과 잘 어울린다 ⑩한국인들은 한국인과 살아야 한다 2. 미국적 성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영어를 아는 것이 사회적 성공에 도움이 된다 ②미국 음악을 즐겨 듣는다 ③미국 영화와 드라마를 즐겨 본다 ④미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⑤미국인을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다 ⑥미국 전통 문화 대부분을 지킨다 ⑦미국에 사는 한국인은 미국 이름도 있어
	<p>604. 국민정체성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생각(러시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2. 소수민족은 자국의 국민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다 3. 자국에는 모든 민족성을 아우르는 공통의 국문정체성과 국민문화가 있다 4. 자국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 	

	<p>5. 외국과 전쟁이 나면 자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p> <p>6.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잘 안다</p> <p>7. 자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낌</p> <p>8. 다른 사람들에게 자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함</p> <p>9.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국어를 배우고 사용해야 한다</p>	<p>야 한다</p> <p>⑧미국 음식이 좋다</p> <p>⑨한국계가 아닌 미국인과 잘 어울린다</p> <p>⑩다양한 민족적 커뮤니티 속에 살아야 한다</p>
<p>206. 한국말을 이해하는 정도</p> <p>206-1. 말만 듣고도 조선족인지 한국인인지 구별? (5)</p> <p>206-2.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나?</p> <p>206-3. 한국 TV에서 하는 영화, 보도를 보고 알아듣나?</p>	<p>312. 한국어를 이해하는 정도를 1~5 숫자로 써주세요.</p> <p>1. 말만 듣고도 한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 가능</p> <p>2.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다.</p> <p>3. 한국 TV를 보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는다.</p>	(-)
<p>207. 한국 말투에 대한 생각</p> <p>207-1. 한국 말투(말본새)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나?(5)</p> <p>207-2. 배우고 싶은 사람은 한국말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쓰세요.</p> <p>207-3.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데 가장 불편한 점?</p>	<p>206. 한국 말투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나?(5)</p>	(-)

3. 언어 기능 능력

3. 한국어의 네 기능 능력	3. 고려말, 사할린 한국어의 네 기능 능력	C. 네 가지 언어 기능 능력
	300. 고려말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5) 1. 소개, 물건 살 때 기초적인 대화 2. 직업,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대화 3. 친숙하지 않은 내용 설명, 보고 4. 연설,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	
	301. 고려말 듣기(5) 1. 간단한 인사말, 간단한 문장 2. 가족이나 친구 간에 이야기하는 실용적 담화 3. TV에서 하는 뉴스 4. 전문적인 내용 연설, 토론 등	
	302. 고려말 읽기(5) 1. 간판, 간단한 광고문 2. 편지, 설명서 3. 잡지, 신문 등 평이한 기사 4. 전문 분야의 서적, 문학 작품	
	303. 고려말 쓰기 1. 사람 이름, 사물 이름	

	2. 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3. 특정 분야의 주제 4. 전문 분야의 보고서	
300. 한국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5) 1. 소개, 물건 살 때 기초적인 대화 2. 직업,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대화 3. 친숙하지 않은 내용 설명, 보고 4. 연설,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	304. 한국어 말하기 능력 1. 소개, 인사, 물건 살 때 기초적인 대화 2. 직업, 취미 등 친숙한 내용 간단히 대화 3. 친숙하지 않은 내용 설명, 보고 4. 연설, 토론, 통역 전문적인 내용	C0. 한국어 말하기 능력 1. 소개, 물건 살 때 기초적인 대화 2. 직업,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대화 3. 친숙하지 않은 내용 설명, 보고 4. 연설,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
301. 한국말 듣기(5) 1. 간단한 인사말, 간단한 문장 2. 가족이나 친구 간에 이야기하는 실용적 담화 3. TV에서 하는 뉴스 4. 전문적인 내용 연설, 토론 등	305. 한국어 듣기 이해 1. 인사말,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 2. 광고, 일기예보, 실용적 담화 3. TV에서 하는 보도 이해 4. 전문적인 내용 연설, 토론	C1. 한국어 듣기(5) 1. 간단한 인사말, 간단한 문장 2. 가족이나 친구 간에 이야기하는 실용적 담화 3. TV에서 하는 뉴스 4. 전문적인 내용 연설, 토론 등
302. 한국말 읽기(5) 1. 간판, 간단한 광고문 2. 편지, 설명서 3. 잡지, 신문 등 평이한 기사 4. 전문 분야의 서적, 문학 작품	306. 한국어 읽기 1. 간판, 간단한 광고문 2. 편지나 설명서 3. 잡지나 신문 등 평이한 기사 4. 전문 분야의 서적, 문학 작품	C2. 한국말 읽기(5) 1. 간판, 간단한 광고문 2. 편지, 설명서 3. 잡지, 신문 등 평이한 기사 4. 전문 분야의 서적, 문학 작품

304. 한국말 쓰기 1. 사람 이름, 사물 이름 2. 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3. 특정 분야의 주제 4. 전문 분야의 보고서	307. 한국어 쓰기 1. 사람 이름, 사물 이름 2. 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3. 특정 분야의 주제 4. 전문 분야의 보고서	C3. 한국말 쓰기 1. 사람 이름, 사물 이름 2. 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3. 특정 분야의 주제 4. 전문 분야의 보고서
	308. 사할린 한국어 말하기 능력 1. 소개, 인사, 물건 살 때 기초적인 대화 2. 직업, 취미 등 친숙한 내용 간단히 대화 3. 친숙하지 않은 내용 설명, 보고 4. 연설, 토론, 통역 전문적인 내용	
	309. 사할린 한국어 듣기 이해 1. 인사말,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 2. 가족, 친구 간의 실용적 대화 3. TV에서 하는 보도 이해 4. 전문적인 내용 연설, 토론	
	310. 사할린 한국어 읽기 1. 간판, 간단한 광고문 2. 편지나 설명서 3. 잡지나 신문 등 평이한 기사 4. 전문 분야의 서적, 문학 작품	

	311. 사할린 한국어 쓰기 1. 사람 이름, 사물 이름 2. 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3. 특정 분야의 주제 4. 전문 분야의 보고서	
--	---	--

4. 거주국 국어 네 기능 능력	4. 거주국 국어 네 기능 능력 (러시아/우즈벡/카자흐 어)	C4. 영어 말하기 능력
400. 한쪽말 말하기 능력 1. 소개, 인사, 물건 살 때 기초적인 대화 2. 직업, 취미 등 친숙한 내용 간단히 대화 3. 친숙하지 않은 내용 설명, 보고 4. 연설, 토론, 통역 전문적인 내용	400. 러시아어 말하기 능력 1. 소개, 인사, 물건 살 때 기초적인 대화 2. 직업, 취미 등 친숙한 내용 간단히 대화 3. 친숙하지 않은 내용 설명, 보고 4. 연설, 토론, 통역 전문적인 내용	C4. 영어 말하기 능력 1. 소개, 인사, 물건 살 때 기초적인 대화 2. 직업, 취미 등 친숙한 내용 간단히 대화 3. 친숙하지 않은 내용 설명, 보고 4. 연설, 토론, 통역 전문적인 내용
401. 한쪽말 듣기 이해 1. 인사말,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 2. 광고, 일기예보, 실용적 담화 3. TV에서 하는 보도 이해 4. 전문적인 내용 연설, 토론	401. 러시아어 듣기 이해 1. 인사말,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 2. 광고, 일기예보, 실용적 담화 3. TV에서 하는 보도 이해 4. 전문적인 내용 연설, 토론	C5. 영어 듣기 이해 1. 인사말,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 2. 광고, 일기예보, 실용적 담화 3. TV에서 하는 보도 이해 4. 전문적인 내용 연설, 토론
402. 한쪽말 읽기 1. 간판, 간단한 광고문 2. 편지나 설명서 3. 잡지나 신문 등 평이한 기사 4. 전문 분야의 서적, 문학 작품	402. 러시아어 읽기 1. 간판, 간단한 광고문 2. 편지나 설명서 3. 잡지나 신문 등 평이한 기사 4. 전문 분야의 서적, 문학 작품	C6. 영어 읽기 1. 간판, 간단한 광고문 2. 편지나 설명서 3. 잡지나 신문 등 평이한 기사 4. 전문 분야의 서적, 문학 작품
403. 한쪽말 쓰기 1. 사람 이름, 사물 이름 2. 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3. 특정 분야의 주제 4. 전문 분야의 보고서	403. 러시아어 쓰기 1. 사람 이름, 사물 이름 2. 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3. 특정 분야의 주제 4. 전문 분야의 보고서	C7. 영어 쓰기 5. 사람 이름, 사물 이름 6. 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7. 특정 분야의 주제 8. 전문 분야의 보고서

5. 대화 상대와 장면에 따른 언어 선택

		D0. 다음의 상황에서 주로 어떤 사람과 교류 (+) 1. 직업적으로 일 할 때 (+) 2. 사교적으로 교류할 때 (+) 3. 종교적으로 교류할 때 (+)
109. 한국에 가 본 횡수와 체류기간	800. 한국 방문 경험	D1. 한국에 방문한 경험 1. 횡수, 총 체류 기간
111. 한국 TV 시청 시간	801. 한국 뉴스를 얼마나 듣나? 1. 주로 무엇을, 누구를 통해 듣나?	D2. 한국 방송 시청 시간 1.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
112. 한국 TV 시청 프로그램	802.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를 시청 하나? 1.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에 대한 느낌	
500. 가족과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선택 1.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어른들 2. 형제, 자매 등 동기나 같은 항렬 3. 자녀, 손자나 소녀 등 손아래 사람 4. 조선족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 사람	500. 가족과 이야기 할 때 많이 쓰는 언어 순위 표시 1. 어른들에게(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2. 형제, 자매 등 3. 손아래 사람(자녀, 손자, 손녀) 4. 고려인이 아닌 배우자, 사위, 며느리	D3. 가족과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선택 1.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 2. 형제, 자매 등 동기나 같은 항렬 3. 자녀, 손자나 소녀 등 손아래 사람 4.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 사람

<p>501. 가족이 귀화와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어른이 나한테 2. 형제, 자매 등 동기나 같은 항렬 3. 자녀, 손자, 손녀 등 손아래 사람 4. 조선족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p>501. 가족이 귀화와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언어 순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른들이(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2. 형제, 자매 등 3. 손아래 사람(자녀, 손자, 손녀) 4. 고려인이 아닌 배우자, 사위, 며느리 	<p>D4. 가족이 당신과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어른이 나한테 2. 형제, 자매 등 동기나 같은 항렬 3. 자녀, 손자, 손녀 등 손아래 사람 4.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p>502. 조선말을 아는 조선족 동포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족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할 때 2. 운동실에서 조선족과 놀면서 이야기할 때 3. 한족과 조선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 4. 한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선족과 일상 이야기 	<p>502. 고려말을 아는 고려인 동포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려인과 놀면서 이야기 2. 고려인들의 공식적인 모임 3. 자국민과 고려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일상 이야기 4. 자국민과 고려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 	<p>D5. 다음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인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할 때 2.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한인과 사교적 이야기 3. 미국인과 한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할 때 4. 미국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인과 일상 이야기 5. 종교 활동을 할 때 (+)
<p>503. 다음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2.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p>503. 다음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2.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p>D6. 다음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2.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3. 화가 났을 때나 조선족과 말싸움을 할 때	3. 화가 났을 때	3. 화가 났을 때나 한국인과 말싸움을 할 때 4.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
		D7. 미국 한인 사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한국어 표현
	6. 민족 정체성과 국민 정체성	B7 해당 질문
	600. 고려인 이주의 역사에 대해 아는가? (+)	(-)
	601.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가? (+)	(-)
	602. 집안에 남아 있는 한민족의 문화 쓰기 (+)	(-)
	603. 민족정체성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생각 8.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9.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려고 노력 10. 한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사회단체에 활발히 참여 11. 나의 한민족 역사에 대해 잘 안다 12. 한민족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B7 해당 질문

	13. 다른 사람들에게 한반도와 한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 14. 고려인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 계승해야 한다	
	604. 국민정체성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생각(러시아) 10. 자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11. 소수민족은 자국의 국민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다 12. 자국에는 모든 민족성을 아우르는 공통의 국민정체성과 국민문화가 있다 13. 자국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려고 노력 14. 외국과 전쟁이 나면 자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 15.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잘 안다 16. 자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낌 17. 다른 사람들에게 자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함 18.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국어를 배우고 사용해야 한다	B7 해당 질문

	7. 한국에 대한 태도	(-)
	700. 다음 사항에 대한 생각 (5점 척도) 1. 한국 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다 2. 향후 2-3년 내에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 3.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할 계획이 있다 4.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5. 한국에 있는 내 나이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싶다 6. 배우자로 한국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7. 한국과 관련된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다 8. 부모님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9. 부모님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10.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유리	(-)
	701. 한국이 어떤 나라라고 느낍니까?(5점 척도) 1. 좋다 - 나쁘다	(-)

	2. 능력이 있다 - 능력이 없다 3. 활동적이다 - 비활동적이다 4. 친근하다 - 친근하지 않다	
	702.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니까?(5점 척도) 1. 좋다 - 나쁘다 2. 능력이 있다 - 능력이 없다 3. 활동적이다 - 비활동적이다 4. 친근하다 - 친근하지 않다	
	8. 한국과의 관계	(-)
	800. 한국 방문 경험	D1 해당 질문
	801. 한국 뉴스를 얼마나 듣나? 2. 주로 무엇을, 누구를 통해 듣나?	D2 해당 질문
	802.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를 시청하나? 2.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에 대한 느낌	D2 해당 질문

6. 언어 습득과 한국어 교육

6. 언어 습득과 한국어 교육	9. 언어 습득과 한국어 교육	E. 언어 습득과 한국어 교육
<p>601. 만일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낸다면?</p> <p>①조선족 유치원/학교 ②한족 유치원/학교</p> <p>③한국 유치원/학교 ④기타</p> <p>1. 자녀를 조선족 유치원이나 조선족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6)</p> <p>2. 자녀를 한족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6)</p>	<p>903. 만일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낸다면 어디로?</p> <p>1. 자녀를 고려인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6)</p> <p>2. 자녀를 우즈베크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6)</p> <p>3. 자녀를 한국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6)</p> <p>900. 고려말을 배운적이 있습니까?</p> <p>①있다 ②없다(900-1번으로)</p> <p>1. 고려말을 배운 장소. 모두 고르기</p> <p>①집 ②유치원 ③학교 ④학원, 개인교사</p> <p>⑤교회 ⑥기타</p> <p>2. 고려말을 학습한 기간</p> <p>①3개월- ②6개월- ③1년- ④2~4 ⑤5~9 ⑥10+</p>	<p>E0. 자녀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보내나? ①보낸다 ②안 보낸다 (E0-2번으로)</p> <p>1. 자녀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6), 모두 고르기</p> <p>2. 자녀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 (1~6), 모두 고르기</p>

	3. 고려말을 배운 이유. 모두 고르기 (1~8) 4. 배울 때 힘들었던 점. 2개 선택 (1~8)	
600. 조선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601번으로) 1. 한국어를 배운 장소. 모두 고르기 ①집 ②유치원 ③학교 ④학원, 개인교사 ⑤교회 ⑥기타 2. 한국어를 배워서 사용한 기간 ①3개월- ②6개월- ③1년- ④2~4 ⑤5~9 ⑥10+ ⑦안 배웠다 602. 조선말을 배우는 이유. 2개 선택 (1~9) 603. 조선말을 배울 때 힘들었던 점. 2개 선택 (1~8)	901. 한국어를 배운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901-1번으로) 1. 한국어를 학습한 기간 ①3개월- ②6개월- ③1년- ④2~4 ⑤5~9 ⑥10+ 2. 한국어를 배운 장소. 모두 고르기 ①중고등 교육 기관 ②대학 ③유학(한국) ④한국어 교육원 ⑤어학당 ⑥학원 ⑦기타 3. 강의 수준은 적당한가? (만족도) (+) 4. 현재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보충되어야 할 것 (+) 902. 한국어를 배우는/배우고 싶은 이유. 2개 선택(1~11)	E1.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E2번으로 이동) ②없다(E4번으로 이동) E2. 한국어를 배운 장소 ①한국 ②미국(E3 번으로) (+) E3. 한국어를 미국에서 배운 적이 있는 사람만 대답 1. 한국어를 배운 장소. 모두 고르기 ①가정 ②한글학교 ③한국 내 한국어교육기관 ④미국 내 한국어교육기관 ⑤미국 내 초등학교 ⑥미국 내 중고등학교 ⑦미국 내 대학교 한국어 강좌 ⑧기타 2. 한국어를 배워서 사용한 기간 ①2년- ②2~4년- ③4~6년- ④6~8- ⑤8~10- ⑥10+

		3. 한국어를 배운 이유. 모두 고르기 (1~9) 4. 한국어를 배울 때 힘들었던 점. 모두 선택(1~8) 5. 한국어 수업 만족도 6. 한국어 수업에서 가장 보충되어야 할 점 (1~6)
	901 5. 한국어 수업시 어떤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이해가 잘 됐는가? (+) 6. 공부에 사용했던/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러시아어로 번역되었는가? (+) 7. 공부에 사용했던/사용하는 사전 유형?? (+)	(-)
601. 만일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낸다면? ①조선족 유치원/학교 ②한족 유치원/학교 ③한국 유치원/학교 ④기타 2. 자녀를 조선족 유치원이나 조선족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	903. 만일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낸다면 어디로? 1. 자녀를 고려인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6) 2. 자녀를 우즈베크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E0 해당 질문

<p>십니까? (1~6)</p> <p>2. 자녀를 한쪽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1~6)</p> <p>조선말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만 응답</p>	<p>(1~6)</p> <p>3. 자녀를 한국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1~6)</p>	
<p>701. 앞으로 조선말을 배울 생각이 있습니까?</p> <p>①있다(701-2로) ② 없다(701-3으로) ③ 모르겠다</p> <p>1. 왜 배울 생각? 이유. 2개 선택 (1~9)</p> <p>2. 왜 배우지 않을 생각? 이유. (1~5)</p> <p>3. 조선말을 배운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1~5)</p>		<p>E4.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응답)</p> <p>1. 배우지 않았다면 그 이유, 모두 고르기 (1~8) (+)</p> <p>2. 앞으로 한국어를 배울 생각이 있습니까?</p> <p>①있다(E3-3, 4번으로) ②없다(E3-5) ③모르겠다</p> <p>3. 왜 배울 생각? 이유. 모두 고르기 (1~9)</p> <p>4. 한국어를 배운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 (1~5)</p> <p>5. 왜 배우지 않을 생각? 이유. 모두 고르기 (1~5)</p>

연구 책임자: 원미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강현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유현경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윤재학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장소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태린 (대구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과 교수)
현지공동연구원: 김지은 (시카고대학교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전임강사)
 이현규 (컬럼비아대학교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전임강사)
 장석배 (조지아공과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 전임강사)
 차지현 (산타모니카대학교 현대언어문화학과 교수)
 Mary Shin Kim (하와이대학교 동양어문학과 교수)
연구 보조원: 강병헌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 과정)
 남신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유소영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윤종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이시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최소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나원경 (남가주대학교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박사 과정)
 박호은 (위스콘신대학교 언어학과 박사 과정)
 어지혜 (에모리대학교 러시아·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강사)
 황지나 (Blue School 강사)
담당 연구원: 김형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발 행 인 민 현 식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 3동 827)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37

인 쇄 일 2014년 12월 19일

발 행 일 2014년 12월 19일